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柳 浚 景 教授 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虛白堂 成俔의 文學 研究

2017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黃 娥 英

虛白堂 成倪의 文學 研究

柳 浚 景 教授 指導

이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 文 學 科

黃 娥 英

認 准 書

黃娥英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16년 10월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虛白堂 成俔은 세종 21년(1439년)에서 연산군 10년(1504)까지 살았던 조선 전기의 인물이다. 성현은 특히 『虛白堂詩集』 · 『虛白堂補集』 · 『虛白堂文集』 · 『慵齋叢話』 · 『風雅錄』 · 『奏議稗說』 · 『錦囊行跡』 · 『浮休子談論』 · 『桑榆備覽』 · 『樂學軌範』 · 『風騷軌範』 등 다양하고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문학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가 활동했던 15세기 중·후반은 서거정, 김종직 등 한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받는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성현 또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일찍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전 연구는 조선 전기의 한문학을 대체로 관료적 문학, 처사적 문학, 방외인 문학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성현은 서거정과 함께 관료적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되었고 그의 문학은 대체로 관각문인의 전형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갈래로 구분하고 평가함으로써 각 문인들의 문학 특징이 단순하게 평가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 동안 관각문학의 대표로 인식되어졌던 성현과 그의 문학을 다시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

성현의 문학은 성종조의 문예정책과 함께 15세기 관각 문인들의 문학적 경향에 큰 영향을 받았다. 성종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강조하고 학문 진흥정책을 펼쳤으며 예악의 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사회 정치적 배경과 함께 가정적 배경도 성현의 문예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바로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두 형인 성임과 성간에게서 수학한 점이 그것이다. 두 형은 뛰어난 문장실력과 넓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성간은 주류에서 벗어난 독특한 면모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또 함께 교유하

있던 서거정, 이승소, 강희맹, 김수은 등의 영향도 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성현에게 그대로 전해져 성현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이루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성현은 당대의 질서를 존중하며 문학적 주류를 따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다. 곧 의고악부집인 『풍아록』과 필기집인 『용재총화』, 우언집인 『부휴자담론』이 그것이다.

성현은 당시 시풍이 율시에 경도되어 수식과 단련에만 힘쓰는 것을 비판하고 격조와 기세를 강조한 고시와 의고악부를 지었다. 모범이 되는 고시를 모아 『풍소계범』을 편찬하고 스스로도 모범을 보이려고 의고악부집인 『풍아록』을 저술하였다. 성현의 『풍아록』 저술은 당대 시풍에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현은 당대의 사회 모습을 기록한 『용재총화』를 저술하였다. 필기류의 전통을 이으면서 그 속에 사대부 사회와 민정 세태, 성현이 가진 당대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었다. 박학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하여 당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어 성현이 살았던 시기와 문화, 제도 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성현이 지은 우언집 『부휴자담론』을 살펴보았다. 성현은 우의의 맥락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아언」, 「우언」, 「보언」에 나타나는 3가지 말하기 방식은 에둘러 말하기 방식이다. 성현은 우의를 통해 자신의 경세관을 표출하고, 이상세계와 현실의 간극을 조율하기도 하며, 현실에 대하여 鑑戒하기도 하였다.

위 세 작품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각 특징을 밝히고, 또 이를 아울러 성현 문학의 문학사적 지평과 위상을 3가지로 살펴보았다. 먼저 『풍아록』과 『부휴자담론』에서 보이는 ‘古’의 의미이다. 성현의 ‘복고’는 단순히 옛 시절의 재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던 옛 시기의 문화를 재생함으로써 당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문화의 폭을 넓혔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성현은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문체를 사용하여 소재와 내용을 확장시켰다. 특히 『용재총화』는 성현의 박학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당대의 이야기와 일상을 수용·발견함으로써 문학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성현 문학에 나타난 寓意의 의미와 한계이다. 성현은 우의를 통하여 자신을 숨기기도 하고 또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 점은 우의의 장점이지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성현의 문학 작품과 그 특징들을 다루면서 성현의 문학사적 위치와 그 문학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는 관각 문인의 위치에서 보수이념을 가진 것은 맞지만,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관리·학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새로운 문학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 과도적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대를 그대로 드러내고 이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고자 하였으며 당대 문학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 점이 성현 문학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論	1
II. 成俔의 文學的 背景과 文藝觀	7
1. 成宗朝의 文藝 傾向	7
2. 成俔의 文藝觀	22
III. 詩風의 多樣性을 위한 實驗的 試圖 - 『風雅錄』	46
1. 當時의 詩風	46
2. 格調와 氣勢를 強調한 擬古樂府	54
3. 『風雅錄』의 作品 世界	66
IV. 時事에 對한 關心과 記錄 - 『慵齋叢話』	85
1. 士大夫 社會의 記錄	94
2. 民情 世態의 記錄	105
3. 當代의 自矜心에 對한 記錄	121
V. 寓意로 그려낸 理想社會 - 『浮休子談論』	132
1. 經世觀의 表出 : 「雅言」	135
2. 現實과 理想의 調律 : 「寓言」	150
3. 當代 現實의 鑑戒 : 「補言」	167

VI. 文學史的 地平과 位相	173
1. 復古를 통한 새로운 追求	173
2. 博學을 통한 다양한 글쓰기	174
3. 寓意的 말하기와 現實 反映의 限界	176
VII. 結論	179

參考文獻

ABSTRACT

表 目 次

<표 1>	『風雅錄』과 『風騷軌範』의 構成	62
<표 2>	『慵齋叢話』의 類型別 分類	93
<표 3>	『慵齋叢話』 卷5에 실린 說話의 內容 分類	105
<표 4>	『慵齋叢話』 內 作詩逸話의 內容 分類	114
<표 5>	『慵齋叢話』 內 野史類 內容 分類	121
<표 6>	『浮休子談論』 「寓言」 內 內容 分類	152

I. 序 論

15세기 중·후반은 세조에서 연산군에 이르는 시기로 한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받는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김종직과 성현의 문학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의 대립이 본격화 되면서 문학사적으로 주목을 받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서거정을 잇는 관학파의 적통인 성현과 신진세력인 사림파의 대표 김종직의 대립은 훈구파와 사림파의 싸움으로 확대되었고, 조선 전기의 한문학은 관료적 문학과 처사적 문학, 방외인 문학 3갈래로 크게 구분하여 나누어졌다.¹⁾ 虛白堂 成俔(1439~1504)은 서거정과 함께 관료적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면서 그의 문학은 대체로 관각문인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쪽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한문학을 3갈래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갈래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 일반화하는 연구는 일단 조선전기의 많은 문인들을 한차례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각 문인들의 특징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평가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그 동안 관각문학의 대표로 인식되어졌던 성현과 그의 문학을 다시 살펴보고 평가하고자 한다.

성현의 본관은 昌寧이고 자는 磬叔이며, 호는 慵齋·浮休子·虛白堂·菊塢 등이며, 시호는 文戴이다. 아버지는 知中樞府事 成念祖이고, 형제는 伯兄 成任과 仲兄 成侃이 있다. 昌寧 成氏는 당대 명문가 중의 하나로 성현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으며, 그 자신 성현 또한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대제학까지 오른다. 그는 『虛白堂詩集』(15권)·『虛白堂補集』(5권)·『虛白堂文集』(15권)·『風雅錄』(2권)·『浮休子談論』(6권)·『奏議稗說』(6권)·『慵齋叢話』(10권)·『錦囊行跡』(43권)·『桑榆備覽』(40

1) 임형택, 「이조전기의 사대부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p.359-418 참조.

권) 등을 저술하였으며, 『風騷軌範』(30권)·『樂學軌範』(9권)을 편찬하였다.²⁾ 다양하고 방대한 저술 만큼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일찍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성현의 문학을 살펴본 연구로는 오춘택³⁾과 홍순석⁴⁾의 연구가 있다. 오춘택의 연구는 성현의 『허백당집』을 최초로 연구했다는 의의를 가지며, 홍순석의 연구에서는 성현의 문예에 대한 관점과 시세계, 『용재총화』를 다루어 기존 연구보다 범위를 넓혔고, ‘中和’ 사상으로 성현의 문예관을 설명하며 성현의 전반적인 문학을 살피고 그의 문학관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외의 연구들은 주로 성현의 詩, 文, 『慵齋叢話』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태안은 성현의 문예관을 경제주의적, 문예취향적이라고 보고 시세계를 社會詩, 國俗詩, 『風雅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⁵⁾ 이래중은 성현의 시론을 개성, 다양성, 현실반영이라는 세 가지 특징에 초점을 두고 살폈고, 社會詩와 自然詩로 나누어 작품을 분석하였다.⁶⁾ 이종묵은 성현 의고시의 비평성과 우의성, 현실반영과 역사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수사기교와 형식미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다.⁷⁾ 황위주는 조선 전기의 樂府詩를 다루면서 성현의 『풍아록』을 살펴, 악부시로서의 독자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⁸⁾ 신상구는 『풍아록』의 창작의도와 함께 홍순석

2) 金安國, 『虛白堂集虛白堂行狀』, 「虛白堂先生文戴成公行狀」: 所著《虛白堂詩集》十五卷, 《補集》五卷, 《文集》十五卷, 《風雅錄》上下卷, 《浮休子談論》六卷, 《奏議稗說》六卷, 《慵齋閒話》十二卷, 《錦囊行跡》四十三卷, 《桑榆備覽》四十卷, 《經綸大軌》五十餘卷, 未就而卒. 所撰《風騷軌範》三十卷行于世.; 金安國이 쓴 「虛白堂先生文戴成公行狀」에는 『慵齋叢話』가 『慵齋閒話』(12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慵齋叢話』 초간본(연세대 목판본, 고려대 목판본)을 저본으로 한 이내중의 연구와 이후의 연구들을 참고 하여 『慵齋叢話』 10권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奏議稗說』(6권)의 경우는 奏議와 稗說을 각각 이야기하는 것인지, 書名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奏議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서신이고 稗說은 민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인 가담항설을 뜻하므로 한 권으로 보기에는 내용상 큰 차이가 있고, 『용재총화』 卷2 20話에도 “余所著《詩集》十五卷, 《文集》十五卷, 《補集》五卷, 《風雅錄》二卷, 《奏議》六卷, 《浮休子談論》六卷, 《慵齋叢話》十卷, 《錦囊行跡》三十卷, 所撰《風騷軌範》三十卷, 《樂學軌範》六卷, 《桑榆備覽》四十卷.”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주의와 패설이 각각 6권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3) 오춘택, 「허백당 성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4) 홍순석, 「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5) 김태안, 「허백당 성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6) 이래중, 「성현의 시론과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7) 이종묵, 「성현 의고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의 연구에서 밝혔던 ‘中和’의식이 작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폈다.⁹⁾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현의 『용재총화』는 특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졌으며, 주로 ‘笑話’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¹⁰⁾ 이 중 이래종의 논문은 鮮初의 筆記 전개양상을 살피면서 당시 필기 저술 배경을 다뤄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용재총화』의 이본을 대조한 점에 의의가 있다. 성현의 산문에 관한 연구로는 이래종과 이대형과 최혜미의 논문이 있다.¹¹⁾ 최혜미는 성현의 산문 작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산문의 특징과 미적 성취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浮休子談論』을 다룬 연구들도 다수 있는데, 주로 우언의 양식과 특징, 그리고 우언의 화법을 통해 본 성현의 정치관을 다루었다.¹²⁾

이처럼 성현의 저술에 관한 논문들이 다수 있지만 성현의 문학 전체를 다룬 논문은 많지 않고, 대부분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이어서 앞서 말한 사

8) 황위주, 「조선전기 악부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9) 신상구, 「허백당 성현의 《풍아록》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10) 장덕순, 「이조 초기의 설화연구-호색설화를 중심으로」, 『동아문학』 8호, 1968 ; 김태안, 「《용재총화》 연구-골계류 산문을 중심으로」, 『안동대학논문집』 6집, 안동대학, 1984 ; 황태면, 「《용재총화》의 분석적 고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문세, 「《용재총화》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홍주, 「허백당 성현의 문학연구-《용재총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장주옥, 「《용재총화》의 문학적 고찰」, 『돈암어문학』 8집, 돈암어문학회, 1996 ; 이강옥, 「《용재총화》의 장르 구성과 서술 구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 문다리, 「《용재총화》 소개 소화의 주제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임명걸, 「《용재총화》 소개 소화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류정월, 「《용재총화》에 나타난 옥망관에 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 소개 일화의 유형」, 『한문교육연구』 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4 ; 이내중, 「선조 필기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1) 이래종, 「용재성현의 문학론」, 『한문학논집』 5집, 근역한문학회, 1987 ; 이대형, 「성현 기문의 관료 문인적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최혜미, 「허백당 성현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2) 안병렬, 「조선전기 전 작품 연구」, 『한문학논집』 12, 근역한문학회, 1994 ; 이종목, 「《부휴자담론》과 우언의 양식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 장진수, 「《부휴자담론》에 나타난 성현의 정치적 지향과 우언의 화법」, 『어문연구』 제35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주재우, 「고전표현론의 관점에서 본 우언문학교육-성현의 《부휴자담론》 우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윤승준, 「《부휴자담론》을 통해 본 성현의 군신론」, 『동아시아고대학』 제1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 권석환, 「한중 우언의 동질성에 관한 연구-《애자잡설》, 《옥리자》, 《부휴자담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29, 한국중어중문학회, 2001 ; 정연봉, 「한국 한문 우언론-우언의 원류와 양식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대부 문학의 3갈래의 고정관념의 틀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성현이 지향한 문학관과 작품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하여 성현 개인의 문학관을 조금 더 자세히 밝히고,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성현의 문학적 배경과 문예관을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 성종조의 문예 정책과 당시 관각문인들의 문학적 경향을 살핌으로써 성현 시대의 문학적 사조와 배경을 알아보도록 한다. 2절에서는 성현의 문예관을 2가지로 살펴 볼 것이다. 첫 번째는 문예적 입장에서 도와 문을 함께 중시한 점이다. 성현은 도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문의 독자적 가치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글쓰기 형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문예관은 원기를 중시한 점이다. 성현은 문학에 나타나는 元氣를 강조하였는데 동시대 그리고 전후 문인들의 기론과 비교하여 성현 기론의 특징을 밝히고 그 의미와 그의 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성현은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기상을 중시하였다. 작가의 기상은 풍부한 교양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고, 기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예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문의 독자적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성현은 정통 시와 정통 산문이 아닌 의고악부와 잡록, 우언 등의 작품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에 주목하여 성현 문학의 특징과 의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III장은 의고악부집인 『풍아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성현은 당대의 시풍이 율시를 위주로 하여 위미한 경향으로 흐르는 폐단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道’와 가까운 ‘古詩’의 재생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당대 시풍에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로 의고악부집인 『풍아록』을 저술하였다. 『풍아록』에 수록된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여 성현이 고시의 어떠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였고, 그 안에 담긴 우의적 주제의식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IV장에서는 성현의 잡록집인 『용재총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용재총화』에는 성현의 문화적 자신감과 당대의 융성한 문물제도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민정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용재총화』의 내용을 사대부 사회와 민정 세태, 그리고 당대에 대한 자긍심이 드러난 기록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V장은 우의의 맥락에서 새로운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는 『부휴자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아언」, 「우언」, 「보언」에 나타나는 3가지 말하기 방식은 직접 말하기 방식이 아닌 에둘러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밝히고 현실과 이상, 그리고 당대 현실에 대한 鑑戒를 드러내는 데에 우의라는 새로운 글쓰기 방법을 사용한 점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VI장에서는 성현의 문학사적 지평과 위상을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풍아록』과 『부휴자담론』에 나타난 ‘古’의 의미와, 그 시기의 문화적 맥락에서 갖는 復古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2절에서는 성현의 문학에서 『풍아록』, 『용재총화』, 『부휴자담론』 등 다양한 글쓰기 방법이 시도된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현의 풍부한 교양과 박학에서 비롯된 다양한 글쓰기가 당대 문학의 폭을 넓히고 이후의 문학에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 주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3절에서는 『풍아록』과 『부휴자담론』에 나타나는 우의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옛것을 통하지만 현재를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우의의 한계점과, 나열식으로 보여주지만 한 문제점 등 성현이 사용한 우언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밝힐 것이다.

위와 같이 성현의 문학적 배경과 문예관, 그리고 각 문학작품에 나타난 특징과 의미를 살피는 과정을 통해 성현과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세밀해지고, 15세기 한문학사에 대한 연구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해본다.

Ⅱ. 成愼의 文學的 背景과 文藝觀

1. 成宗朝의 文藝 傾向

1) 成宗朝의 文藝政策

成愼은 1459년(세조 5년, 己卯) 21세에 진사시에 급제하여 1504년(연산 10년, 甲子)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치기까지 세조와 예종, 성종, 연산군까지 4명의 군주를 섬겼다. 성현은 급제한 1459년부터 1468년 9월까지(약 9년) 세조, 1468년 9월부터 1469년 11월까지(1년 2개월) 예종, 1469년 11월부터 1494년 12월까지(25년 1개월) 성종, 1494년 12월부터 성현이 세상을 마치는 1504년 정월까지(9년 1개월) 연산군을 섬겼는데, 성종 연간에 성현의 관직 활동이 가장 활발했고 그 기간도 오래되었다. 이에 성종조의 정책과 사회상황을 자세히 살펴 성현의 문학적 배경을 알아보려고 한다.

성종(1457~1494년, 재위 1469년 11월~1494년 12월)은 1469년 11월, 13세에 즉위했다. 성종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약 7년간(1469~1476) 貞熹王后 尹氏가 垂簾聽政을 하였다. 또 재상들이 임금의 보좌하는 院相制가 시행되면서 임금의 권한을 재상들과 함께 공유하였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어린 성종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성종은 성년이 되어 親政을 펼치게 되면서(1476, 재위 7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성종은 먼저 원상으로 대표되는 세조대 이래의 대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자 臺諫을 육성하였다. 대간은 간언을 맡아보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국정 전반에 대하여 탄핵하고 간쟁하는 임무를 맡는

다. 성종은 대신들을 탄핵하는 대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권은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왕을 중심으로 대신들과 대간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정치 체제가 이루어졌다.¹³⁾ 그리고 권신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 세력을 끌어들이어 권력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1480년대에 정몽주와 길재의 후손에게 녹을 주는 한편 그들의 학맥을 잇는 신진 사림 세력을 왕을 호위하는 근왕세력으로 성장시켰다. 세조 때의 공신이 주축이 된 훈구 세력은 조금씩 후퇴하게 되면서 훈구와 사림 간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왕권이 안정되어갔다. 또 조선 중기 이후의 사림정치의 기반을 조성하며 유교사상을 더욱 정착시켜 왕도정치를 실현해 나갔다.

성종은 조선시대의 최고법전으로 인정받는 『經國大典』도 완성하였다. 세조 때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전 편찬에 착수하여 崔恒, 盧思愼, 姜希孟 등이 『경국대전』의 집필을 시작하였다. 세조와 예종 대에 시행되지 못하다가 성종조 정희왕후 섭정기간 동안 교정작업을 완료(성종 7년, 1476년)하고, 1485년(성종16년)에 반포되었다. 통일되고 획일적인 법을 정비하여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것은 법을 백성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을 지향하고 백성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신권을 적절히 타협하여 규정한 것이다.¹⁴⁾

이로써 성종은 왕권과 신권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나가며 본격적인 도학정치를 펼치고자 하였다. 불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장려하였다. 관학을 진흥시키고 홍문관을 확충하며, 세조 대에 폐지되었던 賜暇讀書制를 다시 시행하여 젊은 문신들이 휴가기간 동안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편찬사업도 융성시켜 『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 『三國史節要』, 『東文選』, 『國朝五禮儀』, 『樂學軌範』 등 다양한 서적을 간행했다.

13) 이한우, 『성종, 조선의 태평을 누리다』, 해냄, 2006 ; 김범, 『사화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7 ; 지두환, 『성종대왕과 친인척』 1~5, 역사문화, 2007 참조.

14) 고운기 외 16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4, 휴머니스트, 2006 참조.

이에 태조 이후 꾸준히 닦아오던 조선왕조의 전반적 체제가 완성되면서 조선 백성들은 개국 이래 가장 태평성대를 맞이하였다.

성현은 예종이 즉위(1468년)하여 경연관을 선발할 때에 6명 중 한명으로 뽑히어 內殿에서 經史를 강론하였다.¹⁵⁾ 經筵은 제왕을 위한 교육제도로서 유교의 경전과 사서에 나타난 정치의 원칙과 실례를 군주에게 가르쳐 이상적인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¹⁶⁾ 그러므로 경연관은 학문과 인품이 탁월한 문관을 겸직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왕조시대에 가장 명예로운 벼슬로서 왕의 학문 지도가 주임무였지만, 군주의 치도를 강론하기도 했고, 중요 정치 문제를 토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469년에 어린나이의 성종이 즉위하면서 성현은 성종의 학문 지도를 맡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문관, 사헌부, 승문원, 홍문관, 사간원, 장악원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성종의 신임을 얻었다. 성종 9년 11월에는 「治八道事」를 올려 성종의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¹⁷⁾ 이처럼 성종의 왕권강화정책과 대간에 대한 지원 속에서 성현은 성종의 정책에 부응하여 자신의 관직 생활 중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그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성종은 학문 진흥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예악의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예악은 조선의 건국이념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예악의 정비는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온 중요한 사업이었다. 조선은 불교를 억제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덕치사회를 표방하며 세운 왕조였다. 그래서 유학을 수용하고 심화시켜나가면서 유교정치 즉 통치자의 덕에 의해 이루어지는 德治를 표방하였다. ‘덕치’는 공자에 의해 확립되었고, 맹자에 이르러 ‘왕도정치’로 구체화 되었다. 왕도정치는 무형의 仁義와 함께 유형 禮樂을 도구로 삼는다. ‘예’는 예의, 예절, 禮貌, 예법, 예교 등을 포괄하는 도덕규범이라고 할

15) 金安國, 『虛白堂集虛白堂行狀』, 「虛白堂先生文戴成公行狀」 : (成化)四年十月, 遷宗學司誨兼經筵侍講官. 時睿宗新即位, 妙選經筵官, 只置六人, 公其一也. 常引入臥內, 講論經史, 時人榮之.

16) 권연웅, 「조선 성종조의 경연」, 『한국문화의 제문제』, 국제문화재단 시사영어사, 1981.

17) 『成宗實錄』, 성종 9년 戊戌(1478), 11월 30일(丁亥), 2번째 기사.

수 있는데, 도덕성에 근거하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예’는 親疏와 차이를 변별하며 그에 따른 질서를 중시한다. 그리고 ‘악’은 음악인데,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음악처럼 사람의 마음을 感化시키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악’은 조율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조화로운 통일을 추구한다. 이처럼 ‘예’와 ‘악’은 모두 덕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덕치가 근본이 되어 예악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예악제도’이다.¹⁸⁾

예로부터 예악제도는 지배층의 신분지위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內外, 華夷, 親疏, 長幼, 貴賤의 차이를 분명하게 변별하는 것이 예의 핵심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덕치’는 실제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는 등급제도로 규정되었으며, “임금은 신하의 강령이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강령이 되며, 남편은 아내의 강령이 된다”는 윤리규범으로 규정되었다.¹⁹⁾ 왕을 중심으로 계급의 질서가 지켜질 때 나라가 어지럽지 않고 잘 다스려진다. 그리고 차등 안에서 조화와 균형, 화목을 이루기 위해 음악이 필요하였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덕치를 위한 예악제도의 정비에 힘써왔다. 太祖는 禮制를 정비하고²⁰⁾ 음악을 연구하였으며, 태종은 유학을 비롯한 十學 중에 樂學을 세워 국가에 필요한 음악 인력을 양성하는데 이르렀고, 세종과 세조에 이르러서는 보다 뛰어난 업적이 이루어졌다. 세종은 朴堧을 발탁하여 악를 연구를 심화시켰고, 악서를 편찬하여 악학의 종합적인 정리 작업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세종의 과업은 아들 세조에 의해 지속되었다. 세종과 세조 두 왕의 음악적 업적은 실로 대단한 성과였는데, 이는 『朝鮮王朝實錄』에

18) 이중토편(심규호 역), 『이중토편 제국을 말하다』, 에버리치홀딩스, 2008, pp.184-185.

19) 이중토편, 앞의 글, pp.188-189.

20)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예제의 정비를 강조하였다. (『太祖實錄』, 太祖 元年(1392), 7월 28일(丁未) 3번째 기사)

서 오직 두 왕의 실록(『世宗實錄』, 『世祖實錄』)에만 악보가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로도 증명할 수 있다.²¹⁾ 이와 같이 이어져온 예악 진흥의 노력은 성종에게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음악관을 가진 성종은 조선 초부터 이어져 온 예악의 정비를 이루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성종의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문화가 융성하게 발전하였다. 그 노력의 결실은 조선왕조 예악정신의 최고 집대성이라 볼 수 있는 『樂學軌範』의 발간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은 성종이 음악을 勸勵하는 모습에 대한 기록이다.

樂이 나라에 소용됨은 크다. 우리 世宗께서 특히 留意하시고 古今을 參酌하여, 鄉樂과 唐樂을 바로잡으면서 朴堧에게 명하여, 鍾磬을 만들어 律呂에 화협하게 하니, 樂이 이에 한결 같이 구비하였으나, 오히려 오래되어서 후 差誤가 있을까 염려하여, 文臣 중에서 선친적인 소질이 있는 자를 가리어 樂學에 근무하게 하고, 律呂書譜를 講究하여 그 일에 정진하게 하였다. 世祖께서는 더욱 중하게 여겨 樂科를 설치하고 반드시 책임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禮樂의 흥함이 風化에 관계됨을 알지 못하고, 伶人의 일이라 하여 이를 賤하게 여기고 즐겨 就試하는 자가 없으니, 내 祖宗의 아름다운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聲樂의 遺法이 마침내는 缺廢될까 두렵다. 그러므로 朝官에서 音律을 깨우친 자를 택하여, 아울러 權勵하는 條件을 만들게 하여, 이에 의하여 시행하게 한다.²²⁾

위 인용문을 보면, 성종은 예악으로 사람들을 風化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음악을 천하게 여기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음률을 깨우친 자들을 掌樂院兼官으로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음악에 익히는데 힘쓰도록 하였다. 성현도 이 때에 장악원검관으로 임명되어 음악적 재능과 지식을 쌓게 되었고, 이후 예악 중시 정책에 힘입어 음악에 관한

21) 이범직, 『조선시대 예악연구』, 국학자료원, 2004, p.105.

22) 『成宗實錄』, 성종 6년(1475, 乙未), 10월 26일(壬寅), 4번째 기사 : 樂之於國, 爲用大矣. 我世宗特留意, 參酌古今, 以正鄉唐之樂, 命朴堧制爲鐘磬, 協於律呂, 而樂於是一備焉, 猶慮久而或差, 揀文臣質近者, 仕于樂學, 講究律呂書譜, 俾精其業. 世祖尤重之, 至設樂科, 必欲責成, 而人不知禮樂之興有關風化, 以爲伶人所業而賤之, 莫肯就試者, 予恐祖宗美意有所不副, 聲樂遺法, 終於缺廢. 故令擇朝官曉音律者, 并爲勸勵條件, 其依此施行.

업적을 많이 쌓게 되었다. 먼저 「掌樂院題名記」에 보이는 음악에 대한 성현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람이 음악을 몰라서는 안 되니, 음악을 모르면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해도 그 감정을 풀 수 없다. 나라에 하루라도 음악이 없어서는 안 되니, 음악이 없으면 상호 소통이 되지 않고 鄙俚해져서 화합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므로 先王께서 음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음악을 관장하는 관부를 설치하여,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에 근거하여 선한 마음을 감발하고 악한 마음을 징계하게 한 것이다. 이에 다양하게 흥얼거리고 노래를 불러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종과 북과 피리 등 여러 악기를 이용하여 그 속에 마음을 붙이며, 소리와 곡조와 음률로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고, 빠르고 느리게 움직여 가는 춤의 동작으로 마음을 조절하게 되었다. 이러한 음악을 조정에 쓰면 상하가 열복하고, 郊廟에 쓰면 귀신이 감응하며, 일반 가정이나 鄉黨에 쓰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善心을 분발한다. 그리하여 문명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고무하고 풍속도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된다.²³⁾

위 인용문은 성현이 1480년(성종11년)에 掌樂院의 제명에 붙인 기문으로 음악의 효용과 필요성, 장악원의 연혁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기본적인 음악의 효용은 감정을 푸는 것이다.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을 풀어주면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합하게 된다. 더 나아가 조정에서는 상하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일반 가정에 이르러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착한 마음을 떨쳐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풍속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어 나라가 잘 다스려지게 된다. 결국 성현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음악의 효용은 治世에 관한 것이다. 예악에 의한 질서관의 확립이 곧 정치적 질서의 확립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왕권을 확고히 하고, 백성이 삶을 평온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하였다.²⁴⁾ 이는 『성종실록』에 나타난 성종의 음악관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이러

23) 成侃, 『虛白堂文集』 卷3, 「掌樂院題名記」: 人不可不知樂也, 不知樂則溼鬱閉塞而無以宣其氣. 國不可一日無樂也, 無樂則恣濫鄙俚而無以致其和. 是故, 先王立樂之方, 設樂之官, 因人心之所同, 而有所感發懲創焉. 於是謳謠歌詠以發之, 鍾鼓管籥以寓之, 聲曲音律以正之, 疾徐綴調以節之. 用之朝廷則上下懌, 用之郊廟則鬼神感, 用之閭閻, 用之鄉黨, 悉皆歛歛奮揚. 鼓舞文明, 而轉移風俗矣.

24) 홍순석, 「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71-72.

한 인식은 「樂學軌範序」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음악이란 하늘에서 생겨나 사람에게 매여 있으며, 虛에서 생겨나 自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감발하여 動盪하게 하고 혈맥을 흘러 통하게 하며 정신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소리도 역시 같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느낀 것은 그 소리가 고조되어 명랑하고, 성난 마음으로 느낀 것은 거칠고 사나우며, 슬픈 마음으로 느낀 것은 낮고 가라앉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느낀 것은 너그러우며 느립니다. 그 모든 고르지 못한 소리를 융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도하는 데는 바르고 바르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풍속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음악의 도가 정치와 교화에 크게 관계가 되는 점입니다.²⁵⁾

음악은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깃들기 때문에 사람과 떼어 생각할 수 없고, 텅 빈 것[虛]에서 나와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와 같이 그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따라야 한다. 자연스러운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씻어내며 혈과 맥을 흘러 통하게 하고 정신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 이러한 음악을 임금 된 자가 잘 다스리면 풍속이 교화되고 정치가 잘 다스려진다고 하여 음악과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한다.

성현도 성종의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의 문학과 그의 문예 관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5) 成倪, 『虛白堂文集』 卷7, 「樂學軌範序」: 樂也者, 出於天而寓於人, 發於虛而成於自然. 所以使人心感而動盪, 血脈流通而精神怡悅也. 因所感之不同而聲亦不同. 其喜心感者, 發以散, 怒心感者, 粗而厲, 哀心感者, 噍而殺, 樂心感者, 嗶而緩. 能合其聲之不同而一之者, 在君上導之如何耳. 所導有正邪之殊, 而俗之隆替係焉. 此樂之道所以大關於治化者也.

2) 館閣文人の 文學的 傾向

(1) 성임과 성간의 문학적 특징과 영향

성현은 고려 말과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명문가인 창녕 성씨 가문 출신이다.²⁶⁾ 그는 1439년(세조 21년, 己未)년에 지중추부사를 지낸 成念祖와 順興安氏의 3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조부 成汝完은 고려 말에 문하시중을 지냈고, 成石璘, 成石琿, 成石因 세 아들을 두었다. 성석린과 성석용의 아들들은 사육신 사건과 관련되어 몰락하였고 성현의 증조부 성석인 계통만 대가 이어졌다. 성석인은 관직이 예조판서에 이르렀고 成揜과 成抑, 成扱 세 아들을 두었다. 성엄은 同知中樞院事, 성억은 右贊成, 그 다음 성급은 知中樞院事를 지냈다. 성현의 조부 성엄은 成念祖와 成奉祖, 成順祖 세 아들을 두는데, 성엄조는 知中樞院事를 지냈고, 성봉조(성현의 작은아버지)는 세조와 同擧 사이고, 왕실과 교분이 있어 昌城府院君에 봉해졌다. 성순조는 刑曹參判을 지냈다. 성엄조의 세 아들이 곧 成任, 成侃, 成侃이다. 성현은 12세 되던 해(1450)에 부친을 여의고 伯兄 성임, 仲兄 성간에게서 수학하게 되었다. 성현의 문학관에 미친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고, 이들은 문장으로 이름난 인물들이기에 두 형의 문학적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임(1421~1484)은 성현의 伯兄으로 성현보다 18살이 많다. 자는 重卿, 호는 逸齋, 安齋이다. 성현이 12세 되던 해(1450) 부친을 여의면서 성임을 아버지처럼 모셨고, 그에게 수학하였다. 성현은 성임의 詩集에 서문을 붙이면서 “나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는 액운을 만나 백씨에게서 길러졌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영예를 드날리고 문원에 이름이 나게 된 것은 모두 백씨가

26)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당대의 문벌로 廣州 李氏 다음으로 성씨 집안을 꼽았다. 『慵齋叢話』 卷2 7話에 “지금 문벌의 성세함은 광주 이씨가 최고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성씨만한 집안이 없다.(當今門閥之盛, 廣州李氏爲最, 其次莫如我成氏.)”라고 하여 성씨 집안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나타내었고 “우리 성씨는 창녕부원군 성여완 이후로 점점 번성하였다.(我成氏, 自昌寧府院君以後漸大.)”라고 하였다.

평소에 가르치고 인도한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²⁷⁾라고 하여 성임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말하였다.

성임은 1438년(세종 20) 사마시에 합격하고 1447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승정원, 예문관의 여러 관직을 거치며 1484년 사망하기까지 6명의 왕(世宗, 文宗, 端宗, 世祖, 睿宗, 成宗)을 섬겼다. 성임은 『國朝寶鑑』과 『經國大典』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패설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에서 『太平廣記』를 節略하여 『太平廣記詳節』 50권을 편찬, 간행(1462, 세조 8년)하였고, 『太平廣記』를 본받아 고금의 異聞을 편집한 『太平通載』 100권을 성종 연간에 편찬하였다.²⁸⁾ 『성종실록』에 수록된 성임의 卒記를 보면, “성임의 사람됨은 도량이 너그럽고 넓으며, 식견이 정교하고 넓으며, 글씨를 잘 쓰고 글을 잘 지었는데, 律詩에 더욱 능하였다.”²⁹⁾라고 하였다. 문집으로 『安齋集』이 있다. 시호는 文安이다.

성간(1427~1456)은 성현의 仲兄이다. 성현보다 12살이 많다. 자는 和仲, 호는 眞逸齋이다. 성현이 18세 되던 1456년에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5세(1441년, 세종 23)에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27세(1453년, 단종 1)에 文科에 급제하여 典農寺直長에 제수되었다가 集賢殿 博士와 修撰을 거치고, 1456년(세조2)에 司諫院 正言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다. 성현은 仲兄 성간을 스승이라 일컬었으며³⁰⁾ “성현은 그 형 성간에게서 배웠다”는 허균의 기록도 보인다.³¹⁾ 성간은 박람강기하고 독서를 좋아하여 經史는 물론 諸子百家書도 두루 섭렵하였다. 그는 잡예에도 능통하여 文章·技藝·音律·卜筮 등에 조예가 깊었다. 성간은 그는 특히 詩賦에 뛰어나, 「宮

27) 成倪, 『虛白堂文集』 卷6, 「家兄安齋詩集序」: 余少孤閔凶, 鞠於伯氏. 占科揚榮, 有名於文苑者, 皆平昔教誨之力寔賴.

28) 『成宗實錄』, 성종 15년 甲辰(1484), 8월 20일(甲戌), 2번째 기사: 嘗倣『太平廣記』, 編輯古今異聞, 名曰, 《太平通載》, 行于世.

29) 위의 글: 任, 爲人器度寬洪, 識見精博, 善書工文, 尤長於律詩.

30)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進逸先生傳」.

31) 許筠, 『惺所覆瓿稿』 卷10, 「答李生書」: 兄姊之文, 得於家庭, 而先大夫少學於慕齋, 齋慕之師成虛白倪, 學於其兄倪及金垂崖守濶, 二公皆柳泰齋之弟子, 柳公是文靖公得意門人.

詞」·「伸雪賦」 등을 남겼으며, 산문에는 托傳의 형식을 가진 「慵夫傳」을 남겼다. 문집으로 『眞逸遺藁』가 있다.

성간은 규범이나 굴레에 얽매이는 성격은 아니었다.³²⁾ 권세와 영리를 따르기 보다는 굽힐 줄 모르는 기개와 타협할 줄 모르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안평대군의 여러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았으며, 관료사회에 속했지만 그 안에서 화합하기보다는 겉도는 인물로 평가되었다. 심지어는 몸이 약하여 몸집이 여위고 파리하여 볼품이 없었기에³³⁾ 외모를 가지고 놀림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³⁴⁾, 성격이 괴팍하여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다.³⁵⁾ 결국 성간은 훈구파의 폐쇄적인 의식에 불만을 품으면서³⁶⁾ 다수의 흐름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문학을 개척해 나간 인물이었다.

이처럼 두 형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뛰어난 문장실력, 그리고 다독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얻은 넓은 식견은 성현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그리고 여기에 관료문인으로서 문필 활동에 종사한 성임의 성향과,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수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문학을 개척한 성간의 성향이 반발 없이 자연스럽게 더해지면서 성현만의 독특한 문예관을 형성하게 된다.

32) 성간의 성격에 관한 일화는 성현의 「進逸先生傳」과 『慵齋叢話』에 자주 보이며, 성간의 문집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33) 成侃, 『虛白堂文集』 卷13, 「進逸先生傳」: 生平做業大勤, 不少懈弛, 故氣弱身羸, 清癯瘦骨, 未免爲山澤之容.

34) 李陸, 『靑坡集』(고려대도서관 소장본, 1512) 24장, 「靑坡劇談」: 韓山李二相坡平仲, 自以風彩當世第一, 而面上有髯, 有戲公者, 比之尹吉生, 中樞李甚病之. 蓋尹貌險而多鬣故也. 吾家有燕集, 洪政丞益成及李公成與諸宰相盛會時, 成爲司饗院正, 李目成朗吟曰, “有客有客成饗正”, 諸公不解其意. 平仲自釋之曰, “有客之客, 坐客之客也.” 成立對曰, “于僊于僊尹吉生.” 滿坐無不失聲絕倒.

35) 위의 글, 26장: 昌寧成侃和仲, 少以文章鳴, 然爲人歇後, 爲集賢殿脩撰 有白事於大提學, 聞大提學坐義禁府, 直入請謁, 既行禮而復入跪, 則皆本府堂上也. 成仰視之, 慙赭蒼黃滿而退坐, 滿座爲之劇笑. 時謂成修撰請謁.

36) 당시 시단은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하여 소동과 시의 오랜 답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성간은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하는 문사 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고시 창작을 모색하였다. 그 이유로 ‘문장을 아로새기는 일이 바로 얼음을 새기는 것과 같이 허망한 일’(성간, 『眞逸遺稿』 卷2, 한국문집총간 12, 민족문화추진회, 1998, 188면, 「又次」: 雕虫還似欲鏤冰, 擬學雲堂朝過僧, 一寸古心今未識, 從來不向世人應.)이라고 하며 시의 기교를 중시하는 창작 태도에 깊은 염증을 느꼈음을 들고 있다. 곧 당대 문인들의 부러한 시풍, 곧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유태주의적 경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종묵, 「안평대군의 문학활동 연구」,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2002, pp.258-259; 유호진, 「15세기 시단의 동향과 성간의 고시 창작」, 『고전문학연구』 제 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곧 성현은 성간처럼 주류적 모습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주류가 되어 비주류를 주류로 만들어 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성현은 성간의 색다른 면모를 포용하는 또 다른 관각문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15세기 후반 관각문인들의 문학 성격

성현은 성임과 성간에게 수학하면서 자연스럽게 형들이 교류하였던 인물들에게서도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 성현은 金守溫에게서는 음악을, 姜希孟에게서는 그림, 徐居正에게서는 문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성현은 李承召(1422~1484)와 尹子滌(?~?)³⁷⁾도 스승으로 섬겼다.³⁸⁾ 이승소와 윤자영은 서거정, 노사신, 강희맹, 성임, 성간과 교류하였고 성현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보고 배우며 스승으로 섬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선초의 훈구계 문인들은 家學과 書齋에서의 과업 수학을 선호하였는데³⁹⁾, 성현 또한 서재에서 훈장 金懼知에게도 수학하였다.⁴⁰⁾ 이처럼 성현이 교류하고, 스승으로

37) 이내중은 「선초 필기의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57)에서 「방촌선생시집서」에 나오는 彫村을 尹子雲이라고 보았고, 김종태는 고전번역원에서 출간한 『허백당집 5』, p.275에 방촌을 尹子滌이라고 보았다. 윤자운(1416-1478)은 자가 望之, 호는 樂閑齋이다. 윤자영은 자가 淡叟, 호가 彫軒이며, 정확한 생몰연도가 미상이지만 관력을 살펴보면 윤자운과 서거정, 강희맹 등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두 인물 모두 본관이 茂松이고 『용재총화』에도 각각 기록되어 있어 구분하기가 더욱 어렵다. 그런데 『용재총화』 卷7 26話에 ‘尹淡叟先生’의 성품을 기록하면서 노사신, 강희맹, 성임이 함께 교류한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윤자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38) 「三灘先生詩集序」에 “그의 문하에서 노닐며 학덕의 은혜를 입고 인품의 향기를 가까이서 접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余以後進, 遊乎門下, 承休光而挹餘馥者非一日.)”는 기록과 「彫村詩集序」에 “윤 선생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부형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겼다(先生與達城·宣城·晉山·暨吾伯仲氏交友, 其談論文字間, 得其土苴以資辯博, 酬唱篇什盈卷, 蓬麻蠅驥之助, 詎可少耶. 僕少時, 遊先生門下, 尊事之如父兄.)”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39) 이내중, 앞의 글, pp.62-63.

40) 成倪, 『慵齋叢話』 卷9 4話 : 金君懼知字謹夫. 自開城來, 寓崇禮門外賃人室而居. 粗知四書三經, 雖不能甚解, 而無所不通. 亦習學子業, 屢入初試, 而竟不第. 爲人純謹樂易, 與人交際無忤禮. 由是朝中名士, 多與之交. 家貧無僮僕, 傭人僕婢爲妾. 常聚閭巷小童數十隊, 作長廊而居之, 隨資之能否, 分門教誨. 朝聚夕散, 擇其中能者, 以爲有司, 又有直日. 其法畧倣學宮之儀, 如有不能誦者, 懦慢不讀者, 爭相罵罵者, 無禮師長者, 干到者, 晚來者, 直日書告有司, 有司告于師, 隨其罪之輕重而罰之. 旬時又令作詩, 第其高下, 唱名於庭, 人爭勸勉. 歲時名節爭持壺榼而饋之. 余與柳于後·李叔度·放翁·李子犯·柳貫之皆出門下. 是時劉師德·郭

삼은 이승소, 강희맹, 서거정, 김수온 등은 당대의 거족 출신으로 주요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고, 문장으로도 이름이 높은 15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관각문인들이다. 성현이 이들과 깊이 교유한 만큼, 15세기 후반 관각문인들의 문학 성격을 살피는 것은 성현의 문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館閣은 원래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독서당, 승문원, 성균관, 경연청, 규장각, 교서관 등의 관청을 일컫는 말인데,⁴¹⁾ 임형택이 이조전기의 사대부 문학을 구분하기 위해 사대부의 기본 성격으로 ‘出’과 ‘處’를 제시하면서 館閣文人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⁴²⁾ 사대부로서 관직에 나아가[出] 經國의 문장으로 불후의 盛事를 장식하는 문학을 館閣文學이라 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서 거처하며[處] 일세의 정취를 추구하고 한적한 인생을 自樂하는 문학을 山林文學이라 하였다. 관각에 속한 문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문학이 낙관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富麗의 미감을 지향하였음⁴³⁾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을 단순히 관각과 사림, 방외인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인 사실들로 분류하여 이들의 문학 성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시대적 분위기와 배경에 따른 유사점으로 문학의 부류를 크게 구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각 인물들의 갈래와 지향이 획일적으로 같을 수 없으므로 그 다양성과 차이점을 인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⁴⁴⁾

이종묵은 15세기 조선의 관료문학을 세 부류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고려 말에 출사하여 조선 개국 초기 문물 제도 정비에 큰 공을 세운 대가들,

信民·俞汝欽, 亦皆教誨, 而不若金君之勤而嚴. 朝廷嘉之, 特授軍職.

41) 이종묵,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제8호, 국문학회, 2002, p.42.

42) 임형택, 「이조전기의 사대부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pp.359-418.

43) 김풍기, 『조선전기 문학론 연구』, 태학사, 1996, p.191.

44) 조영호는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연구-김수온, 서거정, 이승소, 강희맹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에서 기존 연구들이 15세기 관료 문인계층의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곧 鄭道傳, 河崙, 趙浚, 權近, 成石璘, 李原 등에 의한 기상과 호방을 중시하는 문학이고, 두 번째는 卞季良, 尹淮, 安止, 權躋, 鄭麟趾 등으로 대표되는 집현전 문사의 낙관적 세계관과 富麗의 문학, 세 번째는 사육신 그룹과 노선을 달리한 申叔舟, 崔恒, 徐居正, 魚世謙 등 집현전에서 관각문학을 익힌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펼친 온유하고 부려한 문학이다.⁴⁵⁾ 조영호는 이종목의 3번째 부류를 다시 정치적 성향이나 위상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세조의 왕권 창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명의의 공신을 襄爵하며 훈구벌열⁴⁶⁾로 성장한 鄭麟趾, 申叔舟, 崔恒, 權擘 등의 문인계열과, 두 번째는 문필로 입신한 이래 세조 집권기 내내 공신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그 결과 정치적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金守濫, 徐居正, 李承召, 姜希孟 등의 문인계열이다.⁴⁷⁾ 성현이 교유하였던 인물들은 이종목과 조영호의 분류를 따르면 집현전에서 관각문학을 익히고 공신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부류에 해당한다. 이들은 집현전의 마지막 세대로서, 세조 집권시 가담하지 않았고, 김수온을 제외하고 모두 관각의 일을 맡아보았으며,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공통점으로 갖는다.⁴⁸⁾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공통점보다 관심을 기울여 살펴볼 점은 바로 이들의 사상적 성향이다. 15세기 후반의 관각문인들은 천지가 ‘一陰一陽’의 규율에 의해 반복된다는 순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세상은 음양의 부단한 운동의 과정 중에 있으며 음이나 양에 치우침이 없이 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논리는 『周易』의 전통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⁹⁾ 세

45) 이종목,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8집, 국문학회, 2002, pp.41-83 참조.

46) 훈구파는 조선 세조 공신 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료집단을 이른다. 정인지, 신숙주, 최항, 권람, 서거정, 양성지, 이석형, 강희맹, 이극돈 등이 있다. 흔히 관학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으나, 훈구파는 그 중 계유정난에 동조한 일부 관학과 계승자로 볼 수 있다. 관학과 중에는 집현전을 거쳐 성장해 『경국대전』·『동국통감』·『동문선』·『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관찬사업에 참여, 왕조의 통치이념을 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그 주류는 대개 세조대 이래 공신들을 중심으로 한 집권 정치세력들이었다.

47) 조영호, 앞의 글, p.8.

48) 위의 글, p.17.

49) 『周易』, 「繫辭」 上5장 ; 『周易』 復卦, 象傳

계를 규율하는 절대원리(理)에 의해 세계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一元之氣’ 곧 ‘太極’의 자기 운동에 의해 만물이 생성 발전한다는 氣 중심적 사유에서 수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그리고 관료문인들의 사유의 특징이 되는 ‘弛張의 道’⁵¹⁾도 이러한 논리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弛의 순간이 있으면 張의 순간도 필요하다고 하여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浮動을 긍정하였다. 이들이 국가의 典冊과 詞命을 창작하는 상황에서도 골계류의 작품들을 지은 사실은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은 어느 한 가치를 고수하는 편향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조화를 도모하였고, 절대적인 진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진리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變易의 사고를 가짐으로써 다양성을 긍정하는 통합적 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⁵²⁾

한편 이들은 ‘一陰一陽’에 의한 순환적 세계관 뿐 아니라, 이치가 萬物과 萬法에 편재해 있다는 ‘理一分殊’⁵³⁾의 관점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관료문인들은 ‘理一’보다는 ‘分殊’에 초점을 맞추어 사물에 존재하는 이치를 궁구하여 자신의 덕성을 함양한다는 수양론적 명분을 제시하였으며, 모든 사물을 窮理와 養性의 대상으로 긍정하였다.⁵⁴⁾ 당시의 관료문인들은 한결같이 사물의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었고,⁵⁵⁾ 이러한 생각이 더 나아가 문학 이외 예술에까지 관심을

50) 金守溫, 『拭疣集補遺』, 「李嶺敦寧賞梅序」: 易不云乎, 萬物各具一太極也. 一物而具一太極, 則其分爲陰陽寒暄開落者, 豈不各自由乎.

51) 李承召, 『三灘集』 卷10, 「略太平廣記序」: 斯豈非一張一弛之道乎.; 서거정, 『四佳文集』 卷4, 「滑稽傳序」: 然子不聞善戲謔乎, 文武弛張之道乎?

52) 조영호, 앞의 글, p.27;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세계관과 문학관」,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 집문당, 1999, p.161 참조.

53) ‘理一分殊’는 관점을 ‘理一’과 ‘分殊’ 사이에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理一分殊’에서 ‘理一’에 관점을 두면 다양한 사물들의 배후에 (혹은 모두에) 존재하는 ‘一’을 강조하는 것으로, 곧 다양한 사물들이 공유하는 근원적인 원리로서의 ‘理’가 중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分殊’에 관점을 두면 다양한 것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원리(理: 太極)가 존재하는 것이기에 개별적인 것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4) 徐居正, 『四佳文集』 卷3, 「環翠亭記」: 千彙萬象, 森列左右, 亦莫非觀物養性之一助也.

55) 조영호, 앞의 글, p.28.

가지게 하며 박학에 힘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국 이 두 가지 사상, 곧 ‘一陰一陽’의 법칙인 ‘天道’의 관점과 ‘理一分殊’의 관점에서 만물을 차별 없이 보고자 하는 사유가 15세기 관료문인들의 핵심적인 문학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⁶⁾ 그리고 15세기 관료문인들의 사유체계는 이들을 스승으로 삼고 교유하였던 성현에게 그대로 이어져다. 이에 성현은 문학과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⁵⁷⁾하고 개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를 중시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예술과 잡학에까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어 당대 문화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56) 위의 글, p.30.

57) 안병학, 「성리학적 사유와 시론의 전개 양상」, 『민족문화연구』 제32호, 1999, pp.201-208.

2. 成俔의 文藝觀

1) 文藝的 入場에서의 道文并重

우리나라는 고려 말 주자학을 수용한 신진문인학자들에 의해 문학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道[經術]와 文[文章]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는 문의 근원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곧 道文一致의 관념이다. 문학을 도를 싣는 그릇[載道之器]으로 인식하고, 經世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이론은 정도전의 「陶隱文集序」에 자세히 보인다.

日月星辰은 하늘의 문[天之文]이고 山川草木은 땅의 문[地之文]이며, 詩書禮樂은 사람의 문[人之文]이다. 그러나 하늘의 문은 氣로써 되고 땅의 문은 形으로써 되지마는 사람의 문은 道로써 이룩되는 까닭에, 文을 ‘도를 싣는 그릇이다[載道之器]’라고 하니, 이는 人文을 말하는 것이다. 그 道만 얻게 되면 시서·예악의 가르침이 천하에 밝아서 三光(日·月·星)이 순조롭게 행하고 만물이 골고루 다스려지므로, 문의 극치는 여기에 이르러야 이룩되는 것이다.⁵⁸⁾

문에 도를 실으면 시서·예악의 가르침이 세상에 행해지고 잘 다스려지니, 곧 문은 도를 싣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문일치, 재도지기의 문학관은 그대로 조선의 사대부들에게로 이어지게 된다. 조선 초기는 훈구관각파를 중심으로 국가기반을 튼튼히 하고 왕업을 찬양하는 시기였기에 재도지기의 문학론은 큰 이의 없이 지속되어졌다. 그러다가 15세기에 이르러서는 훈구관각파를 중심으로 화려하고 부성한 문장이 높이 평가되면서 일면 도는 경시되는 듯한 양상을 보였고, 15세기 후반에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사림파가 등장하게 되면서 도와 문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

58) 鄭道傳, 『三峯集』 卷3, 「陶隱文集序」: 日月星辰, 天之文也. 山川草木, 地之文也. 詩書禮樂, 人之文也. 然天以氣, 地以形, 而人則以道, 故曰‘文者, 載道之器’, 言人文也. 得其道, 詩書禮樂之教, 明於天下, 順三光之行, 理萬物之宜, 文之盛至此極矣.

가 생기게 된다. 이에 사림파를 대표하는 김종직과 훈구관각파를 대표하는 성현의 대립이 주목을 받는다.

먼저 김종직의 주장을 살펴 보자.

經術하는 선비는 文章에 약하고, 문장 하는 선비는 경술에 어둡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나의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문장이란 경술에서 나오는 것이니, 경술은 바로 문장의 뿌리인 것이다. 草木에 비유하건대, 뿌리가 없으면서 가지가 죽죽 뻗고 잎이 무성하며 꽃과 열매가 번성할 리가 어디 있겠는가.

詩書六藝는 모두 경술이요, 시서 육예의 글은 바로 그 문장인 것이니, 진실로 그 글을 인하여 그 이치를 궁구해서 정밀하게 살피고 조용하게 깊이 玩味하여, 이치가 글과 함께 나의 가슴 속에 融會된다면 그것이 발산하여 言語와 詞賦가 뿜으로써 스스로 잘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잘되는 것이다. 예로부터 문장으로써 한 시대를 울리고 후세에까지 전한 이들이 모두 이와 같을 뿐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갓 지금에 이른바 경술을 한다는 자들이 句讀나 訓誥를 익히는 데에 불과하고, 지금에 이른바 문장을 한다는 자들이 아로새기고 엮어 만드는 技巧에 불과한 것들만을 보았을 뿐이니, 구두나 훈고를 가지고 어찌 黼黻과 經天緯地의 문장을 의논할 수 있겠으며, 아로새기고 엮어 만드는 것을 가지고 어찌 性理道德의 학문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마침내 경술과 문장을 나누어 두 가지로 여기면서 서로 쓰임이 되지 않는다고 의심하고 있으니, 아, 그 소견은 역시 천박하다 하겠다.⁵⁹⁾

김종직은 경술과 문장이 모두 중요하며 둘은 서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근본이 되는 것은 경술이고 여기에서 문장이 비롯된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경술이 뿌리이고 문장은 가지와 잎에 해당한다는 본말의 개념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진실로 그

59) 金宗直, 『佔畢齋文集』 卷1, 「尹先生祥詩集序」: 經術之士, 劣於文章, 文章之士, 闇於經術. 世之人有是言也. 以余觀之, 不然. 文章者, 出於經術, 經術, 乃文章之根柢也. 譬之草木焉, 安有無根柢, 而柯葉之條鬯, 華實之禮秀者乎. 詩書六藝, 皆經術也. 詩書六藝之文, 卽其文章也, 苟能因其文, 而究其理, 精以察之, 優而游之, 理之與文, 融會於吾之胸中, 則其發而爲言語詞賦, 自不期於工而工矣. 自古, 以文章鳴於時而傳後者, 如斯而已. 人徒見夫今之所謂經術者, 不過句讀訓誥之習耳, 今之所謂文章者, 不過雕篆組織之巧耳, 句讀訓誥, 奚以議夫黼黻經緯之文, 雕篆組織, 豈能與乎性理道德之學? 於是乎遂歧經術文章爲二致, 而疑其不相爲用, 嗚呼, 其見亦淺矣.

글을 인하여 그 이치를 궁구해서 정밀하게 살피고 조용하게 깊이 玩味하여, 이치가 글과 함께 나의 가슴 속에 融會된다면 그것이 발산하여 言語와 詞賦가 됨으로써 스스로 잘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절로 잘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 깊은 생각과 수양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마음 깊이 깨달음이 있는 뒤에야 뛰어난 문장이 나온다는 논리는 경술과 문장의 관계에서 경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종직의 문학론은 이후 김종직의 제자대에 이르러 활발하게 논의되고 유교적 문학론의 대두와 미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⁶⁰⁾

다음은 성현의 도문관이 드러난 글이다.

經術과 文章은 원래 두 가지가 아니다. 六經은 모두 聖人の 문장으로 모든 事業에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글을 짓는 자는 경술에 근본할 줄을 모르고, 경술에 밝다는 자는 문장을 모르니, 이는 편벽된 氣習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⁶¹⁾

성현은 『용재총화』 첫 글에서 문장과 경술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경술과 문장은 두 가지가 아니며,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는 것은 편벽된 것이며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언급은 김종직과 같은 의견이다. 그런데 차이는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 드러난다.

고려의 文士는 모두 詩騷로 업을 삼았는데, 圃隱이 性理學을 비로소 창시했다. 우리 조선에 이르러 陽村 權近과 梅軒 權遇 형제가 경학에도 밝고 문장에도 능하였다. 양촌은 四書·五經의 口訣을 정하였고, 또 《淺見錄》,

60) 김풍기는 김종직의 이러한 수양론적 문학론은 이후 그의 제자대에서 詞章의 수용 정도에 따라 세 갈래로 분화 되어 나타난다고 보았다. 홍귀달의 경우는 출사와 은거논리의 문학론적 접점을 찾은 갈래이며, 김일손, 조위, 유희인의 경우는 사장을 수양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갈래, 정여창, 최충성의 경우는 문학 그 자체의 의미보다 철학적·도덕적 의미에 더욱 중점을 두는 갈래라고 하였다. (김풍기, 『조선 전기 문학론 연구』, 태학사, 1996 참조)

61) 成倪, 『慵齋叢話』 卷1 1話: 經術文章非二致. 六經皆聖人之文章, 而措諸事業者也. 今也爲文者, 不知本經. 明經者不知爲文. 是則非徒氣習之偏, 而爲之者不盡力也.

《入學圖說》 등의 책을 지었으니, 斯文에 도움이 된 공이 적지 않다. 그 후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黃鉉·尹祥·金鉤·金末·金泮이 있다. 황현의 학문은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고, 윤상은 경술에 가장 정밀하였으며, 글도 대략 할 줄 알았다. 김구와 김말은 모두 정밀하였으나 김말은 고루하여 막힘을 면치 못하였다. 두 사람은 항상 서로 상하를 다투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업받는 사람들도 두 갈래로 나누어졌다. 두 사람은 모두 世祖에게 인정을 받아서 관직이 일품에 이르렀다. 김반은 大司成이 되었다가 연로하여 致仕하고는 고향에서 굶주리다가 죽었다. 또 그 다음가는 사람으로 孔頎·鄭自英·丘從直·俞希益·俞鎭이 있다. 공기는 익살스러워서 이야기를 잘하였으나, 글 짓는 것은 사소한 편지 한 마디도 짓지 못하였다. 한번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받았으나 답장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옆에 있던 生員 金順命이 이것을 보고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 썼는데, 그 표현이 매우 적절하였다. 공기가 감탄하여, “자네의 학문은 나에게서 배운 것인데, 자네는 잘 쓰고 나는 쓰지 못하니, 참으로 청출어람이구나!”하였다.⁶²⁾

경술과 문장은 하나라는 대전제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문장과 경술을 잘한 사람들을 정몽주, 권근부터 당대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나열하였는데, 孔頎에 이르러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다. 경술과 문장을 잘 하는 사람을 꼽아 기록하였는데, 공기는 글 짓는 것에 있어서는 사소한 편지 한마디도 짓지 못하고, 심지어 생원보다 더 글을 못 지어 웃음거리가 된다. 여기서 성현이 생각하는 경술과 문장의 관계가 드러난다. 경술과 문장 모두 중요하지만, 개인의 도덕적 수양보다는 문장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술보다 문장의 측면에 더 큰 관심을 둔 것이다. 물론 위 인용문은 필기집인 『용재총화』라는 책의 특성상 해학이나 소화거리로 집어넣은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만 잘하고 문장은 지을 줄 모르는 사립파를 겨냥하여

62) 成倪, 『慵齋叢話』卷1 2話: 高麗文士, 皆以詩騷爲業, 惟圃隱始倡性理之學, 至我朝, 陽村梅軒兄弟, 能明經學, 又能於文. 陽村定四書五經口訣, 又作《淺見錄》·《入學圖說》等書, 羽翼之功不少. 其後任函丈者, 黃鉉·尹祥·金鉤·金末·金泮, 鉉之學無聞, 祥最精而稍知作文. 鉤與末皆精, 而末則未免於固滯, 常時議論不相上下, 爭之不已, 受業者亦兩備焉. 二公皆爲世祖所知, 官至一品. 泮爲大司成, 年老致仕, 卒餓死于故鄉. 又其次者, 有孔頎·鄭自英·丘從直·俞希益·俞鎭, 頎滑稽能談, 至於作文, 雖尺牘之微, 不能措一辭. 嘗受人簡牘, 不知裁答, 生員金順命適在傍見之, 依所言而答之, 辭語甚稱. 頎歎曰, “子學出於我, 子善用而我不能用, 眞所謂青出於藍而青於藍也.”

비판한 것이다.

김풍기는 홍순석의 ‘이 글(『용재총화』 1-1)은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과의 편벽된 고집을 의식해서 쓰여진 것으로, 그가 관학파의 입장에서 사장을 외면하는 사림과 문인들에게 제기한 조심스러운 경고라 할 수 있다.’⁶³⁾고 한 의견에 대하여 위 글은 경술과 문장 모두 중시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⁶⁴⁾ 본 연구에서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용재총화』 1-1 다음에 나오는 1-2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성현은 문예적인 입장에서 경술과 문장을 함께 중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성현의 논리는 「與楸功書」에도 보이고 있다.

六經은 聖人の 언행이요, 文章은 六經의 찌꺼기이다. 문장을 지으면서 옛날 성현을 본받지 않는다면 바람을 타고 날면서 날개가 없는 것과 같고, 문장을 지으면서 육경에 근본하지 않는다면 파도 위의 배에 노가 없는 것과 같다. 책은 誥命의 문장이 전하지 않으면서부터 制가 되고 誥가 되었으니, 이는 모두 《書經》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詩는 六義의 意趣가 강론되지 않으면서 賦가 되고 頌이 되었으니, 이는 모두 《詩經》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紀傳이라고 하는 것은 곧 《春秋》의 남은 策이고, 書贊이라고 하는 것은 곧 《禮記》와 《周易》의 남은 體이다. 아득한 역대 수천 년 동안에 詞人과 才子들 중에 어느 누가 옛날을 법으로 삼지 않고 경에 근본하지 않았겠는가. (중략) 그 이론은 비록 육경과 어긋났으나 주고받은 것은 모두 六經에 출입하고 육경에 근본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글을 지움에 잡으면 무궁하고 쓰면 고갈되지 않아 언어에 의탁하여 통창하게 발휘하고 사업에 펼쳐 밝기가 무궁하였던 것이다.⁶⁵⁾

성현이 둘째 형 성간의 아들 ‘楸功’에게 주는 편지글이다. 조카가 과거시험

63) 홍순석, 『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p.81.

64) 김풍기, 『조선전기 문학론 연구』, 태학사, 1996, p.154, 주18) 참조.

65) 成倪, 『虛白堂文集』 卷12, 「與楸功書」: 夫六經者, 聖人之言行, 而文章者, 六經之土苴. 爲文而不法乎古, 則猶禦風而無翼也, 爲文而不本乎經, 則猶凌波而無楫也. 書自誥命之文不傳, 而爲制爲誥, 皆《書》之派也. 詩自六義之趣不講, 而爲賦爲頌, 皆《詩》之流也. 曰紀傳, 卽《春秋》之遺策也, 曰序贊, 卽《禮》與《易》之遺體也. 茫茫歷代數千載之間詞人才子, 孰不法乎古本乎經也. (중략) 其議論雖若悖於六經, 而取與則悉出八乎六經也, 本乎六經. 故其爲文也, 攬之而無窮, 用之而不竭, 托之語言而通暢發越, 施之事業而焜耀無窮.

에 연이어 떨어지는 이유는 ‘문장을 좋게 꾸미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혼후한 인품이 부족해서이며, 호매한 기상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온자한 힘의 축적이 부족해서이며, 화려함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근엄함이 부족해서이며 외면을 꾸미는 것이 본바탕을 이기는 잘못(文勝質之過)’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육경은 모든 문학의 근본이 되며, 예로부터 문장으로 이름난 문사들의 글은 모두 육경에서 근본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경술의 표현이나 문체 양식을 기준으로 문장을 짓는다면 각 문체는 모두 각각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논리다. 훌륭한(혼후하고 온자하며 간엄한) 시문의 창작이 經術 공부의 가장 큰 목표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성현이 말하는 육경은 ‘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 문체론적 방면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수양론적 입장에서 도문 병중을 주장하는 김종직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성현은 문장의 독립적 가치와 다양성을 중시하게 되고 김종직이 편찬한 『靑丘風雅』와 『東文粹』를 비판하게 된다.

成謹甫[성삼문]가 살아있을 때 우리 나라 사람의 글을 엮어 《東人文寶》라 이름 하였는데, 완성하지 못한 채 죽고, 金季醞[김종직]이 뒤를 좇아 완성하여 《東文粹》라 하였다. 그러나 김계온은 오로지 글이 변화한 것을 싫어하여 다만 온화한 글만 취하니, 비록 규범에는 뜻을 이루었으나 메마르고 기세가 없어 볼 만한 것이 못 되었다. 그가 엮은 《靑丘風雅》는 시를 뽑은 것이 문장을 뽑은 것처럼 하지는 않았지만, 시가 조금이라도 호방한 것이 있으면 버리고 수록하지 않았으니, 이 무슨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편견인가.⁶⁶⁾

비유하자면 딸의 나무가 가지와 줄기, 꽃과 잎이 무성해진 뒤에야 그 뿌리를 덮어 나무가 반드시 무성해지고, 음식을 조리하는 자가 다섯 가지 맛으로 알맞게 조리하는 방법을 잘 살핀 뒤에야 그 조화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이제 가지와 잎을 쳐 없애고 나무가 무성해지기를 바라고,

66) 成倪, 『慵齋叢話』 卷10 17話 : 成謹甫在時, 編東人之文名曰《東人文寶》, 未成而死. 金季醞踵而成之, 名曰《東文粹》. 然季醞專惡文之繁華, 只取醞藉之文, 雖致意於規範, 而萎爾無氣, 不足觀也. 其所撰《靑丘風雅》, 雖詩不如文然, 詩之稍涉豪放者, 棄而不錄, 是何膠柱之偏.

다섯 가지 맛을 물리치고서 음식 맛의 조화를 얻으려 하니, 어찌 이와 같은 이치가 있겠는가. (중략) 대저 시문은 화려한 것은 화려함을 취하고 淸淡한 것은 청담함을 취하며, 簡古한 것은 간고함을 취하고 雄放한 것은 웅방한 것을 취하여, 각기 하나의 문체를 이루어 절로 법이 되는 것이다. 어찌 매화와 대나무를 아낀다고 하여 다른 화훼를 모두 버리고 생황과 비파를 좋아한다고 하여 다른 악기의 연주를 모두 멈추게 할 것인가. 이는 嵩善子[김종직]의 膠柱鼓瑟하는 고집스런 견해이다.⁶⁷⁾

김종직은 서거정이 작품성을 위주로 선별한 『東文選』을 편찬한 것에 반발하여 육경에 바탕을 둔 온자한 작품만을 뽑아 『동문수』와 『청구풍아』를 편찬하였다. 성현은 김종직이 한 가지 기준으로만 글을 선취하여 메마르고 기세가 없어 불 만한 것이 없다고 평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김종직이 도와 문장의 관계를 나무에 비유한 논리를 빌어 성현도 나무에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김종직은 뿌리(경술)가 먼저이고 꽃과 잎(문장)이 나중이었지만, 성현은 도리어 꽃과 잎이 무성해진 뒤에야 그 뿌리가 덮어 나무가 반드시 무성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본말의 전도가 아니라, 뿌리를 기본으로 꽃과 잎과 나오지만 지나치게 가지치기를 한다면 다시 뿌리가 무성해지기 어렵다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식에 다섯 가지 맛이 있듯이 문체에도 각기 독자적인 법이 있는데, 한가지만을 취하고 다른 것들은 버리는 것은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고집이라고 김종직을 비판하였다.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하여 세워진 조선사회에서 ‘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고 대전제였다. 그리고 조선의 이념, 제도, 통치규범을 만들어낸 정도전이 주장한 제도론은 이후 조선의 문학론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현의 문학론도 ‘도는 근본이고, 문은 지엽적인 것’이라는 제도론의 큰 틀을 인정하였지만 그 틀 안에서도 문학의 순수 가치를 중시하

67)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文變」: 譬如庭樹枝柯花葉紛鬱, 然後得底本根, 而樹必碩茂, 調飲食者當審五味滯瀧之宜, 然後乃得其和. 今者削枝葉而望樹之茂, 擯五味而得食之和, 寧有是理. (중략) 大抵詩文華麗則取華麗, 淸淡則取淸淡, 簡古則取簡古, 雄放則取雄放, 各成一體而自底於法. 豈有愛梅竹而欲盡廢群卉, 好箏瑟而欲盡停衆樂乎. 此嵩善子膠柱固執之見也.

는 길을 나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성현은 문장의 표현이 나 양식의 차원에서 문장의 독립적 가치를 존중하며 문예미를 추구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15세기 말~16세기초 경술과 문장의 관계에서 문학의 입장이 좁아지던 시기에 유연하고 진취적으로 문학의 활로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元氣의 重視

‘氣’는 본래 선진시대 이전까지는 자연 만물을 생성하는 인자로 여겨지던 것인데, 『禮記·樂記』편에 이르러서 문예 이론을 설명하는 데에 차용되어 기가 문예의 발생에 있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학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魏代 조비의 문기론에 이르러 비로소 문학 비평론의 주요 개념이 되었다.⁶⁸⁾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문학에서는 이규보(1168~1241)에 의해 ‘氣’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는데, 그는 曹丕, 劉勰, 鍾嶸을 비롯한 중국 역대 문인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규보와 조비의 기론을 살펴보면, 특히 조비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와 조비의 기론을 살펴보자.

文章은 氣를 위주로 삼는다. 기의 맑고 흐림에는 體가 있어서, 억지로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음악에 비유하면, 曲도가 같고 節奏가 같더라도, 기를 끌어들이는 데는 능숙함과 서투름이 타고나는 것이어서, 비록 父兄이라 하더라도 子弟에게 옮겨줄 수가 없다.⁶⁹⁾

68) 문승용, 「이규보 의기론의 조비 문기론 수용 양상 고찰」, 『중국학연구』 41, 중국학연구회, 2007, p.182 ; 심호택은 한문학론에서의 기는 맹자의 호연지기와 조비의 문기론에 근거하여 그 계통을 이어 받아 발전 하였다고 보았다. 맹자 이전의 기는 인간의 기가 아닌 자연의 기, 우주론의 기, 물리적인 기이기 때문에 문학론에서의 기의 원류는 맹자의 호연지기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한문학론에서의 기의 개념』, 『한문학논집』 제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1, p.2)

69) 曹丕, 『典論·論文』: 文以氣爲主. 氣之清濁有體, 不可力強而致. 譬諸音樂, 曲度雖均, 節奏同檢, 至於引氣不齊, 巧拙有素, 雖在父兄, 不能以移子弟.

대체로 시는 뜻을 근본으로 삼는다. 뜻을 세우기가 가장 어렵고, 말을 엮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뜻은 또한 기를 근본으로 삼는다. 기의 우열에 따라 뜻의 깊고 얕음이 있게 된다. 그러나 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어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⁷⁰⁾

첫 번째 인용문은 조비의 <기론>이고, 두 번째 인용문은 이규보의 <기론>이다. 조비는 문학에서 기의 획득을 천부적인 것으로 보았고, 이규보 또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조비의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이규보의 기를 중시하는 이론은 그 후 林椿, 崔滋, 徐居正 등의 문인을 거쳐 성현에게 전승되었다.⁷¹⁾ 이때 성현의 기론은 이규보의 기가 선천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임춘, 최자, 서거정과의 기론과는 다른 점이 드러나게 된다. 먼저 임춘의 기론을 살펴보자.

대체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기운으로써 주를 삼는 것인데, 여러 차례 우환을 겪고 나니, 정신과 뜻이 황폐되어 캄캄한 한 늙은 농부의 몸이 되었구나.⁷²⁾

임춘은 문장은 기를 근본으로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의 내용은 자신이 늙었고 여러 차례 우환을 겪으면서 기운이 다해 좋은 글을 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임춘은 문장과 기의 관계에 대하여 기를 천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후천적이 노력이나 환경에 따라 養氣나 喪氣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문기론은 蘇轍의 주장과 동일하다.⁷³⁾

70)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卷22, 「論詩中微旨略言」: 夫詩以意爲主. 設意尤難, 綴辭次之. 意亦以氣爲主. 由氣之優劣, 乃有深淺耳. 然氣本乎天, 不可學得.

71) 이래종(「용재 성현의 문학론」, 『한문학논집』 제5집, 단국한문학회, 1987, p.169)은 이규보의 기론이 최자와 서거정 등의 문인을 거쳐 전승되었다고 범박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들의 기론을 각각 살펴보면 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래종의 표현은 단순히 ‘기’를 중시 여긴 관점이 같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2) 林椿, 『西河先生集』 卷4, 「與皇甫若水書」: 凡作文以氣爲主, 而累經憂患, 神志荒敗, 駘焉眞一老農也.

73) 신용호, 「李奎報의 意·氣論」, 『한문학논집』 제3집,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1986, p.47.

최자와 임춘의 기론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詩文은 氣를 위주로 삼는다. 시평에 말하기를 기는 생기를 숭상하고 말은 노숙하고자 해야 하니 초학의 기는 생기가 있는 뒤에 장성하여 기가 壯逸해지며 장성하여 기가 장일한 뒤에 늙어서 기가 호방해진다고 하였다. 문순공은 소년에 주필이 모두 기가 살아있는 句로 못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다.⁷⁴⁾

문장이 어렵다고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배워서 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개 지극히 剛한 기운이 가운데에 충만하여, 얼굴에 넘치고 말에 나타나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곧 문장이니, 실로 그 기운을 기른다면 비록 일찍이 붓을 잡아서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장은 더욱 저절로 기이할 것입니다. 그 기운을 기르는 것은 名山과 大川을 두루 구경하여 천하의 奇聞과 壯觀을 궁구하지 않는다면 역시 가슴 가운데에 있는 뜻을 넓힐 수 없을 것입니다.⁷⁵⁾

최자의 기 개념도 후천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춘과 비슷하다. 시문은 기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기가 生氣-> 逸氣-> 豪氣로 변화한다고 함으로써 기의 변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기운을 명산과 대천의 유람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최자는 기의 후천성을 인정하면서 養氣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⁶⁾ 위와 같이 임춘과 최자는 기를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성현의 스승으로 성현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서거정도 기를 중시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최자의 養氣論을 계승하였다.

74) 崔滋, 『補閑集』 卷中, 46則(『韓國詩話叢編』 1, p.106, 上, B.) : 詩文以氣爲主. 詩評曰, “氣尙生語欲熟, 初學之氣 生然後壯氣逸, 壯氣逸然後老氣豪”. 文順公小年走筆, 皆氣生之句, 膾炙衆口.

75) 林椿, 『西河集』 卷4, 「上李學士書」 : 文之難尙矣, 而不可學而能也. 蓋其至剛之氣, 充乎中而溢乎貌, 發乎言而不自知者爾. 苟能養其氣, 雖未嘗執筆以學之, 文益自奇矣. 養其氣者, 非周覽名山大川, 求天下之奇聞壯觀, 則亦無以自廣胸中之志矣.

76) 이항배, 「보한집에 보인 최자의 주기론」, 『어문학』 72집, 한국어문학회, 2001, p.272, 주30) 재인용.

내가 삼가 속으로 의문을 품기를, ‘문장이라는 것은 氣이며 時運이다. 기는 하늘에서 품부받아 淸濁粹駁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문장에 발현되는 것이 工拙高下의 차이가 있다. (중략) 어찌 명승을 구경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 氣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더구나 문장은 시운의 성쇠와 관련이 있다. (중략) 어찌 명승을 구경했다고 해서 갑자기 시대의 습속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사마자장을 논평하는 자가 다만 그 유람을 장하게 여기고 그 氣를 특별하게 여겨 문장의 激揚을 형용한 것일 뿐이다. 사마자장이 유람했다고 해서 문장이 기이해지고 유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장이 기이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였다. (중략) 그런데 지금 세 군자의 《관광록》을 보니, 漢都에서 燕山까지 왕복 8, 9천 리를 다녀오면서 눈으로 보고 마음에 느낀 것을 모두 시로 표현하였다. 그 노련하고 강건함은 기세 웅장한 幽燕의 원로 장군 같고, 그 명쾌하고 날렵함은 바람처럼 세차고 번개처럼 빠른 漁陽의 돌격 기마대 같으며, 혹 중횡으로 여닫는 솜씨는 辯士인 蘇秦과 張儀 같고, 혹 차분히 법도와 규율을 지키는 솜씨는 漢나라 조정의 원로 관리 같으며, 맑고 유창하기는 마치 구리 공이 비탈을 굴러 내려가는 듯하고, 아름답고 곱기는 마치 연꽃이 물에서 솟아 나오는 듯하며, 그 요동치며 세차게 치솟는 것은 고래 등 같은 파도와 신기루 속에서 물고기와 용이 놀고 있는 것 같고, 그 호방하고 준절한 것은 높은 바위 깎아지른 절벽 위에 새매가 날고 있는 것 같다. 여러 문체를 모두 갖추어 갈수록 더욱 기이하다. 이러한 것을 보고 나서, 나는 옛사람이 사마자장을 논평한 것이 거짓이 아니며 나의 소견이 잘못임을 알게 되었다.⁷⁷⁾

1472년(성종3) 1월에 성임과 박건이 황태자의 책봉을 하례하기 위해 중국에 가게 되면서 성현이 漢學訓導로 따라가게 된다. 성현이 이때 동료들과 수창한 시를 모아 『관광록』을 엮었고, 서거정이 여기에 서문을 붙였다. 서거정은 일찍이 옛사람이 司馬子長을 ‘호탕한 기운으로 천하의 좋은 경치를 모두 구경하였기 때문에 문장의 변화가 무궁하다’라고 논평한 것을 보고는,

77) 徐居正, 『四佳文集』 卷4, 「觀光錄序」: 予竊自疑曰, ‘文章者, 氣也, 時運也. 氣稟於天, 有淸濁粹駁之殊. 故發於詞者, 有工拙高下之異. (중략) 安能因所觀覽, 而遽變其氣乎? 況文章, 關乎時運之盛衰. (중략) 安能因所觀覽, 而猝變時習乎? 其論子長者, 特壯其遊, 奇其氣, 形容文章之發越耳. 非子長之文奇於遊, 不奇於不遊也.’ (중략) 今見三君子《觀光錄》, 自漢都暨燕山, 往還八九千里, 觸於目, 感於心者, 一皆發於詩. 其老健也, 如幽燕宿將, 氣雄勢壯, 其快迅也, 如漁陽突騎, 風颯電閃, 或縱橫檣棹, 如蘇張辨士, 或從容法律, 如漢庭老吏, 其淸圓也, 如銅丸走坂, 其美藻也, 如芙蓉出水, 其洞盪條翕, 則如鯨波蜃市, 魚龍遊戲, 其豪爽道峻, 則如危巖絕壁, 鷹隼飛翥. 備全全體, 愈出愈奇. 然後知古人論子長者不誣, 而居正之所見者非也.

‘문장이라는 것은 氣이며 時運이기에 유람을 통해서 기이해지고 기이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현이 엮은 『관광록』을 보고는 이전의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유람을 통해서 養氣가 가능함을 알았다는 내용이다.

서거정은 ‘문장은 작가가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기에 의해서 공졸고하의 차이가 나타나며, 시운의 성쇠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문장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가의 타고난 기이다. 서거정이 보는 ‘기’는 작가의 창작을 위한 기본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품부받아 淸濁粹駁의 다름이 있고 이것이 문장에 발현되면 工拙高下의 차이를 만들게 된다. 기는 하늘에서 품부 받았지만 불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를 기르기[養氣] 위해’ 독서와 원유를 해야 하다고 하였다.⁷⁸⁾ 독서와 壯遊를 통해 경험의 폭을 넓혀 굳센 기를 기르면 자연스럽게 문장 속에 표현되므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氣象’이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상이 또다시 작자의 성격 혹은 작자의 개성을 말해 준다.⁷⁹⁾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時運이다. 서거정은 士君子 중에도 벼슬을 하는 사람과 은둔하는 사람은 처하는 위치가 같지 않고, 즐기는 바도 같지 않다고 말하였다.⁸⁰⁾ 이는 곧 처한 환경에 따라 생각과 문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운을 잘 만난 태평성대의 현달한 인물들 즉 조정대각의 지위에 있는 사람

78) 김풍기는 “서거정의 양기론이 지향하는 바는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조선전기 문학론 연구』, 태학사, 1996, p.55)

79) 개인의 인품이나 기상과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품이나 기상이 동일시되는 ‘讀詩知人說’ 논의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의 글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다.(위의 글, p.23) 그리고 천지자연의 기를 받아 뻗어난 인재가 나오고, 그의 시문이 자연히 훌륭해진다는 논법이 확산되면서 관료층의 문학론에 자주 이용되었는데, 권제, 이석형, 최항, 서거정, 임원준, 성현 등 여러 관료층 인물들의 글에 두루 보이고 있다. 국가의 성대함이나 세도의 상승을 자신들이 경험한다고 하는 자부심과 함께 옹호하고 부성한 시풍을 정당화하는데 이용하였고, 이 같은 경향은 김종직 이후 사림들이 진출하면서 기(기상)를 인간의 도덕적·유교적 수양에서 발현하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위의 글, pp.23-25)

80) 徐居正, 『四佳文集』 卷2, 「雙溪齋記」: 士君子之生斯世也, 一出一處, 所居之地不同, 則其所樂, 亦與之不同矣.

의 시가 산림에 은둔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시보다 훌륭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전개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타고난 기가 뛰어나고 독서와 원유를 통해 기를 잘 길렀으며, 시운을 잘 만나 조정대각의 지위에 있는 인물이다. 이들이 지은 글이 뛰어난 글이며 훌륭한 기상을 드러내므로, 결국 가장 중요한 개인적 자질은 기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서거정은 ‘기’ 자체의 개념보다는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고, 기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문장에 나타날 때 어떠한 ‘기상’으로 표현되는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거정의 기상론은 이규보의 기론보다는 임춘이 보여준 것처럼 蘇轍의 기상론을 따르는 것이며, 자신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선배인 정도전, 이첨, 권근, 최항, 박팽년 등의 기론을 이으면서 관인으로서의 전형적인 논리적 열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¹⁾

이제 본격적으로 성현의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성현의 기론을 알아보고 위에서 언급한 이들의 기론이 어떻게 이어지고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성현은 여러 작품에서 ‘氣’를 강조하였고, 이는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언급되었으나 ‘원기’의 개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성현의 작품에는 기 관련 용어(원기, 기, 기상, 기개, 기맥 등)가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성현이 중시한 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래종은 ‘기’를 작가의 타고난 개성이나 순수한 정서로 보았다.⁸²⁾ 김풍기와 이종묵은 기의 개념을 ‘원기’와 ‘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풍기는 ‘원기’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기반, 그리고 ‘기’를 기상의 측면에 기운 용어라고 표현하였으며⁸³⁾, 이종묵은 ‘원기’를 호연지기에 가까운 기, ‘기’를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 전체 작가의 인격적 개성으로 보았다.⁸⁴⁾

81) 김풍기, 앞의 글, pp.51-52.

82) 이래종, 「용재 성현의 문학론」, 『한문학논집』 제5집, 단국한문학회, 1987.

83) 김풍기, 앞의 글, p.172.

84) 이종묵, 「성현 의고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15 주38).

본고도 김풍기와 이종묵의 의견에 동의하며, 성현의 기를 크게 ‘태고의 기운을 나타내는 元氣’와 ‘작가의 개성과 작품의 품격을 나타내는 氣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작품에 기초하여 성현의 ‘기’가 추구하는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태고의 기운을 나타내는 원기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옛날에 后夔가 음악을 맡아서 唐虞의 다스림을 일으켰고, 《周禮》에는 大司樂이 成均의 법을 맡아 나라의 자제를 가르쳤다는 내용과 六律·五聲·八音으로 크게 음률에 합하여 귀신을 감응하게 하고 만민을 화합하게 하며 빈객을 안무하고 먼 곳의 사람을 열복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秦 나라와 漢 나라 연간에는 음악을 관장하는 관청이 하나들이 아니어서 太樂署와 鼓吹署 등을 두었고 그에 관한 실무는 승과 丞, 協律郎이 주관하였는데, 唐·宋 이후로 官制가 크게 정비되었다. 그러나 儀文이 번잡해지자 太古시대의 元氣를 손상하게 되었다.⁸⁵⁾

「掌樂院題名記」의 한 부분으로 음악의 기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唐虞로부터 唐宋에 이르기까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세도가 쇠하고 의문이 번거로워지면서 태고의 원기를 잃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원기’는 ‘만물 생성의 근원적인 힘’을 일컫는 것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精氣’를 말하는 맹자의 ‘浩然之氣’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의 ‘원기’는 「風騷軌範序」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고시를 나무에 물에 비유하면 뿌리이고 연원이며, 읊시는 지엽이고 지류이다. 《詩經》 3백 편은 아득히 멀어 상고할 길이 없고 漢나라 때 蘇子卿[蘇武]과 李小卿[李陵]이 처음으로 오언시를 만들었고, 建安·黃初 연간에 와서는 曹子建[曹植] 부자가 그 전통을 계승하여 진작하였으며, 王中宣·劉公幹 같은 이들이 뒤따라 나와 크게 발전시켰다. 그 이후로부터 작가들이 잇달아 배출되어 魏·晉·宋·齊·隋·唐을 거치면서 지극한 수준에 올라

85) 成侃, 『虛白堂文集』 卷3, 「掌樂院題名記」: 昔后夔典樂, 以興唐虞之治, 《周禮》大司樂, 掌成均之法, 以教國子, 又以六律五聲八音合樂, 致鬼神諧萬民, 安賓客悅遠人. 秦漢之間, 樂官不一, 有太樂署, 鼓吹署, 其事則令丞協律郎主之, 唐宋以後, 官制大備, 然儀文繁縟, 而斲喪太古之元氣矣.

갔다. 이 당시에는 그래도 上古 시대와 거리가 멀지 않아 원기가 아직 온전하였기 때문에 그 시어가 雄渾하고 雅健하여 법도에 맞도록 힘쓰지 않아도 절로 법도에 맞았다.

당나라 때에 와서 율시를 지었는데 누른 것 하면 흰 것으로 짝을 맞추며, 아름다운 어구와 對偶로 규칙에 들어맞게 시를 지으니, 화려한 표현은 성대하였으나 구법은 엉성하였고 시어를 단련하여 정밀하기는 하였지만 성정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기국이 험착하고 음절이 촉급하며 순수함이 흐려지고 소박한 맛이 사라졌으며, 원기가 손상되어 날로 쉬가 萎弱에 빠져들게 되었다.⁸⁶⁾

성현은 「風騷軌範序」에서 고시와 율시를 뿌리와 가지에 비유하면서, 고시가 뿌리가 되고 연원이 되는 이유는 고시가 옛날과 거리가 멀지 않아 원기가 아직 온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시어를 단련하고 격식에 얽매일수록 이전 시기에 가지고 있던 생동하는 활력과 충만한 기운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성현은 소박하지만 활력과 기세가 넘치는, 꾸밈이나 수식을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기운(만물 생성의 근원적인 힘)을 가진 고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다음은 ‘氣象’을 의미하는 ‘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氣象은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기운을 말하는 것으로, 작가의 도량, 타고난 性情, 氣質, 기품 등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를 뜻한다.⁸⁷⁾ 성현은 작품에 나타나는 기상이 곧 작가의 개성이요, 작품의 품격이라고 보았다. 곧 문장의 기상을 보면 글쓴이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논리(讀詩知人說)로도 이어진다.

86) 成俔, 『虛白堂文集』 卷6, 「風騷軌範序」: 夫古詩, 譬之水木, 則根本淵源也, 而律乃柯條支派也. 詩三百篇, 邇乎不可尙已, 漢蘇子卿·李少卿. 始製五字, 逮建安·黃初, 曹子建父子繼而振之, 王仲宣·劉公幹之徒從而羽翼之. 自是厥後, 作者繼出, 歷魏·晉·宋·齊·隋·唐極矣. 當是時也, 去古未遠, 元氣尙全, 故其詞雄渾雅健, 不務規矧, 而自有規矧. 至唐又製律詩, 媿黃配白, 併儷對偶競趨繩尺, 華藻盛而句律疏, 鍛鍊精而性情逸, 氣局狹而音節促, 滄淳散朴, 斲喪元氣, 而日趨乎萎蕪.

87) 심호택은 문학에서의 기는 氣象으로 보아야 하며, 氣質, 個性, 語氣, 才氣 등의 용어는 함당치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문학론에서의 기의 개념』, 『한문학논집』 제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1, p.89)

문장은 기를 위주로 한다. 기가 높으면 글도 따라 높아지고 기가 시들하면 글도 따라 시들하니, 그 시문에 표현된 것을 보면 그 기의 실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됨이 거칠고 비루하면 그가 쓴 글도 조급하여 각박한 문제가 있으며, 그 사람됨이 진실하지 않고 궤이하면 그가 쓴 글도 진실성이 없어 허탄한 문제가 있고 그 사람됨이 화려하고 방탕하면 그가 쓴 글도 방탕하여 사치한 데로 빠지며, 그 사람됨이 우울하고 원망에 차 있으면 그가 쓴 글도 원망에 차 있어 한스러운 데 빠지게 되니, 그 대체적인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⁸⁸⁾

말형 成任의 시집에 붙인 서문이다. 문장은 ‘기’를 위주로 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문장이 기를 위주로 한다는 조비와 이규보의 주장이 성현에게도 그대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기가 높으면 글도 따라 높고, 기가 시들하면 글도 따라 시들하다는 것은 작가의 기상과 문장의 기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 이어 “우리 백씨는 공평하고 너그러운 자질[資]을 타고나 정밀하고 박후한 학문을 터득하여 국가의 사업에 펼쳐 성상의 법도를 보좌하였다. 그러므로 그 지은 시는 질박하면서도 속되지 않고 내용이 알차 영성하지 않으며, 글의 풍격이 紆餘하고 雄渾하며 平澹하고 典雅하다.”⁸⁹⁾라고 하며 비평과 관련된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기’는 작가의 기상을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가 기상의 뜻으로 쓰인 경우는 다음에도 보인다.

신은 생각하건대, 진기한 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한 치 정도의 뿌리를 얻어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흙을 북돋아 주고 물을 뿌려 주며 햇볕으로 따듯하게 쬐어줍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나서 무성할 수 있으니, 이것은 그 뿌리가 붙어 있는 곳이 알기 때문에 반드시 人力으로 이를 보호하고 가꾸어

88) 成倪, 『虛白堂文集』 卷6, 『家兄安齋詩集序』: 文章以氣爲主. 氣隆則從而隆, 氣餒則從而餒. 其播諸吟詠者, 自有不能掩其實. 其爲人麤鄙, 則其發亦鄙而失於陋, 其爲人輕躁, 則其發亦躁而失其刻, 其爲人詭怪, 則其發亦詭而失其誕, 其爲人華蕩, 則其發亦蕩而失於靡, 其爲人憂怨, 則其發亦怨而失於恨, 其大致然也.

89) 위의 글: 惟我伯氏, 以公平寬裕之資, 得精微博厚之學, 措諸事業, 黼黻王度. 故其爲詩文, 質而不俚, 實而不瀆, 紆餘雄渾, 平澹典雅.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깊은 산 큰 골짜기 속에서 난 것은 북돋우거나 물을 주거나 별을 쪼여주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가지와 잎이 피어나서 마침내 위로 푸른 구름을 건드리며 그 끝을 볼 수 없을 만큼 자랍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뿌리가 깊게 박히고 원기가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재주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데 부지런히 정신을 쓰며 걱정을 거듭하여 실컷 고생을 해가면서 공부에 힘을 들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문장을 짓게 되는데, 수식을 가하며 기묘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 기상은 어딘지 淺近한 병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왕공과 귀인은 그렇지 아니하여 그의 거처하는 지위가 기운을 바꾸고 먹는 것이 몸을 변화시켜, 있는 곳이 높고 보는 것이 원대하므로 학문에 힘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절로 여유가 생기고 학업을 단련하지 않더라도 절로 정밀해져서 넉넉히 여력이 있으므로 그 공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장의 이름이 곤궁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오며 부귀한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것은, 곤궁한 사람만이 홀로 공교하고, 부귀한 사람은 홀로 능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귀와 변화의 향락에 빠져서 미처 공부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⁹⁰⁾

위 글은 月山大君(孝文公)⁹¹⁾이 세상을 떠난 다음 해인 성종20년(1489년)에 임금의 그가 남긴 시를 모아 시집을 만들게 하면서 성현으로 하여금 쓰게 한 서문이다. 위 글에는 ‘원기’와 ‘기’가 각각 등장한다. 먼저 사람의 재주를 나무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혀야 ‘원기’를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원기는 ‘만물 생성의 근원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는 거처하고 먹는 것에 따라 기운이 바뀌어 학문에 절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아 ‘작가의 도량, 타고난 성정, 기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용문을 자세히 살펴

90) 成倪, 『虛白堂文集』 卷6, 「月山大君詩集序」: 臣竊惟養珍木者, 得寸根必壅之以填, 灌之以水, 暖之以日, 然後得遂且茂, 所托者淺, 故必用人力以扶植之也. 其生於深山大壑之中者, 不賴栽培灌暖, 而自然枝葉敷暢, 卒至上擣青雲而不見其巔. 此無他, 其托根深, 而元氣厚也. 人之有才者亦猶是爾. 凡人之爲學者, 孳孳屹屹, 勞心怵慮, 飽憂患而費工夫, 然後得發爲文, 雕琢務奇, 而其氣像未免有淺近之病. 王公鉅人則不然, 居移氣而養移體, 所處高而所見大, 不務學而自裕, 不鍊業而自精, 恢恢然有餘力, 而其功易就. 然文章之名, 多出於窮困, 而不出於紈袴者, 非窮困之獨工, 而紈袴之獨不能也, 汨於富貴繁華之樂, 而不可爲也.

91) 월산대군(1454-1488)은 추존왕 德宗의 맏아들이며, 성종의 형이다. 성품이 침착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정치적 싸움에서 물러나 술을 즐기며 산수를 좋아하였다. 부드럽고 울격이 높은 문장을 많이 지어 『續東文選』에 그의 시가 여러 편 실려 있다. 월산대군의 시호는 孝文인데, 『虛白堂集』에는 孝文公으로 되어 있지만, 『續東文選』에는 文孝公으로 되어 있다.

면 성현이 생각하는 ‘기’의 특징이 발견된다. 나무가 뿌리내리는 곳에 따라 성장에 영향이 있듯이, 작가의 지위와 출신에 따라 나타나는 ‘기’ 또한 달라진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왕족과 귀인은 ‘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공이 절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현달한 사람들의 문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성현이 말하는 지위는 노력해서 얻는 지위가 아닌 선천적인 지위이다. 출신과 같이 타고나는 것이다. 나무에 비유하여 이야기하면 뿌리가 있는 곳이 얇은가 두터운가는 처한 환경으로 보아야 하지만, 이는 나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선천적으로 주어진 환경인 것이다. 성현은 뛰어난 문장을 지을 수 있는 조건으로 타고난 기운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다음이 노력[수양, 혹은 공부]이다. 뒤에 말한 ‘문장의 이름이 곤궁한 사람에게서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근원적이고 선천적인 배경이 곤궁한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곤궁한 상황에서 노력하였기 때문에 훌륭한 문장을 얻음을 말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타고난 재주를 가진 부귀한 사람들은 공부에 주력하지 않기 때문에 곤궁한 사람에게서 좋은 글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는 성현이 왕족인 富林君⁹²⁾의 시집에 붙인 서문에도 보인다.

시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시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말로 드러나는 것으로, 말의 精華이다. 그러므로 그 말에 드러난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내면에 쌓인 것을 알 수 있다. 대저 현달하여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이 평이하고 부귀한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 말이 화려하며 세상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곤궁한 사람은 그 말이 哀怨하고 險僻하다. 일찍이 물을 살펴보건대, 평온하게 흘러가는 물결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고 넘실넘실 구불구불 흘러가 그 깊이가 끝이 없어 측량할 수 없는데, 혹 폭풍을 만나게 되거나 강 언덕에 부딪치게 되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치솟아 올라서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다. 평이하게 흐르는 것이 물의 本性이지 요동치는

92) 富林君(1458-1488)은 世宗의 손자이자 成宗의 당숙이며 桂陽君 李增의 아들로 이름은 李滉이다. 자는 浪翁이고, 호는 四雨亭이며 부립군은 그의 봉호이다. 詩文에 능했고, 名唱이었다. 1500년(연산군 6)에 아들 道安이 그의 시문을 모아 유고집 『四雨亭集』을 간행하였다.

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는가. 다만 그 불평한 것을 만나서 그 본성이 변하였을 뿐이다. 시인의 말도 이와 같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 평이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불평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체로 화평한 말은 아름답기가 어렵고 근심하며 분개할 때의 말은 공교롭기가 쉽기 때문이다.⁹³⁾

성현은 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말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말을 보면 작가의 내면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富林君처럼 공후거인의 현달한 사람, 혹은 시운을 잘 만난 사람(達而在上者)의 말은 절로 평이하고 화려하지만, 그렇지 못한 곤궁한 사람(窮人之無所遇於世者)은 말이 험하고 치우치게 된다.⁹⁴⁾ 이를 물의 본성에 비유하면 達者의 글은 본성을 따르는 글이고, 窮人의 글은 본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선천적 재능(출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궁인의 글에 공교로운 경우가 많음을 인정함으로써 출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조금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⁹⁵⁾ 그리고 성현이 위와 같은 맥락으로 ‘재능(재주)’에 대하여 『부휴자담론』에 언급하였는데, 이는 성현의 ‘기’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성을 열등하게 타고난 자는 비록 평생 능력 있는 사람의 곁에서 지켜보아도 비슷하게 본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능력 있는 자는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아도 절로 하늘이 내린 공교로움이 생기니, 이 어찌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는가? 이 역시 다 天性에 달린 것이다. 성은 바꿀 수

93) 成倪, 『虛白堂文集』 卷8, 「富林君詩集序」: 詩豈易言哉. 詩者, 出於心而形於言, 言之精華也. 觀其言之所發, 而可知其人之所蘊. 大抵達而在上者, 其辭平易, 長於綺紈者, 其辭淫艷, 窮人之無所遇於世者, 其辭哀怨險僻. 嘗觀於水, 夫安流無濤, 沖瀾演迤, 其深無窮而不可測, 其或遇驚颶, 觸崖磯, 哮吼奮激而不能止. 安流是水之本性, 而奮激豈水之性乎. 特值其不平, 而爲之變耳. 騷人之辭亦猶是. 然世人不樂其平, 而樂其不平, 何歟. 蓋和平之辭難美, 憂憤之言易工也.

94) 성현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達者는 벌열 훈구세력을 의미하며, 窮者는 재야 사림 혹은 그 출신의 신진 관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95) 이러한 점에서 김풍기는 성현이 서거정의 ‘臺閣/山林’의 논점을 충실히 계승하는 한편 이미 집단적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림 출신의 신진 관료들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림과의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김풍기, 앞의 글, p.165)

없는데도 반드시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하고 학의 긴 다리를 짧게 바꾸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로 보건대 본연의 성(本然之性)은 변할 수 있지만 기질의 성(氣質之性)은 변하기 어렵고, 비록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변화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⁹⁶⁾

(나) 丁生이 부휴자에게 물었다. “사람의 재주는 배워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휴자가 말하였다. “그렇소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재주는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것이어서 등급과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 낸다고 비슷해질 수는 없습니다. 비단 글을 배우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활과 화살을 들면 반드시 정곡을 찌르고, 뛰어난 목수가 칼을 잡으면 마치 신들린 것과 같이 하여도, 밖으로 사람들에게 나무를 다듬거나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려 들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교를 다 터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조그만 기예일지라도 전심전력하여 뛰어난 자와 매일 함께 지내며 배우게 해도 일정한 한계에 이르면 반드시 멈추어버려 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부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처럼 말하는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배움에 단계를 둔 것은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는 것을 유지하여 더 잘하게 하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도하여 그에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쉽 없이 노력한 후라면 高明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재질에 품계와 한계가 있어서 배워서도 능히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그렇다면 누가 재능과 학문에 마음을 두겠소? 그대는 冶金하는 것을 보지 못했소? 쇠가 불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백 번 연마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품질이 더욱 강해지고 마침내 좋은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쇠도 그러하거늘 사람의 재주를 열심히 갈고 닦으면 성취하지 못할 리가 있겠소이까? 그대의 말은 지나친 것 같소이다.”⁹⁷⁾

96)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2-7 : 性之拙者, 雖終歲旁觀於能者之側, 不能效其彷彿. 至於能者, 則不賴教, 而自然有天巧, 此豈學而能乎? 亦其天性也. 性不可變, 而必欲變之. 不幾於梟脛之短, 而欲使之長, 鶴脛之長, 而欲使之短乎? 由此觀之, 則本然之性可變, 而氣質之性難變, 雖或有可變之人, 而其變不恒也.

97)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2-18 : 丁生問於浮休子曰, “人才可學而能乎?” 曰, “可.” 曰, “不然, 人之才品稟, 受於天, 皆有區限, 不可擬而倫之也. 非獨學文也. 善射者, 持弓矢必正, 梓匠操刀如神, 外示人以規模指法, 而不能使學者得其巧. 至如博奕, 小數也, 雖專心致志, 日與能者而處之, 至其區限必止, 而不能過也.” 曰, “如子之言, 則是杜人之爲善, 而不能進也. 聖人之設科也, 使能者守而裁之, 不能者, 企而及之, 努

성현은 性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본연지성은 개인을 특징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양식인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인격의 의지적인 측면으로 변화가능하며, 인의예지로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기질지성은 성격의 유전적, 생물학적 기반으로 인격의 생물학적 감정적 측면인 기질로 볼 수 있다. 기질이 굳어지면 성격이 되며 변화 불가능하다. 기질에는 우열이 존재하며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혹은 배워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에서 말하는 性은 기질지성의 개념이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므로 배워서 바꾸거나 고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규보의 기론과 같이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기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에 (나)에서 말하는 재주는 본연지성의 개념이다. 우열의 차이는 있겠지만, 학습으로 성취할 수 있음을 부휴자(곧 성현)는 말하고 있다. 특히 배움의 과정은 쇠를 연마하는 과정과 같다고 하며 끊임없는 수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성현은 타고난 기질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림과가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자신들(훈구관각과)과 구분 지으면서 훈구관각과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명 仁義禮智의 수양, 혹은 개인의 도덕적 성찰로 재주나 학문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여 사림과의 성장가능성을 긍정하였고, 기존 훈구관각과와는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성현의 ‘기’는 선천적으로 부여받는다는 점에서는 이규보, 최자, 임춘, 서거정의 주장과 같지만, 타고난 기 자체에 집중하며 그 이후로 기를 기르는 방법이나 변화 혹은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은 최자, 임춘, 서거정의 기와는 다르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서거정의 ‘臺閣’과 ‘山林’의 우열 논리를 따르며 현달한 사람들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보수적인 태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림과의 논리와

力不懈，然後，可至高明之域。如曰，人之才質有品，非學所能變。自棄而莫之爲，則孰留心於才學也。子不見冶金者乎。金踊躍火中，而經於百鍊，則其質愈剛，終成良器，況勉勵人才？豈有不成就者乎？子之言過矣。”

실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성현 이론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현의 기의 강조는 그의 문학에서 시대의 기운과 활력을 강조하는 방향과 작가의 개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성현 문학의 특징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문학은 물론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예술분야에 대해서도 氣가 살아 있어야 참다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⁹⁸⁾ 시대와 관습에 따라 변화하는 것도 인정하고자 하였다.

사람 마음이 서로 다른 것은 얼굴이 서로 다른 것과 같다. 그 좋아하는 바도 역시 그러하다. 음식에 비유하면 계수나무에 붙어사는 벌레와 꿀을 먹인 새끼 쥐는 남쪽 지방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반찬인데 북쪽 지방 사람들이 보면 이마를 찌푸리고 도망간다. 낙타나 양의 젖은 북쪽 지방 사람들이 매우 맛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인데 남쪽 지방 사람들에게 먹어 보라고 하면 이마를 찌푸리고 구역질을 한다. 이것은 사는 곳의 지방색에 따라 좋아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다. 옛날 사람 중에는 매미나 벌 같은 것을 먹는 자도 있었고, 묘당에 대합조개를 제사음식으로 올린 자도 있었으며, 왕개미로 장을 담은 자도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사람들은 먹지 못한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 익숙한 바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⁹⁹⁾

위 이야기는 『浮休子談論』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노생이 부휴자에게 균등한 것이 인간인데, 楊子가 있고 墨子가 있어 서로 같지 않으니, 이는 어떻게 된 것인가 물은 것에 대해 부휴자는 시세에 따라 습관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時勢와 土性에 따라 식성이 달라지듯 각자의 개성과 재능(氣)에

98) 성현은 예술작품에서도 ‘기’, 곧 개성의 발현을 중시하였다. (成倪, 『虛白堂文集』, 卷9, 「題如晦所藏林竹翎毛圖」: 夫畫以氣爲主. 苟無氣焉則形雖似, 而不足觀矣. 成於戲劇造次間者, 筆力所到, 神意自動, 飄然有鼓舞之狀. 何必十日水五日石然後爲至哉?)

99)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2-17: 人心之不同, 如其面焉. 其所嗜, 亦如之. 譬諸飲食, 夫桂蠹蜜啣, 南人之佳饌也, 使北人見之, 則蹙額而走馳. 酥羊酪, 北人之至味也, 使南人飲之, 則額而哇之. 此因其土性, 而所美非其美也. 古之人有食蝸范者矣, 有薦蛤於廟者矣, 有以毗子爲醬者矣, 今人曾不能食之. 此因時世, 而所習不同也.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다양함을 긍정하는 것은 편벽된 사립파들의 의식을 반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지만, 성현 자신의 다양한 관심과 문화예술에 대한 추구하고 관심을 정당하게 하는 데에도 훌륭한 근거가 되었다.¹⁰⁰⁾ 그리고 성현은 무질서한 다양성이 아닌, 질서 있는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성현은 「物不可以苟合論」에서 만물은 대등하지 않으며 함부로 합치면 분별이 없어진다고 하였다. 각각의 위치에서 분수의 한계를 지켜야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표현에서 그는 사회적 상하계층의 질서를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현은 질서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계가 곧 성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이다. 「物不可以苟合論」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聖人は 생각을 미루어 넓히고, 같은 부류에서 적용하여 차츰 넓혀 나가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분수와 한계를 넘지 않고 각자 머물 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혼연한 이치가 마음에 은미하게 깃들게 하여 아름다운 예절이 천하에 가득하게 한다. 예법이 아무 의미 없이 시행되지 않고 사물이 구차하게 서로관계를 맺지 않고 반드시 윗사람이 시행하여 賁飾하는 것을 기다리니, 이것이 賁卦가 噬嗑卦의 다음에 놓이게 된 까닭이다.¹⁰¹⁾

아름다운 예절이 천하에 가득하고 각자로 하여금 분수와 한계를 넘지 않고 각자 머물 곳에 편안하게 하는 것이 성인의 일이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사람과 예절, 사물 세 가지는 각각 그 나름의 존재 의미를 가지고 세상은 질서와 조화로 가득 차 이상적인 세계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억지로 합하거나 질서를 잃게 된다면 이는 혼란스러운 것일 뿐, 다양한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제 임무와 본분을 다할 때 그 다양함이

100) 김풍기, 『조선전기 문학론 연구』, 태학사, 1996, p.203.

101) 成倪, 『虛白堂文集』 卷11, 「擬東坡十論·物不可以苟合論」: 聖人推而廣之, 觸類而長之, 使天下之人, 不踰分限, 各安所止, 渾然之理隱於心, 而燦然之文彌於天下. 禮不徒行, 物不苟合, 必待上之人敷施而賁飾之, 此賁之所以次噬嗑也.

드러나고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氣를 추구하면서 그에 따른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기의 개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성현의 저술과 업적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 문과 시는 물론, 의고악부집인 『풍아록』과 잡록집인 『용재총화』, 우언을 활용한 『부휴자담론』을 저술하였고, 각각 의미를 부여하였다. 시의 기세를 추구하며 새로운 문학적 경향을 제시하고자 의고악부시를 지었고, 잡록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평가 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존재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우언이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간언함으로써 간언의 다양한 모습과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현의 이러한 의식은 박학과 실용은 물론, 문학의 영역을 확대케 하는 진보적 문예의식이라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詩風의 多樣性을 위한 實驗的 試圖 - 『風雅錄』

1. 當時의 詩風

성현의 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當時의 詩風을 알아보고, 성현이 높이 평가한 인물들과 그들의 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당시의 詩風을 알기 위해 조선의 詩體에 관한 金萬重의 기록을 살펴 보도록 하자.

本朝의 시체는 너댓 번 변했을 뿐만이 아니다. 국초에는 고려의 남은 기풍을 이어 오로지 蘇東坡를 배워 성종, 중종 조에 이르렀으니 오직 李荇이 대성하였다. 중간에 黃山谷의 시를 참작하여 시를 지었으니 朴闇의 재능은 실로 삼백년 詩史에서 최고이다. 또 변하여 黃山곡과 陳師道를 배웠는데 鄭士龍·盧守愼·黃廷彥이 술받처럼 우뚝 일어났다. 또 변하여 唐風의 바름으로 돌아갔으니 崔慶昌·白光勳·李達이 純正한 이들이다. 대저 소동과를 배워 잘못되면 왕왕 군더더기가 있는데다 진부하여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강서시과를 배운 데서 잘못되면 비틀고 천착하게 되어 염증을 낼 만하다.¹⁰²⁾

김만중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전기의 詩壇은 고려 말부터 이어져 온 宋詩風의 영향아래 있었다. 蘇東坡를 위시한 송시풍은 成宗朝(1470~1494)와 中宗祖(1506~1544)까지 이어졌다. 이때에 黃庭堅과 陳師道를 배운 江西詩派 李荇과 朴闇이, 그 이후 선조대(1567~1608)에 이르러서는 湖蘇芝라 불리는 鄭士龍·盧守愼·黃廷彥이 일어나 송시를 더 발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송시의

102) 金萬重, 『西浦集·西浦漫筆』, 통문관, 1971, 619면, 「西浦漫筆 下」: 本朝詩體, 不啻四五變, 國初承勝國之緒, 純學東坡, 以迄於宣靖, 惟容齋稱大成焉. 中間參以豫章, 則翠軒之才, 實三百年一人. 又變而專攻黃陳, 則湖蘇芝, 鼎足雄峙. 又變而反正於唐, 則崔白李, 其粹然者也. 夫學眉山而失之, 往往冗陳, 不滿人意, 江西之弊, 尤拗拙可厭.

폐단으로 형식적 규범만을 내세우고 시가 자연스러운 감동에서 멀어지며 인정이나 세태의 절실한 경험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점이 지적되었다. 그 결과 唐風의 主情으로 돌아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했고, 三唐詩人 崔慶昌·白光勳·李達에 이르러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金萬重은 이들을 구분하여 시단의 변화로 표현하였는데, 결국 조선 초기 시(송시)의 폐단을 인지하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은 16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현이 활동했던 15세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자면, 성현의 시대는 동파시를 모방한 송시풍의 영향으로 상투적이고 진부한 표현이 가득한 작품들이 주를 이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문인들이 노력이 꿈틀대고 있던 시기였다고 할 것이다.¹⁰³⁾

다음으로는 성현이 높이 평가한 인물들과 그들의 시를 살펴본다. 성현은 『허백당집』과 『용재총화』에 자신이 생각하는 우수한 문인들을 기록하였는데, 바로 15세기 관료 문인으로 자신의 바로 위 선배들인 김수온, 서거정, 이승소 강희맹을 꼽고 있다. 성현은 그들의 문학을 높이 평가하고, 자신이 그들을 스승으로 삼았다고 함으로써 자기의 시문 또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문장은 崔致遠에서부터 처음으로 발휘되었다. (중략) 世宗께서 처음으로 集賢殿을 설치하고 문학하는 선비들을 맞아들였는데, 高靈[申叔舟]·寧城[崔恒]·延城[李石亨]·仁叟[朴彭年]·謹甫[成三問]·太初[柳誠源]

103) 유호진은 15세기 시단이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 온 송시풍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풍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黃山谷의 시를 배워 기존의 송시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었고, 두 번째는 당시풍을 배우려고 한 노력이 나타난 것, 세 번째는 고시풍을 작시의 모범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들었다. 첫 번째 갈래의 근거는 강서 시파의 시풍이 유행한 점을 들었고, 두 번째 갈래의 근거로 서거정, 김수온, 강희맹의 시집에 당시풍 시들이 자주 보이고, 이 시기에 이백, 두보, 한유, 유종원, 위응물, 백거이, 두목 등 저명한 당대 시인들의 시문집이 간행된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갈래의 근거로는 성간과 성현에게서 나타난 고시 창작 경향을 제시하였다. (「15세기 시단의 동향과 성간의 고시 창작」, 『고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伯高[李塏]·仲章[河緯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모두 한때에 이름을 떨쳤다. 謹甫의 문장은 豪縱하나 詩에는 짧고, 仲章도 對策文이나 疏章에는 능하나 시를 알지 못했으며, 太初는 천재로 夙成하였으나 健문이 넓지 못하였다. 伯高는 맑고 뛰어나 英發하고 시도 精絶하였으나, 선비들이 모두 박인수를 集大成이라고 추대하였으니, 그는 經術·文章·筆法을 모두 잘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두 誅殺을 당하여서 저술한 것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寧城은 四六文體에 능하고, 延城은 科擧의 글에 능하였다. 그러나 高靈의 문장과 도덕만이 一代의 존경을 받았고, 그 뒤를 따를 사람은 徐達城·金永山·姜晉山·李陽城·金福昌과 나의 伯氏뿐이다.¹⁰⁴⁾

성현은 『용재총화』에서 우리나라 시단의 위대한 문인들을 언급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문장은 최치원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여 김부식, 정지상, 이규보, 이인로, 임춘, 이곡, 이제현, 이승인, 정몽주, 정도전, 이색, 권근, 변계량까지 시문으로 뛰어난 이들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世宗이 집현전을 설치하여 문인들을 불러들이니 신숙주, 최항, 이석형, 박팽년, 성삼문, 유성원, 이개, 하위지 같은 이들이 한때 이름을 떨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세조 2년(1456)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발각되어 처형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서 저술한 것이 전해지지 않았다.¹⁰⁵⁾ 그 이후 인물로는 최항, 이석형, 신숙주를 꼽았는데, 이들은 세조 공신 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료집단으로 훈구파의 대표 인물들이다. 그 뒤로는 서거정, 김수온, 강희맹, 이승소, 김수녕, 그리고 그의 첫째 형 성임을 꼽았다.

그리고 성현은 이승소 시집의 서문에 이승소는 서거정, 김수온, 강희맹과 함께 시문이 뛰어나다고 평하고, 자신이 그들에게서 수학하였음을 말하였

104) 成倪, 『慵齋叢話』卷1 2話: 我國文章, 始發揮於崔致遠。(중략) 世宗始設集賢殿, 延文學之士, 有如申高靈·崔寧城·李延城與朴仁叟·成謹甫·柳太初·李伯高·河仲章, 皆擅名一時. 謹甫文瀾豪縱, 而短於詩, 仲章長於對策疏章, 不知詩, 太初天才夙成, 而其覽不博, 伯高清穎英發, 詩亦精絶, 然儕輩皆推朴仁叟爲集大成, 謂其經術文章筆法俱善也. 然皆被誅, 其所著不顯於世. 寧城精於四六, 延城能爲科擧之文, 而惟高靈文章道德, 一代尊仰, 繼躅者徐達城·金永山·姜晉山·李陽城·金福昌及我伯氏而已.

105) 단종 복위 운동 당시 모반 혐의로 처형되거나 목숨을 끊은 사람은 70여명에 이르렀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死六臣’이라고 하여 成三問·朴彭年·河緯地·李塏·柳誠源·俞應孚 6명을 기리게 된 것은 이른바 ‘生六臣’ 가운데 한 명으로 여겨지는 南孝溫이 『秋江集』·「六臣傳」에 이들 여섯의 행적을 소상히 적어 후세에 남긴 데에서 비롯되었다.

다.¹⁰⁶⁾ 특히 이 네명(이승소, 서거정, 김수온, 강희맹)은 관력에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세종 20년에 새로 신설된 進士科에 급제한 점, 집현전 마지막 세대라는 점, 세조 집권 시 가담하지 않았으나 이후 原從功臣에 봉해지고 왕조에 참여한 점, 권력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성현의 형 성임과 성간 또한 이들과 유사한 관력을 거친 관료문인이었다.¹⁰⁷⁾ 이것으로 보아 성현은 이승소 강희맹, 서거정, 김수온, 성임, 성간을 위주로 한 15세기 관료 문인들 곧 자신의 바로 위 선배들의 시풍과 사유 방식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시 경향은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달성 서거정의 문장은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시는 退之[韓愈]의 體를 본받아 손의 움직임에 따라 아름답기 짝이 없는 글이 되었고, 오랫동안 문형 文衡을 맡았다. 영산 김수온은 책을 읽으면 반드시 외기 때문에 문장의 각 體를 얻어서 그 글이 雄放豪健하여 그와 文鋒을 다퉈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성품이 검속하지를 못하여 시의 押韻에 착오가 많았다. 진산 강희맹의 시와 글은 典雅하여 天機가 절로 무르익어 여러 선비들 가운데서도 가장 정밀하고 빼어났다. 양성 이승소의 시와 글은 모두 아름다워 정교한 장인이 다듬고 새긴 것과 같아서 다듬은 흔적이 없었다. 나의 伯氏의 시는 晚唐의 체를 얻어서 떠가는 구름이나 흐르는 물처럼 막히는 데가 없었다. 북창 김수녕은 타고난 자질이 일찍 성숙되어 班固를 따랐으니, 문장이 老健하였다. 일찍이 《世祖實錄》을 엮었는데, 일을 서술한 것이 대개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한 시대에 이름을 떨쳐서 문학이 빛나고 성하였다.¹⁰⁸⁾

106) 成倪, 『虛白堂文集』 卷8, 「三灘先生詩集序」: 公當文治全盛之時, 學爲詩文, 詩文俱優贍, 迢出等夷. 與四佳·乖崖·私淑齋三大老, 齊驅并駕於一時, 名聲相上下, 至如集衆流而成大全者, 皆以公爲稱首. 余以後進, 遊乎門下, 承休光而挹餘馥者非一日.

107) 조영호는 이들의 공통점으로 6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김수온을 제외하면 모두 관각의 일을 맡았던 점, 의정부의 贊成 또는 參贊이 되었으나 끝내 三相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 점 등을 더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석형, 양성지, 강희안, 성임, 성간 등의 인물들도 이와 유사한 관력을 거쳤음을 밝혔다.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17 참조)

108) 成倪, 『慵齋叢話』 卷1 2話: 達城文章華美, 而其爲詩專倣韓陸之體, 隨手輒艷麗無雙, 久掌文衡. 永山讀書必誦, 故能得文之體, 其文雄放豪健, 人無與爭其鋒, 然性無檢束, 故詩之押韻, 多錯不中窠臼. 晉山詩文典雅, 天機自熟, 於諸子最爲精絕. 陽城詩文俱美, 如巧匠雕鐫, 自無斧鑿痕. 伯氏之詩, 得晚唐體, 如行雲流水之無礙. 福昌天資早成, 以班固爲準, 爲文老健, 嘗編世祖實錄, 大抵敘事多出其手. 此數子皆善鳴, 而一代文

서거정의 문장은 화려하고 한유의 체를 본받아 아름다웠다¹⁰⁹⁾. 김수온은 웅방호건 하였으나 압운에 착오가 많은 것이 단점이었다. 강희맹은 전아하고 정밀하고 빼어났으며 이승소의 글도 아름답고 다듬지 않아도 절로 정교하였다. 글도 다듬지 않아도 절로 정교하여 아름답고 정교하여 다듬은 흔적이 없었다. 성임은 만당의 체를 얻어 구름과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이 막힘이 없다고 평하였다.¹¹⁰⁾ 복창 김수녕에 대한 평은 조금 다르다. 역사에 뛰어난 漢書를 편찬한 班固를 따라 문장이 노련하고 힘차다고 평하였다. 성현은 김수녕을 제외한 네 명의 시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아름답다(華美, 艷麗, 雄放豪健, 典雅, 詩文俱美)’라고 평하고 있으며, 이것은 화려하고 섬세한 것이 특징인 당풍을 추구한 이들의 시풍에 대하여 성현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현은 위에 언급한 인물들과 함께 그의 형인 成任과 成侃에게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성현은 성임과 성간에게서 어떠한 점을 보고 배운 것일까? 먼저 성임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항상 원림에서 백씨를 모시고 거닐 때면 천천히 노닐며 시가를 읊조리다가 사물에 감촉되어 시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시로 표현하셨는데, 천연스럽게 자득한 운치는 탁월하여 미칠 수가 없었다. 그런 뒤에야 백씨의 시품이 높은 줄을 참으로 알게 되었다. ¹¹¹⁾

성현은 성임과 원림을 거닐던 추억을 생각하며 성임의 시품에 대하여 이

學彬彬矣.

109) 유희진(「15세기 시단의 동향과 성간의 고시 창작」, 『고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은 唐詩를 배워 시풍을 개혁하려는 시도를 보인 인물로 서거정을 들었다.

110) 성임의 시품이 만당풍이었음은 성현이 지은 성임의 시집 서문에서도 언급하였다. (成侃, 『虛白堂文集』 卷6, 「家兄安齋詩集序」: 故其爲詩文, 質而不俚, 實而不齷, 紆餘雄渾, 平澹典雅, 蔚乎一代之製, 而儕輩皆推讓之, 以爲眞得晚唐之體.)

111) 成侃, 『虛白堂文集』 卷6, 「家兄安齋詩集序」: 常陪杖屨於園林, 優遊嘯傲, 遇興觸物, 必形於詩, 至於天然自得之趣則卓乎不可及, 然後信知其高也.

야기 하고 있다. 앞에서도 성임은 만당의 체를 얻어 구름과 물이 흘러가듯 막힘이 없다고 하였는데, 편안하게 노래하지만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읊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조탁과 단련에 힘쓰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다음은 성간에 대한 성현의 기록을 살펴보자.

선생은 발분하여 杜詩를 천 번 읽더니 흰하게 크게 깨달았다. 책에서 문리가 결끄러워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마음을 기울여 연구해 내니, 庖丁의 칼날이 닿는 곳마다 살과 뼈가 절로 분리되듯 해석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六經과 諸子와 史書에 대해서 두루 숙독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항상 밤에도 낮을 이어 공부하느라 의대를 풀지 않고 등을 침석에 붙이고 눕지 않은 것이 10여 년이 되었다. 성품과 도량이 虛明하고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한번 보면 바로 기억하였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경서나 특이한 서적들도 探討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책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간난신고를 꺼리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책을 구하여 얻었다. (중략) 선생은 博覽強記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는데, 시문을 지으면 호방하고 奧健하며 삼엄하게 법도가 있어 속인들의 상투적 격식에 빠지지 않았다. 侍講 倪謙이 우리 나라로 사명을 받들고 왔을 때 선생이 남을 대신하여 그가 가는 것을 전송하는 시를 지었다. 시강이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면서 “東人の 글솜씨가 중국에 못지 않다.”라고 하였다.¹¹²⁾

성간은 杜詩를 읽어 크게 깨달았으며, 文理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마음을 기울여 연구하였다. 특히 육경과 제자, 사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서적까지 섭렵할 정도로 학문에 관심이 깊었고, 시문 또한 중국 사신이 탄복할 정도로 뛰어났다.

112)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眞逸先生傳」: 先生發憤, 讀杜詩千遍, 豁然大悟. 凡書之文理齜牙未曉之處, 潛心究得, 迎刃而解. 由是六經子史, 無不通熟, 常夜以繼日, 不弛衣帶, 脅不寢席者十餘載. 性度虛明, 聰又過人, 一覽輒記. 凡幽經僻籍, 無不探討. 聞人有美書, 則不憚艱苦, 百計求而得之. (중략) 先生博覽強記, 手不釋卷, 爲詩文, 豪放奧健, 森有法度, 不落俗人窠臼. 倪侍講奉使到本國, 先生代人作送行詩. 侍講見之, 不覺屈膝曰, “東人辭藻, 不減中朝矣.”

和仲(성간의 자)씨는 평소에 큰 뜻을 두어 학문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서책은 읽지 않은 것이 없어 縱橫으로 치달리니, 박학하면서도 정밀하고 깊었다. 문장을 지을 때면 더욱 스스로 분발하여 옛사람을 닮기를 힘쓰고 세속적인 투식에 빠지지 않기를 힘썼으며, 時事를 담론할 경우에는 經史를 넘나들고 고금을 오르내려 우뚝이 세상을 경륜할 뜻을 지니고 있었다.¹¹³⁾

서거정이 성간의 遺稿에 쓴 시문이다. 성현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학문은 두루 통달하였고 읽지 않은 책이 없어 박학하고 정밀하고 깊다고 평하였다. 특히 앞의 인용문에서 성현이 성간의 시를 평한 것과 같이 서거정 또한 성간이 옛사람 닮기를 힘쓰고 세속적인 투식에 빠지지 않기에 힘썼다고 평하고 있다. 이것이 서거정이 본 성간 문학의 특징이다. 성간의 이러한 평은 서거정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러 문인들의 평에서도 드러난다. 허균은 『惺叟詩話』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시는 古體를 본뜬 것이 없는데 오직 成和仲 成侃이 顏延齡·陶潛·鮑照 세 사람의 시를 본뜬 세 편의 시는 깊이 그 법을 얻었으며 여러 절구 역시 당의 樂府體를 얻었으니 이분에 힘입어 가까스로 적요함을 면하게 되었다.¹¹⁴⁾

허균은 성간을 조선전기 고시의 명가로 인식하였고, 그의 절구 역시 당의 악부체를 얻었다고 하였다.¹¹⁵⁾ 성간 또한 성임, 그리고 교유하였던 서거정, 이승소, 강희맹, 김수온 등과 함께 당풍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음을

113) 徐居正, 『四佳文集』 卷6, 「眞逸集序」: 和仲氏平生有大志, 於學無所不通, 於書無所不讀, 馳騁縱橫, 辯博精深. 爲文章, 益自奮銳, 務似古人, 不落時俗窠臼, 至於談論時事, 出入經史, 上下古今, 屹然有經世之志.

114) 許筠, 『惺所覆瓿稿』 卷25, 「惺叟詩話」: 東詩無效古者, 獨成和仲擬顏陶鮑三詩, 深得其法, 諸小絕句, 得唐樂府體, 賴得此君, 殊免寂寥.

115) 유희진(「15세기 시단의 동향과 성간의 고시 창작」, 『고전문학연구』 제 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p.304)은 허균의 이 언급에 대하여 성간이 당시풍을 지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당 악부체 고시의 특성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성간의 시에 대하여 당시풍을 지녔다고 주장하였던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유성준, 「《진일유고》와 성간의 시풍약고」, 『한국한문학회』 2, 한국한문학회, 1977, p.41; 강민경(「성간의 시세계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p.79-81; 전승렬 『조선전기 한시사 연구』, 이회문화사, 2001, p.121.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간의 시에는 서거정과 성임을 비롯한 인물들과는 다른 고시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밝혔듯, 성간은 다수의 흐름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문학을 개척해 나간 인물로, 당시로서는 중심에서 벗어난 ‘고시’ 창작을 모색하였고, 상당한 실력을 갖게 되었다.¹¹⁶⁾

위에서 살펴 본 인물들의 다양한 시적 경향이 모여 성현의 시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영향이 성현 안에서 융화과정을 거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16) 成侃의 문집에는 그의 작품 240여 수가 실려 있는데, 그 중 최소 70여수 이상이 古體詩이다. 유호진은 성간이 15세기에 일어난 고시 창작 운동을 선두에서 이끌었다고 보았다.(유호진, 「15세기 시단의 동향과 성간의 고시 창작」, 『고전문학연구』 제 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2. 格調와 氣勢를 強調한 擬古樂府

성현은 서거정을 비롯한 인물들의 시 경향과 성간의 고시 창작 의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들을 조화롭게 소화해 내어 자신만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古詩이다. 고시에 대한 성간의 인식은 성현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고시 중에서도 樂府詩에 대한 관심은 시인의 정감을 중시한다는 부분에서 당풍의 추구하고 관련이 있으므로¹¹⁷⁾ 서거정을 비롯한 인물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성현은 시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고시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朱子の 시론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자는 한위고시가 작자의 성정을 드러내는 시의 본질을 구현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시의 원류인 한위고시를 재현하기 위한 學詩의 과정으로서 擬古를 긍정하였다. 주자의 시론은 ‘詩三變說’과 ‘正變說’로 요약할 수 있다. ‘시삼변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도가 쇠퇴한다는 관점이다. 주자는 「答鞏仲之」(주자대전 권 64)에 상고로부터 魏晉까지의 시가 가장 뛰어나고 근체시의 성립으로부터 詩法이 크게 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정변설’은 시의 正과 變을 설정하여 詩評의 기준으로 삼고 학습의 전범을 제시한 것이다. 「跋病翁先生詩」(주자대전 권 84)에서 文選詩와 문선시에 가까운 당시의 일부를 ‘정’으로, 이와 경향을 달리하는 작품을 ‘변’으로 설정하고, 시의 본질과 원류를 보존한 ‘정’의 학습을 주장하였다. 이백의 시가 『文選』을 따른 것을 칭상하고, 두보의 夔州 이후의 시가 『文選』으로부터 탈피하여 스스로 법도를 만든 것을 폄하하였다.

117) 이종복은 특히 오언절구가 악부에서 유래하였고 그 점 때문에 당풍을 추구한 조선 전기의 시인들이 오언절구를 악부풍으로 제작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오언절구는 형식에 있어서도 근체시의 격률을 따르지 않아 고풍스러운 맛을 획득할 때가 많았는데, 이 점은 당풍의 추구, 혹은 고풍의 추구라는 점과 결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國朝詩刪』에 수록된 절구 중에서 악부풍으로 제작된 것에 당풍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거나 당대(唐代) 시인의 기풍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이 많다고 하면서 성간의 「囉噴曲」을 예로 들었다. (「조선전기 한시의 당풍과 송풍」, 『한국한문학과 미학』, 태학사, 2003, pp.185-187)

주자의 관점에서 ‘정’의 추구는 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고 주장의 근거가 되었으며, ‘변’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배격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또 주자의 시론은 추상적인 시론에 그치지 않고 한위고시라는 전범과 함께 구체적인 학시의 과정까지 제시하였다. 選體의 모의는 학시의 과정이자 전범의 재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실제 창작면에서도 선체를 표방한 주자의 시는 이 시기 문인들과 조선 초기 문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¹¹⁸⁾ 성현은 이러한 주자의 시론을 이어받아 고시론을 전개하였고 「풍소궤범서」에 주자의 ‘시삼변설’의 논리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그리고 『풍소궤범』이라는 전범을 보여 학시의 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 나라는 詩의 학문을 크게 이루어 대대로 사람이 끊인 적이 없다. 그러나 모두 읊시만 알고 고시는 알지 못하였다. 그 사이에 비록 이를 짓는 사람이 있었으나 對偶에 얽매이는 병통을 벗어나지 못하여 자유자재로 시상을 전개하는 기상이 없었다. 이는 媮母와 같은 얼굴로 西施가 눈을 찡그리는 모습을 흉내내는 격으로 실로 오늘날의 고질병이라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일찍이 玉堂에 있을 때 이 폐해를 강력히 비평한즉 동료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며 말하기를, “율시에는 《瀛奎律髓》이 있고 絶句에는 《聯珠詩格》이 있지만, 다만 古體를 모아 놓은 책만 없으니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天祿閣에 올라가서 金匱 속에 보관된 만권의 서책을 뽑아 놓고 漢魏로부터 元대의 말기에 이르기까지 고시를 빠짐없이 추려내어 모범이 될 만한 것 약간 편을 골라 前後集으로 나누어 만들었다. 前集 16권은 시체별로 편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고시의 시체를 알게 하였고, 後集 29권은 종류별로 나누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종류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였다.¹¹⁹⁾

118) 장유승, 「17세기 고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2 참조. 장유승은 17세기 고시를 연구하며 고시론의 배경으로 명 복고파의 수용과 당풍시의 추구, 주자 시론에 따른 한위고시의 존숭, 황화수창의 중단과 근체시 비판, 과체시의 정립과 성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유승의 연구와 논의의 시기가 다르지만, 주자 시론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119) 成俔, 「風騷軌範序」, 『虛白堂文集』 卷6: 我國詩道大成而代不乏人, 然皆知律而不知古, 其間雖有能知者, 未免有對偶之病, 而無縱橫捭闔之氣, 以媮母之資, 而效西子之顰, 實今日之痼疾, 而不能醫者也. 余嘗在玉堂, 極論斯弊, 同列亦以爲然曰, “律詩則有瀛奎律髓”, 絶句則有《聯珠詩格》, 而獨無古體所哀之集,

그는 우리나라에서 그간 고시를 안다고 하는 자도 대우에 얽매여 고시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 마치 못생긴 얼굴을 가진 모모가 서시의 찌푸린 모습까지 흉내 내서 더 못생겨진 것과 같다면 본질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억지로 걸모양만 흉내 낸 것을 비판하였다. 그리고는 당대에 유행하던 당송시 절구 선집인 『聯珠詩格』과 강서시과 율시 선집인 『瀛奎律髓』은 있지만 고시를 모아 놓은 책이 없음이 안타까워 한·위나라부터 원나라 말기까지의 고시 중 모범이 될 만한 작품을 모아 엮었다.¹²⁰⁾ 사람들에게 고시의 典範을 보이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리고 『풍소궤범』의 편찬 취지를 더 부각시키고자 자신이 고시를 모의하여 지은 시를 모아 『풍아록』을 엮었다. 그 전범에 맞는 작품을 지어 스스로 예를 보인 것이다. 성현은 이렇게 『풍소궤범』과 『풍아록』의 편찬을 각각이 아닌 하나의 궤도로 보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詩道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

성현은 화려한 수식과 정밀한 단련에 치중하는 율시 창작을 비판하고 형식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내용상으로 지극한 맛이 있는 고시와 악부시의 창작을 옹호하였다.¹²¹⁾ 『續東文選』에 실린 51편의 성현의 시문 중에 고시가 21수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¹²²⁾, 김만중이 “동방의 시인으로서 고학[고시]에 뜻을 둔 자가 成倪, 申欽, 鄭斗卿 三家”¹²³⁾라고 하며 성현을 조선

其可乎。”於是登天祿閣，抽金匱萬卷書，自漢魏至于元季，搜抉無遺，擇其可爲楷範者若干首，分爲前後集，前集十六卷，以體編之，欲使人知其體製，後集二十九卷，以類分之，欲使人從其類而用之。

120) 황위주(「조선전기 악부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74)는 율시에의 지나친 경도를 반성함과 아울러 한위남북조의 고시를 강조하고자 한 일련의 경향이 고악부에의 관심을 함께 확대시켰으며, 이것이 조선전기의 전 시기에 걸쳐 악부시를 문단에 부각시킨 중요한 동인(動因) 중의 하나였다고 보았다.

121) 결론적으로 성현이 고시 창작에 있어서 성간의 영향을 받았고, 鮮初 시단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은 유효진의 의견과 같다. 그러나 15세기 시단에 대해서 원인이나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을 가지고 송시풍, 당시풍, 고시풍의 갈래로 구분 짓는 결과론적인 논의에 따라 성현의 고시 창작이 당대 시풍(송시풍과 당시풍)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의견(유효진, 앞의 글, p.313)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122) 속동문선에 실린 성현의 작품은 모두 51편으로 그 중 시가 36편(고시가 21편, 근체시가 15편), 賦가 1편, 文이 14편이다.

123) 김만중, 『서포만필 하』, p.624 : 東方詩人, 有意於古學者, 成虛白·申象村·鄭東溟三家. 虛白所學, 在形貌間, 壁如啖蔗, 而未及乎佳境, 然當時已謂極深者也.

전기에서 가장 뛰어난 고시 작품을 창작한 시인으로 인정할 만큼 그의 작품들이 좋은 평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현의 시문학은 고시와 악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성현의 시집에는 고체시와 근체시가 같이 실려 있고, 『풍아록』은 악부시로만 이루어진 시집이다.¹²⁴⁾ 『풍아록』에 관하여 고시, 의고시, 고시악부, 의고악부 등의 여러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고시와 악부시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고시는 근체시 이전에 만들어진 형식이 자유로운 시를 일컫는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고시는 다시 入樂 여부에 따라 일반고시와 악부시로 구분되어진다. 악부시가 樂歌이면 일반 고시는 徒詩인 것이다.

원래 樂府란 문자 그대로 漢武帝 때 설립된 국가의 음악을 전담하는 관청을 일컫는 말이다. 악부관청은 전대의 음악담당기구인 太司樂, 太樂令과는 구별되는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새로운 악가를 채집하고 새로운 악곡을 제작하는 일이었다. 각 지역의 독특한 민가를 수집 정리함으로써 민풍을 살피고 교화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채집된 민간가요는 寫實性, 紀俗性, 諷刺性 등 民歌的 특색을 두루 구비함으로써 전대의 雅樂과는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서 沈約, 劉勰, 蕭統, 徐陵에 의해 악부가 독자적 문체의 하나로 제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시체명으로서의 악부시의 개념은 協樂 여부를 일차적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악부시는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

124) 황위주(앞의 글, p.114)는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된 『李朝名賢集』 제2책을 근거로 살펴보면, 성현은 『허백당 시집』 14권, 『허백당 문집』 14권, 『허백당 보집』 5권, 『허백당 풍아록』 2권, 『허백당집 습유』 1권, 『부휴자담론』 6권을 남겼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중 『허백당 풍아록』 2권 1책은 여타의 문집과 동일한 활자로 판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편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된 한 책으로 엮여졌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p.81 주1) 재인용) 그리고 『풍아록』을 독립 저술로 출간하여 유포함으로써 문단에 이런 류의 작품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악부시의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보았다.(p.114)

를 겪게 된다. 兩漢 시대에 악부시가 창작되고, 魏晉시대는 양한악부를 모방하고자 하는 擬古樂府가 성행하였으며, 南北朝에는 魏晉시대의 기존 흐름을 이어가는 갈래와 함께 새로운 小樂府를 창작하는 갈래가 나타난다. 소악부는 작은 시 형태라는 뜻으로, 형식뿐 아니라 내용, 서술 방식 상에서 기존의 악부와 여러 차이점을 보이지만, 민가를 채집하여 만들어진 악곡이라는 점에서 악부의 개념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唐代에 이르면 기존 악부와 소악부를 함께 계승, 모방한 의고악부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 시기의 악부는 전대의 작품에 비하여 악곡적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일반시의 한 시풍으로 정착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악부시의 실질적인 의미는 “漢代 이후 각종 민가와 민풍 史話를 작품 속에 집중적으로 구현한 가사 우선의 노랫말”이라고 한정할 수 있으며, 후대로 갈수록 악곡적 특성보다 가사가 지닌 採集民歌的 특징과 그 시정신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⁵⁾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 무신란 이후 林椿, 李齊賢, 閔思平 등이 악부를 樂章과 달리 민가채집적 성격과 의작성을 가진 문학작품으로 이해하면서 악부시가 의미있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임춘은 악부를 반드시 악률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고서도 지을 수 있는 문학작품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며, 쌀기장과 같은 主食과 구별되는 別味の 일종으로 그 가치를 옹호함으로써,¹²⁶⁾ 그 동안 근체시 대 고시라는 인식의 틀 속에 묻혀 있던 악부시를 문단에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제현과 민사평은 악부시가 민가의 수용과 가창 협악성의 특징을 지향하는 양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¹²⁷⁾, 우리말 노래를 한시로 옮긴 小樂府를 지었다.¹²⁸⁾ 그리고 악부의 맥은 조선 전기의 성현에

125) 악부의 개념은 황위주(위의 글) 논문 참조.

126) 林椿, 「與皇甫若水書」, 『西河集』 卷4

127) 황위주, 앞의 글, pp.65-68 참조.

128) 조동일(『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4, p.270)은 한국 악부시를 내용에 따라 擬古樂府, 紀俗樂府, 詠史樂府, 小樂府로 구분하였다.

게로 이어졌다.

다음은 악부의 형식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특징은 시제의 仍用性이다.

성현은 고시 중에서도 시경 이후로 위진남북조의 고시를 가장 모범적인 시로 제안하였다.¹²⁹⁾ 위진남북조의 고시는 의고악부시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성현의 고시 창작 또한 의고악부시 창작으로 드러나게 된다. 성현의 악부집인 『풍아록』에 수록된 전체작품 119편¹³⁰⁾ 중 漢·魏朝의 古樂府로부터 唐代의 新樂府까지 널리 알려진 작품을 의고한 의고악부가 82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성현이 악부시에 있어서 의고적인 면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³¹⁾ 황위주는 『풍아록』 내 작품들의 詩題와 宋代 郭茂倩의 『樂府詩集』에 수록된 동일한 시제의 중국 작가들을 표로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 『풍아록』에 수록된 작품들의 의작 대상이 대체로 위진시대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인들을 통해 널리 지어진 보편적 작품들에 폭넓게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唐代 이후의 문인들을 통해 애송된 작품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¹³²⁾ 이렇게 동일한 시제를 서로 다른 시대의 여러 작가들이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악부시의 일반적

129) 成倪, 「風騷軌範序」, 『虛白堂文集』 卷6 : 詩三百篇, 邈乎不可尙已, 漢蘇子卿·李少卿, 始製五字, 逮建安·黃初, 曹子建父子繼而振之, 王仲宣·劉公幹之徒從而羽翼之. 自是厥後, 作者繼出, 歷魏·晉·宋·齊·隋·唐極矣. 當是時也, 去古未遠, 元氣尙全, 故其詞雄渾雅健, 不務規矚. 而自有規矚.

130) 홍순석(「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은 풍아록의 전체 작품을 119편이라고 하였고, 황위주(앞의 글)는 150수라고 하였다. 이는 詞體에 「步虛詞」가 3首, 「宮詞」가 10首, 「竹枝詞」가 10首, 樂府雜體에 「行路難」이 2首, 「三五七言」이 2首, 「十臺懷古」가 10首인 것을 제목으로 계산하느냐, 首로 계산하느냐에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곧 이를 정리하면 119제 150수라고 할 수 있다.

131) 황위주(1989)는 풍아록 내 작품들의 詩題와 宋代 郭茂倩의 『樂府詩集』에 수록된 동일한 시제의 중국 작가들을 표로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 풍아록에 수록된 작품들의 의작 대상이 대체로 위진시대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인들을 통해 널리 지어진 보편적 작품들에 폭넓게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唐代 이후의 문인들을 통해 애송된 작품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pp.82-89) 홍순석(1991)은 풍아록의 전체 119편의 작품 가운데 76편의 작품이 시제가 일치하며, 제목이 약간 변경된 작품 6편을 포함하면 82편이 의고한 시라고 하였으며, 풍아록 작품의 의작 대상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pp.148-149)

132) 황위주, 앞의 글, pp.82-89.

특징(시제의 仍用性)으로 악부시에 있어서는 거의 관행처럼 共認된 것이며, 전대 작품의 가락과 제제 技法 등을 계승하려는, 악부시의 擬作性에 기인하는 중요한 특징의 일부로 이미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형식의 개방성이다.

근체시의 경우 1행의 자수를 5자 혹은 7자로 제한해야 하고, 1편의 행수를 4행, 8행, 12행 중 택일해야 하며, 평측, 압운, 대우 등의 엄격한 형식적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 또 비교적 형식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고시라 할지라도 1행의 자수를 5자 혹은 7자로 하는 齊言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換韻 隔句韻 每句韻 등 다양한 押韻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악부시는 자수 행수 평측 압운 대우 등 인위적이고 외형적인 제약에 구애되지 않는다. 漢代의 악부시가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3, 4, 5, 7언, 잡언 등 여러 형식을 자유롭게 구사했으며, 이와 같은 형식의 자유로움과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훨씬 더 발랄하고 생명력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¹³³⁾ 악부는 이미 인위적인 작품 형식의 제약이 가해지기 이전부터 세상에 출현했으며, 애초부터 자연스러운 민가적 가락을 바탕으로 제언체와 長短句의 어떤 형식이든 두루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어느 한 고정된 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채집된 민가나 史話, 가락, 작자의 취향 등에 따라 어떤 새로운 형식이든 상황에 따라 두루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식을 가졌다는 점은 악부시의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¹³⁴⁾ 성현의 『풍아록』에 수록된 작품 또한 한시의 일반적 정형을 탈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미리 정해진 일반 한시의 형식적 제약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 각 시제에 부합하는 악곡적 효과를 추구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¹³⁵⁾

133) 兀婷婷, 兩漢樂府研究, pp.338-339. 황위주 논문의 주82).(p. 42) 재인용

134) 황위주(앞의 글, pp.38-47)는 악부시의 일반적 특징으로 시제의 仍用性, 題材의 世俗性과 普遍性, 形式의 開放性, 표현상의 諸特徵(토속적인 민간 어휘 수용, 동일 어휘와 문형의 반복, 평이한 서술식문투, 의미와 상관 없는 聲辭 혹은 虛辭의 개입)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특징은 악곡성이다.

성현 악부시의 악곡성에 대해서는 기존연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박혜숙¹³⁶⁾은 柳希齡의 『大東詩林』과 비교하여 “성현의 경우 음악과 무연해진 의고악부를 악부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입악 여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고, 황위주도 성현의 『풍아록』이 “당나라 때까지 널리 애호된 악부시에 작품적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入樂與否와는 거리가 멀다”¹³⁷⁾고 하였지만, “악곡적 효과를 추구하였다”¹³⁸⁾고 하였다. 이종묵은 『풍아록』에 보이는 작품들은 반복적인 수사 기교를 통해 악곡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잦은 환운이나 출구압운을 통해 더욱 보강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악곡성은 일반고시나 근체시의 영역에까지 두루 고려되어 그 관심도가 매우 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리고 당시 문인들의 연회석상에서 가창이나 음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³⁹⁾ 홍순석도 성현이 악부시를 지으면서 가창 또는 음영되기를 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풍소궤범』과 『풍아록』의 관계로 보아 『풍아록』은 악부시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음악성을 중시하였다고 하였다.¹⁴⁰⁾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入樂’의 표현과 ‘악곡성을 추구’하였다는 표현의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¹⁴¹⁾ 앞에서 언급하였듯 애초에 악부시와 일반고시와의 차이점은 입악 여부에 있다고 하였지만 두 장르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악부에 이르러서는 악부가 채집, 가창, 협악의 방식(입악)으로 구연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시의 시풍으

135) 황위주(위의 글, pp.140-141)는 풍아록에 실린 작품의 형식을 분류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고, 시체에 부합하는 악곡적 효과를 추구한 작품으로 曲體類 제2수인 「大堤曲」을 예로 들었다.

136) 박혜숙, 「형성기의 악부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61.

137) 황위주, 「16·17세기 악부시집의 출현동인과 전개과정」, 『한국한문학연구』 12집, 1989, p.241.

138) 황위주, 「조선전기 악부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140.

139) 이종묵, 「성현의 의고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p.101.

140) 홍순석, 「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150-151.

141) 홍순석(위의 글, pp.150-151)은 “박혜숙과 황위주는 (성현의 악부시가) 음악과의 관련이 다소 멀어졌거나 입악 여부와는 거리가 멀다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반해 이종묵은 악곡성이 강조되었다고 역설하였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홍순석은 ‘입악’과 ‘악곡성추구’의 개념을 같은 것으로 인식한 듯 하다.

로서의 경향을 강하게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⁴²⁾ 그러나 악부 자체가 詩歌였다는 점은 의식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음악적 특징을 무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악곡성을 추구’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정리해 본다면, 박혜숙과 황위주, 이종묵, 홍순석의 표현은 모두 옳은 표현이며, 결국 성현의 『풍아록』은 한국악부시로서 입악과는 거리가 멀지만, 최대한 악곡성을 추구한 악부시집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풍아록』의 구성 또한 성현이 악부가 입악과 관련된 형식의 시임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현은 저작 의도부터 『풍소개범』과 『풍아록』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풍아록』의 구성 또한 『풍소개범』 前集의 구성¹⁴³⁾과 거의 동일하게 엮었다. 『풍소개범』과 『풍아록』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風雅錄』과 『風騷軌範』의 構成

책	구성		※ (x)표는 현존하지 않는 卷, (△)표는 落張이 있는 卷을 표시함.	
풍소개범	전집	권 1	四言體	총 16卷 23體 1100 題
		권 2	古風體 擬古格	
		권 3	古風體 擬古用句格, 雜詩格, 遣興寓懷格	
		권 4	雜古體, 言體, 操體	
		권 5 (x)	樂府體	
		권 6 (x)	歌體	
		권 7 (x)	歌體	
		권 8 (x)	行體	
		권 9 (△)	行體	
		권 10	行體	
		권 11	吟體, 曲體	
		권 12 (△)	曲體, 謠體, 詞體	
		권 13 (x)	詞體, 引體, 怨體, 歎體	
		권 14 (x)	篇體, 詠體, 禽言體, 栢梁體	

142) 황위주, 앞의 글, p.59 참조.

143) 풍소개범 前集은 四言體, 古風體, 雜古體, 言體, 操體, 樂府體, 歌體, 行體, 吟體, 曲體, 謠體, 詞體, 引體, 怨體, 歎體, 篇體, 詠體, 禽言體, 栢梁體, 長短句體, 集句體, 聯句體, 絶句體로 모두 23體로 구성되어 있다.

		권 15 (△)	長短句體	
		권 16	集句體, 聯句體, 絶句體 五言格, 七言格	
	후 집	권 1 (x)	遊覽類	총 29卷 21類 1996 題 144)
		권 2 (x)	遊覽類	
		권 3	遊覽類	
		권 4	地理類 賦山, 賦水, 賦石, 賦橋	
		권 5 (x)	天文類	
		권 6 (x)	天文類	
		권 7 (x)	節序類	
		권 8 (x)	宮室類	
		권 9 (x)	宮室類	
		권 10 (x)	閑適類	
		권 11	憂傷類 賦疾病, 賦哀悼, 賦弔古	
		권 12	安樂類 賦宴飲, 賦茶酒	
		권 13	安樂類 賦音律, 器用類 賦雜器衣物, 文房類 賦文房之器, 賦 讀書集并論筆法	
		권 14	圖畫類 賦畫山水, 賦畫草木	
		권 15	賦畫翎毛鱗族, 賦畫人物	
		권 16	懷古類	
		권 17 (△)	懷古類	
		권 18	人品類 賦孝行, 賦漁釣, 賦豪俠, 賦婦人	
		권 19	仙釋類 賦仙, 賦釋	
		권 20 (△)	仙釋類 賦釋	
		권 21	蠢動類 賦禽, 賦獸, 賦鱗, 賦蟲	
		권 22	靜植類 賦花	
		권 23	靜植類 賦樹, 賦果, 賦草, 賦采, 賦穀饌	
		권 24	寄贈類	
		권 25 (x)	寄贈類	
		권 26 (x)	送別類	
		권 27	送別類	
		권 28	懷訪類, 雜賦類	
		권 29 (△)	雜賦類	
풍 아 록	권1	歌體 9首, 行體 14首, 曲體 10首, 吟體 5首, 詞體13題 33首, 謠體 5首, 篇 體 7首		총 2卷 11體 150首
	권2	引體 5首, 怨體 8首, 歎體 6首, 樂府雜體 37題 48首		

144) 임형택, 『우리고전을 찾아서-한국의 사상과 문화의 뿌리』, 한길사, 2007, pp.1122-125참조.

『풍소궤범』은 중국 위나라에서부터 원나라 말기까지의 역대 고시를 형식과 주제별로 분류, 조선시단의 전범으로 삼아 학시자들을 시학의 근원으로 이끌고자 편찬되었다. 『풍아록』은 전체 150여 수의 작품이 11개의 내용체제로 분류 되어 있다. 이중 歌體, 行體, 曲體, 吟體, 詞體, 謠體, 篇體, 引體, 怨體, 歎體는 풍소궤범 전집의 권 5~14에 실린 양식과 동일하다. 『풍아록』의 악부잡체를 제외한 10가지 체는 소위 악부시의 命題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樂曲, 혹은 協樂方式과 관련된 개념이다.¹⁴⁵⁾ 이들의 정확한 의미와 이에 상응하는 작품세계 향유방식 등이 아직 충분하게 해명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것이 徒詩와 구별되는 특정 악부시의 명제이며, 나름대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지향한 것임은 분명하다. 악부 잡체를 제외한 10가지 명제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歌 : 徐師曾의 『詩體明辯』에는 “정을 풀어서 길게 말하여 잡되고 방정하지 못한 것이 歌이다(放情長言 雜而無方者曰歌)”라고 설명하였다.

② 行 : 徐師曾의 『詩體明辯』에는 “걸고 달리고 말로 치달리는 듯하며 트여서 막힘이 없는 것을 行이라고 한다(步驟馳騁 疏而不滯者曰行)”라고 설명하였다.

③ 曲 : 徐師曾의 『詩體明辯』에는 “높고 낮게, 길고 짧게 하여 감정을 곡진하게 다 드러내어 은미한 뜻을 말하는 것을 曲이라고 한다(高下長短委曲盡情 以道其微者曰曲)”라고 설명하였다.

④ 吟 : 徐師曾의 『詩體明辯』에는 “탄식을 섞은 노래로 깊은 슬픔과 근심을 드러내어 가슴 속의 응어리를 토로하는 것을 吟이라고 한다(吁嗟嘔譟

145) 황위주는 성현이 그의 악부시 150수를 분류하면서 10여개의 命題, 곧 歌, 行, 曲, 吟, 詞, 謠, 篇, 引, 怨, 歎 의 명제를 일차적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고, 「獨不見」, 「長相思」, 「少年樂」 등 악부시의 명제가 붙지 않은 작품, 그래서 명제별 분류가 곤란한 작품을 모아 악부잡체라는 독립항목을 설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제가 첨부된 전자의 작품 일반을 樂府正體로 인식한 것이라 보았다. (황위주, 앞의 글, p.113)

悲憂深思 以呻其鬱者曰吟)”라고 설명하였다.

⑤ 詞 : 시여(詩餘) 또는 장단구(長短句)라고도 한다. 『四庫提要』에는 “『詩經』 300편이 변하여 古詩가 되고, 고시가 변하여 近體詩가 되고, 근체시가 변하여 詞가 되고, 사가 변하여 曲이 되었다.”라고 하였고, 『詩藪』에는 “악부체는 모두 세 번 변하였으니, 첫 번째는 漢·魏의 古詞이고, 두 번째는 唐人의 絶句이고, 세 번째는 宋·元의 詞·曲이다”라고 하였다.

⑥ 謠 : ‘謠’는 악기의 반주 없이 肉聲만으로 부르는 노래이다.

⑦ 篇 : 徐師曾의 『詩體明辯』에는 “그 편을 명명한 뜻에 근본하는 것을 篇이라고 한다(本其命篇之義曰篇)”라고 설명하였다.

⑧ 引 : 徐師曾의 『詩體明辯』에는 “일의 본말을 차근차근 서술하여 가슴속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을 引이라고 한다(述事本末 先後有序 以抽其臆者曰引)”라고 설명하였다.

⑨ 怨 : 徐師曾의 『詩體明辯』에는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있지만 노여워하지 않는 것을 怨이라고 한다(憤而不怒曰怨)”라고 설명하였다.

⑩ 歎 : 徐師曾의 『詩體明辯』에는 “사무쳐서 말로 드러내는 것을 歎이라고 한다(感而發言曰歎)”라고 설명하였다.

命題 작품은 우리나라의 경우 무신난 이후부터 적지 않게 시도되었지만, 이것을 악부시로 간주하고 본질적 논의를 시도한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제가 성현에 의해 비로소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악부시의 교과서적인 전범을 제시하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명제로 분류 가능한 작품은 악부정체로 인식하고, 분류가 어려운 작품은 악부잡체로 묶어 독립저술로 출간 유포함으로써 문단에 이런 류 작품의 독자성을 부각시키고, 악부시의 확산에도 기여하게 되었다.¹⁴⁶⁾

146) 위의 글, pp.110-114 참조.

3. 『風雅錄』 作品 世界

1) 風雅의 의미

성현은 「풍소귀범서」에 밝혔듯, 『시경』을 시의 원류로 보고 원기가 가장 충만하고 온전한 작품이라고 여겼다. 『시경』 305편은 내용상 크게 風·雅·頌으로 나누어진다. 風은 國風이라고도 하며 여러 제후국에서 채집된 民謠·民歌이다. 사랑의 시가 대부분으로, 남녀 간의 애뜻한 정과 이별의 아픔 등이 아주 소박하게 그려져 있다. 雅는 大雅와 小雅로 나누어진다. 소아는 현실을 비판하고 난리의 상황을 반영한 시가 많고, 대아는 조회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통치자들을 축복하거나 훈계하는 뜻을 담았다. 곧 국풍과 소아의 일부는 고대의 생활상을 잘 반영하고 민중의 사상 감정을 선명하게 표출하였으며, 대아와 소아의 일부는 사회적 모순을 반영하고 풍자함으로써 지배계층의 부패상을 반영하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시경』은 동아시아 고전 문학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¹⁴⁷⁾ 이러한 점에서 성현이 자신의 악부시집인 『風雅錄』의 제목을 『詩經』의 風과 雅를 따와 지은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시가문학의 원조인 『시경』을 따라서 시를 창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과 함께 자신의 『풍아록』 또한 우리나라 시단에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성현은 이러한 『시경』의 정신을 잇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문학을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식적으로 『풍아록』에 개인적 정감보다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성현은 여타 다른 고시나 근체시보다는 악부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악부시는 다른 어느 양식보

147) 심경호, 『시와 정치의 교과서-시경,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3권』, 휴머니스트, 2006.

다 采詩에 큰 의미를 두고, 민중들의 삶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였으며, 그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원초적이면서 보편적인 정서(사랑, 이별, 가난, 질병, 전쟁을 통한 아픔)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데 집중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여타 고시나 일반 근체시에서도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악부시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감 보다 서사성이 강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사실을 매개로 한 경우가 많으며, 세속 내의 질박한 세태인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¹⁴⁸⁾ 결론적으로 『시경』의 정신과 성현의 저작의도, 그리고 사실성, 기속성, 풍자성을 특징으로 하는 양식인 악부시라는 세가지 요소가 모여 『풍아록』이라는 작품을 만든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현은 악부의 특징인 세속 내의 인정세태를 적극적으로 묘사해 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민간에 폭넓게 편재한 보편정서를 민중의 시각에서 사실적으로 그려내고자 하면서 세속적이고 보편적인 제재들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풍아록』에는 사랑과 이별, 가난과 질병, 전쟁의 아픔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풍아록』 내의 작품을 1) 사회적 모순과 지배계층의 부패상을 그려 현실을 비판한 시, 2) 착취와 노역, 병역, 전란의 모습을 그려 민간의 고통을 반영한 시, 3) 여인의 정감과 이별의 슬픔을 통해 민중의 사상과 감정을 표출한 시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제재별 분류와 주제 분석

(1) 사회적 모순과 지배계층의 부패상을 그려 현실을 비판한 시

성현의 『풍아록』에는 사회의 부조리를 실감나게 부각시키는 시가 많이

148) 황위주, 앞의 글, p.41.

보이고 있는데, 漢代 악부시의 작품기법인 指事針時的 풍자적 작품을 잘 살린 시라고 볼 수 있다. 세속 내의 인정세태를 적극적으로 묘사해 내면서 사회적 모순과 지배계층의 부패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먼저 「公子行」을 살펴보자.

公子風標世無敵	공자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자태이니
眼光紫稜髯似戟	눈빛은 날카롭고 수염은 창과 같네
結交五陵豪俠客	오릉의 호걸스런 험객들과 교제 맺어
手弄彩毬穿綺陌	채색 공을 손에 들고 시내를 활보하니
長安娼兒爭目送	장안의 기녀들이 경쟁하듯 눈짓하여
邀入青樓夜吹笛	妓院으로 맞이해서 밤늦도록 피리부네
雄心縱搏梟盧擲	호탕하게 있는 힘껏 주사위를 내던지고
快傾瓊碗丹霞液	기분 좋게 잔을 들어 丹霞漿을 들이켜며
長日遨遊惟意適	긴긴 날에 마음대로 놀이하고 즐기는데
不用花朝兼月夕	꽃 피고 달 뜨기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¹⁴⁹⁾

「공자행」은 악부 新樂府辭 雜題 중의 하나¹⁵⁰⁾로, 권문세족의 어린 자제들이 기녀와 淫樂에 빠져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신선의 음료인 단하장 같이 값 비싼 술을 들이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탕하게 놀고 즐기는 생활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公子들의 향락적이고 사치스러우며 방탕한 모습은 당시의 문인들에게도 나타났다. 성현은 『용재총화』에도 “讓寧大君이 聲色에 빠져 학업에 힘쓰지 않았다.”라고 언급 하였고¹⁵¹⁾, 그의 형 성간도 당시 안평대군과 그를 중심으로 한 당대 문인들의 움직임 속에 부패의 싹이 있다고 여기고 그들의 향락적인 인생태도에 대하여 비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¹⁵²⁾ 성현은 성간의 이러한 시각을 그대로 이어받

149) 成倪, 『虛白堂風雅錄』 卷1, 「公子行」

150) 『樂府詩集』 卷90에 唐나라 張祜 등의 작품이 11수 실려 있다.

151) 성현, 『慵齋叢話』 卷4 5화 : 讓寧爲世子, 淫於聲色, 不務學業.

152) 유호진, 「15세기 시단의 동향과 성간의 고시 창작」, 『고전문학연구』 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p.311.

아, 당대문인들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당시 사회를 바라 보았다. 그러나 주관적 의론이나 정서의 표출은 최대한 절제하여 객관적인 서술이 되도록 힘썼다. 그리하여 의고악부를 통해 보편적 상황을 보여주고, 그에 부합하는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관리들을 참새에 비유한 「野田黃雀行」을 살펴보자.

黃雀是何物	참새는 어떤 물건이던가
身微徒利翬	작은 몸애 부리만 뽀족해서
喙盡田間粟	들관의 곡식들을 다 쪼아 먹으며
出入蓬蒿裏	무성한 쑥대밭에 들락거리네
不學鸞鳳表吉祥	상서로운 의표 지닌 봉황새도 안 배우고
不學鷗鷺弄雲水	운수 속에 노니는 갈매기도 안 배우며
胡爲低回郊野間	무엇하러 교외 들관 사이를 쏘다니며
終日翩翩不知止	종일토록 포록포록 날며 쉬지 않는 건가
上畏金彈射	위로는 날아오는 탄환 걱정애
下畏鷹鷂擊	아래로는 매의 공격 두려운데도
不爲人所憐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니
汝死誰復惜	네가 죽은들 누가 다시 애석해하랴 ¹⁵³⁾

「야전황작행」은 악부 相和歌辭 중의 하나로, 『樂府詩集』에 魏나라 曹植, 唐나라 李白 등의 작품이 실려 있다.¹⁵⁴⁾ 작은 몸애 부리만 뽀족하여 들관의 곡식을 쪼아먹느라 종일토록 쉬지 않는 참새의 모습이다. 이들은 신령스러운 상상의 새인 난새와 봉황도 배우지 않고 구름과 물에 노닐며 자연을 즐기는 갈매기나 해오라기도 배우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 쉬지 않고 들관을 쏘다닌다. 성현은 난새와 봉황은 덕이 높은 군자를 비유하고, 갈매기나 해오라기는 깨끗하고 청렴한 선비를 상징하며, 들관의 참새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아전을 비유하였다. 이들에게도 탄환이나 매의 공격 같은 나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익을 좇아 자신들의 배만 불리

153) 成侃, 『虛白堂風雅錄』 卷1, 「野田黃雀行」

154) 「野田黃雀行」은 『樂府詩集』 卷39, p.570에 8수가 실려 있다.

며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까닭에, 누구 하나 이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관리들의 세태를 비판하고, 그들에게 관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청렴한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성현은 관직에 있는 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長安有狹斜行」을 의고하여 우회적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

長安大道中 衢路紛多岐 大道平如砥 迤邐行遲遲 小蹊縱斜狹 行近人爭馳 紛紛車與騎 往來皆由斯 有時自相觸 摧仆難支持 小人樂幽險 君子慕坦夷 坦夷道方泰 行險事多危 危機眞可畏 後悔徒憂悲 如何秉句者 茫然不自知 勿謂吾言誣 吾言良可窺	장안이라 변화한 대도시에는 큰길이 이리저리 엇갈렸으니 큰길은 슯돌처럼 평평하지만 구불구불 이어져서 길이 더디고 사잇길은 빠들고 험소하지만 빠르므로 모두들 그리로 가네 수많은 수레와 기마들까지 예외 없이 이리로 왕래하므로 때때로 지나가다 서로 부딪혀 지탱하지 못하고 나뒹군다네 소인은 음험한 걸 좋아하지만 군자는 평탄함을 사모하나니 평탄하면 도가 크게 퍼지거니와 음험하면 일이 대개 위태해지지 위태함의 기미 진정 두려워할 일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네 어찌하여 요직에 있는 자들이 멍청하게 스스로 알지 못하나 내 말이 거짓이라 여기지 마라 내 말 진정 경계 삼을 만한 것이니 ¹⁵⁵⁾
--	---

악부 相和歌辭 중 하나인 「長安有狹斜行」은 남조 宋나라 謝惠連 등의 작품이 있다.¹⁵⁶⁾ 시의 앞부분에는 변화한 대도시인 장안에 있는 큰길과 좁은 골목길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큰길은 평평하지만 더디고 좁은 골목길은 험

155) 成侃, 『虛白堂風雅錄』 卷1, 「長安有狹斜行」
 156) 「長安有狹斜行」은 『樂府詩集』 卷35에 12首가 실려 있다.

소하지만 빠르다. 그러나 다들 빠른 길로만 가려다보니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길의 특징을 正道와 權道에 비유하였다. 군자는 평탄함을 사모하고 소인은 음험한 길 좋아하는데, 관직에 있는 자들이 평탄한 큰 길이 위험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빠르다는 이유로 굵고 좁은 길로 가려한다고 하며 이들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에게 政事는 正道로 임해야 함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성현은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해결방안까지 모색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드러내었다.

山西虜騎穿雲中 夕烽來照甘泉宮 漢家三十萬軍容 疊鼓振野旌旗紅 將軍稽首受彤弓 白馬躑躅嘶長風 妻孥號哭翻蒼穹 怨氣鬱結生白虹 雪花如席搖空濛 負戈冒雪踰崆峒 天生胡虜驕且雄 有手難與爭其鋒 紛紛衛霍雖成功 萬骨枯暴黃沙蓬 不如敷施仁義常篤恭 守在四夷無兵戎	산서에서 오랑캐가 운중 땅을 침범하여 저물녘에 봉황불이 감천궁에 비취지자 한나라의 삼십만 명 대군이 결집하여 북소리가 들판을 흔들고 붉은 깃발 뻑뻑했지 장군이 머리 숙여 큰 활을 받아 들자 백마는 펄펄 뛰며 긴 바람에 헹헹대나 처자식의 통곡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니 원망하는 마음 맺혀 흰 무지개 생겼어라 망석만 한 눈송이가 자욱하게 날리는데 창을 메고 눈 맞으며 공동산을 넘었다네 태생이 교만하고 사나운 오랑캐라 손 있어도 칼날 함께 겨루기가 어려워니 위청과 광거병이 분분하게 공 세워도 일만 병졸 빼가 말라 풀 사이에 드러났네 인의의 정사 펴고 공손함만 못하나니 사이가 수비하면 전쟁할 일 없으리라 ¹⁵⁷⁾
--	--

악부 相和歌辭 중의 하나인 「從軍行」을 모의하였다.¹⁵⁸⁾ 삼십만명의 병사, 들판을 흔들는 북소리, 뻑뻑한 붉은 깃발, 그리고 천지를 뒤흔드는 처자식의 통곡소리까지 마치 긴장이 감도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직접 그 장면을

157) 成侃, 『虛白堂風雅錄』 卷1, 「從軍行」
 158) 『樂府詩集』 卷32, 33에 魏나라 王粲 등 36명의 작품이 66수 실려 있다.

목격하고 있는 듯 한나라 武帝 때 흉노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공동산을 넘으며 목숨을 바쳐 싸운 병사들의 애환, 그리고 병졸들의 뼈가 풀 사이에 드러나는 전쟁의 참상을 말하며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처음부터 7언으로 계속 이어지던 시가 끝에서 두 번째 행에 서는 글자 수를 9자로 바꾸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진짜 말하고자 하던 바를 이야기한다. 정벌은 인의의 정사를 펴고 공손함을 도탑게 하는 것만 못하니, 천자의 德化를 멀리 미쳐 사방 오랑캐가 수비하게 하면 전쟁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며 임금의 德治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天馬歌」에도 똑같이 보인다.

虎文龍骨桃花題
尾長罕地青雲齊
房星孕此天上種
來作第一人間蹄
奇姿卓犖長高價
烏騅赤兔皆居下
朝從崑崙電發光
夕秣燕薊鞍初卸
九重宮闕祥雲垂
遠人來獻眞龍姿
繡鞵五色白玉勒
覆以黃罽登天墀
扈從鑾駕遊靈囿
又聽瑤池簫鼓奏
一心展盡不凡材
不學含杯空獻壽
君不見漢家天馬歌
茂陵天子空雄誇
涵仁慕義自來至
不必萬里勞干戈¹⁵⁹⁾

얼룩무늬 용의 골격 복사꽃 빛 이마에다
긴 꼬리로 순식간에 구름 속을 달려가니
방성이 이 천상의 종자를 잉태하여
인간 세상 내려와서 으뜸 가는 말이 됐네
출중한 그 자태가 길이 높이 평가되어
오추마와 적토마도 그 아래에 놓였으니
아침에 곤륜에서 번갯불이 번쩍이면
저녁에는 연계에서 안장을 풀고 쉬네
상서로운 구름이 드리워진 구중궁궐
먼 곳에서 바쳐 온 말 진정 용의 자태이니
오색비단 안장에다 백옥 굴레 채우고
황색 그물 덮어서 대궐 뜰에 올렸어라
천자께서 영유에서 노니는 때 호종하고
요지에서 북과 피리 연주를 들었는데
일심으로 충성하는 비범한 재목이라
술 마시며 입으로만 축수하는 짓은 않네
그대 보지 못했는가 한나라의 천마가를
무릉 천자 부질없이 웅건함을 과시했지
인의에 무엇으면 저절로 이르는 법
수고롭게 만리 밖에 나가 싸울 필요 없지

「천마가」는 악부 郊廟歌辭 漢郊祀 가운데 하나로, 한나라 武帝가 渥洼수에서 천마를 얻고 지었다는 노래이다.¹⁶⁰⁾ 앞 부분에서는 화려하고 다양한 기교를 통해 天馬의 위용과 자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君不見’ 다음 부분이다. 천마를 칭송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고, 인의에 무릇으면 천하가 절로 이르며 수고롭게 전쟁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仁義 정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2) 착취와 노역, 병역, 전란의 모습을 그려 민간의 생활상을 반영한 시

악부시는 사회적 모순을 그려냄과 함께 민중들의 삶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데 집중한 양식인 만큼 『풍아록』에도 지방의 민풍과 습속을 가식 없이 드러낸 작품들이 많이 보인다. 특히 특정 고사나 史話와 결부되어 緣事而發의 형태로 표출된 작품들은 전편에 걸쳐 사실성이 농후하고 지방의 생활상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강한 紀俗性을 띠게 된다.¹⁶¹⁾ 여기서는 착취와 노역, 병역, 전란을 통해 겪는 고통과 恨을 그린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長城陰漠漠	음산한 기운 짙은 만리장성에
山高暮雲低	산은 높고 저녁 구름 낮게 깔린 때
吞聲行負戈	병졸들 소리 죽여 행군하는데
風雪寒淒淒	차디찬 눈보라가 휘몰아치네
山路劇羊腸	산길은 험하기가 이를 데 없어
白石齧馬蹄	흰 돌에 말발굽이 찢겨 나가니
虜虺苦難行	병든 말이 괴로워서 걷지 못하고
俯飲當清溪	맑은 내에 다다라서 물 마시려다
清溪冰塞渡	맑은 내에 얼음이 굳게 얼어서
向人頻酸嘶	괴롭게 사람 향해 자주 우누나

159) 成侃, 『虛白堂風雅錄』 卷1, 「天馬歌」

160) 『樂府詩集』 卷1에 李白의 「천마가」 1수가 실려 있다.

161) 황위주, 앞의 글, p.23.

聞道單于壘
猶在陰山西
塞天莽空闊
殺氣纏紫霓
天驕勅難敵
性命眞醜鷄
糜軀不足惜
陟岵心悲悽
王事宜靡盬
愛日心空睽

소문에는 흉노의 왕이 진을 친 곳이
음산의 서쪽에 아직도 있다네
변방 하늘 끝이 없이 뻗어 있는데
중천에는 살기 도는 붉은 무지개
흉노 놈들 사나워서 대적 못하니
목숨은 진정 초과리와 다를 게 없네
이 한 몸이야 부서진들 어떠하랴만
고향 쪽을 바라보니 슬픈 이 마음
나라 위해 의당 힘껏 일해야 하나
날 아끼는 마음에는 위배되어라¹⁶²⁾

만리장성 남단 溪坡 지역의 토굴에서 병사들이 말에 물을 먹이던 민간 고사를 바탕¹⁶³⁾으로 지어진 「飲馬長城窟行」을 의고한 시이다.¹⁶⁴⁾ 차디찬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냇물이 얼어붙는 추운 날씨에 험한 산길을 지나며 흉노 정벌하러 떠나는 한나라 군사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사나운 흉노를 대적하기에 자신은 초과리 같은 목숨이라고 하며 두려움도 앞선다. 그리고 마땅히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워야 하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돌아가 효도 다하고자 하는 마음도 함께하는 복잡한 심경을 그려내었다. 정벌에 동원된 군사들의 착잡하고 복잡한 심경이 차디찬 날씨, 험난한 배경과 함께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더욱 절실하고 절박하게 전해진다. 전쟁과 병역,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은 악부의 주요 제재이며, 민간의 어려움과 생활상을 잘 보여주었다.

「征婦怨」은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여인의 마음을 읊은 시로 『樂府詩集』에 孟郊와 張籍의 작품이 있다.¹⁶⁵⁾

162) 成侃, 『虛白堂風雅錄』 卷1, 「飲馬長城窟行」

163) 황위주, 앞의 글, p.23

164) 「음마장성굴행」은 樂府 相和歌辭 중의 하나로, 『樂府詩集』 卷38에 17수가 실려 있다.

165) 「정부원」은 악부 樂府雜題 중의 하나로, 『樂府詩集』 卷94에 孟郊의 시 4首와 張籍의 시 1首가 실려 있다.

夫從軍去子從行	지아비와 아들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데
妾今來送啼吞聲	따라 나가 전송하며 소리 죽여 울었으니
不如從軍備晨炊	전쟁터에 동원되어 새벽밥이라도 지으면서
一身衣食同死生	먹고 입고 죽고 삶을 함께함만 못했으리
昨夜夫爲驕虜搶	어젯밤에 지아비가 적군에게 찢려 죽고
今朝子亦死亂兵	오늘 아침 아들이 또 반군 손에 죽었다네
中流失船無所倚	강 위에서 배를 잃듯 의지할 곳이 없어
呼天掩淚難爲情	하늘 향해 통곡하니 이 슬픔을 어이할까 ¹⁶⁶⁾

이 작품은 張籍의 「征婦怨」을 모의한 것이다.¹⁶⁷⁾ 장적은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은 이별의 슬픔을 읊었고, 성현도 장적과 같이 남편과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읊었다. 여인의 이별의 슬픔이 주제이기는 하지만, 지아비와 아들을 함께 잃을 수 밖에 없는 백성의 비극적인 상황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전쟁터에 나가는 지아비와 아들을 전송하며 크게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홀로 남은 여인은, 죽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가 원망스럽다. 또 지아비와 아들의 죽음 소식을 전해 들은 여인의 찢어지는 마음과, 어느 곳에도 호소할 곳 없어 하늘 향해 통곡하는 그 슬픔은 말로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극적인 상황과 백성의 슬픔이 강하게 전해지는 작품이다.

한편 전쟁의 고통 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도 있다.

桑葉尖新生雀觜	뽕잎이 새로 돋아 참새 부리 같아지자
羅敷親掃織織蟻	나부가 깨알만 한 개미누에 쓸어 주고
傾筐採葉不知勞	피곤함도 모르는 채 광주리 가득 뽕잎 따다 먹이지만
滿箔蠶寒眠不起	잠박 위의 누에들이 추워 잠을 깨지 않네
雲鬢歷亂未束粧	헝클어진 검은 머리 빗질조차 못하고서

166) 成倪, 『虛白堂風雅錄』 卷2, 「征婦怨」

167) 張籍, 『樂府詩集』 卷94, p.1314, 「征婦怨」: 九月匈奴殺邊將, 漢軍全歿遼水上. 萬里無人收白骨, 家城下招魂葬. 婦人依倚子與夫, 同居貧賤心亦舒. 夫死戰場子存腹, 妾身雖存如畫燭.

夜深無寐青燈光
 機車鴉軋鳴正苦
 玉手難做綠絲長
 長安甲第朱門戶
 越羅蜀錦鬧歌舞
 爭新鬪美樂不足
 誰知此婦良辛苦

푸른 등불 박혀 둔 채 밤늦도록 잠 못 자니
 끼익끼익 물레 소리 진정 듣기 괴롭지만
 고운 손이 긴 비단실 짓기 또한 쉽지 않네
 도성 안 부잣집의 붉은 대문 안에서는
 고급 비단 옷을 입고 시끄러이 가무하며
 좋은 새 옷 경쟁하는 즐거움이 끝이 없건만
 누가 이 여인의 괴로움을 알아줄거나.¹⁶⁸⁾

「蠶婦歎」은 누에치기 하는 여인의 고된 모습을 그린 것이다.¹⁶⁹⁾ 봉건사회에서 농사와 양잠은 백성들의 의식의 근본이 되는 일이었지만 농사와 양잠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수고로움은 四民 중 제일 심하였다. 그리하여 농부의 수고로움과 함께 잡부의 수고로움은 당시 봉건적 체제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층의 한 전형으로 묘사되어왔다.¹⁷⁰⁾ 당시 직접생산자인 일반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운 처지는 지배계층들의 향락적이고 사치로운 생활과 비교되고,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존재로 그려지면서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성현의 「잠부탄」도 이와 같이 사회적 모순과 잡부의 힘든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내었다.

「當窓織」, 「秋雨歎」 같은 작품들도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金風吹雨涼蕭蕭
 秋光欲擺庭中蕉
 蕎花半催豆葉黑
 田夫抱膝愁無聊
 豚肩就社祈秋祭
 呼龍去雲天未霽
 蓄蔬猶可活妻孥
 鞭扑何堪催賦稅

차가운 비를 몰고 서풍이 불어닥쳐
 가을날 뜰 안에 선 파초를 뒤흔들자
 메밀꽃이 떨어지고 콩꼬투리 검게 변해
 농부가 손 놓은 채 무릎 안고 시름하네
 돼지 잡아 사직단에 祈晴祭를 지내고
 구름을 걷어 주길 빌어 봐도 소용없네
 시래기로 처자식은 먹여 살리겠지마는
 세금 내라 독촉하는 매를 어찌 견뎌 낼까¹⁷¹⁾

168) 成倪, 『虛白堂風雅錄』 卷1, 「蠶婦歎」

169) 잠부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樂府詩集』에 元나라의 晉普, 宋나라 文珣 등의 작품이 있다.

170) 김성규, 「15세기 후반 사대부 문학의 몇 가지 경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65

가을에 내린 비로 농사를 망친 농부의 시름을 그린 작품으로 杜甫의 「추우탄」을 모의하였다. 농부들은 이미 떨어지고 검게 변해 버린 작물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손 놓은 채 시름하고 있다. 무릎 안고 쪼그려 앉아 한숨 쉬며 시름하는 농부의 모습이 그려진다. 하늘에 비 개길 기원해 보지만 소용이 없다. 먹을 것 없어 배를 주려도 어찌 견딜 수 있겠지만 배를 굶는 것보다 세금을 독촉하는 관리들이 더 무섭다는 농부의 신세가 더욱 눈물겹다.

성현은 이렇게 전란과 착취, 노역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당시 사회 풍조도 같이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結客少年場行」에 보인다.

少年不讀書	젊은이가 학문에 힘쓰지 않고
學劍敵萬夫	검술 익혀 만 사내를 대적하는데
所交皆荊聶	형섭 같은 이들과 교제를 하며
出入長安衢	장안의 변화가에 출입하누나
腰間挾匕首	허리춤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紫電光射途	두눈의 붉은 섬광 번쩍거리며
刺人白晝市	백주에 저자에서 사람 찌르고
報怨忘其軀	원한을 갚느라고 위험도 잊네
前年赴召募	지난해 출정하는 군에 자원해
走馬西擊胡	서쪽으로 달려가서 오랑캐 칠 때
先行度沙漠	앞장서서 먼지 이는 사막을 건너
叱咤風雲驅	고함치며 질풍처럼 달려갔었지 ¹⁷²⁾
霜鶻奮老拳	하얀 매가 노련한 주먹을 치면
飛鳥散驚呼	새들 놀라 소리치며 흩어지는 듯
探盡豺虎穴	호랑이굴 샅샅이 수색한 뒤에
長歌回大都	노래하며 큰 도회로 돌아왔으나
功名若固有	공명을 본래부터 지닌 것처럼
不願朱紫紆	높은 벼슬 갖기를 바라지 않고

171) 成俔, 『虛白堂風雅錄』 卷2, 「秋雨歎」

172) 지난해 …… 달려갔었지 : 『虛白堂風雅錄』에는 이 부분(前年赴召募, 走馬西擊胡, 先行度沙漠, 叱咤風雲驅)이 없어, 규장각본에 의거하여 보충하고 번역하였다.(허백당집 4, 조순희 옮김, p.111)

還隱舊屠肆
蒲博聚其徒

예전 살던 도축장에 돌아가 숨어
도박하며 무리를 취합하누나¹⁷³⁾

「결객소년장행」은 악부 雜曲歌辭 중의 하나¹⁷⁴⁾이다. 젊은이가 학문에 힘 쓰지 않고 힘자랑 하는데 골몰하며, 결국 도축장에 돌아가 숨어 도박하며 무리지어 지내는 것을 비판하였다. 성현은 의고시의 보편화된 사회 문제에서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이끌어 와 이를 비판하고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여인의 정감과 이별의 슬픔을 통해 민중의 사상과 감정을 표출한 시
성현의 악부시 가운데는 여인의 정감을 읊은 시가 많다.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성이 있는 사랑, 이별, 상사와 같은 여류감정을 많이 담았다는 것은 허백당 『풍아록』이 제재의 세속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악부시임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⁵⁾

먼저 정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白苧如雪生光輝
裁作春風身上衣
衣成日日向君舞
與君偕老香羅緯
焉知風動花易謝
君今遠去何時歸
身非蝴蝶難飛揚
雲天綠樹空依依
欲寄音書無路達
側身仰望孤鴻飛

눈같이 새하얗게 빛이 나는 흰모시로
봄바람 부는 날에 입을 옷을 재단하여
완성되자 날마다 입을 향해 춤을 추며
비단 휘장 안에서 임과 함께 늙어 갔지
바람 불면 꽃이 쉽게 지는 줄을 몰랐건만
지금 임이 멀리 가니 어느 때나 돌아올까
나비가 아니라서 날아가기 어려운데
하늘 멀리 푸른 나무만 어른거릴 뿐이로세
편지를 보내려도 부칠 길이 없는지라
목을 빼고 날아가는 기러기를 바라보네¹⁷⁶⁾

173) 成倪, 『虛白堂風雅錄』 卷1, 「結客少年場行」

174) 「결객소년장행」은 『樂府詩集』 卷66에 9首가 실려 있다.

175) 황위주, 앞의 글, p.139.

176) 成倪, 『虛白堂風雅錄』 卷1, 「白苧詞」

「白苧詞」는 악부 舞曲歌辭 중의 하나로 「白紵曲」, 「白紵歌」, 「白紵辭」라고도 한다.¹⁷⁷⁾ 떠나가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앞부분에 하얀 모시를 재단하여 입고 봄바람 부는 날에 춤을 추며 임과 함께 즐거운 날을 보냈던 여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임이 멀리 떠나가니 나비처럼 날아가 만나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고, 편지 보내 소식 전하고 싶지만 부칠 길 없어, 하염없이 님 오실 길만 바라보는 여인의 애틋한 마음이 잘 표현되었다.

大堤十里柳柳枝	십리 긴 독에는 버들가지 늘어지고
亭亭翠蓋飜平池	꽃꽂한 푸른 연잎 못 위에서 흔들리네
江南女兒足如雪	강남의 아가씨는 눈처럼 발이 흰데
採蓮作伴相怡悅	동무들과 짝을 지어 즐겁게 연밥 따네
翩翩香袖輕飄風	향기로운 소매자락 바람에 펄럭이고
白玉搔墜清冷中	하얀 옥 머리장식 맑은 물에 떨어지네
凌波仙襪簸紅霧	하얀 발로 물을 밟자 붉은 연무 흩어지니
宛似齊妃初學步	齊妃가 걸음 처음 걸던 때와 흡사하네
採蓮莫採蓮中根	연밥을 따더라도 연뿌리는 캐지 마라
採傷根枝不繁	뿌리가 손상되면 줄기 뻗지 못하니
採蓮莫食蓮心苦	연밥을 따더라도 쓴 씨방은 먹지 마라
食心愁苦終何補	씨방은 쓰디쓸 뿐 보탬 될 게 없으니
所願韶華奉六郎	바라는 건 이 봄날에 六郎을 모시고서
相親交頸如鴛鴦	원앙처럼 목 부비며 사랑을 나누는 것 ¹⁷⁸⁾

採蓮은 젊은 남녀가 연밥을 따면서 연인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를 주제로 다른 작품들이 많이 있다. 성현은 악부 청상곡사 중의 하나인 「채련곡」¹⁷⁹⁾ 모의하여 연밥 따는 아가씨가 정인을 그리는 내용을 그려내었다.

177) 『樂府詩集』은 舞曲歌辭를 雅舞와 雜舞로 분류하였으며 잡무에 白紵歌가 포함된다. 『宋書·樂志』에 “白紵舞”는 吳나라의 舞曲”이라 하였고, 『樂府解題』에 “고사의 뜻은 舞者의 아름다움을 성대히 칭찬하고, 또 좋은 시절에 즐겨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樂府詩集』 卷55, p.797)

178) 成俔, 『虛白堂風雅錄』 卷1, 「採蓮曲」

179) 「채련곡」은 『樂府詩集』 卷50에 이백, 장적 등의 작품 26首가 실려 있다.

십리 긴 독에 이어진 버들가지와 못 위에 흔들리는 연잎, 하얀 발로 연밥을 따는 강남의 아가씨들의 모습과 함께 펄럭이는 소맷자락에 향기가 전해지고, 머리 장식 맑은 물에 떨어져 일어나는 물소리도 들리는 듯 하다.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이미지가 함께 표현되면서 봄날의 경관과 함께 정인을 그리는 마음도 아름답게 전달된다. 성현은 이처럼 입을 그리는 여인의 마음을 아름답게만 표현한 것은 아니다. 입을 잃어 슬픈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작품들도 같이 보인다. 사별한 입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그린 작품으로 「節婦吟」, 「遠別離」 등이 있고, 님에게 버림받은 처량한 신세를 읊은 작품으로는 「去婦詞」, 「婕妤怨」, 「獨不見」, 「妾薄命」, 「君難託」 등이 있으며, 변방에 수자리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작품으로는 「擣衣篇」, 「車遙遙」, 「秋夜長」, 「有所思」, 「各東西」, 「妾安所居」 등이 있다.

食蓼蓼未苦	여뀌를 먹어 봐도 쓰지가 않고
吞椒椒未烈	산초를 먹어 봐도 맵지를 앓으니
世間無限愁	인간 세상 많고 많은 시름 중에서
無如生死別	생사 간의 이별보다 큰 건 없다네
恐遭厭浥行露多	이슬 흠뻑 젖은 길을 만날까 두려우니
有手可斷耳可截	손 자르고 귀를 잘라 맹세할 수 있노라
契關百年守空閨	백년간약 맺었던만 독수공방해야 하니
如何一日歸同穴	어찌하면 한 무덤에 묻힐 수 있으려나
人言抱柱節太苦	기둥 안고 죽은 절개 지나치다 말들 하나
若比予心如合轍	도장을 찍은 듯이 내 마음과 똑같다네 ¹⁸⁰⁾

「節婦吟」은 악부 新樂府辭 雜題 중의 하나로,¹⁸¹⁾ 사별한 남편을 따라 자신도 죽고 싶어하는 여인의 슬픔을 그린 것이다. 생사간의 이별이 얼마나 쓰고 매운지 여뀌나 산초로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손 자르고 귀 잘라 보이며 절개를 지킨 고사를 인용하며 자신의 굳은 의지 보이고, 기둥 안고

180) 成俔, 『虛白堂風雅錄』 卷1, 「節婦吟」

181) 『樂府詩集』 卷95에 당나라 張籍의 「절부음」 1수가 실려 있다.

기다리다 물에 휩쓸려 죽은 고사 인용하며, 자신의 마음도 도장 찍듯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슬픈 탄식과 가슴 속 응어리가 절절히 전해진다.

歎息復歎息
我生何不辰
早嫁襁褓郎
誤我韶華春
郎情自衰薄
舊棄反悅新
今朝忽遭逐
上堂辭姑親
痛哭出門去
悲風助酸辛
翩翩堂上燕
失所無所因
灼灼路傍花
飄落拋泥塵
早知此躑躅
寧嫁行商人
商人多積財
可以容我身
嘆息復歎息
愁懷難重陳

탄식하고 다시 또 탄식하노니
내 인생 어찌 이리 기구하던고
어려서 장사꾼의 집에 시집와
아름답던 시절 모두 보내었는데
남편의 정이 점차 시들하더니
날 버리고 새 여자를 사랑하였네
오늘 아침 갑자기 쫓겨나게 돼
당에 올라 시부모께 인사드리고
통곡하며 문을 나와 떠나가는데
슬픈 바람 마음 더욱 아프게 하네
풀풀 날던 처마 밑의 제비 가족은
의지할 사람 없이 살 곳을 잃고
화사하게 피어난 길옆의 꽃은
날려서 진흙 속에 떨어지누나
일찍이 이런 꼴이 되고 말 줄 알았더라면
장사꾼에게 어찌 시집왔을까
장사꾼은 쌓아둔 재산이 많아
내 한 몸 의탁할 수 있다 여겼네
탄식하고 다시 또 탄식하노니
시름으로 말을 더 하기 어렵네¹⁸²⁾

「去婦詞」는 장사꾼 남편에게 시집갔다가 새 여인을 맞이한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의 신세를 읊은 노래이다. 당나라 이백 등의 작품이 있다. 장편으로 된 이 작품은 한편의 이야기를 듣는 듯 자세하게 여인의 이야기를 전한다. 새 여인을 맞이한 남편을 비난하기 보다 장사꾼의 재산을 보고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 여겼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탄식하고 있다. 쫓겨나 떠나오는

182) 成侃, 『虛白堂風雅錄』 卷1, 「去婦詞」

데 부는 바람마저 슬프게 느껴지고 살 곳 잃은 제비, 진흙 속에 떨어진 꽃도 자신과 같은 처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꼴 될 줄 어찌 알았던가 하며 탄식하고 탄식하는(歎息復歎息) 여인의 슬픔과 한탄을 짙진하게 드러냈다.

妾眉如柳顏如花
當牕織手撫箏琶
君來妾家不出闕
偕死同心如菖蘿
自從妾貌年年謝
爲君衾枕薰蘭麝
君隨流水去無蹤
妾今獨守紗窓夜
不是君心有衰歇
妾自命薄恩中絕
恩中絕
未如何
青衫掩泣空幽咽
視舊如讎新媚嫵
重如金甌賤如土
請君莫耽甘薺味
暫試池上蓮心苦

내 눈썹이 버들 같고 내 얼굴이 꽃 같던 때
곱디고운 손가락 창 가에서 비파 타면
당신이 내 집에 와도 문밖에도 안 나갔고
조라처럼 살다 죽길 둘이 함께 바랐지요
아름다운 내 모습이 점점 시들어 가면서
당신 위해 침실에 고급 향을 썼건마는
당신은 물과 같이 종적 없이 떠나가고
나는 지금 홀로 남아 긴긴 밤을 지새워요
이것은 당신 마음 시들해져서가 아니고
내가 본래 박복해서 은총이 끊긴 거죠
은총이 끊어지니
어찌할 길이 없어
소매에 얼굴 묻고 남몰래 흐느껴요
나를 원수 보듯 하고 새 사람을 사랑하니
그녀는 보물단지 나는 천덕꾸러기죠
그대여 단 냉이만 좋아할 게 아니라
연못 위의 쓴 연심도 한번 씹어 보세요¹⁸³⁾

「妾薄命」은 악부 雜曲歌辭 중의 하나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의 슬픔을 그린 작품이다.¹⁸⁴⁾ 성현은 劉元淑의 작품을 의고하였다.¹⁸⁵⁾ 「거부사」의 화자와 같이 새 여인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남편을 원망하

183) 成倪, 『虛白堂風雅錄』 卷2, 「妾薄命」

184) 「첩박명」은 『樂府詩集』 卷 62에 曹植과 崔國輔, 李白, 孟郊 등 여러 시인들의 작품 20首가 실려 있다.

185) 劉元淑, 『樂府詩集』 卷62, p.905, 「妾薄命」: 自從離別守空閨, 遙聞征戰起雲梯. 夜夜愁君遼海外, 年年棄妾渭橋西. 陽春白日照空暖, 紫燕銜花向庭滿. 綵鸞琴裏怨聲多, 飛鵲鏡前妝梳斷. 誰家夫婿不從征, 應是漁陽別有情. 莫道紅顏燕地少, 家家還似洛陽城. 且逐新人殊未歸, 還令秋至夜霜飛. 北斗星前橫度雁, 南樓月下搗寒衣. 夜深聞雁腸欲絕, 獨坐縫衣燈又滅. 暗啼羅帳空自憐, 夢度陽關向誰說. 每憐容貌宛如神, 如何薄命不勝人. 願君朝夕燕山至, 好作明年楊柳春.

는 내용은 없다. 다만 「거부사」는 그 원망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돌렸고, 「첩박명」은 자신의 운명이 그러하다고 하며 체념을 한 점이 다르다. 아름답고 꽃 같던 때는 함께 하며 금슬이 좋았지만 여인의 모습이 점점 시들어가면서 원수 보듯 하고 천덕꾸러기처럼 대하는 남편에게 단 냉이만 좋아하지 말고 쓴 연심도 한번 씹어보라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자신이 버림받은 원인을 타고난 박복한 운명으로 돌렸지만 오히려 마지막에 자신을 다시 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변방에 수자리 간 남편을 그리워하는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秋夜長秋夜長	길고 긴 가을밤에 길고 긴 가을밤에
雲間明月流清光	구름 사이 밝은 달이 맑은 빛을 흘리네
天澹澹露瀼瀼	하늘빛은 담담하고 이슬은 촉촉하며
蘭有秀菊有芳	난초는 빼어나고 국화는 아름다운데
良人遠在天一方	남군님이 멀고 먼 하늘 끝에 계신지라
紅鉛洗淚愁空房	눈물 범벅 된 얼굴로 빈방에서 시름하네
鴻雁南飛翔	기러기 남쪽으로 날아가건만
尺書不得將	편지를 부쳐 보낼 수가 없으니
道路阻且長	도로는 막혀 있고 너무도 멀어
魂夢空茫茫	꿈에서도 아득하여 가지 못하네
夜深擣衣暗斷腸	다듬이질하는 밤에 몰래 애를 끊이는데
錦衾寂寥爲誰香	적적한 비단 이불 누굴 위해 향기롭나 ¹⁸⁶⁾

「秋夜長」¹⁸⁷⁾은 악부 잡곡가사 중의 하나로 성현은 王勃의 작품¹⁸⁸⁾을 의작하였다.¹⁸⁹⁾ 「秋夜長」은 길고 긴 가을밤에 다듬이질하며 멀리 가 있는

186) 成侃, 「秋夜長」, 『虛白堂風雅錄』 卷2.

187) 「추야장」은 『樂府詩集』 卷 76, p.1071에 王融과 王勃, 張籍의 작품이 실려 있다.

188) 王勃, 「秋夜長」: 秋夜長, 殊未央. 明月白露澄清光, 層城綺閣遙相望. 遙相望, 川無梁. 北風受節雁南翔, 崇蘭委質時菊芳. 鳴環曳履出長廊, 爲君秋夜擣衣裳. 織羅對鳳凰. 丹綺雙鴛鴦, 調砧亂杵思自傷. 思自傷, 征夫萬里戍他鄉. 鶴關音信斷, 龍門道路長. 所在天一方, 寒衣徒自香.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그렸다. 이 시는 잡언체로 변화감과 리듬감을 주었고, 반복적인 수사 기교[蟬聯體]를 통해 악곡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平聲 陽韻으로 매구 압운하였는데, 음운이 작품 전체를 감돌게 되어 음악미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성현이 악부의 음악성을 고려하였고, 가창이나 음영되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¹⁹⁰⁾

189) 王勃, 「秋夜長」: 秋夜長, 殊未央. 明月白露澄清光, 層城綺閣遙相望. 遙相望, 川無梁. 北風受節雁南翔, 崇蘭委質時菊芳. 鳴環曳履出長廊, 爲君秋夜擣衣裳, 織羅對鳳凰. 丹綺雙鴛鴦, 調砧亂杵思自傷. 思自傷, 征夫萬里戍他鄉. 鶴關音信斷, 龍門道路長. 所在天一方, 寒衣徒自香.

190) 이종묵(앞의 글, p.101)은 성현의 풍아록 의고시에 악곡성이 강조된 것은 당시 문인들의 연회석상에서 가창이나 음영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다.

IV. 時事에 대한 關心과 記錄 - 『慵齋叢話』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 성현은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慵齋叢話』는 성현의 저작 중 많은 연구자들에게 집중과 관심을 받은 작품이다. 『慵齋叢話』는 10권이라는 방대한 양과 광범위한 분야의 내용을 싣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慵齋叢話』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¹⁹¹⁾ 그 중에 笑話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여러 연구들에 의해 『용재총화』 내 주제와 내용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 연구를 보면 성현의 『용재총화』의 성격과 분류에 관하여 여러 개념들이 혼재하고 있고, 접근하는 관점이 협소하거나 부분적이어서 『용재총화』의 실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용재총화』가 출현하게 된 사상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그와 함께 저자 성현의 사유 방식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아 그 내면의 성현의 의도와 사상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재총화』에 관한 명칭의 개념을 정리하고, 내용별로 분류하여 『용재총화』의 전체적인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성현의 저작 의도와 사유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성현 문학의 한 면을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용재총화』에 관한 명칭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용재총화』는 필기, 수필집, 패설집, 잡기 등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191) 장덕순, 「이조초기의 설화」,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8.

김태안, 「《용재총화》 연구」, 『논문집』 6, 안동대 1984.

이문세, 「《용재총화》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88.

황대면, 「《용재총화》 구조의 분석적 연구」, 『북한한문학』 4, 북한한문학회, 1988.

문다리, 「《용재총화》 소재 소화의 주제분석 연구」, 상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9.

홍순석, 「《용재총화》 소재 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1990.

홍순석, 『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1.

불렸다. 『용재총화』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각 명칭의 개념부터 이해하고, 『용재총화』의 내용과 특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필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자. 연구자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패관문학, 잡기, 만록, 수록, 잡록, 수필, 필기 등으로 서로 다르게 불려지고 있어 개념의 확인과 함께 적합한 용어를 찾아야 한다.

임형택은 이조전기의 사대부 문학을 연구하면서 필기를 분류하고 성격을 규명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저자의 신분과 형성 배경으로 필기와 패설을 구분하였는데, 문인학자의 서재에서 형성되고 사대부의 생활의식을 내용으로 삼은 것은 필기¹⁹²⁾라고 보고, 민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가담항설을 듣고 기록한 것을 패설이라고 하여 필기와 패설을 거의 대등한 개념의 용어로 사용하였다.¹⁹³⁾

임형택의 사대부 문학을 필기와 패설이라고 구분한 큰 틀을 따른 연구들이 이어졌는데, 임완혁도 필기와 패설로 크게 구분하고, 필기의 하위 유형을 일화, 야사, 시화, 변증문의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¹⁹⁴⁾

김준형은 잡다하게 쓰여진 작품집을 ‘잡록’으로 명명하였다.¹⁹⁵⁾ 그리고 잡록의 하위분류를 서거정이 확립한 분류법¹⁹⁶⁾에 야담과 야사를 덧붙여 5개로 구분하였다. 곧 필기, 패설, 시화, 야사, 야담이다. 필기는 서거정이 쓴 잡기라는 용어를 대신한 것이며, 패설은 골계전을 대신한 것이다.

이래종은 ‘필기’라는 용어가 과거 중국에서 ‘小說’을 지칭하던 여러 명칭

192) 중세사회에서 문인학자의 저서는 개인의 시문을 묶어서 만드는 문집과 왕명에 의해 편찬되는 형태를 가진 저서로 나누어지며, 그 중 개인적인 저술이면서 전통적인 권위를 갖지 못했던 견문 잡기들은 문체상 필기로 분류하였다. 필기는 雜錄, 札記, 日錄, 筆談, 隨筆, 漫錄 등으로 불리어지던 것으로 견문을 雜記한 기록류의 범칭이다.

193) 임형택, 「이조 전기의 사대부 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p.414.

194) 임완혁, 앞의 글, pp.38-44.

195) 김준형, 「조선조 패설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15

196) 우리나라의 필기 하위 유형 분류에 관한 의식은 서거정에 이르러 구체화 되어 마침내 시화류(동인시화), 종합류(필원잡기), 패설류(태평한화골계전)가 독립적인 형태의 저술로 나타나게 되었다.

가운데 하나이며, 오늘날에는 일종의 문학의 갈래를 의미 한다고 하였다.¹⁹⁷⁾ 즉 筆記는 雜記한 기록들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소설’¹⁹⁸⁾과 같은 명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학자들이 필기집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 것¹⁹⁹⁾과 서거정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필기집의 하위 유형을 稗說類(逸話, 說話), 野史類(史話, 典故), 詩話類(詩論, 詩評, 作詩逸話), 辨證類(經史, 名物), 綜合類(종합적 성격)로 분류하였다.²⁰⁰⁾ 그런데 이래종의 분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 5가지 유형은 필기집의 유형이지 필기의 유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종합류’라는 것은 나머지 4가지 유형을 종합한 유형²⁰¹⁾이라는 뜻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래종의 ‘필기’의 하위 유형은 패설류, 야사류, 시화류, 변증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필기 혹은 잡록의 개념과 하위 갈래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다. 그나마 야사와 시화에 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해당 범위에서 가장 큰 분류에 해당하는 용어(이내종의 소설과 필기, 김준형의 잡록)와, 임형택과 김준형의 필기에 관한 개념 차이, 또 이내종과 김준형의 패설에 관한 개념차이는 매우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먼저 해당 범위에서 가장 큰 분류에 해당하는 용어를 정리하자면, 이내종의 ‘소설의 개념에서 유래한 필기’는 다른 연구자들의 ‘필기’ 개념과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잡록’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형택의 필기와 패설

197) 이내종, 「선조 필기의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198) 여기서의 ‘소설’은 근현대적 개념의 소설과는 다른 개념이다. 소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동양 기록에 나타난 것은 『莊子』 「外物篇」과 『荀子』 「正名篇」, 『漢書』 「藝文志」 등에서였다. 이들 기록을 보면, 소설이라는 말은 본래 大道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소한 언론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소설을 경시하던 당대의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 또 稗官들에 의하여 채집되어 제왕이나 통치자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으로, 시정이나 길거리에서 얻어들은 말이나 이야기인 街談巷語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글, pp.33-34 참조)

199) 劉葉秋(『歷代筆記概述』, 木釋出版社, 1980, p.4)는 필기 및 필기집의 성격에 대하여 小說故事類, 歷史瑣聞類, 考據辨證類로 분류하였고, 謝楚發(『散文』, 인민문학출판사, 1994, p.75)은 志怪類, 人事類, 考證類, 綜合類로 분류하였다. (위의 글, p.37)

200) 이내종, 앞의 글, p.45

201) 종합류로 분류되는 잡록집으로는 李齊賢의 『櫟翁稗說』과 徐居正의 『筆苑雜記』, 成俔의 『慵齋叢話』가 있다.

의 개념에 대하여 이내중이 의문을 제기하고, 이들은 대등한 개념의 용어가 아니며, 필기는 양식 자체의 개방적 특성상 패설을 그 하위 양식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필기의 형성 배경이 사대부의 생활 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고려 후기 사대부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미 문인들이 자신의 신변 잡기와 견문한 것들을 저술(야사류 내지 패설류)로 남기고 있으므로²⁰²⁾ 발생 시기는 고려 중기 이전으로 소급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임형택의 주장보다 이내중의 주장을 따르기로 하며, 잡록을 패설, 야사, 시화, 변증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 김준형의 잡록의 하위분류 필기는 서거정의 분류를 따랐다고 하였는데, 이는 서거정이 『筆苑雜記』, 『太平閑話滑稽傳』, 『東人詩話』로 분류한 기준의 雜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거정의 『筆苑雜記』는 稗說, 野史, 詩話, 辨證이 혼합된 것으로 이내중의 종합류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준형의 ‘필기’ 개념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김준형은 서거정의 분류에 야사와 야담을 추가하였는데, 야담은 분류가 정확하지 않고, 패설류로도 분류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빼는 것이 옳다. 한편 잡록 내에 변증류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변증류도 하위 분류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잡록은 패설(逸話, 說話)과 야사(詩話, 典故), 시화(詩評, 詩論, 作詩逸話), 변증(經史, 名物)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들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잡록은 잡기한 기록들 곧, 소설이라 불렀던 잡기한 기록들을 포괄하는 문학 갈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특징 때문에 소설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잡록의 주요 특성은 형식이 자유롭고 체재가 광범위하며, 편폭이 짧고, 웃음을 추구

202) 이내중(앞의 글, p.44)은 신라 金大問의 『鷄林雜傳』, 『花郎世記』, 『漢山記』, 고려 전반기 徐熙의 『餘史』, 鄭知常의 『西京雜記』, 朴寅亮의 『古今錄』, 『殊異傳』, 鄭絃의 『瓜亭雜言』 등을 예로 들었다.

하는 해학성을 가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⁰³⁾

첫 번째 특징으로 잡록은 형식에 일정한 격식이 없는 자유로운 산문이다.

지정(至正, 元順帝의 연호) 임오년(1342, 고려 충혜왕 복위 3) 여름에 비가 줄곧 달포를 내려 들어앉았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답답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벼루를 들고 나가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벼룻물을 하여, 친구들 사이에 오간 편지 조각들을 이어붙인 다음, 생각나는 대로 그 이어붙인 편지 뒷면에 적고서 끝에다 櫟翁稗說이라고 썼다.²⁰⁴⁾

이제현은 『櫟翁稗說』 序에 역용패설을 지은 것은 “생각나는 대로 적은 것”이며, “붓 가는 대로 쓴 것²⁰⁵⁾”이라고 표현하였다. 생각나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쓴 글이기에 격식이나 수식은 필요하지 않았고, 문체는 쉽고 평이하였다. 심지어는 격이 낮은 속된 말도 자연스럽게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잡록은 다른 문체에 비하여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제재가 광범위한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폈듯 잡록은 생각나는 대로 적은 사적인 기록이다. 국가의 제도나 역사부터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주변의 이야기, 생활하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등 저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재가 사용되었다. 이때 쓰이는 중심 제재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패설류, 야사류 등으로 분류되는 잡록집의 하위

203) 필기의 특징은 이내종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이내종은 이 외에도 ‘지식추구와 취미성’을 필기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취향이 필기의 성격을 좌우하게 마련이다”, “독자들이 필기를 대하는 목적은 흔히 건문을 넓히려는 것이다. 허다한 필기집의 서발이 ‘博聞의 효용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이내종, 앞의 글, p.28)라고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개인적 취향이 저술의 성격을 좌우하는 것과 독자들이 건문을 넓히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은 필기 뿐만의 특징이 아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되어 이 특징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다.

204) 李齊賢, 『益齋集』, 「櫟翁稗說前集序」: 至正壬午, 夏雨連日, 杜門無磬音, 悶不可祛, 持硯承簷溜, 聯友明往還折簡, 遇所記書諸紙背, 題其端曰, 《櫟翁稗說》.

205) 李齊賢, 『益齋集』, 「櫟翁稗說後集序」: 더구나 이 記述은 본디 무료하고 답답함을 달래기 위하여 붓가는 대로 기록한 것이니, 실없는 이야기가 있을들 뭐 괴이할 것이 있는가. (矧此錄也, 本以驅除悶悶, 信筆而爲之者. 何怪夫其有戲論也?)

유형이 구분되는 것이다. 제재가 다양하다는 특징은 「筆苑雜記序」와 「慵齋叢話跋」에 자세히 보인다.

그 저술은 우리 동방의 일을 널리 모은 것이다. 위로는 祖宗의 神思 睿智로 創業하고 垂統한 大德을 서술하고, 아래로는 公卿과 賢大夫의 모범이 될 만한 道德, 言行, 文章, 政事로부터 국가의 典故와 여항의 風俗으로 세교와 유관하나 국사에는 실리지 않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여 빠뜨린 것이 없다.²⁰⁶⁾

무릇 우리나라 문장의 시대에 따른 高下와 都邑, 山川, 風俗의 善惡, 音樂, 卜祝, 書畫 등 여러 가지 技藝와, 朝野間의 회로애락 중에 談笑 거리가 되고, 心神을 즐겁게 할 만한 것으로, 國史에에는 실리지 못한 것이 모두 실려 있다. 참으로 見聞이 풍부하고 학식이 드넓으니 다른 문필가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다.²⁰⁷⁾

『필원잡기』에는 위로는 祖宗의 일부터 아래로는 여항의 풍속과 야사에 이르기까지 빠뜨린 것이 없으며, 『용재총화』에도 文章의 고하에 관한 글부터 서화, 기예, 朝野간의 담소거리, 야사까지 실려 있다. 이들을 통해 잡록에는 저자의 관심에 따라 폭넓고 다양한 제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편폭이 짧다는 점이다. 잡록은 생각나는 대로 관심과 취향에 따라 쓴 글이다. 그러므로 문장의 구성을 복잡하게 하거나 장황하게 늘리지 않으며 화려한 수식이나 기교도 필요하지 않았다. 특히 일화 같은 경우 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짧고 간략하게 제시하여 간결하지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한다.

武官 梁某가 공주목사가 되었다. 여름철이라 파리가 많았는데, 양모는 파

206) 表沿沫, 『藍溪先生文集』 卷1, 「筆苑雜記序」: 其所著述, 皆博採吾東之事. 上述祖宗神思睿智創垂之大德, 下及公卿賢大夫道德言行文章政事之可爲模範者, 以至國家之典故, 閭巷風俗有關於世教者, 國乘所不載者, 備錄無遺.

207) 黃瑋, 『橡亭逸稿』, 「慵齋叢話跋」: 則凡我國文章世代之高下, 都邑山川民風俗尚之美惡, 暨乎聲樂卜祝書畫諸技, 朝野間喜愕娛悲, 可以資談笑怡心神, 國史所未備者, 悉載是篇. 信乎, 聞見之富, 學識之博, 而非他操觚弄翰者比也.

리를 싫어해 아전들로부터 아래로 기생과 종들에 이르기까지 파리를 한 되씩 잡아 매일 아침에 바치도록 했다. 엄격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를 감독하자 상하가 모두 다투어 파리를 잡느라 분주해 설 틈이 없었다. 심지어 수건에다 파리를 싸가지고 다니며 파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이에 당시 사람들은 양모를 ‘파리목사’라고 부르며, “고을 다스리기를 파리 잡듯이 한다면 어찌 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다.²⁰⁸⁾

『용재총화』에 기록된 이야기이다. 성현은 파리목사의 일화를 적으면서 당시의 상황을 짧으면서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관리의 횡포 또는 치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렸지만 백성들이 그를 ‘파리목사’라고 부른다고 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전환된다. 풍자와 재치가 함께 함으로써 심각한 이야기로 흐르지 않고 웃음거리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웃음을 추구하는 해학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도 보았듯, 잡록에는 해학과 풍자가 함께 한다. 「慵齋叢話跋」에도 ‘朝野間の 회로애락 중에 談笑 거리가 되고, 心神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을 기록하였다고 할 정도로 저작 의도 자체가 웃음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현존하지 않지만 성현의 독립적인 패설집이 있었음은 성현의 기록과 행장으로 보아 알 수 있다.²⁰⁹⁾ 웃음을 추구하는 특징은 『용재총화』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잡록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역옹패설』도 조종과 공경의 일을 신고, 골계로 끝을 맺었으며,²¹⁰⁾ 서거정도 『동인시화』, 『필원잡기』, 『태평한화골계전』 세 종류의

208) 成俔, 『慵齋叢話』 卷7 34話 : 武官梁某, 爲公州牧使. 暑月多蠅, 梁厭之, 令州中吏胥, 下至伶妓僕隸, 每朝捕呈蠅一升. 嚴設法而督之, 上下爭務捕捉, 皇皇不少休. 至有抱布買蠅者. 時人謂之蠅牧使, 治邑如捕蠅. 則令豈有不行者乎.

209) 주 2) 참조. 그리고 성현의 패설집이 따로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성현은 서거정의 종합류 필기집인 『필원잡기』과 같은 유형으로 『용재총화』를 저술하고, 패설류 필기집인 『태평한화골계전』을 따라 패설집을 지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성현이 서거정의 시화와 잡기, 패설의 3가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용재총화』를 지었다는 기존 연구자들의 의견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10) 李齊賢, 『益齋集』, 「樸翁稗說後集序」: 客謂樸翁曰, 子之前所錄, 述祖宗世系之遠, 名公卿言行, 頗亦載其間, 而乃以滑稽之語終焉. 後所錄, 其出入經史者無幾, 餘皆雕篆章句而已.

필기를 저술하면서 웃음을 지향하는 패설류를 『태평한화골계전』이라는 독립적인 형태의 저술을 남긴 것은 당시의 문인들이 웃음을 추구하는 해학을 잡록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잡록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 중 제재가 광범위하고 웃음을 추구한다는 점은 잡록의 특징인 동시에 필기의 갈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곧 제재의 내용과 형식, 또는 웃음의 차이에 따라 잡록의 갈래를 분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용재총화』의 구성과 성격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보자.

『용재총화』는 총 10권으로 선초의 필기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방대하고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용재총화』는 叢話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유형의 필기가 고루 섞여있는 종합류로 분류 할 수 있다.²¹¹⁾

『용재총화』는 총 326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패설류 198화(일화 165, 설화 33), 야사류 84화(전고 81, 사화 3), 시화류 36화(작시일화 31, 시평 5), 변증류 8화(사물 8)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¹²⁾ 패설(일화와 설화)이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성현이 인물 이야기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려준다.²¹³⁾ 그리고

211) 『용재총화』의 갈래는 연구자들마다 분류가 다양하다. 홍순석(「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은 記實, 골계, 紀異, 잡론으로 구분하였고, 이강옥(「《용재총화》의 장르구성과 서술구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은 『용재총화』의 작품들을 교술과 서사로 크게 분류하고, 서사에는 전설, 소화, 일화, 그리고 소설적 전환을 이룬 일화들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장주옥(「《용재총화》의 문학적 고찰」, 『돈암어문학』 8집, 돈암어문학회, 1996)은 『용재총화』를 내용에 따라 기실, 골계, 기이, 잡론으로 분류하였다. 황태면(「《용재총화》의 분석적 고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은 시화, 설화, 記事, 단편소설로 분류하였다. 이문세(「《용재총화》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는 전편의 내용을 야승, 시화, 소화, 일화, 新異담, 애정담, 잡론으로 분류하였다.

212) 『용재총화』의 이야기는 연구자들의 분류에 따라 총 수가 다르게 계산된 경우가 많다. 김태안은 344화, 이문세와 홍순석은 324화, 황태면은 323화로 집계 이내중은 326화, 김남이(『용재총화』, 김남이 옮김, 휴머니스트, 2015)는 321화로 집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용재총화』의 총 話數와 유형별 분류는 이내중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213) 이러한 특징은 성현만의 특징이 아니고, 당대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서거정은 자신이 저술한 『태평한화골계전』에 거의 인물 중심의 笑話系 일화들을 기록하였고, 『필원잡기』에서도 인물의 교훈적 일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李陞의 『靑坡劇談』과 南孝溫의 『秋江冷話』 등도 이와 비슷하다. 이내중은 그 원인으로 당시 성리학의 영향을 꼽았다. 중국 패설류를 대표하는 『태평광기』의

『용재총화』에 수록된 이야기는 패설 이외에도 유형별로 골고루 기록되어 있어 종합류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제재의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어 당시의 사회문화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용재총화』의 유형 중 야사류와 변증류에 포함된 이야기들은 성현의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실재한 사실이나 제도, 풍속 등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²¹⁴⁾ 특히 권1은 총 16화 중 15화가 야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2는 34화 중 15화가 야사, 권7은 36화 중 8화가 야사, 4화가 변증, 권8은 31화 중 12화가 야사, 2화가 변증, 권9는 32화 중 11화가 야사, 1화가 변증, 권10은 38화 중 18화가 야사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의 수록된 이야기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慵齋叢話』의 類型別 分類

	稗說 (逸話, 說話)	野史 (典故, 史話)	詩話 (作詩逸話, 詩評)	辨證 (事物)	話數
卷1		15	1(0, 1)		16
卷2	19(19, 0)	15			34
卷3	37(28, 9)	2	6(6, 0)		45
卷4	20(17, 3)	3	6(5, 1)	1	30
卷5	26(11, 15)				26
卷6	28(25, 3)		10(10, 0)		38
卷7	20(19, 1)	8	4(3, 1)	4	36
卷8	15(13, 2)	12	2(2, 0)	2	31
卷9	14(14, 0)	11	6(4, 2)	1	32
卷10	19(19, 0)	18(15, 3)	1(1, 0)		38
	198(165, 33)	84(81, 3)	36(31, 5)	8	총 326話

내용은 크게 志人과 志怪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기록에서 전문하여 분류, 편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리학이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패설류가 나오기 시작하였기에 지괴보다는 지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실리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선조 패설류의 이러한 특징은 하나의 특이한 문학적 현상이라고 보았다.(앞의 글, pp.90-91 참조)

214) 이강옥은 『용재총화』의 갈래 구성을 교술과 서사로 나누어 구분하고 서사는 다시 전설, 소화, 일화, 소설적 전환을 이룬 이야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용재총화》의 장르구성 및 서술구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6집,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IV장에서는 용재총화의 내용에서 2/3 이상을 차지하는 인물이야기(패설류)와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기록(야사류)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사대부 사회 인물들의 이야기(일화)를, 2절에서는 비특정 인물들의 이야기(설화)를 중심으로 하여 민정 세태를 보여주는 기록들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패설류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야사류(전고)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전고의 기록을 통해 성현이 자궁심을 가졌던 당대의 현실과 제도 및 풍속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1. 士大夫 社會의 記錄

이 절에서는 『용재총화』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 일화를 다루고자 한다. 실존 인물로써 인명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이야기(일화)는 사대부의 기록으로 보았고, 비특정인으로 소개되는 이야기(설화)는 민간의 기록으로 분류하였다. 성현의 일화에는 역사적 인물부터 왕족, 성현과 그의 친족, 성현의 친구, 스님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성현과 그의 친족에 관한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필기는 문인들이 자신의 신변 잡기와 견문한 것들을 저술한 것이기에 성현이 『용재총화』의 저자로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용재총화』에 기록된 성현 자신과 친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12(성간의 호학과 선견지명), 2-32(성간의 夢兆), 2-33(성현의 예조판서 시절 회고), 3-25(맹사성과 성석린의 奇緣), 3-28(안원의 鷹犬 愛玩), 3-32(성석린의 卜宅), 3-33(성석용과 이행의 交遊), 4-25(성현의 영험한 꿈), 6-38(성간의 선견지명), 7-16(성현의 13歲時 회상), 8-7(擔花郎 성간의 對句), 8-13(성현의 귀신체험), 8-28(묘소를 찾은 성현의

奇緣), 9-21(성세균의 진술) 등이다. 이 이야기들은 제목으로 보아도 일상 속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현이 교유하였던 인물에 대한 기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의 이야기는 교유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 기록도 있고, 친구 사이에 재미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들도 많이 보인다.²¹⁵⁾ 이들 중 성현과 이육, 성현과 김간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2-34(李陸의 放達)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육과 사이가 좋았다. 빈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글을 읽었는데, 이웃의 친구의 趙恢의 집과 몇 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조희의 집에는 능금나무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육이 내게 “졸음 귀신이 말썽을 일으키니 조가네 가서 능금이나 먹세”라고 했다. 이에 둘이 가보니 능금나무에 능금이 빨갭게 가득 익어 있었지만, 문이 단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주인을 불렀으나 대답도 없고, 종들은 문 안에서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조금 있다 소낙비가 한바탕 쏟아졌다.

대문 앞 느티나무에 큰 말이 매여 있었고, 작은 말도 서너 마리 있었다. 그러나 조용하니 아무 인적이 없었다. 이육이 “주인이 손님을 너무 심하게 박대하니 차라리 이 말이나 훔쳐가세”라고 하여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각자 한 마리씩 잡아타고 시냇가로 달려나가 느릿느릿 돌아다녔다. 그리고 글을 읽던 집으로 돌아와 말들을 창고 안에 매어놓았다. 그런데 이육이 “내가 이 말을 잡아먹고 싶은데!”라고 했다. 내가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러면 도적과 다를 것이 없네”라고 했다. 그러자 이육이 “조희가 비록 이 일을 안다고 해도 어찌 관아에 알리겠는가?”라고 하더니 마침내 절굿공이를 들어 말 머리를 치려고 하기에 내가 붙잡아 말렸다.

다음날 조희가 찾아왔는데, 눈을 두리번거리고 얼굴은 초췌했다. 이육이 “자네, 어찌 불편한 기색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희가 “어제 처고모께서 김포의 별장으로 돌아가려 하시기에 말을 문밖에 매어두었는데, 도둑이 말을 훔쳐갔다네. 온 집안이 당황하고 놀라서 사람을 나누어 보내 찾아보았는데, 나도 고양과 交河 등지를 모두 찾아다녔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했기에

215) 성현과 교유하였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는 『용재총화』의 일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崔勢遠의 제담에 관한 이야기가 여럿 보이고(2-13, 2-14, 2-31, 6-27, 10-17), 서거정(6-29), 윤자영(7-26), 채수(10-20), 김수온(6-29), 김수녕(6-14) 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보인다.

걱정하는 것이네”라고 했다. 조금 있으니 말이 창고에서 울었고, 이륙이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러자 조희가 창고로 가보니 바로 찾던 말들이 있었다. 조희가 화를 내다가 좋아하다가 하며 욱하기를 멈추지 않으니, 이에 마루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²¹⁶⁾

8-21(成倪의 골계)

남해에서 나는 김을 甘苔라 하고, 감태와 비슷하지만 조금 짧은 것을 莓山이라고 하는데 구워서 먹는다. 내 친구 상사 金澗이 산사에서 독서할 때 스님이 매산을 대접해 먹어보았는데 맛이 아주 좋았다. 무슨 음식인지 몰라서 자세히 물어본 뒤에야 비로소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말하기를 “자네는 매산 구이를 아는가? 천하의 진미라네”라고 했다. 내가 말하기를 “그 음식은 궁궐 수라간에서 올리는 것이라 꺾 밖의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렇지만 자네를 위해서 구해보겠네”라고 했다.

내가 승례문을 나와 연못 가운데 이끼가 물 위에 어지럽게 떠 있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것을 건져 가지고 와서 구웠다. 종을 보내 김간을 초대하니 그 말을 듣고 곧장 왔다. 서로 마주앉아 술을 마시는데 나는 매산을 먹고 그는 이끼만 먹었다. 겨우 두어 폐미를 먹고 말하기를 “구이에 모래가 벉석거리고, 맛도 전에 먹던 것만 못하네. 속이 점점 메스껍고 편치 않네”라고 했다. 곧바로 나가 집으로 돌아가 위로는 토하고 밑으로는 설사하면서 며칠을 앓고서야 병이 나았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산사의 스님이 준 매산은 아주 맛이 좋았는데, 자네가 준 매산은 심이 안 좋았네”라고 했다.

내가 뜰에 있는 나무에 파란 벌레가 가득히 붙어서 잎을 갉아먹는 것을 보고, 마침 그것을 잡아 모아 종이에 싸서 빈틈없이 봉하고 어린 계집종에게 들려 김간에게 보내면서 “요행히 매산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자네의 한 끼 저녁을 마련하시게”라고 했다. 그때가 이미 저물녘이라 김간 부부가 이 불을 피고 같이 앉아 있었다. 김간이 기뻐하며 “네 주인이 혼자 먹지 않고 내게도 보내주니 참으로 벼을 아끼는구나”라고 했다. 마침내 봉한 것을 뜯

216) 成倪, 『慵齋叢話』, 卷2 34話: 余少時與放翁相友善, 寓空家讀書. 隣友趙恢家相距數里, 其家有林檎樹. 一日放翁謂余曰, “眠魔作祟, 不如往趙家食林檎.” 於是二人偕往, 則林檎滿樹爛紅. 門閉不得入, 呼主人亦不應. 僮僕在門內, 飲酒權呼. 俄而驟雨一犁, 門前有大馬槐樹, 小馬亦有三四, 而悄無一人. 放翁曰, “主人麾客已甚, 不如盜此馬而去.” 余頷之. 二人各騎一匹, 馳出川邊, 迤邐而行, 還至讀書處, 繫兩馬於庫裏. 放翁曰, “吾欲殺而食之.” 余曰, “安有此理. 是則與盜無異.” 放翁曰, “恢雖知之, 其肯告官?” 遂舉白杵欲打馬頭, 余扶而止之. 翌日恢來, 目動面悴. 放翁問, “子何有不豫之色?” 恢曰, “昨日妻姑將往金浦鄉墅, 繫馬於門外, 有盜偷馬而去. 舉家遑遑, 分人往搜. 余則巡歷高陽交河等處, 至今未覓, 是以憂耳.” 少焉馬鳴庫裡, 放翁微笑. 恢往見之則即其馬, 恢且怒且喜, 詆之不已. 於是滿堂大噱.

자 벌레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 더러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더러는 치마를 뚫고 들어가니, 부부가 놀라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 벌레가 닿는 곳마다 죄다 부스럼이 생기니 온 집안이 폭소했다.²¹⁷⁾

위 두 이야기는 성현과 교류하였던 친구들과 있었던 재미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첫 번째로 이육과의 이야기를 보면, 성현은 이육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의 성품을 그려내고 있다. 장난기가 심하여 친구네 집의 사과를 따먹으려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심지어 말을 훔쳐 가기도 한다. 심지어 그 말을 잡아먹으려고도 하는 모습을 보아 말이나 행동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조희가 찾아와 말을 찾고는 웃다가 화를 내다가 욕을 하는 모습은 머릿속에 절로 그려지며 웃음을 지어내게 한다.

두 번째로 김간과의 이야기는 성현의 장난스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끼를 매산이라고 속여 태연하게 먹이기도 하고, 벌레를 잡아 속여 보내기도 하는 모습은 장난을 넘어 짓궂기까지 하다. 두 이야기 모두 주변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성현은 친구들과 있었던 사건들을 ‘心神을 즐겁게 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용재총화』에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 중에는 그 당시 사대부 인물들의 즐거움을 엿볼 수 있는 기록도 있다.

10-14(諸人の 所樂處 閑談)

李壽男이 답했다. “나는 업무를 마친 뒤 벗들이 주연을 베푸는 곳을 찾아

217) 成倪, 『慵齋叢話』, 卷8 21話: 苔出於南海者謂之甘苔, 似甘苔而差短者曰莓山, 可作炙. 吾友金上舍澗讀書山寺, 寺僧饋之食之甚美, 然不知爲何物, 詳問然後始知其名. 一日到吾家曰, “君知莓山炙乎? 天下之至味也.” 余曰, “此物乃御廚之供, 非外人所得嘗者, 然爲君求之.” 余出崇禮門, 見蓮池中苔髮亂浮水面, 遂剗而取之作炙, 伴人招上舍, 上舍聞言卽至. 相對設酌, 余食莓山, 上舍專食苔, 纔訖二串曰, “炙中有沙, 味亦不類前食, 漸覺胸中穢惡, 心甚不平.” 徑出還家, 上嘔下洩, 病臥數日, 乃瘳曰, “寺僧莓山甚美, 君之莓山甚惡也.” 余於園中見青蟲滿樹食葉, 遂拾取, 以紙片裹封甚密, 伴小鬟往遺之曰, “幸得莓山, 以備君之一飧.” 時已黃昏, 上舍夫妻擁衾同坐, 喜曰, “汝主不自食而遺我, 眞愛友也.” 遂折封, 諸蟲亂走, 或入衾, 或穿裳, 夫妻驚恐大叫. 蟲之觸處, 皆病瘡, 一室大嘩.

다닌다네. 기생을 끼고 앉아서 실컷 희롱하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나와서 기생과 함께 돌아가는데, 기생의 집에 가기도 하고 지인의 집에 가기도 한다네. (중략)”

金紐가 말했다. “나는 여기저기 벼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네. 내 집이 손님을 모실 만하고, 내 재산도 주연을 차리기에 넉넉하기 때문이지. 매년 경치 좋은 날에 훌륭한 손님과 좋은 벼을 맞아 술 단지를 열어 술자리를 마련한다네. 이마지의 거문고, 도선길의 당비파, 송전수의 향비파에 허오의 피리, 駕鴻鸞과 輕千金이 부르는 노래에 黃孝誠이 옆에서 지휘해 독주도 하고 합주도 하지. 이때 손님들과 술을 주고 받으며 마음껏 담소하고 시를 짓는다네. 이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바라네.”

서거정이 옆에서 듣고 “최군은 방탕하고, 정군은 호방하다. 이군은 음란하고, 김군은 질탕하다”고 평했다.

또 좌우에게 묻기를 “그대들도 즐거워하는 바가 있는가?”라고 하니, 權璠가 말하기를, “나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았소. 벼 서너 명과 함께 냇가에 가서 긴 그물로 냇물의 위아래를 막고 윗도리를 벗고 짧은 바지만 입은 채 직접 작은 그물을 가지고 이리저리 고기를 몰면 들어올릴 때마다 은빛 비늘의 물고기각 그물 안에서 빛난다오. 그때 보리밭의 순무를 캐고 또 여뀌 열매를 따서 장국을 끓이고 겨자를 걸러 넣소. 회를 치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면 구덩이가 메워지듯 주린 배가 가득 찬다오. 이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바요.”라고 하니, 서거정이 “한적하다”고 평했다.

사에 柳希益이 가장 나중에 대답했다. “내가 즐거워하는 바는 그대들이 선택한 것과는 다르오. 해가 긴 여름날 밤 나무 그늘 아래에 앉으면 맑은 바람이 저절로 불어오는데, 그때 거기에 자리를 깔고 앉아 『주역』, 『중용』, 『대학』을 익는다오. 이것이 내가 즐거워하는 바라오.”

서거정이 말하기를 “바르다고 하면 바르겠지만, 사나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것처럼 고달프게 살 수 있겠소?”하니,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크게 웃었다.

그때 南悌가 篆字를 잘 썼기 때문에 초빙되어 곁에 있었다. 한창 전자를 쓰고 있는데, 여성군 閔發이 칭찬하기를, “흰 구름 같은 과녁을 청산녹수 사이에 펼쳐놓고 화살 네 발을 끼고 들어가 물 흐르듯 과녁을 쏘는데, 종일토록 화살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일이네. 큰 멧돼지가 갈대 숲 사이에서 으르렁대는 소리를 내면 말을 달려 들어가서 화살 한 발로 죽이는 것도 내가 잘하는 일이네. 극심한 더위에 누대에 올라 얼음물에 밥을 말고 콩가루를 섞어서 한 사발 들이키는 것도 내가 잘하는 일이네. 하지만 이처럼 글자를 묘하게 쓰는 재주는 백 번 죽었다 깨어

나도 나는 할 수 없네.”라고 했다.²¹⁸⁾

위 인용문의 시작은 이러하다. 신하들이 세조의 부름에 모두 모였는데, 세조가 나오지 않자 모두 경회루 아래에 모여 命을 기다렸다. 이에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켜며 崔漢良이 답답하다고 했고, 이에 鄭蘭宗이 사신의 즐거움에 대해 아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여러 선비들의 대답들이 이어졌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먼저 최한량이 사신 가는 기생과 즐기는 즐거움에 대하여 말하고, 정난중은 기생과 함께 사냥을 하고 즐기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 이수남과 김뉴, 권호, 유희익, 민발의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진 것이다. 이수남은 업무 후에 기생과 즐기는 즐거움, 김뉴는 자신의 집에서 베푸는 주연에 관한 즐거움, 권호는 낚시의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유희익의 독서에 관한 즐거움에 관하여는 서거정이 편찬을 주어 웃음을 유발한다. 그리고 마지막 민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위 인용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당대 유명한 사대부들로, 자신들의 즐거움에 대하여 자랑하였는데, 이로써 그들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어 주목을 끈다. 그들의 취미생활은 곧 사냥, 음주, 연회, 낚시, 독서 등이다. 풍족하고 여유로우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다. 특히 김뉴의 즐거움에 등장하는 이마지, 도선길, 송전수, 허오, 가홍란과 경천금, 황효성은 당대의 유명한 악공들이다. 이들을 불러 연회를 즐긴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재산도 충분히 넉

218) 成倪, 『慵齋叢話』, 卷10 14話: 李君壽男曰, “我則仕罷後, 尋友人宴集處. 挾妙妓而坐, 多般戲弄, 夜深先出, 與妓同歸, 或往妓家, 或往所知人家. (중략)” 金紐子固曰, “予則不欲歷訪友人, 予家足以容客, 予財足以辦宴, 每於花朝月夕邀佳賓良朋, 開樽置酒. 李尙知彈琴·都善吉唐琵琶·宋田守鄉琵琶·許吾吹笛·鶴鴻鑾輕千金唱歌, 黃孝誠從旁指揮, 或獨奏或合奏. 於是與客酌酒相酬, 縱談占聯, 此予所樂也.” 達城在傍聞之曰, “崔君放蕩也, 鄭君豪傑也, 李君淫慝也, 金君跌宕也.” 又問左右曰, “諸君亦有所樂乎?” 權瑚不器曰, “予生長鄉里, 以獵魚爲業, 與三四友輩, 往川澗, 以長網遮流上下, 解衣短袴親持小罟, 縱橫驅魚, 隨入隨舉, 銀鱗翻閃於網上, 於是採麥田蘿菘, 又取蓼實, 燒醬漉芥, 或作膾, 或烹臠, 如填塹枵腹忽果, 此予所樂也.” 達城曰, “閑適也.” 俞司藝希益最後對曰, “予之所樂, 異乎諸子之撰, 當日長夏節, 坐栗樹陰下, 清風自至, 鋪席其中, 讀周易庸學, 此予所樂也.” 達城曰, “正則正矣, 男兒生於世, 安有如此困苦乎?” 滿座大噱. 是時南悌子順以書篆被召在側, 方書圖篆, 驪城君閱發贊之曰, “以如白雲之帳, 倚張於青山綠樹之間, 挾四矢而入, 射帳如注, 終日矢不墜地, 予所能也. 有封豕鳴牙於葦蘆叢間, 馳馬而入, 一箭而殪, 予亦能也. 苦熱登樓, 調水沈飯, 加以豆屑, 一鉢健倒, 予亦能也. 如此書字妙技, 雖經百死, 予不能也.”

덕하여 먹고 사는 데에는 걱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용재총화』는 웃음과 과한을 위하여 잡다한 이야기를 모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당대 사대부 인물들의 취미와 즐거움, 더 나아가 그 사회의 모습까지 알려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현은 자신과 관련한 신변 잡기와 교유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는 물론 당대 왕족에 관한 이야기들도 기록하였다. 『용재총화』에 기록된 왕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2-16(安平大君과 성간), 4-4(讓寧의 폐업과 이래의 극간), 4-5(讓寧大君의 활솜씨), 4-21(榮川郡의 풍류), 5-16(孝寧大君의 해학), 5-17(豐山守의 어리석음), 6-24(順平君과 宗學), 7-5(讓寧大君의 해학) 등이다. 왕족에 관련한 기록은 다른 기록들에 비하여 다소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였지만 그 웃음은 친구들과의 교유에서 보였던 破閑의 웃음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웃음으로, 비판과 풍자의 면모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왕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7-5(양녕대군의 해학)

양녕대군 李裀는 비록 덕을 잃어 세자가 되지 못했지만 만년에는 때에 맞게 잘 처신했다. 세조께서 일찍이 양녕대군에게 “저의 위엄이 한나라 고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하고 물었다. 양녕대군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는 비록 위엄을 떨치시지만 선비의 관에 오줌을 누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했다. 세조가 또 묻기를 “제가 부처를 좋아함이 梁나라 武帝와 비교하면 어떠합니까?”라고 했다. 양녕대군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부처를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 밀가루를 가지고 제물을 만드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했다. 세조가 또 묻기를 “제가 신하의 간언을 막는 것이 당나라 태종과 비교하면 어떠합니까?”라고 했다. 양녕대군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비록 간언을 막기는 하시지만 태종이 張蘊古를 죽인 일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했다. 양녕대군은 매번 우스개처럼 이야기하면서 풍자했고, 세조도 양녕대군의 허탄함을 좋아해 농담을 하곤 했다.²¹⁹⁾

이 이야기는 양녕대군이 세조의 어려운 질문에 보여준 현명한 처신과 해학을 기록하였다. 성현은 짧은 이야기를 통해 양녕대군이 왕족으로서 갖추어야 할 학식과 덕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재총화』에는 양녕대군이 풍악과 여색에 빠져 학업에 힘쓰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간언하는 이래를 매우 싫어하였다는 또 다른 기록(4-4)도 보이는데, 위의 기록에는 양녕대군을 비판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여 왕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기록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6-24(順平君과 宗學)

세종께서 宗學을 새로 만들어 종실 사람들을 모아 글을 읽게 했다. 順平君은 나이 사십이 넘도록 한 글자도 모르고 있다가 이때 비로소 『孝敬』을 읽었다. 학관이 『孝敬』의 ‘開宗明義章第一’이라는 일곱 자를 가르쳤으나 여전히 읽지 못했는데, 말하기를 “내가 이제 늙고 둔해졌으니 ‘開宗’ 두 글자만 알면 충분하네”라고 했다. 그러고는 말 위에서도 쉬지 않고 두 글자를 읽었다. 또 종들에게도 “너희들도 ‘개종’ 두 글자를 잊어버리지 말고 있다가 내가 막히면 내게 가르쳐주거라”고 했다. 임종 때 처자를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죽고 사는 것이 지극히 큰일이니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다만, 종학과 영원히 이별하니 이것이 참으로 시원하구나”라고 했다.²²⁰⁾

순평군에 관한 이야기이다. 순평군은 조선 제2대 왕 정종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후궁 淑儀 奇氏이다. 순평군은 사십이 넘도록 한 글자도 모르다가 비로소 『효경』을 배웠다. 『효경』은 고려시대부터 『논어』와 함께 모든 사람의 필독서일 만큼 기본 교재였는데 순평군은 제1장의 제목 중에서도 앞의 두 글자만 겨우 외웠다. 그것조차 어찌나 힘들었는지 죽기 전에 그 두

219) 成倪, 『慵齋叢話』, 卷7 5話: 讓寧君視雖失德廢嗣, 晚年能隨時自晦. 世祖嘗問視曰, “我之威武何如漢祖?” 對曰, “殿下縱威武, 必不溺儒冠矣.” 又問曰, “我之好佛何如梁武?” 對曰, “殿下縱好佛, 必不以麪爲犧牲.” 又問曰, “我之拒諫何如唐宗?” 對曰, “殿下縱拒諫, 必不殺張蘊古.” 視每以談諧寓諷, 世祖亦樂其誕而戲之.

220) 成倪, 『慵齋叢話』, 卷6 24話: 世宗新設宗學, 聚宗族讀書. 順平君年過四十, 不識一字, 始讀孝經, 而學官教開宗明義章第一七字, 君尙不能讀. 乃曰, “僕今老鈍, 只受開宗二字足矣.” 遂於馬上讀之不輟. 又謂僕從曰, “汝亦不忘開宗以備吾窹.” 臨死聚妻子呼訣曰, “死生至大, 豈不關心? 但永離宗學, 是大快也.”

글자와 이별하게 되어 기쁘다고 할 정도이니 순평군이 얼마나 배우는 것을 싫어했는지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웃음을 유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왕족으로서 이렇게 무지한 인물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풍자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사대부와 왕족에 대한 기록과 함께 승려들에 대한 기록도 여럿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권6에 승려들의 일화가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승려들의 기이한 행동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지만 기이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 웃음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 그들이 도달한 높은 경지 혹은 세상을 초탈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²²¹⁾ 그 중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자.

懶翁(이름은 惠勤, 고려 말의 승려)이 檜巖寺에 머물 때에, 남녀가 물걸처럼 모여들었다. 어떤 유생 세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저 머리 깎은 것이 무슨 요술을 부리기에 사람을 이와 같이 놀라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보고 이를 놀러버리리라.”하고 마침내 方丈(높은 중이 있는 절)에 갔다. 나옹은 평상에 걸터앉아 있는데, 용모가 雄偉하고 눈빛이 밝아서 바라보니 근엄하였다. 이런 찰나에 별안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세 사람이 같이 왔으니 그 중에는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는 있을 것인데, 지혜로써 이르지 못하는 곳의 한 구절을 가지고 오너라.”하자, 세 사람은 정신이 나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돌아갔다.²²²⁾

나옹의 위엄을 밝힌 글이다. 나옹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유생 세 사람이 이를 마땅치 않게 여겨 이를 놀러버리자며 절을 찾아갔는데, 나옹의 모습을 보고 그만 그 위엄에 압도당했다. 게다가 나옹이 큰소리로 그들에게

221) 성현은 불교 자체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고, 여러 고승들과의 교유에 관한 일화(『용재총화』 3-1, 3-43, 6-11, 6-17, 6-18, 6-19, 6-20, 6-21, 6-22, 7-12, 7-32)를 본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다.

222) 成倪, 『慵齋叢話』 卷6 17話 : 懶翁住檜巖寺, 士女奔波. 有儒生三人相謂曰, “彼髡有何幻術, 而使人驚駭如此? 吾輩往見壓之.” 遂到方丈. 翁踞榻而坐, 容貌雄偉, 眼波明瑩, 望之儼然. 忽大聲唱云, “三人同行, 必有一智, 智不到處, 道將一句來.” 三人魄遁頂禮而還.

모르는 것을 말해보라고 하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도망 온 이야기이다. 나옹화상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간략하지만 그의 위엄과 도달한 경지를 잘 표현해 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성현은 승려들의 종교적인 모습 뿐 아니라 학문에 관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기도 하였다.

중 屯雨는 幻庵(混修의 高弟)이다. 어려서부터 학업에 힘써 經傳을 탐독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뜻을 정밀하게 연구하였다. 또 시에도 능하여 詩思가 청절하여 牧隱·陶隱 등 선생과 더불어 서로 시를 주고 받았다. 我朝에서는 불교를 숭상하지 않아 명가의 자제는 머리를 깎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승려로서 글을 아는 자가 없어 師의 이름이 더욱 나타났으며 사방의 학자가 구름과 같이 모여들고, 집현전의 선비들도 모두 榻下에 나아가 글을 물으니, 성대하게 儒釋士林의 師表가 되어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였다. 나의 백형과 중형이 일찍 檜巖寺에서 글을 읽을 때, 사의 나이가 90여 세였는데 용모가 맑고 파리하며, 기체가 여전히 강하여 혹은 이틀쯤 밥을 먹지 않아도 그다지 배고파하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밥을 올리면 혹은 몇 그릇을 다 먹되, 또한 배부른 빛이 없고 며칠이 지나도록 화장실에 가지 아니하였다. 항상 빈 방에 우뚝 앉아서 옥등을 달고 깨끗한 책상을 놓고, 밤새도록 책을 보아 작은 글자까지 하나하나 연구하며 즐기거나 드러눕는 일이 없었다. 사람을 물리쳐 옆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부를 일이 있으면 손으로 小錘을 쳐서 제자들이 수응하도록 하였으며, 큰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다. 일본 국사인 중 文溪가 시를 구하여 縉紳 중에서 시를 지은 사람이 수십 명이나 되었는데, 스님 또한 명을 받들어 시를 지었다. 그 시에,

水國古精社	수국의 고정사
灑然無位人	유유자적하는 무위의 사람이로다
火馳應自息	빨리 달리는 것도 응당 스스로 그칠 것이요
柴立更誰親	고목처럼 섰으니 다시 누구와 친하리오
楓岳雲生屨	풍악에는 구름이 발 아래에서 일고
盆城月滿園	분성에는 달빛이 성문에 가득하도다
風帆海天闊	바람 맞은 돛은 해천이 넓고
梅柳故園春	매류는 고원의 봄이로구나

하였다. 당시에 春亭[변계량]이 文衡을 主管하였는데, ‘灑然無位’의 글귀를

고쳐서 ‘蕭然絕世人(쓸쓸히 세상과 인연을 끊은 사람)’이라 하니, 스승이 말하기를, “卞公은 참으로 시를 모르는 사람이다. 蕭然이 어찌 灑然만 하며, 絕世가 어찌 無位만 하겠는가. 이것은 自然無爲의 뜻을 깎아 없앨 뿐이로다.”하고, 항상 문사를 보면 섭섭해 마지않았다. 지금 《千峯集》이 세상에 전해진다.²²³⁾

승려 屯雨는 불교 뿐 아니라 유학에도 조예가 있어 많은 문사들과 교류하였다. 성현의 두 형인 성임과 성간도 90세의 든우를 보았는데, 그 행동과 기상이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높은 경지에 오른 인물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시를 기록하였는데, 당시 문형이었던 변계량이 ‘洒然無位人’을 ‘蕭然絕世人’이라 고친 것을 두고 든우는 ‘自然無爲’의 뜻을 모르는 것이라며 불쾌해하였다고 하였다. 그가 시문을 터득한 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용재총화』에는 최영장군의 청렴과 강직(3-8)이나 황희의 인품(3-18) 같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고귀에 성품을 기록한 부분들도 보인다.

성현은 『용재총화』에 자신이 교류하였던 사대부 사회의 모습과 왕족의 모습, 그 외에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웃음과 과한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갈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즐거움만을 의도한 글도 있지만, 풍자를 통해 잘못된 인물을 비난하기도 하며, 웃음을 통해 대상을 높이기도 하였다. 『용재총화』에 실린 사대부 사회의 기록은 그 시대의 모습을 알려 주는 것은 물론, 이를 거울삼아 현재의 우리 사회도 돌아 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23) 成倪, 『慵齋叢話』 卷6 19話: 釋屯雨者, 幻庵之高弟. 自幼力學, 內外經典, 無不探討, 精究其意. 又能於詩, 詩思清絕, 與牧隱·陶隱諸先生相酬唱. 我朝不崇釋教, 名家子弟不得祝髮, 以故緇徒無知書者, 而師名益著, 四面學者如雲, 集賢之士皆就問榻下, 蔚爲儒釋士林之表, 人皆敬之. 我伯仲氏嘗讀書于檜巖寺, 見師年九十餘, 容貌清癯, 氣體尙強, 或併日不食, 不甚饑餒, 人若饋之飯, 則或喫盡數鉢, 亦無飽意, 雖至數日, 未嘗如廁, 恒兀坐虛室, 懸玉燈張清几, 徹夜看書, 絲毫細字, 一一研究, 未嘗交睫偃臥, 辟人不許在傍若有所召則手擊小錚, 門下隨而應之, 未得高聲大喚也. 日本國使僧文溪求詩, 緇紳作者數十人, 師亦承命賦詩. 詩曰, “水國古精社, 灑然無位人, 火馳應自息, 柴立更誰親, 楓岳雲生屨, 盆城月滿園, 風帆海天闊, 梅柳故園春.” 時春亭主文, 改“洒然無位人之句, 爲“蕭然絕世人”, 師曰, “卞公眞不知詩者. 蕭然豈如洒然, 絕世豈如無位. 是斷喪自然無爲之趣耳.” 每見文士, 悵悵不已. 今有《千峯集》, 行於世.

2. 民情 世態의 記錄

성현의 『용재총화』는 패설류 이야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1/5 정도는 비특정인의 이야기(설화)이다. 설화는 특히 권5에 집중되어 배치되어 있는데, 분량으로 보자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성현은 이를 기록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표2>를 보면 특히 권5에는 야사류와 시화류, 변증류는 보이지 않고 오직 패설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권에 비하여 일화보다 설화의 이야기가 더 많이 실려 있다. 그렇다면 성현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배치한 설화들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권5의 26화 중 중 15개의 이야기가 민간 전승에 뿌리를 둔 설화이다. 『용재총화』 10권 중 가장 많은 설화를 수록하고 있으며, 『용재총화』 내 전체 설화(33화)중 대략 반을 차지하는 분량이다. 특히나 이들의 내용이 모두 웃음을 지향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권5에 실린 설화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3> 『慵齋叢話』 卷5에 실린 說話의 內容 分類²²⁴⁾

卷5(26화) 內 說話(15화)	
愚痴	5-1 셋이서 말을 산 이야기, 5-2 경사를 따라한 시골 사람들, 5-3 어리석은 형님 이야기, 5-6 바보 사위 이야기
狼狽	(5-5 호색 사승의 봉변)
詐欺	5-4 渡水僧 이야기, 5-12 명통사 맹인 이야기, 5-13 개성의 맹인 이야기
好色 ²²⁵⁾	5-5 호색 사승의 봉변 ²²⁶⁾ , 5-7 將軍, 寡婦, 僧의 호색담, 5-9 外舅의 蛇僧 퇴치, 5-10 정절의 어려움, 5-11 안생의 사랑, 5-14 맹인을 혼내준 부인 이야기, 5-15 京中 맹인의 어리석음, 5-23 어우동의 호색

224) 홍순석은 비인물일화인 설화를 골계로 분류하고 골계를 우치담, 예지담, 낭패담, 사기담, 호색담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예지담은 제외하였다.(「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197)

성현은 사대부 계층의 이야기가 아닌 민간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주로 호색담과 우치담을 중심으로 하였다. 『용재총화』에 수록된 호색담과 우치담은 아마도 당시에 민간에서 유행하는 우스개나 에피소드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사대부 계급인 성현에게도 잡록에 기록하기 좋은 소재로 여겨졌을 것이다.

먼저, 우치담 중 ‘바보 사위 이야기’를 살펴보자.

옛날에 어떤 선비가 사위를 맞이했는데, 그 사위가 매우 어리석어서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했다. 사흘 동안 신부와 함께 앉아만 있더니 소반에 있는 만두를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신부가 “에휴, 에휴[休休]”라고 했다. 사위가 떡을 쪄개보니 안에 잣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또 무엇이지?”하고 물으니, 신부가 “말씀이나 마세요[莫說]”라고 했다. 사위가 본가에 돌아가니 부모가 “처가에서 무엇을 먹었느냐?”하고 물었다. 그러자 사위는 그러자 사위는 “에휴 하나에, 안에 ‘말 마세요’가 든 것 세 개를 먹었습니다”고 했다. 신부 집에서는 사위가 어리석어 걱정도 되고, 후회가 되어 어찌할 줄을 몰랐다. 어느 날 처가에서 50곡들이 되는 노목(盧木) 껌을 사가지고 약속하기를 “사위가 만약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내쫓지 마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신부가 밤새도록 가르쳐주었다. 이튿날 장인이 사위를 불러내 껌을 보이니 사위가 몽둥이로 껌을 두드리며 “50곡들이 노목 껌이로다”라고 하니, 장인이 매우 기뻐했다. 또 나무통을 사서 보여주니 사위가 몽둥이로 통을 두드리며 “50곡들이 노목 통이로다”라고 했다. 장인이 방광에 병이 생겨 사위가 병문안을 갔다. 장인이 나와서 만나니 역시 몽둥이로 장인을 두드리며 “50곡들이 노목 방광이로구나”라고 했다.²²⁷⁾

225) 장덕순(『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75년, p.169)은 『용재총화』에서 호색담을 가장 특징적인 설화라고 하였다.

226) 卷5-5話는 『용재총화』 초간본에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대동야승본에는 사승이 중매로 장가는 날 겪은 이야기와 사승이 낭패를 당한 이야기(도수승 이야기)로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다.

227) 成俔, 『慵齋叢話』 卷5 6話 : 昔有土人迎婿, 婿甚愚駘, 未辨菽麥. 三日與新婦同坐, 指盤中餽豆曰, “此何物?” 婦曰, “休休.” 婿劈餅, 餅中有松子, 問曰, “此何物?” 婦曰, “莫說.” 婿歸其家, 父母問食何物, 婿曰, “一休休裏有三莫說.” 婦家憂悔, 莫知所爲, 一日買盧木櫃, 可容米五十斛, 約曰, “婿若知此則不黜之.” 婦終夜誨之, 翌日翁呼婿而示之, 婿以杖叩之曰, “盧木櫃可容五十斛矣.” 翁喜甚. 又買木桶而示之, 婿以杖叩之曰, “盧木桶可容五十斛矣.” 翁患腎膀, 婿往問疾, 翁出而視之, 婿以杖叩之曰, “盧木腎膀可容五十斛矣.”

어리석은 사위를 맞이하여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신랑이 아는 것이 없어 사흘동안 신부와 앉아만 있고, 만두나 잣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물어보니 신부는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러한 신부의 속내는 한숨[休休]을 내쉬거나 ‘말도 말라’는 짧은 대답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또 알려준 대로만 대답하느라 장인 배를 막대기로 두드리며 50곡들이 방광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웃음을 일으킨다.

다음은 ‘경사를 따라한 시골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를 남몰래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다가 어떤 집에서 유숙하고 새벽에 나왔는데, 그 집에서는 손님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시골에 이르러서 집비둘기는 다시 서울로 날아갔는데, 가다가는 반드시 전에 묵었던 집에 들러서 빙빙 돌고 나왔다. 그 집에서는 비둘기를 보고 모두 놀라 장님[經師]에게 묻기를, “비둘기도 참새도 아닌 것이 방울 소리처럼 울고, 집을 세 번 돌다가 가는데 이 무슨 상서로운 징조입니까.” 하니, 장님이 말하기를, “반드시 큰禍가 있을 것이니 내가 가서 빌어서 물리치리다.” 하였다. 이튿날 장님을 집으로 맞아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반드시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화가 도리어 중해지리라. 내가 말해 볼 터이니 당신들은 그 말에 따르라.” 하고 부르기를, “命米(誦經하는 데 놓는 쌀)를 내놔라.” 하니, 모두, “명미를 내놔라.” 하고, 또 장님이, “命布를 내놔라.” 하니 모두들, “명포를 내놔라.” 하였다. 장님이 또, “아니 어째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는가.” 하니, 모두들, “아니 어째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는가.” 하였다. 장님이 그만 성이 나서 나가다가 머리가 문설주에 부딪치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좃아 나오며 다투어 머리를 문설주에 부딪치고, 사다리를 놓고 부딪치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또 장님이 문 밖으로 나오다가 마침 진흙처럼 미끄러운 쇄똥이 있어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니, 사람들이 모두 미끌어 넘어지고, 쇄똥이 없어지니 혹은 그 위에 더 없어 놓고서 미끌어져 넘어지기도 하였다. 장님이 급해서冬瓜 덩굴 밑으로 도망쳐 들어가니, 사람들이 또 따라 들어가서 산처럼 겹겹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아빠, 엄마 나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니, 부모들이 대답하기를, “동과 덩굴로 들어올 수 없거든 남쪽 기슭에 있는 칩잎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²²⁸⁾

비둘기에 놀란 시골 사람들과 그들을 속여 재물을 빼앗으려 한 經師의 이야기이다. 큰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경사의 말에 깜빡 속아 그가 쌀과 포를 내놓으라고 말하니 경사가 기대한 쌀과 포를 내놓지 않고 말만 따라한다. 눈이 안 보이는 경사는 화가 나 나가다가 문설주에 부딪치고 쇠뿔을 밟아 미끄러지며 덩굴 밑으로 도망치는데 그 모습을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까지 따라하고, 또 그대로 따라하지 못한 아이들은 큰일이 날까 두려워 울부짖기까지 한다. 경사를 비롯한 시골 사람들의 모습이 소란스럽고 우스꽝스러워 슬랩스틱코미디를 보는 것 마냥 재미있다. 이 이야기는 자신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남을 속이려는 경사와 또 그러한 경사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같이 등장시키면서 재미와 웃음의 요소가 더욱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나 장님은 남들이 쉽게 속이기 쉬워 웃음거리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게 된다.

옛날에 開城에 한 장님이 살았었는데, 성품이 어리석고 비뚤어져서 기괴한 것을 잘 믿었다. 매양 소년을 만나면 갑자기, “무슨 기이한 일이 없느냐.” 하였다. 하루는 소년이 말하기를, “요즈음 매우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동쪽 거리에 땅이 천 길이나 벌어져서 땅 밑으로 오가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고, 닭의 울음소리와 다듬이질하는 소리도 똑똑히 들을 수 있는데, 내가 방금 그곳에서 오는 길입니다.” 하니, 장님은, “과연 네 말과 같다면 그야말로 매우 기이한 일이다. 내가 두 눈이 어두워서 마음대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곁에 쫓아가서 한 번 그 소리라도 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하고, 소년을 따라갔다. 온종일 도성 안을 두루 어정거리며 돌아다니다가 그의 집 뒤 언덕에 와서 소년이, “여기가 그곳입니다.” 하니, 장님은 자기

228) 成倪, 『慵齋叢話』 卷5 2話: 昔有人潛携鴿下鄉曲, 路宿一家. 乘曉而出其家亦不知客人之所携也. 到鄉, 鴿飛還京師, 必入所宿家, 回翔而後出. 其家見鴿舉皆惶駭, 問於經師曰, “有物非鳩非雀, 鳴如鈴聲, 向家三匝而去, 是何祥也?” 經師云, “必有大禍, 我將往禳之.” 明日邀經師至家. 經師云, “必從我所爲, 若不從我所爲則禍反重矣. 我試言之, 爾能聽之.” 遂呼曰, “出命米.” 舉衆皆曰, “出命米.” 經師云, “出命布.” 舉衆皆曰, “出命布.” 經師云, “是何如此?” 衆皆曰, “是何如此.” 經師憤怒而出, 頭觸戶根. 衆人馳逐, 爭以頭觸根, 兒童或依梯而觸之. 經師至門外, 適有牛糞泥滑, 側足而仆, 人皆側足而仆, 牛糞已盡, 或有加之而側仆之者. 經師惶劇竄入冬瓜蔓下, 舉衆隨入, 倚壘如山, 兒童未及入, 呼而泣曰, “爺耶, 娘耶, 我去何處?” 爺娘答曰, “瓜蔓不得入, 則往南麓葛葉底可矣.”

집 닭 울음소리와 다듬이질하는 소리를 듣고 손뼉을 치고 웃으며 말하기를, “참으로 즐겁도다.” 하니, 소년이 장님을 밀어 땅에 떨어뜨렸다. 아이종이 와서 그 까닭을 물으니 장님은 머리를 조아리고 합장을 하며 말하기를, “나는 天上의 장님이로다.” 하였다. 또 그의 아내의 웃는 소리를 듣고, “당신은 또 언제 여기 왔소.” 하였다.²²⁹⁾

개성의 맹인을 속인 이야기이다. 맹인은 어리석고 기괴한 것을 잘 믿어 짓곳은 소년의 희롱 대상이 된다. 맹인은 새로운 곳을 알게 될 기대에 소년을 따라 온종일 도성 안을 돌아다닌다. 결국은 자기 집 언덕 위인 줄도 모르고 소년이 다왔다는 말에 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하더니, 바닥에 넘어져서는 아이종에게 자신이 천상의 장님이라며 자못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또 들려오는 아내의 웃음소리에 어찌된 일인지 몰라 놀라는 맹인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다음은 우치와 낭패, 사기, 호색의 요소가 모두 포함된 이야기를 살펴보자.

어떤 중이 과부를 꺾어 장가들러 가는 날 저녁에 상좌가 속여 말하기를, “가루 양념과 생콩을 물에 타서 마시면 매우 陽氣가 좋아집니다.” 하니, 중이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하였다. 그런데 과부집에 갔더니, 배가 불러 간신히 기어서 들어가 휘장을 내리고 앉아 발로 향문을 괴고 꼼짝하지 못하였다. 조금 있다가 과부가 들어왔으나 중이 꿏어앉아서 움직이지 못하였다. 과부가 말하기를, “어찌 이처럼 木偶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며 손으로 잡아 끄니, 중이 땅에 엎어지면서 설사를 하여 구린내가 가득 찼으므로 과부는 매를 때려 내쫓았다. 밤중에 혼자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흰 기운이 길을 가로질러 있었다. 중이 시냇물로 생각하고 옷을 걷어올리고 들어가니 가을 보리꽃이었으므로 중은 성이 났다. 또 흰 기운이 길을 가로질러 있는

229) 成俔, 『慵齋叢話』 卷5 13話: 昔有一盲居開城, 性癡顛, 好信奇怪, 每逢年少, 輒問有何異事. 年少云, “近有大異之事. 東街地坵千仞, 地底往來人歷歷可見, 鷄鳴砧響歷歷可聽. 余自其處來矣.” 盲曰, “果若汝言, 大是奇事. 兩目矇眊縱不見物, 庶從其旁一聞其聲, 死亦無憾.” 隨年少而行, 終日遍國中, 迤邐而往, 還至其家後岡. 年少曰, “此其處也.” 盲聞其家鷄鳴砧響, 拍手笑曰, “樂哉樂哉!” 年少推盲, 盲墜于地. 童僕問故, 盲稽首撫掌曰, “我是天上盲.” 又聞其妻笑聲曰, “汝亦何時到此.”

것을 보고, “보리밭이 나를 속이더니 또 보리밭이 있구나.” 하고, 옷을 걷어 올리지 않고 들어가니 그것은 물이었다. 중은 옷이 모두 젖은 채 다리 하나를 지나가는데 아낙네 두어 명이 시냇가에서 쌀을 일고 있었다. 중이, “시큼시큼하구나.” 하였는데, 대개 이 말은 오는 길에 낭패하고 수고함을 형용함이다. 아낙네들은 그 까닭을 모르고 모두 와서 길을 막으며, “술 담 글 쌀을 이는데 어찌 시큼시큼하다는 말을 해요.” 하고, 옷을 다 찢고 중을 때려 주었다. 해가 높이 뜨도록 얻어 먹지 못하고 중은 배가 고파 참을 수 없어서 마를 캐어 씹고 있으니, 갑작스레 웃고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수령의 행차였다. 중은 다리 밑에 엎드려 피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마가 매우 맛이 있으니 이것을 수령에게 바치면 밥을 얻을 수 있겠는데.” 하고, 수령이 다리에 이르자 중이 갑자기 나타나니 말이 놀라 수령이 땅에 떨어졌으므로 크게 노하여 매를 때리고 가버렸다. 중이 다리 옆에 누워 있었더니, 순찰관 두어 명이 다리를 지나가다가 보고, “다리 옆에 죽은 중이 있으니 몽둥이질하는 연습을 하자.” 하고, 다투어 몽둥이를 가지고 연달아 매질하였다. 중은 무서워서 숨도 쉬지 못하다가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다가오며 말하기를, “죽은 중의 陽根이 약에 쓰일 것이니 잘라서 쓰자.” 하므로 크게 소리 지르며 달아나서 저물녘에야 절에 도착하니 문이 잠겨 들어갈 수가 없었다. 소리를 높여 상좌를 불러, “문 열어라.” 하니 상좌가, “우리 스승은 과부집에 갔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밤중에 왔느냐.” 하고, 나와 보지 않았다. 중이 개구멍으로 들어가니 상좌가, “뉘 집 개냐. 간밤에 공양할 기름을 다 훔아 먹더니 이제 또 왔느냐.” 하고, 몽둥이로 때렸다. 지금도 낭패하여 고생한 사람을, “물 건넌 중[渡水僧]”이라고 한다.²³⁰⁾

이 이야기는 여색을 밝히는 어리석은 중의 낭패담이다. 上座僧이 師僧을

230) 成倪, 『慵齋叢話』 卷5 5話 : 有僧謀寡婦往娶之夕, 上座誣之曰, “粉蠶生豆和水而飲之, 則大有利於陽道.” 僧信而飲之. 至婦家, 腹脹滿, 艱關匍匐而入, 垂帳而坐, 以足撐穀道, 不得俯仰. 俄而婦入, 僧危坐不動. 婦曰, “何如是作木偶狀?” 以手推之, 僧仆地滑矢瀉出, 臭氣滿室, 其家杖而黜之. 夜半獨行迷路, 有白氣橫道, 僧意以爲川水, 褰裳而入, 乃秋麥花也. 僧憤怒. 又見白氣橫道曰, “麥田既誤我, 復有麥田耶?” 不攝衣裳而入, 乃水也, 衣服盡濕. 過一橋, 有婦數人, 淘米溪畔, 僧曰 “酸哉, 酸哉.” 蓋言狼狽受苦之形也. 婦人不知其由, 群來遮之曰, “淘酒米之時, 何發酸哉之語乎.” 盡裂衣服而毆之. 日高不得食, 枵腹不耐苦, 掘薯蕷而啖之. 俄有呵唱之聲, 乃守令行也. 僧伏橋下避之, 乃默計曰, “薯蕷甚美, 若以此進呈則有得飯之理.” 守令至橋, 僧翻然突出, 守令馬驚墜地, 大怒棒之而去. 困臥橋傍, 有巡官數人過橋視之曰, “下有死僧, 可與習棒矣.” 爭持杖相繼棒之, 僧恐怖不得喘息. 有一人, 抽刃而進曰, “死僧陽根宜入於藥, 可割而用之.” 僧大叫而走. 黃昏到寺, 門閉不得入, 高聲呼上座曰, “出開門.” 上座曰, “吾師往婦家. 汝何人乘夜來耶?” 不出視之. 僧由狗竇而入. 上座曰, “何家狗歟? 前夜盡舐佛油, 今又來歟.” 遂以杖棒之. 至今言遭狼狽辛苦之狀者, 必曰“渡水僧”云.

속이려고 생콩을 갈아 마시면 양기가 좋아진다고 하니 사승이 그 말을 믿어 그대로 따라 하고 과부집에 갔다. 생콩을 갈아 먹었으니 배에서 난리가 난 사승은 발뒤꿈치로 항문을 막고 버티지만 결국 과부 앞에서 설사를 하고 만다. 매 맞고 쫓겨난 사승은 그 이후로도 계속 낭패를 겪는다. 시냇물에 옷이 모두 젖고, 아낙네들에게 매 맞고 옷이 찢기며, 수령을 노하게 하여 또 매를 맞는다. 누워있으니 순검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몽둥이질 연습을 하고, 심지어 순검 한 명이 사승의 양근은 약에 쓰일 것이라며 칼을 들고 다가오는 통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친다. 겨우 절에 도착했지만, 여기서마저 상좌승에게 매질을 당한다. 온갖 웃음거리가 가득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승려에 대한 성현의 시각은 재미를 추구하는 쪽에 맞춰져 있다. 계법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파계승의 이야기를 통해 타락한 불교를 비판할 것 같지만, 마지막에 ‘지금도 낭패하여 고생한 사람을 도수승이라고 한다’라고 마무리하며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는다. 불교나 파계승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저 웃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앞 이야기의 시작을 ‘上座가 師僧을 속이는 것은 옛날부터 흔히 있는 일이었다²³¹⁾’라고 하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있었던 상좌승들의 사승 골탕먹이기는 향간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였으며, 성현도 당시 민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에서 제재를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민간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관점에서 기록한 어우동의 호색담 또한 주목을 끈다.

於于同은 知承文 박 선생의 딸이다. 그녀는 집에 돈이 많고 자색이 있었으나, 성품이 방탕하고 바르지 못하여 宗室 泰江 군수의 아내가 된 뒤에도 군수가 막지 못하였다. 어느 날 나이 젊고 흰칠한 장인을 불러 은그릇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를 기뻐하여 매양 남편이 나가고 나면 계집종의 옷을

231) 成倪, 『慵齋叢話』 卷5 4話: 上座誣師僧, 自古然矣.

입고 장인의 옆에 앉아서 그릇 만드는 정묘한 솜씨를 칭찬하더니, 드디어 내실로 이끌어 들여 날마다 마음대로 음탕한 짓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몰래 숨기곤 하였다. 그의 남편은 자세한 사정을 알고 마침내 어우동을 내쫓아 버렸다. 그 여자는 이로부터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였다. 그의 계집종이 역시 예뻐서 매양 저녁이면 옷을 단장하고 거리에 나가서, 이쁜 소년을 이끌어 들여 여주인의 방에 들여 주고, 저도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이어 함께 자기를 매일처럼 하였다. 꽃피고 달 밝은 저녁엔 정욕을 참지 못해 둘이서 도성 안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끌리게 되면, 제 집에서는 어디 갔는지도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야 돌아왔다.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람을 점찍었는데, 계집종이 말하기를, “某는 나이가 젊고 모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 만합니다.” 하면 그녀는 또 말하기를, “모는 내가 말고 모는 네게 주리라.” 하며 실없는 말로 희롱하여 지껄이지 않는 날이 없었다. 그는 또 方山 군수와 더불어 사통하였는데, 군수는 나이 젊고 호탕하여 詩를 지을 줄 알므로, 그녀가 이를 사랑하여 자기 집에 맞아들여 부부처럼 지냈었다. 하루는 군수가 그녀의 집에 가니 그녀는 마침 봄놀이를 나가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만 소매 붉은 적삼만이 벽 위에 걸렸기에, 그는 시를 지어 쓰기를,

玉漏丁東夜氣清	물시계는 초저녁을 가리키고 夜氣도 맑은데
白雲高捲月分明	흰 구름 걷혀 달빛도 분명하도다
閑房寂謐餘香在	한가로운 방은 조용한데 향기가 남아 있어
可寫如今夢裏情	오늘 밤에도 꿈속의 정을 그리겠구나

하였다. 그 외에 朝官·儒生으로서 나이 젊고 무퇴한 자를 맞아 음행하지 않음이 없으니, 조정에서 이를 알고 국문하여, 혹은 고문을 받고, 혹은 폄직되고, 먼 곳으로 귀양간 사람이 수십 명이었고, 죄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면한 자들도 또한 많았다. 의금부에서 그녀의 죄를 아뢰어 宰樞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법으로서 죽일 수는 없고 먼 곳으로 귀양보냄이 합당하다.” 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풍속을 바로잡자 하여 刑에 처하게 하였는데, 옥에서 나오자 계집종이 수레에 올라와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하는 말이, “주인께서는 뉘를 잃지 마소서. 이번 일이 없었더라도 어찌 다시 이 일보다 더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 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여자가 추한 행동으로 풍속을 더럽혔으나 良家の 딸로서 극형을 받게 되니 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²³²⁾

어우동의 이야기는 성종실록에도 기록²³³⁾될 정도로 성종시대의 화젯거리였다. 당대의 많은 조정의 관리와 유생부터 젊은 무뢰배에 이르기까지 그녀와 관계되어 고문을 받거나 귀양 간 사람이 수십명에 이르렀으며 임금이 나서서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그녀를 교수형에 처하게 하니 그 사건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그런데 성현은 이에 대하여 사대부의 입장에서 그녀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길가의 지나가는 사람을 지목하여 점수를 매기면서 계집종과 어우동이 주고받는 “某는 나이가 젊고 모는 코가 커서 주인께 바칠 만합니다”, “모는 내가 말고 모는 네게 주리라” 등의 농담을 보태거나, 감옥에서 나온 어우동에게 계집종이 “주인께서는 녀를 잃지 마소서. 이번 일이 없었더라도 어찌 다시 이 일보다 더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겠습니까”라는 위로를 보태어 이야기를 가볍게 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여자가 더러운 행실로 풍속을 더럽혔지만, 양가의 딸로서 극형을 받게 되니 길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며 당시의 상황만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와 같이 성현은 웃음을 목적으로 이야기를 꾸러가면서, 그 목적에 맞게 주인공들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권5에는 사대부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을 주로 등장시

232) 成倪, 『慵齋叢話』 卷5 23話 : 於宇同者, 知承文朴先生之女也. 其家殷富, 女婉變有姿色, 然性蕩放不檢. 爲宗室泰江守之妻, 泰江不能制. 嘗請工造銀器, 工年少俊丰, 女悅之. 每值夫出, 衣婢服坐工側, 贊美造器之精, 遂得私引入內室., 日縱淫穢, 伺其夫還則潛逃, 其夫審知事情遂棄之. 女由是恣行無所忌. 其女僕亦有姿, 每乘昏靚服, 出引美色少年, 納于女主房. 又引他少年與之偕宿, 日以爲常. 或於花朝月夕不勝情欲, 二人遍行都市, 故爲人所擄, 其家不知所之, 到曉乃還. 嘗借路旁家, 指點往來人, 僕曰, “某人年少, 某人鼻大, 可供女主.” 女亦曰, “某人吾敢之, 某人可給汝.” 如是戲謔無虛日. 女又與宗室方山守私通, 守亦年少豪逸, 解作詩, 女愛之, 邀至其家如夫婦. 一日守到其家, 適女春遊不還, 惟紫袖衫掛屏上, 遂作詩書之曰, “玉漏丁東夜氣清, 白雲高捲月分明, 閑房寂謐餘香在, 可寫如今夢裏情.” 其他朝官儒生年少之無賴, 無不邀而淫焉. 朝廷知而鞠之, 或拷或貶, 流遠方者數十人, 其不露而免者亦多. 禁府啓其罪, 命議宰樞, 皆云, “於法不應死, 合竄遠方.” 上欲整風俗, 竟置於刑, 自獄而出, 有女僕登車抱腰曰, “女主勿失魂, 若無此所事, 安知復有大於此事者乎.” 聞者笑之. 女雖穢行汚俗, 而以良家女被極刑, 道路有垂泣者.

233) 어우동은 『성종실록』에 ‘於乙宇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매우 자세하고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에 큰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이 어우동을 교수형에 처하고 그의 간통 행적을 기록한 것이 성종실록에 보인다.(『成宗實錄』, 성종 11년 庚子(1480), 10월 18일(甲子), 5번째 기사)

김으로써 그 시대의 사회 모습과 함께 사건 혹은 이슈가 되었던 일들까지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데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성현은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생활을 『용재총화』에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세상을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당시의 생활상을 더욱 폭넓고 다양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6에 실린 시화도 주목을 요한다. 권6에는 10편의 시화가 실려 있는데, 이는 『용재총화』 내 시화(36편)의 약 1/3 분량으로 다른 권에 비하여 가장 많은 분량이다. 그리고 내용 또한 웃음을 일으키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시화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 『慵齋叢話』 內 作詩逸話의 內容 分類

	호색	기롱,조롱	시재	교유시	가문
권3 (6화)			3-10 길재의 은둔과 교육 3-11 서견의 강개 3-17 변계량 과 김구경의 논시 3-20 이맹균 의 두 시	3-33 성석인 과 이행의 교유	3-27 안목의 과주 개간
권4 (5화)			4-17 최수의 시 4-20 김수온 의 재주와 奇行		4-16 성간, 이개의 시 4-18 성세순 의 시재와 요절 4-19 성간 3 子の 재주와 불행
권6 (10화)	6-4 兩斯文 과 기녀의 사 랑 6-6 홍경손 의 발원시	6-3 성균관 원의 선생 기 롱 사건 6-5 성삼문 의 강희안 조			

	6-8 한 처녀의 음시 6-9 전목과 기녀의 회작시 6-15 성임과 기녀의 사랑 6-26 두 정생의 호색과 낭패	룽 6-7 김복창의 김윤랑 조룽 6-28 내경청에서 성임의 시			
권7 (3화)	7-10 이자야의 시와 죽음 7-14 성현의 풍자시	7-15 성현의 풍자시			
권8 (2화)			8-11 윤자운의 명대구		8-10 전시 장원한 성임의 箋文
권9 (4화)		9-13 송사문의 自嘲詩		9-24 이집과 최원도의 신의 9-28 이극감과 성임의 교분	9-11 성석린의 시
권10 (1화)				10-18 우계지의 송별시	
총 31화	8화	6화	7화	4화	6화

『용재총화』 권3, 4, 권8, 9, 10에는 모두 명망 있는 시인들의 詩才, 교유시, 성현 가문내 인물들의 시화들이 골고루 분포하는데, 권6과 권7은 사대부들의 조롱이나 기롱, 혹은 사대부와 기녀의 사랑, 민간에서 전해지는 호색에 관한 시화들로만 이루어져 있다.²³⁴⁾ 특히 ‘6-8 한 처녀의 음시’와 ‘6-26 두 정생의 호색과 낭패’ 이야기는 호색적 내용이면서 사대부의 작시 일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234) 『용재총화』 내 시화류는 총 36편이고, 그중 작시일화는 31편, 시평은 5편이다. 시평에 관한 이야기는 1-16 중국 사신과 문사들의 수창, 4-15 집현전 학사의 연구, 7-3 태종의 시재, 9-10 恭愍王時 七老의 기상, 9-12 김수운의 시이다.

옛날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중매하는 사람이 많았다. 어떤 이는 문장에 능하다 하고, 어떤 이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한다 하며, 어떤 이는 못가에 좋은 밭 수십 이랑이 있다 하고, 어떤 이는 양기가 왕성하여 돌이 든 주머니를 거기에 매달고 휘두르면 머리를 넘긴다고 하였다. 처녀가 시를 지어 그 뜻을 보이며 말하기를,

文章闊發多勞苦	문장이 활발하면 노고가 많고
射御材能戰死亡	활을 쏘고 말을 타는 재능은 싸우다가 죽을 것이요
池下有田逢水損	못가에 밭이 있으면 물로 손해를 볼 것이니
石囊踰首我心當	돌이 든 주머니를 휘둘러 머리 위로 넘기는 것이 내 마음에 드네.

하였다.²³⁵⁾

한 처녀가 남편감을 고르며 시를 지었는데, 문장이나 활쏘기, 말타기, 재력보다 정력이 센 남자를 선택하겠다는 내용이다. 보통의 사대부 시화의 내용과는 달리 여성이 스스로 남성을 선택하고 그 기준 또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파격적이면서도 은근한 재미를 준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남성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내용은 다음에도 나온다.

선비 鄭某가 喪妻를 한 뒤, 남원에 부잣집 과부가 산다는 말을 듣고 배우자로 삼으려고 날을 가려 정혼하고, 鄭이 먼저 官에 이르러 예물을 갖추었는데, 과부가 계집종을 보내어 그 행동거지를 보게 하였다. 계집종이 돌아와 보고하기를, “수염이 많은데다가 털모자까지 썼으니 늙은 병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였다. 과부가 말하기를, “내가 나이 젊은 丈夫를 얻어서 늘 그막을 즐기고자 하였는데, 이런 늙은이를 어디다 쓰리오.”하였다. 관청 관리들은 휘황하게 촛불을 켜들고 둘러싸서 과부 집으로 갔으나, 과부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정은 들어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되돌아갔다.

또 樂官 鄭某가 만년에 또한 배우자를 잃은 뒤, 부잣집 여자를 첩으로 삼

235) 成倪, 『慵齋叢話』 卷6 8話: 昔有處女居室者, 人之媒者衆. 或云能文章, 或云能射御, 或云有池下良田數十頃, 或云陽道壯盛, 能掛石囊而揮之踰首. 女作詩以示其意曰, “文章闊發多勞苦, 射御材能戰死亡, 池下有田逢水損, 石囊踰首我心當.”

고자 하여 어느날 부잣집에 가보니, 그림 병풍을 치고 滿堂에 붉은 털요를 깔고 당중에다 비단요를 펴놓았다. 정이 자리에 나아가 스스로 계락을 잘했다고 생각하였는데, 여자가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70살이 아니면 60살은 넘었으리라.”하고, 탄식하면서 좋지 않은 기색이 있었다. 밤을 틔타 여자의 방에 뛰어들어가니 여자가 정을 꾸짖기를, “어느 곳에 사는 늙은이가 내 방에 들어오는가. 용모가 복이 없을 뿐 아니라 말소리까지도 복이 없구나.”하고 밤중에 창을 열고 나가버리니 간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 뒤 어떤 유생이 희롱하여 시를 짓기를,

粉粉俗啄幾騰謹	분분한 속된 말이 그 얼마나 시끄러웠나
二鄭風流是一般	두 정씨의 풍류가 매 한가지구나.
欲作好緣還作惡	좋은 인연을 맺으려다가 도리어 악연을 맺었으니
早知如此不如鰥	이렇게 되느니 홀아비 신세가 더 나은 것을

하였다.²³⁶⁾

선비 鄭某는 날을 가리고 중매자를 정하며 먼저 예물을 갖추어 과부를 맞이하고자 한다. 그러나 과부는 종을 시켜 먼저 그의 행동거지를 엿보게 하고 그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문을 닫아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정모가 늙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부의 말이 더욱 가관이다. “내가 젊은 장부를 얻어서 늘그막을 즐기고자 하였는데, 이런 늙은이를 어디다 쓰리오”라고 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거침없이 드러낸다. 그 뒤에 나오는 악관 정모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여자는 문틈으로 엿보고 악관 정모가 늙은 것을 알고는 슬퍼한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온 악관을 꾸짖으며 방문을 나가버린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

236) 成俔, 『慵齋叢話』 卷6 26話: 有士人鄭某喪耦, 聞南原有富家寡婦, 欲以爲後配. 擇日定媒, 鄭先到府備禮物, 寡婦送女僕覘其舉止. 女僕還報曰, “鬚髯長鬱, 且被毛帽, 眞老病者也.” 寡婦曰, “余欲得年少壯夫以娛暮境, 奚用此老物爲?” 府之官吏, 多張炬燭, 圍擁而往, 則寡婦閉門不納, 鄭不得入而還. 又有樂官鄭某, 晚年亦喪耦, 媒富家女爲妾. 其日往富家, 則張畫屏, 滿堂鋪紫毯, 堂中施錦褥. 鄭就坐自以爲得計, 女窺而見之曰, “非七十過六十也.” 悽惋有不豫之色. 乘夜驅迫而入, 女叱鄭曰, “何處老物, 來入我室? 非徒容貌無福, 語聲亦無福.” 夜半排窓而出, 不知所之. 有儒生戲作詩曰, “紛紛浴啄幾騰謹, 二鄭風流是一般. 欲作好緣還作惡, 早知如此不如鰥.”

고 자신이 먼저 알아보고 행동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더 나아가 그녀들의 행동을 통해 오히려 남성들이 곤란에 처하고 희롱을 당하게 된다. 기존의 질서에서 일탈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시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성균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泮宮이 비록 예법 있는 곳이라고 한지만, 유생은 대부분이 명문가의 자제들이라 호탕하여 제약을 받지 않았다. 同知事 洪敬孫과 林守謙은 모두 나이가 많고 백마를 타고 다녔는데, 어느 유생이 지은 시에,

有客有客	손이여, 손이여
亦白其馬	그 말이 백마로다
白馬之白	백마의 흰색이나
無以異於白人之白	흰 머리의 흰색이나 다를 것이 없구나.

하였다. (중략) 또한,

窮妹不恤顏何厚	궁한 누이 돌보지 않으니, 얼굴은 어이 그리 두터우며
將父未遑行亦殘	아버이 안 섬기니, 행실 또한 잔악하구나.

하였는데, 이는 동지중추부사 俞鎭이 누이가 과부가 되었으나 돌보지 않았고, 또 直講으로 있는 자가 고향에 계신 늙은 아버를 찾아가 뵈지 않았다는 말이다.

鶯梁宋籍何須數	추량과 송적을 어찌 따질 것이 있나
衣綠方盛不足觀	칩이 많으니 보잘것없다.

하였는데, 이는 典籍 宋元昌과 司成 方綱이 모두 칩을 두고 본처를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조정에서 이 사건을 국문하였는데 三館 및 여러 유생까지 연루되어 옥에 갇힌 자가 수십 명이었고, 더러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진상을 알아내지 못하고 모두 석방하였다.²³⁷⁾

성균관 유생들이 스승을 기롱한 시에 관한 이야기이다. 위 시화에 관한 내용은 『성종실록』 13년(1482, 壬寅) 윤 8월 20일(丙戌) 기사에도 실려 있다.²³⁸⁾ 혈기 왕성한 성균관 유생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는 스승들을 기롱하는 시를 館直房 벽에 붙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종은 스승을 기롱하고 비방하는 풍속을 바로잡기 위해 推問하는 동안 科擧를 중단시키고 성균관 유생들을 조사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수십 명의 유생이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성현은 이것을 당시의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예부터 君師父一體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다고 하였는데, 禮法의 場이라고 하는 성균관에서 스승을 기롱하는 시를 지었으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하였다. 성현은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비판하거나 의견을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를 웃음거리고 여겨 『용재총화』에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웃음은 풍자적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성현은 당대 사회의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들을 직설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이라는 코드를 입혀 우회적으로 기록하였다. 이들의 웃음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발생한다. 상좌가 사승을 속이는 일, 여성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점, 여성이 남성보다 우

237) 成侃, 『慵齋叢話』 卷6 3話 : 泮宮雖云禮法之場, 儒生多名家子弟, 豪宕不受駕馭. 同知事洪敬孫·林守謙, 皆年老乘白馬, 有儒生作詩云, “有客有客, 亦白其馬. 白馬之白, 無以異於白人之白.” (중략) “窮妹不恤顏何厚, 將父未違行亦殘.” 言同知俞鎮, 其妹失所而不收恤, 又有直講者, 老父在鄉, 而不往謁也. “爲梁宋籍何須數, 衣綠方盛不足觀.” 言典籍宋元昌, 司成方綱, 皆有妾而不顧妻也. 朝廷鞠之, 事連三館及諸生, 係獄數十人, 或有受梏掠者, 竟不得情, 皆放之.

238) 『成宗實錄』 13년(1482, 壬寅) 윤 8월 20일(丙戌) 3번째 기사 : 先是, 成均直講河荊山, 見排律詩十韻, 貼於館直房壁, 乃裂之, 至是誦語於李孟思, 四館員報禮曹. 其詩曰, “誰云芹館是賢關? 陳腐庸流尸厥官. 舉酒擬昏掀輔頰, 叱儒張口肆兇頑. 洪同已逝林同在, 李學纔歸趙學還. 老漢只應忙置散, 蟲餘端合早投閑. 南生疏奏心應悸, 李子詩章膽亦寒. 衣綠方成何足算, 鶯梁宋籍不須看. 窮妹不恤顏何厚, 將父未違行亦殘. 陽爲正直陰懷詐, 外示寬柔內實奸. 爲弔芹宮諸弟子, 於何考德且承顏?” 荊山忘其一句. 成均同知事林守謙·俞鎮·大司成盧自亨來啓曰, “國學風化之源, 宜擇才行兼備者居之. 臣等俱以庸材, 濫居師席, 今被儒生欺侮, 視面在職未安. 請辭.” 不許. 仍傳于禮曹, “春夏間, 成均館上下齋有司, 現推問停學, 以正風俗.” 又傳于義禁府曰, “歷詆師長, 作詩欺侮, 其窮推成均館上下齋有司以啓.” 史臣曰, “洪同·林同, 指同知事洪敬孫·林守謙, 李學·趙學, 指學官李丙奎·趙元卿, 蟲餘指直講金錫元, 錫元時患疔瘡. 南生指進士南孝溫, 孝溫嘗上書論師表無人. 南生未知的指爲何人也. 有譏敬孫·守謙戴白髮乘白馬者, 題成均館壁上曰, “有客有客, 亦白其馬. 白人之白, 無異於白馬之白.” 或謂儒生李鰲所書, 疑指此也. 衣綠·鶯梁, 指司成方綱·典籍宋元昌, 對妾而居. 窮妹不恤, 指同知事俞鎮不收恤寡妹. 將父未違, 指典籍黃宸孫不歸養老親. 其他未知指誰.

위에 있는 상황, 혹은 제자가 스승을 욕보이는 상황 등은 기존에 약자로 여겨졌던 인물들의 지위가 역전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사회 질서가 변화하는 양상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웃음으로 누그러뜨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준 것이다. 결국 성현은 사회의 여러 문제를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시각으로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 문제를 웃음으로 정화시켜 긴장이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었다고 볼 수 있다.

3. 當代의 自矜心에 대한 記錄

성현은 채수의 『村中鄙語』에 서문을 쓰면서 시화만 기록한 이전의 필기 작품집에 대하여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기록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선비들은 一家가 아니건만 한갓 문장을 꾸미고 수식하는 것만 알고 책을 지어 모범을 보일 줄은 알지 못하니, 오직 이인로, 최자, 이제현이 파한집, 보한집, 패설 등의 책을 지었다. 그러나 오직 시화만을 기록하고 時事는 널리 기록하지 않았으니 가소로울 뿐이다.²³⁹⁾

여기서 말하는 時事는 앞에서 살핀 민정 세태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고, 당시 사회의 제도나 풍속 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현은 조선왕조라는 사대부 중심 사회에 대한 포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에,²⁴⁰⁾ 『용재총화』를 지으면서 패설류 다음으로 당대의 문화예술과 풍속 등을 기록한 야사류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다.²⁴¹⁾ 특히 문화 예술에 관한 부분은 권1 첫

239) 成俔, 「村中鄙語序」, 『虛白堂文集』 卷7 : 我國名爲儒者亦非一家, 徒知詞藻之爲, 而不知著書垂範, 惟李仁老·崔滋·李齊賢, 著破閒·補閒·稗說等書. 然惟錄詩話, 而不能廣記時事, 可笑也已.

240) 이러한 의식은 초기의 필기 작가들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신상필은 이러한 변화 양상이 조선왕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무엇보다 사대부 사회의 성립을 이룬 자신들 계층에 대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으며 성현보다 한 세대 앞선 인물인 서거정의 '필원잡기'에서 이미 보다 구체화 되었다고 하였다. (「필기의 서사화 양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pp.34-35)

241) 『용재총화』에 기록된 野史類 84話を 문장부터 문화 예술, 풍속, 제도, 지리 등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5> 『慵齋叢話』內 野史類 內容別 分類

내용	卷-話	話數
문학	1-1(경술과 문장), 1-2(문장가), 2-21(성현의 저술), 7-25(杜詩), 8-5(재상), 8-6(역대문장가와 그 저술), 9-4(김구지와 최호), 10-16(선초의 시문선집), 10-23(성임의 저술), 10-37(정묘년 증시의 급제자)	10
문화 예술	1-3(서예가), 1-4(화가), 1-5(음악가), 4-22(비문의 글씨), 7-24(활자의 종류와 주자법), 9-25(역대의 名匠), 10-7(陶器의 종류)	7
제도	1-13(대간과 간관), 1-14(신참례), 1-15(승정원), 2-1(집현전과 홍문관), 2-2(과거제도) 2-4(삼관의 문화), 2-22(능실과 齋祠), 2-27(궁중의 권초례),	18

부분에 실어 더욱 강조하였다. 『용재총화』 권2와 권7, 8, 9, 10권에도 전고에 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권1에는 전체 16편 중 1편의 시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5편이 모두 전고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보면,²⁴²⁾ 성현은 『용재총화』를 저술하면서 다른 것 보다 가장 먼저 당대의 문화가 융성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일 먼저 경술과 문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우리나라의 문장가를 나열한 뒤 서예가, 화가, 음악가를 이야기 하였다.

1-3(우리나라의 서예가)

우리나라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많지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은 적다. (중략) 우리 백형은 인재 강희안, 동래군 정난종과 더불어 당대에 글씨를 잘 쓰는 사람으로 일컬어졌다.²⁴³⁾

	2-29(예조업무), 4-24(삼관의 신래풍속), 7-1(고려와 조선의 과거제도), 8-3(승문원), 8-17(관아의 허술한 물건 관리), 9-5(성균관유생의 결회와 천도회), 9-7(사가독서와 독서당유래), 9-9(예조의 어려운 일), 9-15(문무관의 대우), 10-8(예조 청사의 유래)	
풍속	1-8(풍속), 1-9(처용극), 1-10(관화례), 1-11(구나례), 1-12(장례), 2-9(약반의 유래, 세시풍속), 7-20(기우제 절차), 8-12(향도의 미풍), 8-15(빙고의 운영), 8-20(주자가례 준행 유래), 9-14(기노연과 기영회 광경), 10-10(종이의 종류), 10-12(양잠과 종상), 10-28(성불도 등의 놀이)	14
지리	1-6(도읍지), 1-7(명승지), 2-8(남대문 밖 출신 승지), 7-31(土宜와 산물), 8-18(철원의 사냥감 감소), 9-1(조종인의 습성비교), 9-8(성밖의 원과 교), 9-22(제처의 현액), 10-9(궁 내외 샘과 못), 10-13(경중의 계단), 10-19(삼포 외인의 폐해), 10-26(일본의 풍속), 10-27(야인의 풍속)	13
왕의 치적	2-3(문종의 문학과 효성), 2-5(성종의 성균관 우대), 2-20(성종조에 인출한 도서), 2-24(세종조의 전경법 절차), 2-26(성종의 문소전 개수와 흥거), 7-2(태종의 동년 장원 우대), 7-22(세종의 인문창제)	7
불교	7-21(원각사 중창), 8-1(불교의 성쇠), 8-2(여승들의 배문), 9-6(승과의 제도)	4
가문	2-7(당대의 양대 문벌), 3-26(순흥 안씨의 가계), 8-4(오자가 급제한 가문), 8-22(성석린·성간 후손의 불운), 10-34(귀화인 계장수의 가문), 10-38(아국의 거족)	6
기타	3-38(성석린의 上奏), 4-23(보현원의 변천), 10-2(하륜의 정사의 꿈), 10-24(공신이 되지 못한 성입), 10-35(귀화인 명승과 진리)	5

242) <표2> 『慵齋叢話』의 類型別 分類 참조.

243) 成倪, 『慵齋叢話』 卷1 3話 : 我國善書者雖多, 而有楷範者蓋寡. (중략) 伯氏與姜仁齋·鄭東萊, 號一時善書.

1-4(우리나라의 화가)

만물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은 천기를 얻은 사람이 아니면 정밀할 수 없다. 설령 하나의 사물을 정밀히 묘사할 수는 있어도 여러 사물을 정밀하게 묘사하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이름난 화가가 드물다. (중략) 강희안은 천기가 고상하고 오묘해 옛사람이 이르지 못한 경지를 터득해 산수화와 인물화가 모두 뛰어났다.²⁴⁴⁾

1-5(우리나라의 음악가)

음악은 기예 중에서도 가장 배우기 어려우므로, 자질을 타고나지 않으면 진정한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중략) 유일하게 이마지가 선비들에게 존경받았고, 성은을 입어 두 번이나 전악이 되었다. 나는 노공필, 박효원, 안침, 임사홍, 채수와 함께 이마지에게 가서 배운 적이 있다. 혹은 날마다 그를 초청해 때로 함께 잠을 자기도 하면서 그의 연주를 매우 익숙해지도록 들었다.²⁴⁵⁾

위 인용문들은 하나같이 서예와 미술, 음악에 있어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어렵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이들을 잡기라고 간단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기를 얻어야 하고 자질을 타고나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문장, 서예, 미술, 음악에 대하여 항목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름난 인물들을 들고 있는데, 그 안에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교류하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자신이 이들에게서 문장, 서예, 그림, 음악을 배웠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곧 당대의 성대한 문화를 성현 자신과 그의 주변 인물들이 이룩하였고, 현재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랑이면서, 융성한 문화와 성과를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까지 전하고 싶은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그 시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에 대한 자긍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44) 成倪, 『慵齋叢話』 卷1 4話 : 描寫物像, 非得天機者不能精, 能精一物, 而能精衆品尤爲難. 我國名畫史罕少. (중략) 姜仁齋天機高妙, 得古人所不料處, 山水人物俱優.

245) 成倪, 『慵齋叢話』 卷1 5話 : 音樂於諸技最難學, 非有天資者, 不能得其真趣. (중략) 惟爾知爲士林所重, 至紆聖眷, 再爲典樂. 余與希亮·伯仁·子珍·而毅·者之, 嘗往學焉. 日日邀致, 或時偕宿, 聽之甚慣.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 성현이 음악, 미술은 물론 卜筮(처용놀이, 구나희) 등과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잡학의 가치를 긍정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성현이 잡학을 末技로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록되지 못하였을 것이다.²⁴⁶⁾ 이는 세조의 호불 성향²⁴⁷⁾과 잡학중시정책²⁴⁸⁾에 크게 영향을 받은 선초 훈구계 문인들의 잡학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현이 함께 교유하고 수학하였던 문신들 중 김수온·성임·서거정·강희맹 같은 사람들도 세조의 호불 성향에 적극 동조하였고 불교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음은 그들의 여러 기록에도 보이고 있으며,²⁴⁹⁾ 성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성현이 처용극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자.

처용놀이는 신라 헌강왕 때부터 시작되었다. 神人이 바다에서 나와 처음에는 開雲浦에 나타났다가 王都로 들어왔다. 그 사람됨이 홀룡하며 대범하고, 노래와 춤추기를 좋아했다. (중략) 처음에 승려가 불공하는 것을 모방해 기생들이 ‘영산회상불보살’을 제창하면서 外廷에서부터 빙 돌아 들어온다. 영인들은 각자 자기 악기를 잡는다. 雙鶴人과 오방처용 가면을 쓴 10명이 모두 따르면서 느리게 세 번 노래하고 자리로 나아가 점점 빠른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큰 북이 울리면 영인과 기생이 몸을 흔들며 발을 한참 움직이다가 멈춘다. 이때 蓮花臺戲를 시작한다. 이보다 먼저 香山과 池塘을

246) 이에 반해 김종직은 잡학을 儒者의 所業이 아니라고 하며 세조의 잡학 중시 정책에 바대의 의견을 올렸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0년 8월 6일(丁亥) 1번째기사 : 宗直啓曰, “今以文臣分肄天文·地理·陰陽·律呂·醫藥·卜筮·詩史七學, 然詩史本儒者事耳, 其餘雜學, 豈儒者所當力學者哉? 且雜學各有業者, 若嚴立勸懲之法, 更加教養, 則自然成精, 其能不必文臣然後可也.” 上曰, “諸學者皆庸流, 專心致志者蓋寡, 故欲令子等學之, 此雖鄙事, 予亦粗嘗涉獵其門戶, 居數日.” 傳于吏曹曰, “宗直, 輕薄人也. 雜學, 予所留意也, 而宗直言之可乎? 下攸司鞫問其情可也. 然既立輪對之法, 使之盡言而又罪言者, 則言路塞矣. 其止令罷職.” 又傳曰: “宗直分何學?” 對曰, “乃史學也.” 命勿學.

247) 세조대에 성행한 불교에 대하여 성현이 『용재총화』에 기록한 부분이다. 成倪, 『慵齋叢話』 卷8 1話 : 我國崇奉佛教久矣. (중략) 至我太宗, 革十二宗只置兩宗, 盡革寺社之田, 然遺風未殄, 士大夫爲其親屬皆設齋, 又設法筵於殯堂, 行忌祭者, 必邀僧飯之, 亦有詩僧, 與縉紳相唱酬者頗多, 儒生讀書者皆上寺, 雖或有壞瓦畫墁之弊, 而儒釋相賴者亦不少, 至世廟朝極矣. 僧徒雜於村落, 雖有淫暴, 人不得詰, 朝官守令亦不得抗, 至有賴僧蔭而獲利者, 大學生獻佛骨要恩寵, 士林不甚驚怪.

248) 세조의 잡학에 대한 관심은 祕記, 讖書류에 까지 이르렀으며, 노불 등의 이단 사상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가졌음은 『세조실록』에 자세히 보인다.

249) 이내중(앞의 글, pp.96-97)은 당시 훈구계 문인들에게 “善無常主 理無定在”라는 식의 학문에 대한 인식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필기류 저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하였다.

설치하고 주위에 채색 종이꽃을 한 길 남짓 높이로 꽂아둔다. 좌우에는 채색 燈籠을 두는데, 流蘇가 그 사이에서 어른거린다. 연못 앞 동쪽과 큰 연꽃 받침을 놓는데, 어린 기생이 그 안에 미리 들어가 있다. 步虛子를 연주하면 쌍학이 곡조에 따라 날갯짓하며 춤추면서 나아가 연꽃을 쫓는다. 그러면 두 명의 기생이 연꽃을 헤치고 나와 서로 마주 보기도 하고 등지기도 하며 발을 구르고 춤을 춘다. 이것을 ‘動動’이라고 한다. 이에 쌍학이 물러가고 처용이 들어온다. 처음에 ‘縵機曲’을 연주하면 처용이 열을 지어 서서 때때로 소매를 당겨 춤을 춘다. 다음에 ‘中機曲’을 연주하면 다섯 처용이 각각 五方으로 나뉘어 서서 소매를 떨치며 춤을 춘다. 다음에 ‘促機曲’을 연주하고 이어서 ‘神房曲’을 연주하면 너울너울 어지러이 춤을 춘다. 마지막으로 ‘北殿曲’을 연주하면 처용이 물러가 자리에 늘어선다. 이때 기생 한 사람이 ‘나무아미타불’을 창하면 모두가 따라서 부른다. 이어 ‘觀音讚’을 세 번 창하면서 빙 돌아서 나간다.²⁵⁰⁾

처용놀이는 선달그믐 전날 밤에 궁중에서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베풀던 행사이다. 처용설화는 삼국시대 무속신앙의 형태로 향가 「처용가」로 시작되어, 고려시대에는 궁중무용으로 계승 발전되었고 조선시대에는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삼국유사·기이편』에 수록된 「처용가」로 시작하여 『고려사』, 『악학궤범』, 『용재총화』, 『시용향악보』 등에 남아 있다. 특히 성현의 『악학궤범』 제5권 ‘鶴蓮花臺處容舞合設’조에 기록된 「처용가」는 노랫말과 함께 처용가가 궁중에서 공연되었다는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용재총화』에도 처용놀이의 유래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놓았다. 놀이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되는 음악의 순서, 무대 배경, 놀이의 장면까지 상세히 설명해 놓아 기록만으로도 장면을

250) 成倪, 『慵齋叢話』 卷1 9話 : 處容之戲, 肇自新羅憲康王時. 有神人出自海中, 始現於開雲浦, 來入王都, 其爲人奇偉倜儻, 好歌舞. (중략) 初倣僧徒供佛, 群妓齊唱靈山會相佛菩薩, 自外廷回匝而入. 伶人各執樂器, 雙鶴人五處容假面十人, 皆隨行縵唱三回, 入就位而聲漸促, 撞大鼓, 伶妓搖身動足, 良久乃罷. 於是作蓮花臺戲. 先是設香山池塘, 周挿彩花高丈餘. 左右亦有畫燈籠, 而流蘇掩映於其間. 池前東西, 置大蓮萼, 有小妓入其中, 樂奏步虛子, 雙鶴隨曲節翱翔而舞, 就啄蓮萼. 雙小妓排萼而出, 或相向或相背, 跳躍而舞, 是謂動動也. 於是雙鶴退處容入. 初奏縵機, 處容成列而立. 有時彎袖而舞, 次奏中機, 處容五人, 各分五方而立, 拂袖而舞, 次奏促機, 繼爲神房曲, 娑娑亂舞, 終奏北殿, 處容退列于位. 於是有一妓一人, 唱南無阿彌陀佛, 群從而和之. 又唱觀音讚三周, 回匝而出.

재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성현이 『악학궤범』에 조선왕조 건국부터 성종조까지 계승되고 진흥되어 온 예악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용재총화』에도 당대의 문화 예술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걸친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용재총화』 권2에도 이러한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다. 집현전과 홍문관, 과거제도, 성균관, 轉經法, 예조 등 국가의 여러 기관과 제도에 관한 내용, 그리고 명절과 민간의 세시풍속까지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신라의 왕이 정월 15일에 天泉亭에 거둥했는데, 까마귀가 銀으로 만든 합을 임금 앞에 물어다놓았다. 합 속에는 편지가 있었는데 매우 단단히 봉해져 있었으며, 겉면에 “이것을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쓰여 있었다. 임금이 “두 사람이 죽느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자, 대신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란 임금을 말하는 것이요, 두 사람이란 신하를 말하는 것이요”라고 했다. 드디어 열어보았더니 “궁중의 거문고 갑[琴匣]을 쏘라”고 쓰여 있었다. 임금이 말을 달려 궁으로 돌아가 거문고 갑을 발견하고 활시위를 당겨 쏘았다. 거문고 갑 안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내전에서 향을 피우고 수도 하던 중으로, 왕비와 사통하고 장차 왕을 시해하려고 그 시기를 미리 정해 두었던 것이다. 왕비는 중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 임금이 까마귀의 은혜를 고맙게 여겨 해마다 정월 15일에 향반(香飯)을 만들어 까마귀에게 주었다. 지금까지도 이를 그대로 따라해 향반은 명절에 먹는 좋은 음식이 되었다. 향반 만드는 법을 보면, 먼저 찹쌀을 씻어 찌서 밥을 짓는다. 거기에 곱감, 삶은 밤, 대추, 마른 고사리, 싸리버섯 등을 가늘게 썰어서 꿀과 간장을 섞어 찌 뒤 다시 잣과 호두를 넣어 만든다. 맛이 매우 좋아서 이를 약밥[藥飯]이라고 한다. 속언에 “약밥은 까마귀가 일어나기 전에 먹어야 한다”라고 했으니 대개 친친정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²⁵¹⁾

251) 成倪, 『慵齋叢話』 卷2 9話: 新羅王於正月十五日幸天泉亭, 有烏銜銀榼置于王前, 榼裡有書, 封之甚固, 外面書曰, “開見則二人死, 不開則一人死.” 王曰, “二人殞命, 不如一人殞命.” 有大臣議曰, “不然. 一人謂君, 二人謂臣也.” 於是遂開見之, 其中書曰, “射宮中琴匣.” 王馳還入宮見琴匣, 持滿射之, 匣中有人, 乃內院樊脩僧與妃通者也. 將謀弑王, 其期已定, 妃與僧皆伏誅. 王感烏之恩, 每年是日, 作香飯飼烏. 至今遵之, 以爲名曰美饌, 其法洗蒸粘米作飯, 細切乾柿熟栗大棗乾蕨烏足茸等物, 和清蜜清醬而再蒸之, 又點松子胡桃之實, 其味甚恬, 謂之藥飯. 俗言食飯當於鴉未起之時, 蓋因天泉之事也.

천천정의 고사와 약밥의 유래를 적은 글이다. 천천정의 고사는 『三國遺事』 卷1 「紀異」 편에 나오는 ‘射琴匣 설화’와 같은 이야기이다.²⁵²⁾ 성현은 약반²⁵³⁾의 유래를 설명하고 그 뒤에 약반을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약밥은 까마귀가 일어나기 전에 먹어야 한다”는 속언까지 덧붙여 마무리한다. 필기의 특징으로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사대부 문인이 본인의 저술에 요리법까지 기록하였다는 점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時俗을 기록하고 그 유래와 전통을 전승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이러한 기록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성현이 조선의 국가제도와 민간풍속, 풍물 등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이들을 더욱 미화하거나 꾸밈 필요가 없었고,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화하거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은 시속을 기록한다는 관점에서 당대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 뿐 아니라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권 1의 8화를 예로 들어 보자.

252) 一然, 三國遺事 卷1, 紀異 第一: 第二十一 毗處王[一作炤智王] 卽位十年戊辰, 幸於天泉亭, 時有烏與鼠來鳴, 鼠作人語云, “此烏去處尋之.”[或云 神德王欲行香輿輪寺, 路見衆鼠含尾, 怪之而還占之, 明日先鳴烏尋之云云, 此說非也.] 王命騎士追之, 南至避村,[今壤避寺村 在南山東麓] 兩猪相鬪, 留連見之, 忽失烏所在徘徊路旁, 時有老翁, 自池中出奉書, 外面題云, “開見二人死, 不開一人死.” 使來獻之. 王曰, “與其二人死莫若不開, 但一人死耳.” 日官奏云, “二人者庶民也, 一人者王也.” 王然之開見, 書中云, “射琴匣.” 王入宮, 見琴匣射之, 乃內殿焚修僧與宮主, 潛通而所好也. 二人伏誅. 自爾國俗, 每正月上亥上子上午等日, 忌慎百事不敢動作, 以十五日爲烏忌之日, 以糲飯祭之, 至今行之. 俚言怛怛, 言悲愁而禁忌百事也. 命其池曰“書出池.”(一然, 『三國遺事』, 민족문화추진회, 1973)

253) 성현의 허백당집 권8에도 香飯을 소재로 한 7언고시가 보인다. “新春淑氣鷄林峒, 翠葆曉出天泉亭, 亭前老鴉自何許, 銜遺筒札通丁寧, 南風暗引年少子, 七首光韜琴匣裏, 歸來飛箭射穿匣, 一人無虞二人死, 百祭流膏酥餌滑, 碎分諸果漬崖蜜, 蒸之翠釜香浮浮, 年年飼鴉十五日, 酬恩報德意不虛, 猶勝鐘鼓邀安居, 當時寓戲作佳味, 流傳幾載經居諸, 公侯甲第爭豪侈, 帳下揉飯皆玉指, 平明封獻九重天, 分賜經帳諸學士, 我生落魄負良辰, 蔬糲到處潛悲辛, 忽從比隣嘗一鉢, 腹果不覺凶年貧, 功名富貴夢中夢, 渺渺瀛洲隔鸞鳳, 天廚仙饌不復餐, 麻衣空老寒居洞. 이 시의 전반부에서는 향반의 유래를 읊었고, 후반에서는 쓸쓸하게 명절도 못 즐기고 서러이 지내던 작가가 이웃에게 얻은 향반 한 그릇에 배가 불러 자신의 가난함 못 느끼겠다고 하였다. 평민의 복장으로 늙어만 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은 시이다. 시집과 『용재총화』에 보이는 이 두 기록은 한 작가가 동일한 제재를 사용하였지만 어떠한 시각으로 기록하는지에 따라 주제와 분위기의 차이가 나타남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옛날 시장의 물건 값은 속임수가 없어서 물가가 치솟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간교함이 날로 심해져서 물건에 반은 잡스러운 것이 섞여 있고, 한 자(尺) 되는 생선을 한 말(斗)의 곡식과 바꾸며, 수레 한 대의 운임료에 몇 포(布)를 쓰기에 이르렀다. 염색하는 집은 더욱 심해 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 그런데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사치를 일삼으며 그들과 물건 값을 흥정하지 않고 값을 끝없이 올린다. 도성 안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 옛날에 비해 열 배나 되니 성 밖에까지 집들이 뻗뻗하게 늘어서 있다. 깊은 산 외딴 골짜기에서도 이미 나무를 모두 베어냈고, 강을 따라 뗏목을 띄워 재목을 운반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비록 세도가 날로 변한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태평시대에 禮文을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는 데에만 힘쓴 결과이다.²⁵⁴⁾

위 인용문은 “지금 풍속 중에는 옛날보다 못한 것이 많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節度가 없이 화려한 잔치와 혹독한 신참례, 사치스러운 혼례, 시장의 바가지상술 등 당대의 사회적 문제들을 기록하였다.²⁵⁵⁾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성현은 이를 해결하거나 비판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성현이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다. 비판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회의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성현의 자기 시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뒤흔들 만큼의 큰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기에 사회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예문을 화려하고 성대하게 하는 데에만 힘쓴 결과”라며 문제의 원인만 한 줄로 간단하게 제시한 것이다.

『용재총화』에 실려 있는 많은 야사류 기록들은 주로 사건이나 사실, 인

254) 成倪, 『慵齋叢話』 卷1 8話: 古者市無二, 不至騰踊, 今則姦巧日甚. 物半淆雜, 一尺之魚, 相換斗粟, 一車數價, 至用輸布. 染家尤甚, 價重難堪. 豪人猶事侈美, 不與之爭競, 增其價而不已. 城中居人漸多, 比舊十倍, 以至城外, 墻宇櫛比, 公私營構, 亦要高大, 材木尠貴. 深山僻谷, 斫伐已盡, 緣江浮筏者多苦之. 雖云世道日變, 而太平之世, 務要禮文縟盛之所致也.

255) 이강욱(앞의 글, p.75)은 성현이 위 인용문에 사대부 지식인으로서 자기 사회에 대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불만이나 비판정신을 드러내었다고 보았다.

물들을 소개하는 단계에 머물지 그것을 비판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당대 사회의 문화적 풍토에 대해 이념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자신의 시대와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자신이 우월한 가문 출신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성현은 『용재총화』에 성현 자신의 가문을 포함한 당시의 우월한 가문들을 기록하였다. 성현의 가문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훌륭한 가문인 것은 공인된 사실이지만, 자신의 가계에 대한 기록에는 더욱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문벌이 번성하기로는 廣州 李氏가 으뜸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成氏만한 집안도 없다. (중략) 우리 성씨는 창녕부원군 成汝完 이후로 점점 번성했다. 창녕부원군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장남 石璘은 벼슬이 좌정승에 이르렀고 창녕부원군에 봉해졌다. 그다음 石瑢은 유수였으며, 그다음은 우리 증조부 예조판서공이다. 정승[성석린]의 아들 發道는 좌참찬이었고, 유수[성석용]의 아들 達生은 관중추였으며, 概는 관찰사였다. 증조부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장남은 곧 나의 조부[성엄]로 동지중추원사를 지냈고, 그다음 抑은 우찬성, 그다음 扱은 첨지중추를 지냈다. 나의 아버지는 형제가 셋인데, 아버지[성엄조]는 장남으로 지중추원사를 지냈고, 차남[성봉조]은 우의정을 지내고 창성부원군에 봉해졌으며, 삼남[성순조]은 형조참판을 지냈다. 우리 형제도 셋인데, 백형[성임]은 좌참찬이고, 중형[성간]은 정인이며, 막내는 나이다. 창성부원군[성봉조]의 아들은 참의를 지낸 慄인데, 을이후에는 집안이 부진했다. 참판[성급]의 아들은 셋인데, 장남 倬은 동지중추부사, 차남 俊은 병조판서, 삼남 健은 형조판서이다. 나 또한 예조판서이니, 사촌 형제 세 사람이 일시에 三曹의 판서가 된 것은 고금에 드문 일이다.²⁵⁶⁾

256) 成倪, 『慵齋叢話』 卷2 7話, “當今門閥之盛, 廣州李氏爲最, 其次莫如我成氏. (중략) 我成氏自昌寧府院君以後漸大. 府院君有三子, 長石璘左政丞昌寧府院君, 次石瑢留守, 次則我曾祖禮曹判書公也. 政丞之子發道左參贊, 留守之子達生判中樞, 概爲觀察使. 曾祖有三子, 長則我祖知中樞, 次柳右參贊, 次扱僉知中樞. 我考兄弟三人, 考居長知中樞, 次則右議政昌城府院君, 次則刑曹參判. 我兄弟三, 伯氏爲左參贊, 仲氏爲正言, 季則不穀. 昌城之子參議慄, 以後不振. 參判之子三人, 長倬同知中樞, 次俊兵曹判書, 次健刑曹判書. 不穀亦爲禮曹判堂, 昆弟三人, 一時爲三曹判書, 古今所罕有也.

당대의 양대 문벌가를 소개한 기록인데, 그 중 한 집안이 성현 자신의 집안이다. 광주 이씨의 가계를 먼저 설명하고 자신의 가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창녕부원군 성여완 이후로 높은 관직을 지낸 가계의 인물들과 성현 삼형제, 사촌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리고 끝맺음은 사촌 형제 세 사람이 삼조의 판서가 된 것이 고금에 드문 일이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다.

우리 외가 안씨는 바로 문성공 安珦의 후예이다. 거란의 난리 이후로 학교는 황폐해지고 文教는 땅에 떨어졌는데, 문성공이 학교를 수리하고 녹봉과 노비 백여 구를 바쳤으니 지금까지도 성균관에서 부리는 자는 모두가 문성공의 노비이다. 공은 이 공로로 문묘에 배향되었다. 문성공이 于器를 낳고, 우기는 牧을 낳고, 목은 元崇을 낳고, 원숭은 瑗을 낳고, 원은 우리 외조부[從約]을 낳고, 외조부는 玠를 낳고, 구는 知歸를 낳았으며, 지귀의 아들은 瑚琛이다. 지금까지도 장자가 서로 이어 과거에 합격하니 사람들은 문성공이 도운 것이라고 여긴다.²⁵⁷⁾

위 기록은 성현의 외가 순흥 안씨의 가계에 대한 기록이다. 얼핏 보면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것 같다. 그러나 과장을 조금 더한다면 고려가 거란의 침입 이후로 학교가 황폐해지고 문교가 땅에 떨어졌을 때 이를 구한 것이 문성공 안향이며, 그 공로가 당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 후손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합격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문성공이 도운 것이라고 여긴다며 겸손하게 표현하였지만 여기에서도 성현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은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성현은 명문 거족에 대한 기록으로 『용재총화』를 마무리하였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거족들을 나열하면서, 昌寧 成氏와 順興 安氏도 함께 기

257) 成侃, 『慵齋叢話』 卷3 26話 : 我外家安氏, 卽文成公之後也. 自契丹之後, 學校蕪廢, 文教墜地. 文成公修學校, 施俸錢, 納其奴婢百餘口, 至今成均館所使者, 皆文成公之藏獲也, 公以功配享文廟. 公生于器, 于器生牧, 牧生元崇, 元崇生瑗, 瑗生我外祖, 外祖生玠, 玠生知歸, 知歸生子曰瑚琛. 至今長子相承登第, 人以爲文成之所助也.

록하였다.²⁵⁸⁾ “옛날 사람들은 모두 가족을 중시하였다”는 말로 시작하여 자신의 가문 자랑을 합리화하고자 하였지만 그것으로 그의 문벌의식을 가리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벌의식은 당대 사대부 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식이었으므로 성현 개인의 교만이나 잘난 체로만 볼 수는 없다. 선조 사대부 문인들에게 있어서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그들 문학의 든든한 배경이고 밑바탕이었기 때문이다.

258) 成俔, 『慵齋叢話』 卷10 38話 : 古人皆重巨族, 如晉之王謝唐之崔盧是已. 我國鉅族, (중략) 昌寧成氏曹氏, 靈山辛氏, 高靈申氏, 東萊鄭氏, 河東鄭氏, 延日鄭氏, 河陽許氏, 漆原尹氏, 順興安氏.

V. 寓意로 그려낸 理想社會 - 『浮休子談論』

『浮休子談論』은 ‘浮休子’의 이야기와 의론이라는 뜻으로, 성현의 정치 철학적 견해를 밝힌 책이다. 성현의 다방면에 걸친 관심과 많은 저서만큼 지금까지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부휴자’라는 가상의 허구적인 인물을 화자로 내세워 말하고 있는 『浮休子談論』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소략한 편이다. 『부휴자담론』을 주제로 하여 연구된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종묵에 의해 처음으로 『부휴자담론』이 자세하게 연구되었다. 한국문학사에서 薛聰의 「花王戒」 이래 간헐적으로 제작 되어온 寓言이 성현의 『부휴자담론』에 이르러 대량으로 작품화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휴자담론』의 「寓言」을 분석, 우언 양식의 전형을 밝히고 그 양식적 특질을 규명하였다.²⁵⁹⁾

장진숙은 『부휴자담론』을 조선전기 사대부의 ‘정치적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부휴자담론』의 「우언」을 당대의 정치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현의 정치적 지향을 분석하였다. 또 정치적 화법이라는 입장에서 우언의 수사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²⁶⁰⁾

주재우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인 우언에 주목하여 성현의 『부휴자담론』의 「우언」을 중심으로 설득 표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았다.²⁶¹⁾

윤승준은 『부휴자담론』에 보이는 君主와 臣僚에 대한 논의와 형상을 통해

259) 이종묵, 「《부휴자담론》과 우언의 양식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pp.187-211.

260) 장진숙, 「《부휴자담론》에 나타난 성현의 정치적 지향과 우언의 화법」, 『어문연구』 제35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pp.405-429.

261) 주재우, 「고전표현론의 관점에서 본 우언문학교육-성현의 《부휴자담론》 우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pp.291-316.

성현의 君臣論을 재구해 보았다.²⁶²⁾

이 외에 우언의 관점에서 『부휴자담론』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권석환과 정연봉의 논문이 있다.²⁶³⁾

본고에서는 성현이 ‘부휴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화자로 내세워 말하고 있는 「부휴자전」과 『부휴자담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부휴자담론』은 담론 방식에 따라 「雅言」, 「寓言」, 「補言」 3가지 양식으로 분류되어 각각 2권씩 총 6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부휴자’와 ‘허구적 인물’, ‘역사적 인물’을 등장 시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의견인 듯 꾸며 놓으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었으므로 우언의 양식을 갖추고 있어서, 조선 초기의 우언 문학을 대표할 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 각 양식별로 말하기 방식이 다르고 다양한 화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휴자담론은 전반적으로 성현이 생각하는 이상적 정치관, 군신관계, 선비의 자세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雅言」, 「寓言」, 「補言」이라는 3가지 방법을 통해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세가지 방법은 주제 표출 양상에 따라 구분하는데, 비판의 정도와 寓意의 정도 차이로 볼 수 있다. 비판의 강도와 우의의 정도는 아언에서 우언, 보언으로 갈수록 세진다.

「아언」은 권1, 권2에 걸쳐 총 4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성현의 분신인 ‘부휴자’가 직접 말하는 방식을 취한다. 가끔 부휴자와 다른 인물의 문답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있으나 거의 모든 논의는 부휴자를 통해 이야기된다.²⁶⁴⁾ 부휴자라는 인물을 통해 이야기 하는 것은 성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이지만 그 우의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비판을 드

262) 윤승준, 「《부휴자담론》을 통해 본 성현의 군신론」, 『동아시아고대학』 제1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pp.263-294.

263) 권석환, 「한중 우언의 동질성에 관한 연구-《애자잡설》, 《옥리자》, 《부휴자담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29, 한국중어중문학회, 2001 ; 정연봉, 「한국 한문 우언론-우언의 원류와 양식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264) 부휴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는 2권의 19번째 이야기뿐이다.

러내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성현의 일반적 정치관이 드러나는데, 내용은 주로 군신관계에 대한 것과 질서에 관한 것이다.

「우언」은 권3, 권4에 걸쳐 총 37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우언」에는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다. 그렇기에 「우언」은 「아언」보다 우의성이 강하고 「보언」보다 비판의식이 약하게 드러나는 중간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언」의 내용 또한 경제치국과 인재등용에 관한 내용 주를 이루지만 말하는 방법이 「아언」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부휴자가 직접 말하는 방법²⁶⁵⁾보다 허구적 인물들이 등장하며 시대적 배경도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인다. 예를 들면 등장 인물들은 동고자, 녹피옹, 동구선생, 강상노인, 정대부 등으로 불리며, 시대적 배경은 魏, 齊, 魯, 楚, 燕, 晉, 吳, 鄭, 曹나라 등과 같은 가상으로 설정된 시간과 공간이 배경이 된다. 그리고 「아언」이 일방적인 의견 제시였다면 「우언」은 서사적인 이야기를 더하여 임금의 실정에 관하여 비판하거나 권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직접적인 비판의식은 「보언」에 비해 약하지만 당시 성현이 느낀 문제들을 우의하고자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언」은 권5, 권6에 걸쳐 총 32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보언」은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를 차지한다. 「보언」에는 역사적 실재를 드러내고 거기에 허구적 이야기를 더하였다. 실존하였던 역사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성현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부휴자를 통해 못다한 이야기를 실존 인물들의 입을 빌어 이야기한다. 허구적 이야기를 마치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꾸며 설득력을 더하였다. 「보언」의 이야기는 「아언」, 「우언」과 같이 정치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아언」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되 기본적으로 중

265) 부휴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3권의 4번째, 5번째, 10번째 이야기이다.

심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였고, 「우언」은 현실적 문제들을 우의하여 비판하였다면 「보언」에서는 이 밖에 다루어야 할 세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면 외교적 문제, 왕후의 권계, 임금의 처신에 관한 내용 등 세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勸戒들을 담고 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야기의 사건이 구체적이며 권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비판의 강도가 「우언」보다 강해졌지만 우의의 정도는 「우언」보다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방식을 달리하는 「아언」·「우언」·「보언」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부휴자담론의 성격과 의미를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1. 經世觀의 表出 : 「雅言」

‘雅言’은 『論語』 「述而」, “子所雅言, 詩書執禮, 皆雅言也.”에 출처를 두고 있는 용어로,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다. 고금의 『논어』 주해서들을 종합해보면, ‘아언’에 대하여 ‘正言[바른 말] 또는 正音[바른 음]’과 ‘常言[늘 하는 말]’, ‘夏言[공용어]’ 세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²⁶⁶⁾ 그리고 『부휴자담론』의 ‘아언’에 대해서 이종묵은 ‘당시 중국에 통행되고 있는 말[夏言]’이라는 뜻으로 직설적이고도 합리적인 언술을 뜻한다고 하였고,²⁶⁷⁾ 홍순석은 ‘바른말[正言]’ 또는 ‘평소에 하는 말[常言]’이란 뜻이라고 하였다.²⁶⁸⁾ 본고에서는 『부휴자담론』 자체가 우언의 양식을 빌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언’을 ‘바른 말[正言]’로 풀이하고자 한다. 곧 우언의 양식을 빌려 말하는 부휴자의 ‘바른 말’이라고 본 것이다.

266) ‘아언’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는 양세욱·전유용의 논문 「아언은 춘추전국시대 공용어인가?」(『중국어문학논집』 48,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에 잘 나와 있다.

267) 성현 지음·이종묵 옮김, 『부휴자담론』, 홍익출판사, 2002, p.340.

268) 성현 지음·홍순석 옮김, 『부휴자담론』, 지만지, 2008, p.10.

「아언」의 대부분은 이야기 주체가 부휴자로 되어 있다. 어떠한 상황이나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말하기 보다는 “浮休子曰”이라는 어구를 문두에 사용하여 직설적으로 부휴자[성현]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내용은 주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임금과 신하의 관계, 신하된 자의 도리, 인재등용에 관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부휴자는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성현의 『虛白堂文集』 권 13, 「傳」에 托傳²⁶⁹⁾의 형식을 취한 「浮休子傳」이 실려 있다.²⁷⁰⁾ 「부휴자전」은 ‘或者’와 ‘浮休子’의 대화를 통해 전개되며, 내용은 부휴자의 성격, 독서 태도, 시 짓기, 거문고 타기, 山水探勝, 修己之道, 自號에 대한 변론, 贊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휴자전」의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浮休子は 靑坡居士의 자호이다.²⁷¹⁾

보통의 인물전에는 첫머리에 ‘성’, ‘명’, ‘자’, ‘본적’의 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고정된 스타일이지만 「부휴자전」에서는 대상 인물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고 ‘부휴자’가 ‘청과거사’의 자호라고만 밝히고 있다.²⁷²⁾ 그렇다면 청과거사는 누구이며, ‘부휴자’의 뜻은 무엇인가? ‘청과거사’는 어린 시절 龍山區 靑坡洞에

269) 안병렬은 「朝鮮前期 傳作品 研究」(『한문학논집』 12, 근역한문학회, 1994, p.455)에서 성현의 『虛白堂文集』 卷13 傳에 실린 작품 「金就盈傳」, 「眞逸先生傳」, 「浮休子傳」을 살펴보면서 「부휴자전」은 史傳이나 家傳 같은 實傳이 아닌 托傳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270) 넓은 의미의 ‘傳’은 인물의 행적을 기술한 것이고, 하위 갈래는 관점에 따라 그 양상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徐師曾이 『文體明辨』에서 전을 史傳·家傳·托傳·假傳으로 분류한 것을 대체로 따르고 있다. 그 중 ‘탁전’이란 작가의 심회, 사상, 취미, 인생관, 치세관 등을 제 3의 인물에 가탁하여 서술하는 전의 일종으로, 어떤 사상의 인물에 작자 자신을 은유한 자전적인 自托傳과 가상 또는 실제 인물의 특성에 작자의 사상, 치세관, 주장 등을 우의한 意托傳이 있다. 자탁전의 시초이자 대표작품으로 陶潛의 「五柳先生傳」이 있으며, 의탁전의 대표작품으로는 柳宗元의 「種樹郭橐駝傳」이 있다. 성현은 객체인 가상의 인물명을 작자 자신의 自號로 나타내고, 작자 자신의 행적보다는 자신을 객관화하여 그 심회를 조명하는 「오류선생전」의 글쓰기 방식을 사용하여 「부휴자전」을 지었다.(조수학, 『한국의 托傳과 假傳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p.43 참조)

271)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浮休子者, 靑坡居士之自號也.

272) 이렇게 첫머리에서 대상 인물의 성명과 본관을 일부러 들지 않으면서 애매하게 표현하며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글쓰기 방식은 「오류선생전」형 자전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가와이 코오조오 지음·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pp.93-94.)

서 자란 성현 자신을 가리킨다.²⁷³⁾ 그리고 호를 ‘부휴자’로 한 이유는 「부휴자전」 끝에 밝혀 놓았는데, “살아서 세상에 우거한다는 것은 둥둥 뜬 것[浮]과 같고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휴식하는 것[休]과 같다. (중략) 둥둥 떠서 산다 해서 무슨 영광이며, 휴식하는 것처럼 죽는다 해서 무엇이 슬프겠는가.”²⁷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莊子 外篇』 「刻意」의 ‘其生若浮 其死若休’에서 따온 것이다. 그리고 성현은 첫머리에 이어 부휴자[청과거사]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거사는 술직하여 꾸밈새가 없으며 순수하고 근엄하며 질박하고 곧아서 남에게 뇌물을 써서 벼슬아치와 결탁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권세의 길에서 지 아니하며, 환영하는 잔치나 송별하는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집안 사람을 위해 생산 작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며, 소득이 있으면 풍성한 음식과 아름다운 의복도 넉넉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득이 없으면 추한 의복과 굶은 음식도 부족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²⁷⁵⁾

부휴자의 성격을 살펴보면 영리를 따지지 않고, 손실과 이익을 따지는 생각을 완전히 잊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 가치관과 대치하여 살아가는 삶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세상의 특징인 탐욕과는 반대되는 성품임을 알 수 있다. 또 부휴자의 修己之道에 대한 변론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몸 닦는 도를 물으니, 거사는 말하기를, “담담하여 아무런 경영도 없고 공평하여 사정도 없고 궁해도 불만이 없고 곤해도 주린 빛이 없

273) ‘청과거사’가 ‘靑坡’의 호를 가진 李陸(1438~1498)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육은 성현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로 성현과 교유하였다는 기록이 『慵齋叢話』에 보이며(成倪, 『慵齋叢話』 2-31, “余少時與放翁相友善, 寓空家讀書”) 성현문집인 『허백당집』에 「부휴자전」이 실려 있고, 『虛白堂先生文戴成公行狀』에 『부휴자담론』 6권이 있다는 金安國의 기록(金安國, 『虛白堂集』, 「虛白堂先生文戴成公行狀」, “所著虛白堂詩集十五卷, 補集五卷, 文集十五卷, 風雅錄上下卷, 浮休子談論六卷, 奏議稗說六卷, 慵齋閒話十二卷, 錦囊行跡四十三卷, 桑榆備覽四十卷, 經綸大軌五十餘卷, 未就而卒, 所撰風騷軌範三十卷行于世, 其他命撰諸書, 應製篇章稱是.”)에 따라 부휴자는 곧 성현임을 알 수 있다.

274)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生而寓乎世也若浮, 死而去乎世也若休. (중략) 則浮亦何榮, 休亦何傷.

275)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居士惘福無華, 純謹質直, 不通關節於人, 不立權勢之途, 不預罇酒迎送之會, 不營家人生產作業, 得之則豐飧美服, 不以爲有餘, 羸衣惡食, 不以爲不足.

으며, 한가하여 생각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고 자유로워 칭찬도 없고 허물도 없고, 방황하여 욕심도 없고 정도 없고, 希夷하여 옳음도 없고 그림도 없고, 황홀하여 形도 없고 象도 없이 하면 거의 도에 달하여 至人の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였다.²⁷⁶⁾

부휴자는 옳음이나 그림도 없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집착하는 바가 없는 至人の 영역에 들어간 인물이다.²⁷⁷⁾ 그렇다면 이렇게 公平無私하고 지극한 경지에 이른 인물인 부휴자를 내세워 부휴자담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임금에 대한 강한 勸戒

성현은 2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이후 6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중앙정계의 벼슬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오랜 관직생활을 거치면서 정치에 관한 생각들을 ‘頌’과 ‘論’, ‘說’의 형식으로 남겨 놓았다.²⁷⁸⁾ 그런데도 다시 ‘頌’과 ‘論’, ‘說’의 형식이 아닌 우언의 형식을 사용하고, 부휴자의 입을 빌리면서까지 이야기 하려고 했던 내용은 아마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직접 말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먼저 『부휴자담론』 「아언」 1권의 첫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자.

(가) 부휴자가 말하였다.

① “임금은 하늘과 같다. 그 높기가 더할 데 없고 그 존귀하기가 짝이 없으며 그 크기가 끝이 없고 그 넓기가 한이 없다. 신이로운 변화는 헤아릴 수 없고 강력하고 건장함은 쉽다. 해와 달이 사물을 밝히듯이 성덕이

276)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或問修己之道, 居士曰, 澹而無營, 泊而無私, 窮而無歎, 困而無餒, 逍遙乎無思無勞, 優遊乎無譽無尤, 彷徨乎無欲無情, 希夷乎無是無非, 惚恍乎無形無象, 如此則幾乎道, 而入至人之域矣.

277) 부휴자의 성품과 수기지도는 장자가 말하는 聖人の 德을 본뜬 것이다.

278) 최혜미는 성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으로서의 세계상을 표상하기 위해 ‘頌’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보수적 이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論說’의 형식을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최혜미, 「허백당 성현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빛나고, 비와 이슬이 만물을 적시듯이 은택이 널리 베풀어지며, 바람과 서리가 초목을 꺾듯이 형벌이 엄하고, 우레와 벼락이 진동하듯이 위엄을 떨친다. 봄에 만물이 소생하고 가을에 만물이 시드는 것처럼 상과 벌이 드러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는 것처럼起居가 절도에 맞는다.

② 임금의 하늘과 같다. 임금이 하는 바는 하늘이 하는 바를 본받지 않음이 없다. 임금이 덕이 편안함을 잃어 허물이 있게 되면, 해와 달에 일식과 월식의 변고가 생기게 되고 눈과 비에 가뭄과 홍수의 탈이 생기게 되며, 폭풍이나 서리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때 아닌 우레가 치기도 한다. 이때문에 임금이 된 자는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바른길을 따라야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되고, 항상된 마음을 가져야지 뜻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한 마음을 가져야지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되고 하늘과 백성을 공경해야지 오만하게 대해서는 안된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상서롭지 못하고 하늘을 업신여기면 복이 없어진다. 상서롭고 복이 없으면 하루라도 임금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²⁷⁹⁾

부휴자는 (가)인용문의 ①부분에서 임금의 높음과 존귀함, 크기와 넓이, 신이로운 변화와 강력하고 건장함에 대해 말하면서 하늘과 임금을 같다고 보고 매우 절대적인 존재로 높이고 있다. 이는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임금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가)인용문의 ②부분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다. 하늘과 같은 임금이지만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바른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임금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도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君主의 恐懼修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임금의 절대적 위치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나)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끌어주는가에 달려 있을

279)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1-1 : 浮休子曰, “君猶天也。其高無上也, 其尊無對也, 其大無極也, 其廣無涯也。神變之不測也, 強健而不息也。日月以明之, 盛德光輝也。雨露以濡之, 恩澤普施也。風霜以摧之, 刑斷肅殺也。雷電以震之, 威靈動盪也。春生秋殺, 賞罰昌也。晝作夜息, 興居節也。君猶天也。君之所爲, 無非法天之所爲也。君德失寧而過差, 則日月有遭蝕之變, 雨露有旱澇之愆, 風霜有災, 雷出非時也。是故, 王者順天之令, 莅吾之民, 可若而不可愆也, 可常而不可忒也, 可一而不可二也, 可敬而不可慢也。違天不祥, 慢天無福, 不祥無福, 不能一日居天位也。” 『부휴자담론』의 해석은 이종묵(성현 지음·이종묵 옮김, 『부휴자담론』, 흥익출판사, 2002)의 해석을 따랐다.

뿐이다. 신하가 임금을 이끌고 벗이 벗을 이끄는 것이 이리하다. 밝은 것으로 밝은 것을 이끌면 밝은 것이 더욱 밝아져 환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뛰어난 신하들인 皐陶, 稷, 契과 성군인 요순과의 관계가 이와 같다.²⁸⁰⁾

(다) 하늘은 이치를 가지고 임금에게 맡기는 것에 불과하다. (중략) 하늘을 두려워하는 자로는 임금보다 더 심한 이가 없으므로 백성들은 반드시 하늘로 임금을 경계시키는 것이다. 성군인 湯王과 武王이 흥한 것은 하늘이 흥하게 한 것이요, 폭군인 桀 임금과 紂 임금이 망한 것은 하늘이 망하게 한 것이다.²⁸¹⁾

(라) 임금된 자는 하늘의 변고를 두려워하여야 하지만 사람의 변고를 더욱 두려워하여야 한다. 덕을 닦아 정치를 바르게 고치고 中正의 도리를 세워 하늘의 복을 받들게 되면, 아름다운 징조가 절로 이를 것이요, 음양이 조화롭고 비바람이 알맞고 오곡이 무르익어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것이다. 그 상서로움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²⁸²⁾

(마) 하늘의 귀는 매우 높은 데 있지만 인간에게는 하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天機는 알기 어렵지만 인간에게는 하늘의 힘을 흠치는 일이 있다. (중략) 임금이 진실로 덕을 따르고 잘못을 개선하며 하늘의 꾸짖음에 경건하게 응답하면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변하고 화가 복으로 바뀐다. 하늘은 사람이 하는 일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사람이 또한 반드시 하늘에 의지해야 하니, 하늘과 사람이 자연히 서로 조화롭게 된다. 한 번쯤 일어나는 홍수 및 가뭄의 재앙이나, 한 번쯤 五行의 순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찌 근심할 바가 되겠는가?²⁸³⁾

인용문 (나)는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물론 임금이 신하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어떠한 신하가 어떻게 인도하는가에 따라 임금의

280)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1-9 : 人之所以爲人, 在乎導之而已. 臣之導君, 友之導友, 皆是也. 以明導明, 則明益明, 而無不照, 皐陶稷契之於堯舜也.

281)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1-2 : 天不過以理付之人主而已. (중략) 畏天者, 莫大於人主, 故下人必以天戒君. 湯武興者, 天興之也, 桀紂亡也, 天亡之也.

282)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1-12 : 爲人上者, 畏天變, 而尤畏人變, 修德改政, 建大中, 以承天休, 則休徵自至, 陰陽和, 而風雨順, 五穀登, 而人民育, 其爲祥瑞, 豈不大哉?

283)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2-5 : 天聽甚高, 而人有回天之功. 天機雖窅, 而人有盜天之功. (중략) 人君苟能率德改行, 敬答天譴, 則災變爲祥, 禍轉爲福. 天不外於人, 人必賴乎天, 天人之間, 自然相協矣. 一雨暘之愆, 一五行之戾, 何足慮乎?

治國도 달라짐을 전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인용문 (다)~(마)는 임금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이고, 하늘을 움직이는 자는 백성임을 말하고 있다. 성군과 폭군이 되는 것은 백성의 뜻을 따라 하늘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백성을 잘 다스리면 아름다운 징조가 자연히 이르고, 재앙도 상서로움으로 바뀐다고 하고 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에 비하면 어찌다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재앙은 걱정할 바가 아니라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같은 『부휴자담론』에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인용문 (가)에서 말한 君의 위치(君=天)와 (나)~(마)에서 말하는 君의 위치(民>臣下>君)는 다르다. 이러한 부휴자의 의견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성현의 君臣觀에 관한 연구²⁸⁴⁾와 성현의 다른 기록²⁸⁵⁾들과는 사뭇 반대되는 해석으로 보인다. 성현 이전의 훈구세력들은 그 시기를 守成의 시대로 보고 그 시대의 낙관성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왕권을 찬양하고 盈滿함에 대해 경계하였다면, 성현은 이들과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부휴자담론』 제일 앞에 ‘왕은 하늘이다’라는 말을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이후로 나오는 부휴자의 의견들은 왕보다는 신하가 중요하며, 신하보다는 백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점이 그러하다. 임금은 곧 하늘이지만, 하늘이 하는 바를 임금이 하는 것이고, 하늘은 이치를 가지고 임금에게 맡기는 것에 불과할 뿐, ‘인간은 하늘의 귀를 움직인다(아언 2-5)’ 혹은 ‘내 몸을 상하게 할지 언정 백성을 해칠 수 없어 간언을 한다(우언 4-7)’라고 하여 곧 백성의 말을 신하가 듣고 간언하여 임금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부휴자담론』의 첫 번째 이야기와

284) 윤승준(앞의 글, p.272.)은 성현이 성종과 연산군 시기의 군권과 신권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훈구 관료의 입장에서 유교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부휴자담론』을 저술하였다고 보았다.

285) 최혜미(앞의 글 참조)는 성현이 당대를 태평성대로 규정하고 변화보다 유지를 추구하는 보수적 이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신하와 임금의 역할을 규정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곧 보수이념을 합리화하기 위해 ‘論’을 지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성현의 「曹參論」, 「絶纒論」, 「刑賞忠厚之至」, 「劉章論」, 「黑牛說」 등의 작품에 제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의 입장을 달리한 것일까? 이는 『부휴자담론』이 지어질 당시의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부휴자담론』의 정확한 저작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성현의 만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²⁸⁶⁾ 성현은 成宗(재위 1469-1494) 연간 문학 활동의 측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²⁸⁷⁾ 燕山君(재위 1494-1506)이 즉위한 이후로는 군신 간에 대립과 갈등이 있게 되었다.²⁸⁸⁾ 그리고 성현의 나이 60세에 戊午土禍(1498)가 발발하면서 이후로 성현의 발언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²⁸⁹⁾

그러나 『부휴자담론』의 여러 편에서도 밝혔듯 성현은 신하로서의 도리가 ‘간언’이라고 보았다.²⁹⁰⁾ 당시 상황은 간언을 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대사헌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신하로서의 임무를 다하고자 『부휴자담론』을 저술한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이 하고 싶지만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부휴자라는 인물을 내세운 ‘우언’의 형식을 통해 말한 것이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우언은 허구적 세계에 가탁하여 인간의 모순과 불합리를 풍자하고 정서를 일깨우는 권계의 기능을 지녔다.²⁹¹⁾ 성현이 자신의 의견을 허구에

286) 홍순석, 『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p.68.

287) 최혜미(앞의 논문 참조)는 2장. 생애시기별 산문 개관에서 성현의 생애를 제1기 : 수학과 관계 입문(출생-31세), 제2기 : 중견관원기(32-44세), 제3기 : 외직기(45-50세), 제4기 : 전성기(51-59세), 제5기 : 황혼기(60-66세)로 나누어 살폈다.

288) 오춘택(「허백당성현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p.31.)은 1495년 燕山君이 즉위하고 당시 예조판서의 직위에 있던 성현은 연산군일기 첫머리에 맨 처음 啓를 올리는 신하로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성현과 연산군 사이의 은근한 대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朝鮮王朝實錄』, 燕山 1卷, 卽位年 12月 25日(庚辰) 4번째 기사 : 禮曹判書成倪啓: “先朝舊例, 國恤七七日及大小祥, 皆設齋于佛寺. 然此不載禮文, 而大行大王, 亦不崇信佛教, 今將何以?” 世子使中官金孝江轉啓于王妃, 王妃傳曰: “大行大王, 雖不好佛, 然無遺教止之. 且祖宗朝皆行之, 今不可廢.” 倪以不當啓之事, 敢取稟, 世子不敢自斷, 轉啓王妃, 必以倪所啓爲不當而然也. 其卒行之者, 以其懿旨不敢違也. 倪與其兄任、侃, 皆有文名, 而頗惑釋教, 士林以此少之. 今觀倪所啓, 其家世佞佛, 蓋不誣矣.)

289) 최혜미(앞의 논문 참조)는 성현이 자신의 나이 60-66세 시기에 간언을 거의 하지 않고, 하더라도 완곡한 방식으로 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고 보았다. 이 시기는 무오사화 이후로 삼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지되면서 대사헌을 맡았던 성현 역시 적극적인 간언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90) 「아언」 1-9, 「우언」 4-7, 「보언」 5-6 등의 이야기에 간언의 중요함을 언급하였으며, 『허백당문집』 卷 7, 「送西海韓都事序」에서도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臺諫이 되어야 한다. 재상은 위에서 그 뜻을 행하고 대간은 아래에서 그 말을 행하여 항상 임금을 돕는 것으로 임무를 삼는다. 그러므로 대간의 품계는 낮지만 사람들이 모두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다.(士生斯世, 不爲宰相, 必爲臺諫. 宰相行其志於上, 而臺諫行其言於下, 常以補袞爲任. 故諫官秩雖卑, 而人皆以爲華.)”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가탁하거나 비유하거나 풍자할 필요 없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피력할 수 있을 때엔 ‘논’이나 ‘설’의 문체를 사용하여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성현은 혹시나 글로 인한 화가 생길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우언’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또 성현은 이러한 화를 피할 방패 장치를 하나 더 설치하였다. 『부휴자담론』 제일 첫 부분인 ‘바른 말[正言]’이라는 뜻을 가진 ‘아언’ 부분의 첫 이야기로 ‘임금은 하늘과 같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성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른 말은 ‘임금≠하늘’이지만 ‘아언’이라는 부분에 포함시키면서 언뜻 보기엔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것처럼 한 것이다. ‘허구’와 ‘희작’, ‘풍자’와 ‘권계’의 특징을 가지는 ‘우언’이라는 장치를 통하면서 결국은 ‘임금=하늘’이라는 명제는 ‘임금≠하늘’이라는 속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자기긍정과 정치적 입장 표명

앞에서 살폈듯이, 성현은 “임금은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 신하의 간언을 잘 들어야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신하로 등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성현은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 재주와 자질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성현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丁生이 부휴자에게 물었다. “사람의 재능은 배워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부휴자가 말하였다. “그렇소이다.”

291) 양승민은 ‘초시대적’ 권계와 풍자성은 우언의 중요한 효용적 기능임을 인정하지만, 창작과 소통의 실상을 고려할 때 작자가 처한 당대 현실의 ‘삶의 정황’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다고 하면서 성현의 『부휴자담론』, 「우언」을 그 대표적인 경우로 들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승민은 성현이 ‘초시대적 보편성-권계와 풍자’를 지니기 보다는 당시 지배이데올로기의 규범을 지향한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본고의 논지와는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양승민, 앞의 책, pp.146-148.)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재능은 하늘로부터 품부 받은 것이어서 등급과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 낸다고 비슷해질 수는 없습니다. 비단 글을 배우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활과 화살을 들면 반드시 정곡을 찌르고, 뛰어난 목수가 칼을 잡으면 마치 신들린 것과 같이 하여도, 밖으로 사람들에게 나무를 다듬거나 활을 쏘는 법을 가르치려 들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교를 다 터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조그만 기예일지라도 전심전력하여 뛰어난 자와 매일 함께 지내며 배우게 해도 일정한 한계에 이르면 반드시 멈추어버려 그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습니다.”

부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처럼 말하는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배움에 단계를 둔 것은 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하는 것을 유지하여 더 잘하게 하며,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도하여 그에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쉽 없이 노력한 후라면 高明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재질에 품계와 한계가 있어서 배워서도 능히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포기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그렇다면 누가 재능과 학문에 마음을 두겠소? 그대는 冶金하는 것을 보지 못했소? 쇠가 불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백 번 연마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품질이 더욱 강해지고 마침내 좋은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쇠도 그러하거늘 사람의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성취하지 못할 리가 있겠소이까? 그대의 말은 지나친 것 같소이다.”²⁹²⁾

(가) 인용문은 재주가 배워서 잘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생과 부휴자의 대화이다. 재주는 배워서 될 수 있다고 하며 비록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특별히 성현만의 차이점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조금 다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292)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2-18 : 丁生問於浮休子曰, “人才可學而能乎.” 曰, “可.” 曰, “不然. 人之才品稟, 受於天, 皆有區限, 不可擬而倫之也. 非獨學文也. 善射者, 持弓矢必正, 梓匠操刀如神, 外示人以規模指法, 而不能使學者得其巧. 至如博奕, 小數也, 雖專心致志, 日與能者而處之, 至其區限必止, 而不能過也.” 曰, “如子之言, 則是杜人之爲善, 而不能進也. 聖人之設科也, 使能者守而裁之, 不能者, 企而及之, 努力不懈, 然後, 可至高明之域. 如曰, ‘人之才質有品, 非學所能變’ 自棄而莫之爲, 則孰留心於才學也? 子不見冶金者乎? 金踊躍火中, 而經於百鍊, 則其質愈剛, 終成良器, 況勉勵人才? 豈有不成就者乎? 子之言過矣.”

(나) “사람의 재주와 그릇은 잘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법이다. 농사꾼은 밭일을 잘 하지만 나라의 농사일을 관리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장사꾼은 시장 일에 정통하지만 나라의 장사 일을 관장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으며, 匠人은 그릇을 만드는데 뛰어나지만 나라의 그릇 만드는 일을 총괄하는 관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은 각기 그 재주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바꾸어 쓸 수는 없다는 말이다.”²⁹³⁾

(다) “성을 열등하게 타고난 자는 비록 평생 능력 있는 사람의 곁에서 지켜보아도 비슷하게 본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하여 능력 있는 자는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아도 절로 하늘이 내린 공교로움이 생기니, 이 어찌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는가? 이 역시 다 天性에 달린 것이다. 성은 바꿀 수 없는데도 반드시 바꾸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하고 학의 긴 다리를 짧게 바꾸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로 보건대 본연의 성은 변할 수 있지만 기질의 성은 변하기 어렵고, 비록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변화가 늘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⁹⁴⁾

(라) “큰 성인인 사람이 있고, 큰 현자가 있으며, 그 다음 현자가 있고, 군자라 부를 만한 사람이 있으며, 중간 정도의 재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고, 매우 우둔하여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의 성은 같지 않은 법이다. 일 년을 설계하는 자도 있고, 한 달을 설계하는 자도 있으며, 하루를 설계하는 자도 있다. 또 하루를 설계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 이렇듯이 그 재능이 같지 않은 법이다.”²⁹⁵⁾

인용문(나)~(라)에서는 타고난 재주의 같지 않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가)인용문의 정생의 주장과 같다. 부휴자는 (가)인용문에서 재주는 노력하면 크게 성취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지만, 더 많은 이야기에서 재주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며, 이는 바꿀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가)

293)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1-10 : 人之才器, 有能有不能, 農精於田, 而不可爲田師, 賈精於市, 而不可爲賈師, 工精於器, 而不可爲器師. 此言各抱其才, 而不可相用也.

294)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2-7 : 性之拙者, 雖終歲旁觀於能者之側, 不能效其彷彿. 至於能者, 則不賴教, 而自然有天巧, 此豈學而能乎? 亦其天性也. 性不可變, 而必欲變之. 不幾於梟脛之短, 而欲使之長, 鶴脛之長, 而欲使之短乎? 由此觀之, 則本然之性可變, 而氣質之性難變, 雖或有可變之人, 而其變不恒也.

295)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2-9 : 有大聖者, 有大賢者, 有次賢者, 有君子者, 有中材者, 有庸人者, 有下愚不移者, 而人性不同焉, 有歲計者, 有月計者, 有日計者, 有不能日計者, 而其材不同焉.

에서 하고 있는 부휴자의 이야기는 재주 없는(능력 없는) 사람들을 향한 위안의 대답일 뿐, 부휴자의 진짜 생각은 (나)~(라)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나)에서는 관리와 일반 백성의 구별, (다)에서는 능력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 (라)에서는 聖人과 어리석은 자의 구별을 보여줌으로써 임금의 어떠한 인물을 등용하여야 하는 가를 밝히고 있다. 결국은 배우거나 익혀서 얻은 재주가 아닌 타고난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성현 스스로 능력과 재주를 태어날 때부터 갖추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 보인 기록이 여러 저술에 보이는 것²⁹⁶), 『부휴자전』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강한 자신감, 긍정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사교적이지도 않고 정치나 권력, 부의 축적에도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성현 자신은 타고난 재주와 능력을 지닌 인물이며, 자기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고 있다. 자신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그러한 출신이나 능력은 후천적으로 노력이나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은 결국 자신과 같은 인물을 더 돋보이게 하며, 임금이 이러한 자신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다음은 자기 긍정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자신을 임금에게 피력하는 이야기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마) 東郭先生은 청렴한 것으로 조정에 명성이 났다. 이 때문에 임금이 中牟郡을 다스리는 일을 맡게 하였다. 선생이 고을에 있는 3년 동안 사사로운 손님을 받지 않아 조그마한 뇌물도 횡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 집 사람조차 술지게미를 먹어야 하는데도 마을의 관리들은 육류를 먹는 일을 지켜워하였고, 하인들이 문지방을 넘어서지도 않는데 부역과 세금 때문에 온

296) 홍순석은 성현의 가문의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용재총화』 2-7, (“當今門閥之盛, 廣州李氏爲最, 其次莫如我成氏.”), 『용재총화』 巨族姓氏 명단, 외가의 성세를 정리한 기록, 『昌寧成氏族譜序』, 『題江原道監司先生案後』,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을 들었다. (「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p.13-14.)

동네가 소란스러웠다. 창고는 나날이 비어가고 관아는 나날이 피폐해져갔다. 손님이 이르러도 음식 이바지가 시원치 않아 손님들은 모두 불만을 토로하며 가버렸다. 이에 어떤 사람이 부휴자에게 물었다. “동곽선생의 청렴함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는데도 고을을 다스리는 것이 나날이 형편없어지니 무엇 때문입니까?” 부휴자가 말하였다. “이는 청렴함이 아닐세, 오히려 졸렬한 것이라네. 이른바 청렴이라 하는 것은 공경으로 마음을 잡고, 예의로 몸을 닦으며, 간소한 것으로 번거로운 것을 통제하고, 간략한 것으로 번다한 것을 북종시키며,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익을 입게 하지만 스스로는 관여하지 않고, 남들로 하여금 그 은택을 입게 하지만 자신의 것을 소비하지 않아야 할 따름인 것일세. 지금 동곽은 안으로 제 집안을 해치고 밖으로 다른 사람까지 해치고 있으니 이는 청렴한 것이 아니라 졸렬한 것이라네. 어찌 졸렬한 자와 함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²⁹⁷⁾

(바) “명분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나아가려 하고, 이익을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무리를 지으려 한다. 나아가기에 힘쓰면 바탕을 잃어 성실하지 못하게 되고, 무리 짓기에 힘쓰면 관직에 임하여 청렴하지 못하게 된다. (중략) 명분을 다투는 자는 그저 명분만 좋아하지 그 실질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익을 다투는 자는 그저 그 이익만을 좋아하지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는 생각지 않는다. (중략) 이 때문에 명분이라는 것은 실질의 찌꺼기일 뿐이요, 이익이라는 것은 의로움을 갹아먹는 해충일 뿐이다.”²⁹⁸⁾

인용문 (마)는 청렴하지만 경영 능력은 없는 동곽선생을 졸렬한 자라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곧 개인적인 도덕적 성품인 청렴이 곧 국가를 경영하는 자질이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당시 성현은 ‘개인적 도덕수양이 곧 국가 경영의 근본이 된다’는 사림파의 도전에 직면한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성현은 현실을 외면한 채 청렴이나 修身, 節概 등 개인적인 도덕

297) 成倪, 『浮休子談論』, 「寓言」 4-18 : 東郭先生, 以廉介聞朝廷, 使任中牟郡. 先生在郡三年, 門不受私謁, 而苞苴不行, 然室人食糠粃, 而里胥厭芻豢, 嬖僕不踰闕, 而差科擾閭巷, 困庾日虛, 館宇日弊, 客至餽供不饒, 皆快恨而去. 人有問於浮休子曰, “東郭之賢無比, 而郡政日卑, 何歟?” 曰, “此非廉也, 乃拙也. 所謂廉者, 敬以持心, 禮以飾躬, 簡以御煩, 約以服衆, 使人蒙其利, 而已不與焉, 飲其澤而已不費焉耳. 今東郭內害家而外害人, 此非廉也, 乃拙也. 拙者其可與之共理民乎?”

298) 成倪, 『浮休子談論』, 「雅言」 1-15 : 喜於名者, 必務進, 悅於利者, 必務聚. 務進, 則委質非誠也, 務聚, 則蒞官非廉也. (중략) 爭名者, 徒喜其名, 而不顧其實, 爭利者, 徒悅其利, 而不思其義. (중략) 故曰, ‘名者實之土苴也, 利者義之蠹賊也.’

적 성품에만 힘써 조정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림과 문인들을 동광선생 빗대어 이야기하며 자신의 입장(훈구파)을 ‘왕조 사업은 바로 경영능력이며, 이는 개별적 도덕심과는 별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²⁹⁹⁾ 그렇다고 해서 인용문 (마)에 나타난 주장만 보고 성현이 훈구파의 입장에 서서 사림파만 비판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성현은 사림파 뿐만 아니라 명분과 이익만 좇는 훈구파도 비판하고 있음을 인용문 (마)에서 살필 수 있다.

인용문 (마)는 명분은 실질의 찌꺼기일 뿐이고, 이익은 의로움을 갹아먹는 해충이라고 말하며 명분과 이익을 좇는 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성현 말년에 무오사화(1498)가 일어났던 점과 연관시켜 보면 명분을 앞세워 서로를 잡아 죽이고 베어내는 자들과, 이익을 좇아 의로운 일을 생각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명분보다는 실질을 추구하며, 이익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인물은 결국 「부휴자전」에서 밝혔던 부휴자 자신임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다.

결국 성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옳음도 그림도 없는’, 세상의 훈구파나 사림파 어느 한 쪽도 아닌 자신, 곧 스스로 서 있는 부휴자인 것이다. 이전의 훈구관각 문인들은 ‘정치적 이상경의 현재화와 향유’라는 입장에서 君臣相遇는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그것을 이루었음을 찬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³⁰⁰⁾ 반해 성현은 君臣相遇가 당대에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화나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강조하며 임금의 올바른 정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성현이 조선왕조의 유교적 질서를 옹호하고 유지하는 당대 훈구관각 문인의 적통을 이었다는 선행연구는 일부 수

299) 권석환은 부휴자가 ‘동광선생’이야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자기 계층의 정치적 입장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애자’ ‘육리자’와 동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애자, 육리자, 부휴자는 모두 각각의 시대 환경을 살았던 ‘지식인’의 전형이고, 중세지식인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우환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p.388.)

300)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정될 필요가 있다. 성현은 현실적으로 관각파의 뒤를 잇고 있으면서 사림파의 반대 입장에 서 있지만, 그것이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나뉘지는 입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수성기의 관각 문인들처럼 왕권을 찬양하며 보수 세력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았고, 사림파의 수신과 경술만을 따르지도 않았으며, 방외인처럼 혁신적이고 위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거침없이 펼치지도 못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임무(간언)를 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성현이 「부휴자전」과 『부휴자담론』의 부휴자라는 인물을 내세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직접 자신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부휴자라는 인물과, 우언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 現實과 理想의 調律 : 「寓言」

‘寓言’이라는 용어는 『莊子』 「寓言」편에서 유래 하였다. 장자의 ‘우언’은 오늘날의 문학양식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장자』 全篇의 기본적 담화 방식을 총칭하는 三言(寓言, 重言, 卮言) 가운데 하나를 일컫는 용어로, “열 중 아홉을 차지하는 우언은 다른 것을 빌려서 논하는 것이다(寓言十九, 藉外論之).”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아버지가 제 자식의 중매인이 되지 않음은 아버지가 자식을 칭찬하는 일이 아버지 아닌 남이 칭찬함만 못하기 때문이다. (우언을 쓰는 것은) 내 죄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이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같으면 따르고 다르면 반대하며, 자기 생각과 같으면 옳다 하고, 다르면 잘못이라 한다.³⁰¹⁾

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우언은 담화 방식의 하나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가탁하여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³⁰²⁾ 성현은 「부휴자전」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평소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벼슬에 있으면서 바른 말을 많이 하였던 인물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부휴자담론』은 우언의 양식을 빌림으로써 현실문제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에 의한 화를 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언」은 ‘寓意를 지닌 말’이다. 부휴자[성현]가 직접 말하기 보다는 서사적인 상황이나 이야기를 꾸밈으로써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부휴자’가 직접 등장하기보다 허구적으로 설정된 인물들의 등장이 「아언」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부휴자는 「우언」의 이야기 37개 중 6개에만 등장한다. 이때에도 이야기 후반부에 나타나 허구 인물들의 질문에 답하는 정

301) 안동립 역주, 『莊子』, 현암사, 1973, p.678 : 親父不爲其子媒. 親父譽之, 不若非其父者也. 非吾罪也, 人之罪也. 與己同則應, 不與己同則反. 同於己爲是之, 異於己爲非之.

302) 양승민, 『우언의 서사문법과 담론양상』, 학고방, 2008, p.37.

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언’의 허구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으면서 허구 인물들만 등장하는 이야기에 비해 ‘부휴자’가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주로 임금의 실정에 비판하는 내용으로 조금 더 강한 비판적 성격을 갖는다.

「아언」에서 살펴보았듯, 성현은 군주의 위치를 하늘과 같다고 하였지만 동시에 백성의 뜻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휴자담론이 저술된 성현 만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³⁰³⁾

성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갑작스럽게 즉위하여 수렴청정과 원상제로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되었고, 이후 성종이 親政하게 되면서 부터는 왕권 강화 정책을 통해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왕권이 강화되었음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성종이 사용한 정책은 대간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종 후반, 대신을 지목한 三司(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탄핵이 점차 격렬해지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성종 또한 이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불만과 갈등은 그 뒤 연산군대의 연속적인 사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연산군은 즉위 이후 愼承善, 盧思愼 등 대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선왕의 명복을 비는 불교식 행사인 水陸齋 시행과 외척의 등용을 두고 삼사의 유생들과 갈등을 빚었고 즉위 1년 후 생모인 윤씨가 사망하게 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후 방치된 윤씨 능묘 遷葬을 두고 三司와 대립하였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연산군과 삼사 사이에 더욱 갈등과 대립 속으로 치달았다.³⁰⁴⁾ 그리고 연산군 4년(1498년)에 일어난 戊午史禍(1498)로 삼사의 역할이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성종조의 정치상황 속에서 성현의 임무는 임금과 대신들을 탄

303) 홍순석은 부휴자담론이 ‘성현의 만년에 저술된 것으로 담론 형식을 빌어 자신의 정치관을 주로 기술’한 것이라고 하였다.(『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p.68)

304) 김범, 『연산군』, 글항아리, 2010 참조.

핵하고 간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종 후반 성종의 삼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연산군대에 이르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짐을 인식하면서 우언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언」에는 정치관, 인재등용, 권계, 선비의 자질에 관한 내용이 골고루 들어 있지만³⁰⁵⁾ 인재 등용에 관한 부분이 특히 많이 보이고 있다.

衛나라 영공이 신분이 낮은 타(鮪)라는 사람을 총애하여 그를 귀하게 해주려고 왕명을 출납하는 관직을 맡게 하였다. 좌우에서 모두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했지만 영공은 듣지 않았다. 마침내 조정의 대신 중에서 갓끈을 풀고 사직을 청하면서까지 극력 간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에도 영공의 뜻은 더욱 확고하여 바뀌지 않았다. 이에 籙伯玉이 진언하였다.

“타에게 무슨 술책이 있어서 나라에 보탬이 됩니까?”

영공이 말하였다.

“다른 것이 아닐세. 그 위인이 아름다운데다 말이 빙글빙글 춤추며 돌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이 귀신처럼 능숙하고, 또 활을 쏘면 꼭 명중을 시킨다네. 내가 이 때문에 그를 총애하는 것일세.”

“그렇다면 임금님의 눈이 심하게 가려진 것입니다. 신이 바른 말을 하리니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일을 맡아보면서 문으로 정치를 꾸미고 무로 어지러움을 바로잡은 것이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해주지 않으셔서 영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임금님께서 해주시더라도 신의 재주를 다 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무릇 관직이라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릇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으며 사람들이 그 그릇을 받음에도 무겁고 가벼운 것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늘의 법이지 사사로운 뜻으로 어지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작은 기예로

305) 우언편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6> 『浮休子談論』 「寓言」內 內容 分類

내용	우언(권-화)	개수
정치관	3-6, 3-10, 3-13, 3-15, 4-2, 4-3, 4-5, 4-8, 4-15, 4-18, 4-20	11개
인재등용	3-2, 3-4, 3-5, 3-7, 3-9, 3-11, 3-12, 3-14, 4-11, 4-13, 4-14, 4-19	12개
권계	3-1, 4-1, 4-9, 4-10, 4-12, 4-16	6개
선비의 자질	3-3, 3-8, 3-16, 3-17, 4-4, 4-6, 4-7, 4-17	8개

계급을 뛰어넘어 벼슬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이에 군자 중에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들이 마음으로 분하게 여겨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타에 비견할 소인배들은 모두 바라서는 안되는 꿈을 품고서 제 본분을 편안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갓을 밭에다 신고 신발을 머리에 쓰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나랏일이 날로 엉망이 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서는 재물과 곡식이 넉넉하여 내탕고가 넘쳐날 정도입니다. 이를 줄만큼만 주면 됩니다. 어찌하여 여러 사람의 분노를 무릅쓰고 꼭 그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하십니까? 그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를 귀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영공이 이에 타를 파직시키니,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게 여겼다.³⁰⁶⁾

성현은 총애하는 사람을 높은 관직에 앉히는 것을 간언하고 있다. 물론 그는 위나라 대부 거백옥의 입을 빌렸다. 거백옥은 위나라 영공 때 대부를 지낸 인물로 논어 위령공편에서 공자가 그의 덕을 칭송할 만큼³⁰⁷⁾ 행실이 바르고, 겉은 관대하지만 속은 강직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거백옥은 장자에도 등장하는데, 顔闔에게 사람을 가르치는 이치에 대해 설명하기를, “그가 하는 대로 따르면서 그를 결점이 없는 경지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호랑이를 사육하듯 성질에 따라 잘 길들여 옳은 길로 인도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³⁰⁸⁾ 이는 최고 권력자인 임금을 모시며 간언하는 간관으로서의 자세이기도 하다. 거백옥은 임금의 사사로운 뜻으로 관직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임금이 총애하는 사람을 높은 관직에 앉히는 것은 명망 있는 자들 뿐 아니라 소인배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306) 成倪, 『浮休子談論』, 「寓言」 3-12 : 衛靈公愛嬖人鮒, 而欲貴之, 授以喉舌之職. 左右皆言其不當, 而公不聽. 朝臣宰執, 至有解組而極諫者. 公意愈確, 而不回. 蘧伯玉進曰, “敢問鮒有何術, 能補於國乎?” 公曰, “無他. 其爲人美容貌, 其旋馬揮策如神, 而射不失鵠, 故吾愛之耳.” 曰, “然則公之所弊甚矣. 臣請正言而無誅, 可乎? 今臣百工執事, 有文以飾治, 武以勸亂者, 何限? 或未爲公之所知, 而不能達. 或爲公之所知, 而不能盡其材. 夫官者器也. 器有大小, 而人之所授有輕重, 是皆天經, 而不可以私意而亂之也. 今以小枝而超遷之, 君子有才望者, 皆心慚而不盡力, 小人如鮒比者, 皆懷非望, 而不安其分, 冠履倒置, 而國事將日非矣. 公之財穀有餘, 而帑庫盈溢, 惟其所與而與之. 豈可冒衆怒, 而必欲官之乎? 可富之, 而不可貴之也.” 公於是, 罷鮒之職, 人皆安之.

307) 『論語』 「衛靈公篇」에 “군자로다. 거백옥이여.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숨길 수 있다. (君子哉 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라고 하였다.

308) 『莊子』 「人間世篇」

미치는 것이며 나라가 엉망이 되는 길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영공이 거백옥의 말을 들어 모두 편안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와 같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口味에만 맞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임금을 비판하는 이야기는 우언 4권 11화에도 보인다. ‘예쁘든 못났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자가 예뻐 보이는 법이며, 착하든 악하든 내 뜻에 맞는 자가 선해 보이는 법’이라고 하며 선악과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임금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종실록에도 보이고 있다. 성종이 23년 8월 무신인 朴元宗을 동부승지로 발탁시켰다. 그러자 의정부와 대간이 모두 나이도 어린 무과 출신에게 높은 관직을 줄 수 없다고 간언하여 성종이 다시 공조참의로 발령하였다. 이에 대해 사헌부가 다시 반대하여 병조참지로 임명하였다. 의정부와 대간이 여러 번 극력 간언하고, 박원종 또한 그 논박을 알고 사직을 청하였으나 성종은 끝내 그를 높은 관직에 앉혔다. 당시 성종은 삼사가 국왕의 핵심적인 권력인 인사권을 제약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며 “인사권이 대간에 귀속돼 임금이 손발을 놀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였고 결국 간언을 거부하겠다고까지 하였다.

“내가 박원종 한 사람 때문에 論駁을 많이 당했다. 上疏 안에 나를 허물한 말이 많은데, 사람의 심정이 허물 있는 곳에 처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나의 처음 생각에는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은 반드시 써본 후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卿 등은 내가 朴元宗과 因緣이 있다는 이유로 私情을 둔다고 하나, (위와 같은 까닭에) 나는 아직 나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박원종의 직위를 바꾸는 것이야 진실로 어려울 것이 없으나, 다만 지금 이미 除授하고서 곧바로 바꾸게 되면 그 폐단은 임금이 손발을 놀릴 수가 없게 되는 데 이를 것이니, 이것이 내가 들어주지 않는 이유이다. 내가 木石이 아닌데 어찌 생각이 없이 그렇게 하였겠는가? 그래서 단연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중략) “지금 내가 경 등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참으로 諫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는 간언을 거부하는 것으로 달갑게 自處한다. 그러나 다만 나의 처음 생각은, 경 등이 박원종을 가리켜 小人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조금도

일을 경험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였으므로,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다. 경 등은 桀·紂와 桓帝·靈帝에다 나를 비유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것은 후세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自然 公論이 있을 것이다. 경 등이 말하기를, ‘한 몸의 進退를 어떻게 감히 自由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만약 말한대로라면 경 등이 어떻게 辭職을 하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³⁰⁹⁾

총애하는 사람을 사리에 맞지 않게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일은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역사에나 존재했지만, 임금이 총애하는 사람이 무인이었던 점, 간언 하는 사람이 사직을 청하면서까지 극간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뜻이 더욱 확고해졌던 점등을 볼 때, 박원종 사건과 이 글은 많은 공통점이 보인다. 부휴자담론이 지어진 시기가 이 사건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지어진 것이라면 이 이야기는 분명한 寓意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색을 警戒하는 이야기도 보인다.

동구선생은 성품이 방탕하고 주색을 매우 좋아하였다. 첩을 여러 명이나 두고서도 적다고 여겨 곁에서 두루 더 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손님이 오면 꼭 술자리를 마련하여 곤드레 만드레 취할 때까지 마셨다.

하루는 손님과 함께 사람에게 대하여 논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이웃에 매우 바보 같은 자가 있는데 그대는 아시는가요?”

손님이 말하였다.

“누구입니까?”

선생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한 번은 빨감이 없는 것을 걱정하더니 문설주와 서까래를 빼서 불을 때었습니다. 처마가 없어지고 기와가 떨어졌지요. 비가 퍼부을 때

309) 『成宗實錄』, 成宗 23年 壬子(1492) (홍치5) 8월 18일, 두 번째 기사: “予爲一元宗, 多被言論, 疏內有許多過我之語, 人情孰有樂處於有過之地乎? 予之初意, 人之賢不肖, 必用之而後可知也. 卿等以元宗有因緣之故而謂之私也, 予未得暴白吾心也. 改元宗之職, 固爲不難, 但今已授而輒改之, 其弊至於人主無所措手足, 此予所以不聽也. 予非木石, 亦豈無計料而爲之耶? 故斷然不聽也.” (중략) “今予不聽卿等之言, 眞可謂拒諫矣. 但予之初心, 以卿等不以元宗爲小人, 而惟以少不更事爲辭, 故不聽耳. 卿等桀, 紂, 桓, 靈比予, 然予不介意也. 後世之是非, 自有公論, 卿等云一身進退, 安敢自由? 若如所言, 卿等安得辭職而舍去乎?”

면 늘 우산을 들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 후 집이 다 부서져 살 곳이 없어졌답니다.”

손님이 말하였다.

“제 이웃에 두 사람이 있는데 더 바보랍니다. 한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여 길을 가다 예쁜 여자만 보면 온갖 꾀를 내어 반드시 제 집으로 데려옵니다. 멋대로 음란하게 놀고 색욕을 탐닉하다가 혹 지켜워지면 또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만 여자를 찾았지요. 매일 이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불알에 병이 나서 죽었지요. 또 한 사람은 술을 좋아하여 아침저녁저자 거리를 돌아다니며 주막을 찾았습니다. 옷을 잡히고 술을 사 마셔 고주망태가 되었지요. 그래도 혹 술이 떨어지면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다녔답니다. 매일 이 같이 하다가 얼마 후 폐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문설주와 서까래를 빼서 불을 땀 사람은 집은 부서졌지만 몸은 그대로 온전하였지요. 그러나 주색을 밝힌 사람은 골수에 병이 들어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어찌 그대가 말한 사람보다 작겠소?”

선생이 말하였다.

“그대의 말이 진실로 내 병을 치료할 침이 되는군요. 앞으로는 마음을 씻고 잘못을 고치겠습니다.”³¹⁰⁾

위 이야기는 재미로 이웃에 사는 바보 이야기를 하면서 주색을 좋아하여 죽은 인물들을 이야기하였다. 주색을 경계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는 일이지만, 당시 성종의 태평성대 이면의 퇴폐풍조를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종은 세 왕비와 10명의 후궁을 두었고, 후기에 들어서면서 유흥에 빠져들 만큼 여색을 좋아하였다. 성종이 궁궐을 빠져나가 규방을 출입하기도 하여 이 때문에 왕비 윤씨가 그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내는 사건이 발생하고 결국 폐비사건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또 어우동 야사에는 성종이 어우동과 함께 유흥을 즐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이 확

310) 成俔, 『浮休子談論』, 「寓言」 4-10 : 東丘先生, 性放蕩, 酷探酒色, 畜妾數人, 猶慮尠少, 旁求不已. 客來必置酒, 至于沈醺. 一日與客論人乃曰, “吾隣有至愚者, 君知之乎?” 客曰, “何也?” 先生曰, “其人嘗患無薪, 斫取楸桷而爨之, 簷虛瓦墜, 雨射如注, 常持傘而坐. 未幾室皆頽仆, 無所寓也.” 客曰, “吾隣有二人, 其愚尤甚. 其一人好色, 路見美色, 必百計邀之於家. 縱淫肆慾, 如或厭焉, 則又顧而求他. 日日如是, 未幾病腎而死. 其一人好酒, 朝暮巡遊城市, 往尋酒壚, 典衣沽酒, 劇飲泥醉, 若酒盡, 則又顧而之他. 日日如是, 未幾病肺而死. 爨楸桷者, 室雖仆而身猶保. 嗜酒色者, 病入膏肓而卒就死. 其愚豈不甚於彼乎?” 先生曰, “子之言實針吾病. 請洗心而改轍.”

산되어 사회전반에 유흥을 즐기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성현은 동구선생과 객의 대화를 통하여 이러한 왕의 처신과 사회 풍조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간한 것이다.

그리고 『우언』에는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욕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보인다. 樗散生이 “죄는 욕심을 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재앙은 만족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허물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우언 3권 1화)이나,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鄭나라 大夫를 비웃으며 “그대는 벌열세족으로 벼슬이 높고 녹봉이 많으며 집안의 재물이 풍성한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득을 끝까지 차지하려 하는가?”라는 말하는 동료의 말(우언 4권 9화) 등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욕심을 경계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밝힌 부휴자의 성품과도 연결된다.³¹¹⁾ 부휴자는 영리를 따지지 않고, 손실과 이익을 따지는 생각을 완전히 잊었다.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 가치관과 대치하여 살아가는 삶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세속적 특징인 탐욕과는 반대되는 성품이다. 성현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계층으로서 권력과 이익에 관한 욕심을 버려야 함을 누차 강조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돌아보았다. 그리고 성현은 정치관, 인재등용, 권계 외에 자신이 생각하는 선비의 자질을 우언을 통해 드러내었다. 선비의 자질에 관한 이야기는 우언 37개의 이야기 중 8개이다. 그 중 음악(3권 3화), 독서(3권 8화), 修身의 필요성(4권 6화) 등은, 부휴자전에서 부휴자가 향유하는 즐거움으로 이야기하였던 것들과 동일하다. 그중 부휴자전의 독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자.

311)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居士惘福無華, 純謹質直, 不通關節於人, 不立權勢之途, 不預罇酒迎送之會, 不營家人生產作業, 得之則豐飧美服, 不以爲有餘, 羸衣惡食, 不以爲不足.

(거사는) 성질이 또 부지런하며 經史 보기를 좋아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 迂闊함을 기롱하니, 거사는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우활한가. 내가 세상일에는 우활하되 배움에는 우활하지 아니하고, 남 보기에는 우활하되 자신을 요리하는 데는 우활하지 않다. 경서를 읽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史書を 읽어서 사업에 베풀며, 이와 같이 지날 따름이다. 내가 참으로 우활한가.” 하였다.³¹²⁾

부휴자는 독서를 좋아하였는데, 혹자가 그 우활함에 대해 기롱하였다. 우활하다는 말은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혹은 ‘주의가 부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뜻에 비추어 본다면, ‘우활하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학문을 수단으로 삼아 세간에서의 명성과 이익을 얻으려고 독서하지 않음’으로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는 ‘독서 태도가 서적을 펼쳐 내키는 대로 읽고 깊숙이 파고들지 않음’³¹³⁾으로 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떠한 뜻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밝힌 부휴자의 성격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성현은 자전의 전통을 이으면서 부휴자를 이용하여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인 인물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성현이 언급한 부휴자의 모습은 거의 모든 것에 통달한 모습이다. 단순히 어느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라기보다 무엇이나 뛰어나며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폭넓은 독서를 하는 존재인 것이다. 성현은 자신이 그려낸 부휴자의 모습을 부휴자담론에도 똑같이 담아냈다. 다음은 『부휴자담론』 「우언」 편에 보이는 독서에 관한 이야기이다.

華陽子是 서적을 매우 좋아하였다. 어떤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종일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화양자가 말하였다.

312) 成倪, 『虛白堂文集』 卷13, 「浮休子傳」: 性又多勤, 樂觀經史, 或譏其迂. 居士曰, 我其迂哉, 我則迂於世, 而不迂於學, 迂於人所見, 而不迂於身所謀. 讀于經以治其心, 讀于史以資諸事業, 如斯而已矣. 我其迂哉.

313) 앞서 「부휴자전」이 「오류선생전」의 양식을 따랐다고 하였는데, 「오류선생전」에서도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성품에 관한 설명을 한 이후 바로 독서의 태도에 대해 밝히며, “깊숙한 데까지 파고들지는 않았다[好讀書, 不求甚解]”라고 하였다. (카와이 코오조오 지음·심경호 옮김, 앞의 책, pp.97-99.)

“농부는 쟁기와 보습을 손에서 놓지 않고, 어부는 그물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장인은 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상인은 시장을 한 눈에 두루 볼 수 있는 곳에서 떠나지 않는 법이니, 이것이 자연의 도리라네.”

제자가 말하였다.

“무릇 농부와 어부, 장인, 상인은 단지 하나의 일만을 하고 있기에 그 일을 잃어버리면 입을 채울 대책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 도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재주가 온전하고 덕이 완비되어 있어 못 흐름을 모아 크게 해 놓았으며, 관직이 높고 지위가 융성하니 서적은 오히려 고기 잡는데 쓰는 통발이나 제사 때 쓰는 짚으로 엮은 인형처럼 쓰고 나서 버리는 물건과 같습니다. 잊어도 좋을 것입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을 수 없다면 곧 말단에 얽매인 것이 아닌지요?”

“그렇지 않다. 서적은 나의 바탕이다. 나는 하루라도 이 바탕을 버리고 즐거울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책을 통하여 더욱 통달해지고 피 있는 자는 책을 통하여 더욱 심오해지며, 현명한 자는 책을 통하여 더욱 밝아지고, 이름이 있는 자는 책을 통하여 더욱 저명해진다. 임금께서는 이 때문에 나를 무능하다고 여기지 않고 나에게 정사의 권한을 주신 것이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직분을 봉행하고 예전의 도를 행하며 요즘의 마땅한 바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서적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가 말하였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연세는 마치 저녁 해가 서산에 이르러 어둑한 지경인데도 고생고생하면서 수고로운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지 않았는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된다’라고 하였고, ‘나에게 몇 년을 더하여 주어 마침내 『주역』을 배울 수 있다면 큰 잘못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적 속에 절로 즐거운 곳이 있도다.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고 살다 죽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라네.”³¹⁴⁾

『부휴자담론』에서도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직분을 봉행하고

314) 成倪, 『浮休子談論』, 「寓言」, 3-8: 華陽子耽嗜書典. 有弟子問曰, “夫子之終日不釋, 何也?” 子曰, “農夫不捨耒耜, 漁者不捨網罟, 梓匠不捨刀鋸, 賈人不離籠斷, 自然之道也.” 弟子曰, “夫農漁工賈, 只有一業. 失其業, 則無以資口, 故不釋其器. 夫子才全德備, 集衆流而爲大, 官高而位隆, 則書典猶筌蹄也. 可以忘之也. 可忘而不能忘, 無乃局於枝乎?” 曰, “不然. 書典是吾器也. 吾不可一日捨是器以嬉也. 智者因書而益達, 謀者因書而益深, 賢者因書而益明, 名者因書而益著. 國君不以我爲無能, 授我以政柄矣. 我欲殫力而奉職, 行古之道, 施今之宜. 非是書無以爲也.” 弟子曰, “非此之謂也. 景迫濛汜, 而猶乾乾不知苦也.” 曰, “孔子不云乎? ‘朝聞道, 夕死可矣.’ ‘加我數年, 卒以學易, 可以無大過矣.’ 書中自有樂地, 樂以忘憂以至於死, 此吾志也.”

도를 행하기 위해' 책을 읽으며, 하루라도 책을 버리고 즐거울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에 비해 우의가 약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가상의 다른 인물의 질문에 변론하며 자신의 의견을 허구적인 구성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펼치고 있고, 교훈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언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현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아언은 성현이 부휴자를 내세워 시대적 배경 없이 정치적 입장과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언에서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야기도 부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고자, 녹피옹, 동구선생, 후선생, 정대부 등 있을 법한 인물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언보다 서사적 이야기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성현이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이유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성현 자신의 시대와 동일시 하였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것이다. 당대의 현실 이야기가 아닌, 과거의 어느 한때 역사적 시기에 있음직한 이야기를 만들어 성현의 생각을 전하고 있다.

莎丘의 한 어른이 늘 正道를 지켜 잠시라도 집안을 다르게 하지 않을 때가 없었다. 나뭇가지가 빠져나온 것이 있으면 반드시 베어서 바르게 했다. 거미줄이 처마에 걸려 있는 것을 보면 대나무 장대로 쳐서 반드시 죽이고야 말았다. 한 손님이 그 까닭을 묻자, 그 어른이 말했다.

“나뭇가지를 베는 것은 나무가 굵은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며, 거미를 죽이는 것은 거미가 교묘한 짓을 하여 사물을 해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물었다. “세상에 굵은 것이 나뭇가지만은 아니요, 교묘한 짓을 하는 것은 거미만이 아닙니다. 뱀은 천성이 굵어 있는데, 그대가 이를 곧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낙타의 등이 불룩 솟아오른 것을 그대가 곧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굽이굽이 흐르는 물과 불뚝 솟아오른 산을 그대가 반듯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교묘한 짓을 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닙니다. 그물을 만들어 짐승과 물고기를 잡고, 두레박을 만들어 논밭에 물을 대며,

베를 만들어 옷감을 짜기도 합니다. 이보다 교묘함이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가 이들을 다 없앨 수 있으십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총애를 받는 소인배로서 간사한 마음을 품고 기이한 재주와 음란한 기교를 동원하여 임금의 마음을 방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대는 이들을 다 없앨 수 있으십니까? 그대가 하는 행위는 시원찮은 장인을 보고서 천하의 기술자를 다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한 노둔한 말을 본 뒤에 천하의 말을 다 없애고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른이 말했다.

“어허,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저 거미나 나뭇가지를 보았을 뿐이지 그 밖의 것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르게 하겠다는 마음을 잠시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대 말 때문에 어찌 내 뜻을 갑자기 바꾸겠습니까?”³¹⁵⁾

사구의 어른과 객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구부러지고 교묘한 짓을 하는 사물을 싫어하여 이를 없애고자 하는 어른과 세상에 구부러지고 교묘한 것이 많은데 어찌 다 없애려고 하느냐는 객의 대화이다. 어른은 객의 말을 듣고도 자신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말로 마무리 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자못 굴원의 어부사를 떠올리게 하는데, 세상이 모두 탁해 홀로 바르고자 하는 굴원에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 것을 권하는 어부, 그리고 그 어부의 말에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이는 굴원의 모습이 어른과 객의 모습과 유사하다.

구부러지고 교묘한 것이 가득한 세상과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어른, 교묘한 것을 모두 없애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며 이상적인 세상과 속세와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손님의 모습을 통해 성현이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고민

315) 成倪, 『浮休子談論』, 「寓言」3-17: 莎丘丈人, 常守正道, 造次必於正家. 有樹枝揚起者, 必剔而直之. 見蛛蝥懸網於簷角者, 以竹杆撲之, 必盡殺乃已. 客問其故, 丈人曰, “剔樹, 惡其曲也. 殺蛛, 惡其作機巧, 以害物也.” 客曰, “世間曲者, 非獨樹也. 作機巧者, 非獨蛛也. 蛇性屈曲, 子能直之乎? 駝背窮曲, 子能直之乎? 水之洄曲, 山之繚曲者, 子能盡直之乎? 世人作機巧者, 非一. 作網罟, 捕禽獸魚鼈. 作桔槔, 引水灌畝, 作機杼, 織布授衣, 機巧莫大於此, 子能盡去之乎? 不特此也, 細臣嬖寵, 心懷姦譎, 作奇技淫巧, 以侈君上之心者, 子亦能盡去之乎? 子之所爲, 不幾於見拙工, 而欲廢天下之工, 見駑馬, 而欲廢天下之馬?” 丈人曰, “惡, 是何言也? 吾所以然者, 見蛛樹, 未見其他也. 隨吾所見, 而欲正之心, 未嘗須臾舍也. 豈以子之言, 而遽變吾志乎?”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현실세계를 비판하며 이상세계를 추구하는 욕망과 그 중간적 해결을 모색하는 통로를 제시하면서 성현 스스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일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여운을 남기고 있다.

緩이라는 선비는 유학을 공부하여 六經과 子史의 서적을 모두 탐독했다. 문장을 지으면 清新하면서도 贍富하여 세상에서 짝할 이가 없었다. 그렇지만 조정에 들어선 지 30년이 되도록 벼슬은 대부에 지나지 않았고 직위가 執戟을 면하지 못했다. 이에 그의 친구 부휴자에게 말했다.

“남들은 모두 살진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을 입는데, 나는 짧은 베옷조차 온전하지 못합니다. 남들은 華鼎에 늘어서고 패옥을 울리면서 말을 달리는데 나는 콩죽마저 충분하지 못합니다. 남들은 임금의 맑은 용안을 가까이 하지만, 나는 홀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모두 국정에 참여하지만, 나는 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나의 문장과 經術은 남에게 뒤지지 않지만, 공명과 녹봉은 남보다 뒤지니 어찌된 일입니까?”

부휴자가 말했다.

“무릇 경술은 정치의 芻狗요, 문장은 정치의 土苴입니다. 경술을 가지고 입신할 수 있다면 공자가 어찌 그렇게 근심했겠으며, 맹자도 길 위에서 늙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장을 가지고 뜻을 얻을 수 있다면 賈誼도 크게 탄식하지 않았을 것이고, 揚雄도 누각에서 몸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현의 立言과 사업이 당대에는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후세에 오히려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현도 남들과 같습니다. 그 용모와 언어가 남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은 그가 한 말과 사업을 보고서 성현이라 할 뿐입니다. 용모를 보아 성인임을 알고 말을 들어보고 현자임을 알 수 있다면, 세상은 언제나 평안하여 혼란에 빠지거나 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짊과 어리석음을 알 수 없어 벼슬이 높은 자를 어진 사람이라 여깁니다. 덕은 일정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재주가 없는 자를 덕이 있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재주와 기예가 많은 사람이 비록 지극한 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주와 기예에 가려지면 남들이 그를 덕이 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주가 높은 사람이 낮은 벼슬에 침체되어 남에게 부림을 당하는 일이 흔히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대는 경술과 문장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그대가 조장한 것이지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빌미를 없애지 못하면서도 功名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탄식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대의 공명과 녹봉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말과 사업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머리카락이 허영고 얼굴빛도 초췌하니 시골로 물러가 농사나 짓는 것이 낫겠습니다.”³¹⁶⁾

‘緩’이라는 선비와 ‘부휴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완’이라는 인물은 『莊子』 「列御寇」 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민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완은 유학을 공부하여 육경과 제자서, 역사서 등의 서적을 모두 탐독하고 문장 또한 뛰어나지만 조정에 들어선지 30년이 되도록 벼슬이 한직에 머물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다. 완의 모습은 성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문장과 경술이 남에게 뒤지지 않지만 홀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임금을 뵈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완에게 투영시킨 것이다. 성현이 『浮休子談論』을 지은 시기는 그의 말년으로 연산군에게 미움을 받아 정치적 대립을 하게 된 때로 자신의 충절과 간언을 알아주지 않는 처지를 부휴자로 우의하여 한탄한 것이다. 부휴자는 경술과 문장이 뛰어나지만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인물로 공자와 맹자, 가의와 양옹을 들면서 완을 위로하고 있다. 곧 성현도 그들과 같은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 혹은 자신의 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경술과 문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신은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기 때

316) 成倪, 『浮休子談論』, 「寓言」 3-4 : 士人緩也, 學儒之業, 六經子史, 無不探也. 其發爲詞章, 清新贍富, 一世無雙, 而立朝三十年, 官不過大夫, 職不免執戟. 謂其友人浮休子曰, “人皆乘肥馬衣輕裘也, 而我之短褐不完. 人皆列華鼎, 馳鳴珂也. 而我之藜藿不充. 人皆昵近清光, 而我獨不能近. 人皆與聞國政, 而我獨不能與. 我文章經術, 不後於人, 而功名利祿, 獨後於人, 何也?” 浮休子曰, “夫經術者, 治之芻狗也. 文章者, 政之士苴也. 使經術而可以立身, 則仲尼何爲乎遑遑, 而孟子不老於行矣. 使文章而可以得志, 則賈誼不至太息, 而子雲不投閣矣. 聖賢立言行事, 不能售於一世, 而猶可爲後世法. 聖賢與人同耳, 其容貌言語, 不異於人, 則人何由知之? 後世之人, 以其言與事, 而謂之聖賢, 若觀貌而知聖, 聽言而知賢, 則世常治, 而無亂亡之迹矣. 人無賢愚, 官高者爲賢, 德無常形, 無才者爲德. 多才與藝之人, 雖有至德, 而爲才藝所掩人, 不謂之德. 是故, 高才多沈於下寮, 而爲人所使也. 子之有經術文章, 是子之崇也, 非人之罪也. 不能去崇, 而嘆功名之不立, 不已過乎? 子不能以功名利祿, 伸於當時, 異況以其言與事, 而傳之後世乎? 子之鬢髮蒼浪, 而顏色鍾噲, 不如退而耕於野.”

문에 공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성현은 어질고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에 대하여 탄식하지 말고 오하
려 마음을 비워 시골로 물러나 농사나 짓는 것이 어떻겠냐는 부휴자의 조언
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는 완이나 부휴자 모두 성현의 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의 마음과 같이 조정에 나아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 부휴자의 조언처럼 어리석은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물러나 조용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 지금은 공명을 이루지 못하지만 후세에는 그 법을 전하
고 싶은 마음 등 여러 가지 속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나라 華陰 선생이라는 사람이 昭王을 섬기어 왕의 좌우에 거처하며 학
문으로 왕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니, 온 나라가 그에게 의지하였다. 얼마 후
왕이 새로 등용된 선비를 좋아하여 선생이 받던 총애가 시들어버렸다. 그
래서 선생은 벼슬을 버리려고 하였으나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새벽에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옥을 뜻하는 白珪라는 사람에게 갔다.
백규가 말하였다.

“선생이 총애를 잃게 된 것은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의 술책이 세상
에 팔리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秦 나라에 扁鵲이라는 자가 있어 의
술로 武王에게 벼슬을 하였는데, 백 가지 약을 조화시켜 王后의 질병을 고
쳤지요. 왕이 기뻐하여 비단 천 순(純)과 좋은 곡식 천 鍾, 흰 구슬 열 쌍,
황금 허리띠 하나를 내리고 상대부에 봉하였소. 그 부귀가 서방의 나라 중
에 으뜸이었지요. 楚나라에 養由基라는 자가 있어 사냥으로 文王에게 벼슬
을 하였답니다. 雲夢의 늪지에 왕을 따라가서 위로 蜚雁과 같은 새를 잡고
아래로 사슴과 같은 짐승을 쏘아 하루에 수십 마리를 얻었지요. 왕이 이를
기뻐하여 궁궐의 창고가 비도록 그에게 선물을 내리고 궁중의 주방에서 만
든 음식을 그 집에 계속 내렸답니다. 작위가 가장 높은 벼슬인 上卿에 이
르고 지위가 莫敖에 버금가게 되었지요. 그 부귀함이 동방의 나라 중에 으
뜸이었다오. 무릇 예술과 사냥술은 하찮은 기술이지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었고 천하에서 아무도 그들의 부귀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왕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왕이 학문을
좋아한다는 명성이 있지만 학문을 높일 실질은 없대요. 유자를 높이려는
명성은 있지만 유자를 쓰고자 하는 실질이 없대요. 지모 있는 사람이 제후

들에게 빙례를 맡아 하고, 용기와 힘있는 사람이 들판에 사냥을 다닙니다. 그대는 유자들이 쓰는 장보의 관을 쓰고 유자들이 입는 봉액의 의복을 입고 옛날 三墳五典의 서적을 읽으면서 옛 사람의 찌꺼기를 지키면서도, 이것으로 임금을 섬기니 지나치게 어리석지 않으신가요? 비록 왕이 못 사람들의 칭찬을 존중하여 그대의 직책을 없애지는 않지만, 그대의 지위가 하대부를 넘어서지 못하고 봉록은 수십석에 불과하지요. 지난 날 명칭히 말석에 있던 미천한 젊은이들이 모두 그대의 어깨를 치고 그대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그 위에 거처하고 있으니, 그대가 평안한 마음이 들리 있겠소?”

선생이 사례하고 물러나 마침내 들판에서 농사를 지었다.³¹⁷⁾

위 이야기는 춘추전국시대 위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위 소왕을 섬기던 화음선생이 왕의 총애가 시들해지자 백규에게 가서 물었다. 백규는 의술로 무왕의 총애를 받았던 편작과 활숨씨로 문왕에게 총애를 받은 양유기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며 왕의 마음에 들어야 벼슬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화음선생에 대해 옛날 중국의 三皇五帝의 글[三墳五典]을 읽으면서 옛 사람의 찌꺼기를 지키는 것으로 임금을 섬기려고 하니 이는 지나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다. 화음선생은 학문으로 왕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중국 고대의 전설적 聖王들의 시대를 염원하는 인물로 곧 성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찮은 기술이라도 왕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려주고, 학문을 좋아한다는 명성은 있지만 학문을 높인 실질이 없고, 유자를 높이려는 명성은 있지만 유자를 쓰고자 하는 실질이 없다는 왕은 곧 당시의 연산군을 가리키는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성현은 자신이 꿈꾸는

317) 成倪, 『浮休子談論』, 「寓言」 3-2 : 魏華陰先生, 事昭王, 居王左右, 能以文學補王之闕, 而國內賴之. 未幾, 王說新進之士, 而先生之寵遂衰. 將欲投紱, 而未定於心. 晨駕而往見白珪. 白珪曰, “先生之失寵, 非王之過也. 先生之術, 自不得售於世也. 秦有扁鵲者, 以醫術干武王, 能調和百藥, 已王后之疾, 而王喜之, 賜錦繡千純, 美粟千鍾, 白璧十雙, 黃金帶一腰, 封爲上大夫. 其富貴, 冠於西方之國. 楚有養由基者, 以射術干文王, 隨王于雲夢之藪, 能仰繳蜚鴻之翼, 俯麗走麋之龜, 日獲數十而, 王悅之, 傾帑藏以賜之. 內廚之饌, 相繼於其家. 爵爲上卿, 位亞莫敖, 其貴富冠於東方之國. 夫醫射伎之小者也, 能售其所欲, 而天下莫及焉. 此無他, 能中王之心也. 今王有好文之名, 而無右文之實, 有貴儒之名, 而無用儒之實. 所貴, 智謀之士, 行聘於諸侯, 勇武之士, 馳獵於郊囿. 子以章甫之冠, 縫掖之衣, 讀古之墳典, 而守古人之糟粕, 以事君, 不已迂乎? 縱王重衆人之譽, 而不廢子之職, 然子位不踰下大夫, 祿不過數十石. 向之年少闢茸眇然居末者, 皆拉子之肩, 搯子之項, 而處其上, 子以爲安乎?” 先生拜謝遂退耕于野.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의 괴리를 춘추전국시대의 인물들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은 물러나 농사나 짓겠다는 말로 마무리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현은 「우언」을 통해 현실의 불합리함을 위로하고 자신이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를 그려내었다. 한편으로는 수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憤懣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를 초월하여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성현은 간관으로서 「우언」을 이용하여 현실을 우의하고 비판하였으며, 가상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이상과 그렇지 못한 현실의 간극을 조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當代 現實의 鑑戒 : 「補言」

「補言」은 ‘보충해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다. 『左傳』, 『史記』, 『列女傳』 등의 史書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을 역사 인물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를 보충한 것이다. 그러므로 부휴자가 적극적으로 등장하여 의견을 드러낸 「아언」이나 부분적으로라도 등장하는 「우언」에 비해 「보언」에서는 부휴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휴자[성현]가 직접 드러나지 않음으로 해서 돌아올 위험이 적어졌기 때문인지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강도는 더욱 강하게 드러내었다. 이야기의 대부분이 역사적 인물의 간언을 듣지 않고 계속 실정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언」의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 과거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 자연스럽게 현실을 풍자하는 말을 보탬으로써 역사 이야기를 현실로 끌어들이는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이야기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현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닌 우회적인 비판이지만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과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깨우치게 하며 반성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현이 의도한 「보언」의 효과이다.

「보언」에는 임금의 실정을 간언하는 이야기가 많다. 나라의 제사를 바꾼 임금, 정벌을 좋아한 임금, 학을 좋아한 임금, 토목공사를 일삼는 임금, 충신을 죽인 임금 등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임금의 실정을 간언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라의 제사를 바꾼 임금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魯나라 隱公 8년 제후국 鄭나라 임금인 鄭伯이 그 대부 宛을 노나라에 사절로 보냈다. 노나라에서 泰山에 지내던 제사를 중지하고 周公에 대한 제

사를 지낼 것이며, 태산에 제사지내기 위해 노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祊 땅을 정나라 소유의 許田과 바꿀 것 등을 청하였다. 은공이 허락하자 이에 신하 藏哀伯이 간언을 올렸다. (중략)

이에 애백이 물러 나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보건대, 노나라 임금이나 정백은 온전한 채 죽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당대에 재앙을 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자손들이 반드시 정사를 어지럽혀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예는 나라의 수단이요, 경은 몸의 중심인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전을 더럽히고 예를 폐지하며 제사를 게을리 하고 경을 손상하고 있습니다. 예와 경을 잃게 된다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노나라 은공 11년에 은공은 祭主로 삼은 鍾巫 때문에 禍를 당하였다. 또 桓公 10년에 정백이 죽었다. 이에 여러 公子들이 서로 제후의 자리를 다투어 정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318)

장애백은 노나라 은공에게 제사를 바꾸는 것의 부당함을 간언하였으나 은공은 이미 허락하였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물리친다. 결국 은공은 이로 인해 화를 당하였고, 정나라 또한 크게 어지럽게 되었다.

장애백의 말을 살펴보면 ‘禮는 나라의 수단이요, 敬은 몸의 중심’이라고 하였다. 예를 폐지하고 경을 손상시킨다면 오래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임금 된 자가 예와 경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못한 노나라와 정나라의 역사적 기록을 들어 그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굳히고 있다.

장애백의 주장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이다. 사건의 배경은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지만 그 주장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전달된다. 그리고 배경과 사건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더욱 현실감을 갖게 한다.

318) 成倪, 『浮休子談論』, 「補言」 5-1 : 魯隱公八年, 鄭伯使其大夫宛來聘, 請釋泰山之祀, 而祀周公, 以泰山之祊, 易許田. 公許之. 藏哀伯諫曰. (중략) 哀伯出謂人曰, “以臣觀之, 君與鄭伯, 俱不得其死矣. 若免於身, 則其子孫必亂國幾亡矣. 夫禮國之興也, 敬身之哀也, 瀆典而廢禮, 慢祀而虧敬, 失禮與敬, 其何能久?” 十一年, 公有鍾巫之禍. 桓公十年, 鄭伯卒, 諸公子爭立, 鄭國大亂.

다음은 처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魏其侯가 武安侯와 서로 사이가 벌어졌다. 어떤 한 객이 간하여 말하였다.
“길거리에서 모두들 두 분께서 서로 눈알을 부라리고 불편한 기색이 있다고 말하고 있소이다. 그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략)

객이 말하였다.

“공자께서는 어찌 이렇게도 헤아리지 못하십니까? 제가 듣기로 달이 차면 기울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오는 법이라, 사물이 성하면 다시 쇠퇴하는 것은 진실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중략) 지금 술을 마시는 작은 예의 때문에 생긴 미움으로 갑자기 얼굴에 분개한 빛을 드러내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험한 일 같습니다. 두 마리 호랑이가 싸우면 그 기세가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요, 힘센 놈이 먼저 이길 것입니다. (무안후 집안인) 전씨는 힘이 막강하고 또한 도와주는 자도 많은데 공자께서 어찌 그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가 교만하면 나는 몸을 굽히고 그가 오만하면 나는 공경하는 뜻을 표하여 스스로를 굽히고 낮추며 공경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더 센 존재가 되겠습니까? 성 남쪽의 몇 마지기 땅은 구우 일모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인지라 비록 조금을 떼어서 준다한들 공자의 부귀함에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가 그르고 내가 옳다면 저절로 여론이 조성될 것입니다. (중략) 지금 공자께서는 마땅히 승상에게 가서서 사과하시고 스스로를 통렬하게 꾸짖고 책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죄를 관부에게 돌리시고, 관부와 통하지 마십시오. 그 밭을 무안후에게 바치시고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우호를 회복하십시오. 무안후가 비록 건방지다 하더라도 도리어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찌 공자를 해칠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면 공자의 집안이 쇠락하지 않고 자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 화가 헤아릴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후가 그 말을 따르지 않아 사형을 당하고 시신이 거리에 버려지는 형벌을 당하였다.³¹⁹⁾

319) 成倪, 『浮休子談論』, 「寓言」 6-16 : 魏其侯, 與武安侯有隙. 客有進諫者曰, “道路皆言, 兩侯有睚眦不平之色, 所謂不平者, 何事?” (중략) 客曰, “公子其何不量之至此? 愚聞, 月滿則虧, 暑往則寒, 物盛而衰固天理也. (중략) 今因杯酒小禮之嫌, 遽形憤排於色, 愚竊危之. 兩虎相鬪, 勢不俱生, 力強者先勝. 田氏力強而多助, 公子能與之抗衡乎? 彼驕我降, 彼慢我敬, 能降而自卑, 能敬而勿失, 孰有矛盾? 至如城南數頃田, 九牛落一毛, 雖舉而與之, 何損於富? 彼曲我直, 自有物論矣. (중략) 今公子固當往謝丞相, 痛自刻責, 歸罪灌夫, 不與之通, 贈納其田, 棄怨申好, 彼雖假健, 反懷慚視, 豈有害君之心? 如此門戶不彫, 而子孫可保, 不然, 其禍有不可測者.” 魏其不能用, 竟被棄市之刑.

위 이야기는 『史記』 「魏其武安侯列傳」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기후와 무안후, 그리고 관부의 이야기에 허구인물인 객이 간언한다. 객은 위기후에게 화가 이르기 전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준다. 무안후는 떠오르는 세력이고 위기후는 지는 세력으로 그 기세가 같지 않은데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질 것이므로 먼저 몸을 굽히고 낮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자손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위기후는 객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형벌을 당하고 만다. 상대가 교만하다고 하여 자신이 먼저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시세의 변화를 알고 후일을 도모한다면 잠깐의 몸을 굽히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리고 관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과는 교류하지 말아야 함도 이야기하고 있다. 성현은 역사적 사실에 이야기를 덧붙여 더욱 쉽게 이야기하고, 독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성현은 이야기 밖에서 기존 사실을 평가하거나 뒷날의 기록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되어 의견을 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역사는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사건 속 인물들이 그 충고와 조언을 들었더라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독자들로 하여금 주변의 조언과 충고에 귀 기울이게 하고,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보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야기는 현명한 아내의 간언이다. 임금이 사냥을 말린 왕후이야기(5권 15화), 올바른 인물을 등용하게 한 왕후 이야기(5권 16화), 아들에게 남긴 왕후의 유언(6권 9화), 그리고 바른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의 아내의 이야기(5권 8화)가 「보언」에 보인다. 다음은 5권의 15화에 나오는 초나라 장왕의 부인 樊姬의 이야기이다.

楚나라 莊王이 사냥에서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이려 하였다. 그러나 부인 樊姬가 사냥에서 잡은 짐승과 새의 고기를 먹지 않자 이에 초나라 왕이 물었다.

“과인이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즐기려 하는데 부인이 고기를 먹지 않으니 무슨 까닭이요?”

왕비가 울면서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세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울니다.”

“그 세 가지 근심이 무엇이요?”

“지금은 여름이라 만물이 성장하는데 잉태한 짐승의 배를 갈라 그 새끼를 살육하면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었으니, 이것이 저의 첫째 근심입니다. 농사일이 막 바빠지는데 김매고 밭가는 백성들에게 짐승 모는 일을 시키면서도 어려운 백성들을 구휼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저의 둘째 근심입니다. 천금같이 귀한 임금의 몸으로 옷이 찢어지고 먼지를 뒤집어쓰시면서 옥체를 돌아보심이 없으니, 이것이 저의 셋째 근심입니다. 이는 모두 나라를 위한 근심이지 저의 사사로운 근심이 아닙니다.” (중략)

“지금의 임금님께서서는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시지만, 탕 임금과 문왕을 본받지 아니하시고 태강과 같이 한 짓을 따르려 합니다. 저는 이런 까닭으로 마음이 아픉니다.”

장왕은 이에 스스로 반성하여 잘못을 책망하고 기강을 바로 잡으니 그 다스림이 中原과 나란하였다. 이 모두가 왕비 변희의 힘이였다.³²⁰⁾

사냥을 좋아하는 초나라 장왕에게 왕비 변희가 그 잘못을 간언하는 이야기이다. 변희는 왕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간언하지 않는다. 사냥의 폐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것이 자신의 사사로운 근심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근심이라고 하며 부드럽게 왕의 마음을 깨우친다. 중략한 부분에서는 왕이 자신을 변론하며 사냥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대지만 왕비 또한 옛 사람들의 大田의 禮를 밝히고, 탕왕과 문왕, 태강과 걸의 예를 들어 나라의 흥망을 이야기한다. 어질고 현명한 왕비의 간언으로 결국

320) 成俔, 『浮休子談論』, 「寓言」 5-15 : 楚莊王獵還將大饗, 樊姬不食鳥獸之肉. 王問曰, “寡人與群臣同樂, 夫人之不食, 何故?” 姬泣而對曰, “妾有三憂, 是以泣也.” 王曰, “何謂三憂?” 姬曰, “當今夏月, 萬物長成, 而剝胎殺夭, 曾無慈惻, 是妾一憂. 農務方興, 而使荷鋤之民, 使之驅獸, 曾不收恤, 是妾二憂. 以千金之軀, 仰穿蒙翳, 曾不顧慮, 是妾三憂. 是皆爲國憂, 而非私憂也.” (중략) “今王求禡於天下, 而不法湯文, 欲踵太康桀之所爲, 此妾所以傷也.” 莊王於是反躬自責改紀, 其政抗衡中國, 皆樊夫人之力也.

초 장왕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성현은 현명한 간언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현은 홍귀달, 權健 등과 함께 옛 군신과 后妃의 행적 중에 본받거나 경계로 삼을 만한 것을 모아 『歷代明鑑』을 편찬하였는데, 『부휴자담론』 「보언」에도 이와 같은 정치적 귀감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왕비 된 자의 간언과 신하 된 자의 간언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간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간언자의 의견에 수긍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역사를 되짚어봄으로써 현실을 반성하고 돌아보게 만든다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VI. 文學史的 地平과 位相

1. 復古를 통한 새로움 追求

성현의 문학에 나타나는 ‘古’의 추구는 ‘기의 강조’에서부터 시작된다. 성현이 태초에 충만한 기운인 원기와 작가에게 나타나는 개성과 다양성을 중요시 하였음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그 중 시대의 ‘기’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옛날로 돌아가 옛 시기의 문화를 재현할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이 ‘고’의 추구로 나타난 것이다.

성현은 『풍아록』을 지으면서 중국의 고시들이 추구했던 방식을 추구하였다. 고시만이 갖는 풍격과 의취를 드러내는 방식을 추구하고 그들의 방식을 따르고자 자신도 고시를 지었다. 그리고 고시 중에서도 위진남북조의 의고악부시를 모범적인 시로 보았는데 성현은 그 방법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자신도 의고악부시를 지었다. 성현은 의고악부시 자체를 추구하였다기 보다, 의고악부시가 갖는 의고성, 즉 자신의 시대를 곧바로 읊기보다 옛 이야기를 통하여 현실을 드러내는 방법 자체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소재와 내용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가 아닌 옛 시대의 소재와 내용을 읊으면서 우의적 주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古’의 추구는 『부휴자담론』에서도 볼 수 있다. 시대적으로 옛날로 돌아가 그 시기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그것을 통해 현실을 돌아보는 방법이다.

성현이 추구한 ‘古’는 옛것의 부활이 아니다. 고전을 추구하고 고전 그대로 따를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모의를 통하여 옛것을 학습하고 익힌 뒤 현실에 맞게 수용하고 발

전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이루게 된다. ‘고’로부터 멀어져 손상된 것을 회복하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이 성현이 추구하는 ‘복고’이다.

성현은 그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통찰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흐름을 이끌어가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다. 당대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를 추구하였고, 그 결과 사회와 문학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였다는 데에 성현 문학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博學을 통한 多樣한 글쓰기

성현은 정통 산문과 시는 물론이고, 『풍아록』, 『용재총화』, 『부휴자담론』 등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시도하였다. 폭 넓은 독서와 풍부한 교양, 그리고 문학적 재능이 있었기에 이렇게 다양한 글쓰기가 가능하였다.

성현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감추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학식을 한껏 자랑하고 드러내었다. 성현은 율시에만 경도되어 있는 시단을 비판하며 모범이 될 만한 시를 고르고 책을 편찬하며 책명에 규범·본보기를 뜻하는 ‘範’을 붙여 『풍소궤범』이라고 하였다. 성현이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지엽적인 율시만 아는 당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은 원기가 온전한 근본이 되는 고시를 잘 알고 있으며, 뛰어난 작품들을 감별할 있는 감식안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모범’이 되는 『풍소궤범』을 편찬하여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한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의고시를 모아 편찬하는 책명에 『시경』의 風과 雅를 본뜬 점도 자신의 시작능력과 재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현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은 명문의식에서 비롯된 자신감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주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의고악부집인 『풍아록』의 저술은 당대의 시단에 새로운 시풍을 제안하고자 한 실험적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성현은 당시의 폐단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시와 의고악부라는 새로운 갈래를 제시하여 시풍이 진작되고 시도가 크게 이루어지길 바란 것이다. 성현의 이와 같은 시도로 조선 전기 악부시에 대한 관심과 작품 창작이 꾸준히 계승되고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이후의 문인들에게 이어지고 축적·확산되면서 결국 조선 후기 악부시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성현의 박학과 교양은 필기집인 『용재총화』 저술에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필기류 저술은 이미 고려말 이제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선초에 크게 유행하였다. 성임의 『태평광기상절』의 간행, 『태평통재』 편찬,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 등 성현에게 문학적 영향을 끼친 문인들에게서 특히 필기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 이들은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들이었고, 성현 또한 이들의 영향을 받아 『용재총화』를 저술하였다. 성현은 용재총화를 저술하면서 당대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야외의 일사, 권계, 파한의 자료 등을 모두 기록하고자 하여 사대부, 민간의 이야기, 풍속과 제도, 지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양을 담아내었다. 이러한 점에서 성현의 『용재총화』는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이나 『필원잡기』와는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현은 또한 임금이 혹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은거하거나 도피하지 않고,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 『부휴자담론』을 지었다. 정국이 어지럽고 직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을 위협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야말로 적극적인 의사 전달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부휴자담론』에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첫째는 장르적 측면에서 우언을 사용한 점, 둘째는 우언의 방식을 한가지가 아닌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한 점, 셋째는 각 말하기 방법에 따라 내용과 배경, 구성을 달리 한 점이 그것이다. 이에 성현의 『부휴자담론』은 삼국시대 이래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우언 전통을 이으면서, ‘한국 우언의 전형’³²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성현이 보여준 글쓰기 방법의 다양한 시도는 당대의 문학의 영역을 넓히고 이후의 문학에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寓意的 말하기와 現實 反映의 限界

문학이 갖는 큰 가치 중 하나는 타인의 삶을 통해 그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내기도 한다. 성현은 『부휴자담론』에서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부휴자, 가상인물, 역사적 인물들의 입을 빌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었다. 그런데 왜 성현은 세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이야기하였을까?

먼저 「아언」에서는 성현이 부휴자를 통하여 자신의 경세관을 밝혔다. 「아언」의 글쓰기 방식은 자신을 대변하는 부휴자가 이야기 하는 방식이다. 곧 성현과 독자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과 독자 사이에 부휴자라는 단계를 한번 더 거치게 된다. 독자들은 부휴자가 성현임을 알고 있지만,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읽는 내용을 부휴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된

321) 이종묵, 「부휴자담론과 우언의 양식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pp.201-202.

다. 때문에 당대에 직접 하기 조금 위험한 발언이라 할지라도 이는 부휴자의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그 수위가 조절 될 수 있는 것이다.

「우언」의 말하기 방식도 우의를 지니고 있기에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를 보인다. 「우언」은 가상의 인물과 배경을 설정하여 이야기하였다. 「아언」에서는 부휴자가 전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우언」에서는 설정된 상황과 배경이 등장하게 된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관직에 대한 이야기, 임금의 실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들었는데 그 상황이나 배경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조정이나 궁이 아니며, 대화 내용도 심각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시기나 지리적 배경은 구체적이지 않은 가상의 배경이고 등장 인물은 일반 백성 혹은 지나가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가벼운 대화 속에는 만만치 않은 뜻이 들어있다. 성현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세계와 가치관을 평범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인물들의 입을 빌어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이지 않은 이상세계인 만큼 적당히 예둘러 표현하는 데에는 「우언」의 말하기 방식이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었다.

「보언」의 말하기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이다. 「보언」에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한다. 사실의 기록은 아니지만 있었던 일에 가상으로 조금 보태어 성현의 의견을 드러내었다. 구체적인 사건이 있고, 역사적 기록이 있기에 「아언」, 「우언」에 비해 현실감이 더욱 더해진다. 「아언」이나 「우언」을 읽으면서 조금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보언」에서는 아주 절실하게 와 닿을 수 있기에 성현은 당대 현실을 감계하는 데에 「보언」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아언」, 「우언」에 비해 예둘러 표현하는 방법의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구체적이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은 표현은 독자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읽혀져 좀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보언」의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직설적이지만

적용시킬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이다.

성현은 자신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담감 때문에 우의를 선택하였고 그 점을 잘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었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 하는 것보다 더욱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예들려 표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언이다.

그렇다면 성현은 왜 우언을 사용하여 이야기 한 것일까? 『용재총화』에서도 보았듯, 성현은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지만 그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우언을 활용한 『부휴자담론』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奏疏나 論 등의 정통 산문 문장의 활용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우의를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성현은 어느 하나로 결정지어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넓은 학식과 풍부한 교양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갈래를 제시하면서 풍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 結 論

이상으로 성현 문학의 배경과 문학의 특징, 주제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전까지의 고정되고 편향된 시각으로 평가되었던 성현의 문학이 유동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선행연구로 성현의 문학이 주목을 받은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15세기의 문학을 관각, 사림, 방외인 문학으로 크게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각 문인들의 특징과 위치가 자세하고 세밀하게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하여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성현의 문학적 배경과 문예관을 살펴보았다. 성종조는 조선 초부터 이어져온 문예진흥 정책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대간의 기능을 강화하며 성리학을 장려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성현은 문학으로 이름이 났던 두형인 성입과 성간에게 수학하였고, 서거정, 김수온, 이승소, 강희맹 등과 교유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출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성현의 문학은 그야말로 당대의 문학을 대표할 만큼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현의 문예관은 문예적 입장에서 도와 문을 함께 중시한 것과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원기를 강조한 점을 살펴보았다. 성현은 문예적 입장에서 도와 문의 관계를 인식하였다. ‘도는 근본이고, 문은 지엽적인 것’이라는 제도론의 큰 틀은 인정하였지만, 그 틀 안에서도 문학의 순가치를 중시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문장의 독립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경술과 문장의 관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元氣를 강조하면서 타고난 재주와 기질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성현이 훈구관각파를 옹호하는 문학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성현의 논의에는 사림과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도 살펴봄으로

써 성현이 사상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예관을 바탕으로 의고악부, 필기, 우언 등 다양한 문체의 작품이 나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III장에서는 『풍아록』, IV장에서는 『용재총화』, V장에서는 『부휴자담론』을 살펴보았다.

성현은 當時의 화려한 수식과 정밀한 단련에 치중하는 율시 창작을 비판하였다. 형식상 자유로우면서도 내용상으로 지극한 맛이 있으며 격조와 기세를 강조한 고시와 악부시의 창작을 옹호하여 『풍소궤범』과 『풍아록』을 짓고 고시의 모범을 보이려고 하였다. 세속적이고 보편적인 제재들을 사용하며 세속 내의 인정세태를 적극 묘사하는 의고악부를 선택함으로써 성현 시대의 현실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민간 생활상을 반영, 민중의 사상과 감정을 표출하였다.

당대의 생활과 사상을 보여주는 기록으로는 『용재총화』도 빼놓을 수 없다. ‘叢話’라는 제목답게 사대부의 일상부터 백성들의 생활상은 물론, 문화, 풍속, 지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성현의 다양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민정의 모습을 기록한 부분에서는 사회 문제를 열린 시선으로 보여주며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성현의 태도를 볼 수 있었으며, 당대의 사회·문화·제도에 걸친 다양한 기록에서는 당대에 대하여 자궁심을 느끼는 성현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언」, 「우언」, 「보언」의 세가지 편목으로 구성하여 성현의 정치관을 밝힌 『부휴자담론』을 살펴보았다. 「아언」에서는 ‘부휴자’의 발언을 성현의 經世的 觀點을 밝혔으며, 「우언」에서는 가상의 사건과 인물을 통해 우의적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이상적인 세상을 그려 내었다. 「보언」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현실을 돌아보게 하였으며 간언의 모범을 보이려고 하였다.

성현은 『풍아록』과 『부휴자담론』에서 ‘古’를 추구하였다. 『풍아록』을

지으면서 중국의 고시들이 추구했던 방식을 추구하였는데, 자신의 시대를 곧바로 읊기보다 옛 이야기를 통하여 현실을 드러내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고시가 가지고 있는 기세와 격조를 추구하고 의고를 통해 소재와 내용이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고’를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고 범위와 경계를 넓히게 되었다. 그리고 『부휴자담론』에서는 옛이야기를 통하여 현실을 돌아보고 경계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들춰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성현은 자신의 박학과 재능을 감추지 않고 당대 문학계에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에 당시로서는 주류의 문학이 아닌 고시, 필기, 우언 등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시도하면서 당대 문학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성현은 다양한 관심과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용재총화』에 당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의를 사용하여 말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부휴자담론』에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는 점, 『풍아록』에서 옛것을 본떠 현재를 이야기하는 점 등은 새로운 말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언의 방법을 이용하여 말하는 것은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이 곧 우의적 말하기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성현과 성현 문학에 관한 평가를 재고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성현에 대한 평가는 성현이 당대 훈구관각 문인의 적통을 이었으며 명문거족 출신의 관료로서의 입장을 옹호하는 문학론을 펼쳤다는 것이었다. 서거정을 계승하면서 김종직으로 대표되는 신진사림 세력에 대항하는 인물로 보아온 것이 대부분의 평가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성현의 문학사적 위치를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성현이 수성기의 훈구관각문인들처럼 왕권강화와 질서유지를 강조하였지만, 성현 나름의 변화를 시도하며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경계하였다. 김종직의 고주교슬의 편향적 시각을 비판하며 신진세력에 대항하였지만, 반드시 이들에 맞서기 위한 문학을 펼친 것은 아니다. 성현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관리·학자로서의 임무(간언)를 다하면서 새로운 문학론을 펼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한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관각문인의 위치에서 보수적 이념을 가진 것은 맞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객관적, 중립적 입장을 가졌던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성현이 추구하는 세계는 원융한 세계, 혹은 갈등이 없는 조화로운 세계이다. 현실을 드러내고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수용하며 조화를 추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가 그가 추구하는 세계이다. 신하이자 간관으로서 간언이 받아들여지며 그로인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백성이 평화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이 그가 느낀 시대적 사명이자 신하로서의 책임감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고자 하였다는 점을 성현 문학의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 文獻

1. 基本資料

- 成倪, 김남이·전지원 외 역, 『慵齋叢話』, 휴머니스트, 2015.
- 成倪, 『浮休子談論』, 규장각소장본(목판본).
- 成倪, 이종목 역, 『浮休子談論』, 홍익출판사, 2002.
- 成倪, 『(국역)樂學軌範』 1~2, 고전국역총서, 한국고전번역원, 1967.
- 成倪, 『虛白堂集』, 『韓國文集叢刊』 14, 한국고전번역원.
- 成倪, 임정기 역, 『(국역)虛白堂集』 1~3, 한국고전번역원, 2008~2012.
- 成倪, 조순희 역, 『(국역)虛白堂集』 4, 한국고전번역원, 2012.
- 成倪, 김중태 역, 『(국역)虛白堂集』 5, 한국고전번역원, 2015.
- 金守濫, 『拭疣集補遺』, 『韓國文集叢刊』 9, 한국고전번역원.
- 李承召, 『三灘集』, 『韓國文集叢刊』 11, 한국고전번역원.
- 徐居正, 『四佳集』, 『韓國文集叢刊』 10~11, 한국고전번역원.
- 鄭道傳, 『三峯集』, 『韓國文集叢刊』 5, 한국고전번역원.
- 金宗直, 『佔畢齋文集』, 『韓國文集叢刊』 9, 한국고전번역원.
-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韓國文集叢刊』 2, 한국고전번역원.
- 林椿, 『西河先生集』, 『韓國文集叢刊』 1, 한국고전번역원.
- 崔滋, 『補閑集』, 『韓國文集叢刊』 9, 한국고전번역원.
- 金萬重, 『西浦集·西浦漫筆』, 통문관, 1971.
- 許筠, 『(국역)惺所覆瓿稿』 1~5, 한국고전번역원, 1989.
- 李陸, 『靑坡集』(고려대도서관 소장본), 1512.
- 成倪, 『眞逸遺稿』, 『韓國文集叢刊』 12, 한국고전번역원.
- 表沿沫, 『藍溪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15, 한국고전번역원.

一然, 『三國遺事』, 민족문화추진회, 1973.

『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論語』

『莊子』

曹丕, 『典論·論文』

郭茂倩, 『樂府詩集』 1~4, 中華書局, 1996.

2. 著書類

가와이 코오조오 지음·심경호 옮김,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고운기 외 16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4, 휴머니스트, 2006.

권연웅, 「조선 성종조의 경연」, 『한국문화의 제문제』, 국제문화재단 시사영어사, 1981.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세계관과 문학관」, 『우리 한문학사의 새로운 조명』, 집문당, 1999.

김범, 『사화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7.

김범, 『연산군』, 글항아리, 2010.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김풍기, 『조선전기 문학론 연구』, 태학사, 1996.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2000.

심경호, 『시와 정치의 교과서-시경,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3권, 휴머니스트, 2006.

양승민, 『우언의 서사문법과 담론양상』, 학고방, 2008.

왕사오농 지음, 김형호 옮김, 『장자, 우화를 말하다』, 에버리치홀딩스,

2007.

- 이범직, 『조선시대 예학연구』, 국학자료원, 2004.
- 이병수 외, 『한문학사』, 새문사, 2003.
- 이중텐 지음·심규호 역, 『이중텐 제국을 말하다』, 에버리치홀딩스, 2008.
- 이한우, 『성종, 조선의 태평을 누리다』, 해냄, 2006.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3 지식산업사, 2004.
- 조수학, 『한국의 托傳과 假傳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7.
- 주훈초 외 지음·중국학연구회 고대문학분과 역, 『중국문학비평사』, 이론과 실천, 1994.
- 지두환, 『성종대왕과 친인척』 1~5, 역사문화, 2007.
- 홍순석, 『성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2.

3. 論文

- 권석환, 「한중 우언의 동질성에 관한 연구-《애자잡설》, 《옥리자》, 《부휴자담론》을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29, 한국중어중문학회, 2001.
- 김남이, 「집현전 학사의 문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성규, 「15세기 후반 사대부 문학의 몇 가지 경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준형, 「조선조 폐설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김태안, 「허백당 성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김태안, 「《용재총화》 연구-골계류 산문을 중심으로」, 『안동대학논문집』 6집, 안동대학교, 1984.

- 류정월, 「《용재총화》에 나타난 욕망관에 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1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문다리, 「《용재총화》 소재 소화의 주제 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문승용, 「이규보 의기론의 조비 문기론 수용 양상 고찰」, 『중국학연구』 41, 중국학연구회, 2007.
- 박혜숙, 「형성기의 악부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신상구, 「허백당 성현의 《풍아록》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신상필, 「필기의 서사화 양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신용호, 「李奎報의 意·氣論」, 『한문학논집』 제3집, 단국대학교 한문학회, 1986.
- 심호택, 「한문학론에서의 기의 개념」, 『한문학논집』 제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81.
- 안병렬, 「조선전기 전 작품 연구」, 『한문학논집』 12, 근역한문학회, 1994.
- 안병학, 「성리학적 사유와 시론의 전개 양상」, 『민족문화연구』 제32호, 1999.
- 양세욱·전유용, 「아언은 춘추전국시대 공용어인가?」, 『중국어문학논집』 48,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 오춘택, 「허백당성현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 유호진, 「15세기 시단의 동향과 성간의 고시 창작」, 『고전문학연구』 제3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 유홍준, 「허백당 성현의 미술사적 증언과 화론」, 『미술사학보』 19집, 미

- 술사학연구, 2003.
- 윤승준, 「《부휴자담론》을 통해 본 성현의 군신론」, 『동아시아고대학』 제17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8.
- 이강욱, 「《용재총화》의 장르 구성과 서술 구조에 관한 연구」, 『구비문학연구』 9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 이대형, 「성현 기문의 관료문인적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29, 동양한문학회, 2009.
- 이래종, 「용재 성현의 문학론」, 『한문학논집』 제5집, 단국한문학회, 1987.
- 이래종, 「성현의 시론과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래종, 「선초 필기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이문세, 「《용재총화》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종묵, 「《부휴자담론》과 우언의 양식적 특성」, 『고전문학연구』 제5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 이종묵, 「성현 의고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종묵, 「조선전기 관각문학의 성격과 문예미」, 『국문학연구』 제8호, 국문학회, 2002.
- 이향배, 「보한집에 보인 최자의 주기론」, 『어문학』 72집, 한국어문학회, 2001.
- 이홍주, 「허백당 성현의 문학연구-《용재총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임명걸, 「《용재총화》 소개 소화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1.
- 임완혁, 「조선전기 필기 소개 일화의 유형」, 『한문교육연구』 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4.

- 임형택, 「이조전기의 사대부문학」,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 장덕순, 「이조 초기의 설화연구-호색설화를 중심으로」, 『동아문학』 8호, 1968.
- 장유승, 「17세기 고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장주옥, 「《용재총화》의 문학적 고찰」, 『돈암어문학』 8집, 돈암어문학회, 1996.
- 장진숙, 「《부휴자담론》에 나타난 성현의 정치적 지향과 우언의 화법」, 『어문연구』 제35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 정연봉, 「한국 한문 우언론-우언의 원류와 양식적 특성에 관한 일 고찰」, 『우리어문연구』 22, 우리어문학회, 2004.
- 조영호, 「15세기 관료문인의 한시연구-김수온, 서거정, 이승소, 강희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주재우, 「고전표현론의 관점에서 본 우언문학교육-성현의 《부휴자담론》 우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교육』 1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 최혜미, 「허백당 성현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홍순석, 「허백당 성현의 문학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홍우의, 「한국문기론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황위주, 「조선전기 악부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황태면, 「《용재총화》의 분석적 고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ture of 'Heobakdang Seong Hyeon'

Hwang, Ah Young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Heobakdang Seong Hyeon was a person in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from Sejong 21 year (1439) to Yeonsangun 10 year (1504). Seong-Hyeon had wrote diverse and voluminous works - 『Heobakdangsijip(虛白堂詩集)』 · 『Heobakdangbojip(虛白堂補集)』 · 『Heobakdangmunjip(虛白堂文集)』 · 『Yongjaechonghwa(慵齋叢話)』 · 『Pungarok(風雅錄)』 · 『Juuijaeseol(奏議稗說)』 · 『Geunmnanghaengjeok(錦囊行跡)』 · 『Buhyujadamron(浮休子談論)』 · 『Sangyubiram(桑榆備覽)』 · 『Ackhakkwehbum(樂學軌範)』 · 『Pungsogwaebeom(風騷軌範)』 and so on. Then he had a principal position in the literary history. The middle and late of the 15th century in Joseon dynasty was a period prolific in great Chinese literature such as Seo Geojeong and Kim Jongjik and so on. Seong Hyeon was also as one of the favorites who represented that period of the literature. Therefore,

much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career and background from old times.

Previous researches had generally classified a Chinese literature in the Joseon dynasty into a bureaucracy literature, Confucian literature and outsider literature. In this context, Seong Heyon had been consider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bureaucracy literature along with Seo Geojeong. Moreover, Seong Heyon had been researched that his literature mostly was a model of the government officials of literatures. However, those above mentioned assessments and division methods have been inclined to evaluate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each literary person to be simplified and minimize literature-diversity. Therefore, as a result, this research re-looks and evaluates Seong Hyeon's career and his literatures with presenting a variety of perspectives.

Seong Hyeon was influenced by literary titling from government literary officials as well as by literary policies during the reign of King - Seongjong. The Seongjong had emphasized king-oriented orders and executed literature promotion policies, and he had also focused on organization of the art and music. With above-mentioned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Seong Heyon's literature values had been impacted by his family backgrounds. He had been studied by his two brothers since lost his father as a child. Seong Heyon's two brothers, Seong Im and Seong Gan, had comprehensive and thorough scholarship as well as superb writing ability. One of his brothers, Seong Gan, especially had diverse and unique literary features out of the mainstream at that time. And also, Seo Geojeong, Lee Seungso, Kang Huimaeng, and Kim Suon who had

associated with Seong Hyeon had affected Seong Hyeon's literature life and style. As a result, Seong Hyeon finally had achieved his own unique world of literature. In other words, with regarding for orders, allowing the contemporary literature mainstreams, and with being diversely individual and unusual, he had shown works such as an archaism ballad book 『Pungarok』, a collection of essays 『Yongjaechonghwa』 and an allegory book 『Buhujadamron』.

Seong Hyeon had composed ancient poems and archaism ballad books, which criticized the typical formula and trained poetical styles, but accentuated the dignity and the sentence-spirit. He had published the 『Pungsogwebeom』 which complicated exemplary ancient poems. And also, he wrote a archaism ballad book 『Pungarok』 set a kind of good examples personally. Therefore, Seong Hyeon had assigned his significant and experimental attempts into the 『Pungarok』 to allow diversity of views and opinions against the contemporary style of poetry.

And also, Seong Hyeon had written a book 『Yongjaechonghwa』. He had expressed his thought in writing: continued the tradition of essay classics, articulated gentry society whereas civil society conditions, and self-esteem of at that time of days. Seong Hyeon had proudly intended to show contemporary looks through full of common sense with broad visions, which is, as of now, very helpful to understand culture, policy and the others in the time when Seong Hyeon lived.

Finally, Seong Hyeon had shown new types of writings on metaphorical contexts into an allegorical book 『Buhujadamron』. And, three types of speaking from the 『Aeon』, 『Ueon』 and 『Boeon』 had been in the

circumlocution methodology. Seong Hyeon had presented his thoughts of governing, tried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 world, and took warning against current actualities by allegorical indirections.

Until now, above mentioned books have been revealed and analyzed main characteristics from each other. And then, three types of prospect and status have been scoped on from the Seong Hyeon's literatures. At first, the meaning of the 'Go(古)' shown in 『Pungarok』 and 『Buhyujadamron』. The 'Restoration' defined from the Seong Hyeon does not just to mean of a re-enactment of the old days, but it means of re-generation of the classics being model examples for all of the people and for a long time. For these reasons, Seong Hyeon is to be granted values for overcoming contemporary society issues as well as enlarging width of the contemporary culture. And, Seong Hyeon had extended literary subjects and contents using various styles of writing with emphasizing literary uniqueness and diversity. 『Yongjaechonghwa』, derived from the Seong Hyeon's great learning and refinement, especially had contributed to extend the scope of the contemporary literature thereby accommodating and discovering situation at that time. Lastly, there is a meaning and limitation of the allegoricalness in Seong Hyeon's literatures. In fact, Seong Hyeon had retired into his shell and or exposed it. However, this methodology had resulted in a constraint not to have straight-forward eyes without realistic.

In conclusion,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eong Hyeon's literature and his literary position from his literary works and characteristics. Even Seong Hyeon had an ideology of conservatism as a government literary

officials, he had correctly perceived the change in reality so that he had made an effort on a duty of the official and scholar. With re-looking and evaluating his career and his literatures, it is worth seeing a fact through to the conclusion: Seong Hyeon had tried to make new types of literature with respecting personality and diversity. And then, Seong Hyeon was a transitional person who had endeavored steps to create a ideal society from his perspectives. Through these perceptions, Seong Hyeon and his literature have a significant meaningfulness of reflecting of his age, leading the desirable society, and contributing to broaden the contemporary literature scope.